

1970년 2월 25일 인쇄
1970년 2월 28일 발행

공공

< 제114·115호 >

教育係

1970

제
공

970



임 국방부장관 초도순시

임충식 국방부장관이 1월 12일 공군본부를 초도순시하고, 가인충 전투태세 완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년 시무식

김성룡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참모와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1월 5일 신년 시무식을 갖고 전투태세완비의 결의를 굳히게 하였다.



전부대 지휘관 회의

1월 19일 김성룡 총장 주재하에 전부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광범한 토의를 가졌다.



김 참모차장 귀국

김두만 공군참모차장이 2주일간의 방미예정술 무사히 마치고 2월 13일 귀국했다.

<권두언>..... 김 신 찬 (2)

특집: 70년대의 전망

우리의 자세..... 마 옥 (4)

우리 공군과 그 진로..... 장 성 태 (22)

아시아의 자주적 안보책..... 정 윤 종 (30)

아시아정세와 한국의 안전보..... 주 영 판 (41)

미·소·중공의 핵무기 개.....

경쟁과 새로운 국방..... 조 성 길 (52)

군정신교육의 방향..... 유 은 상 (71)

급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허 동 명 (77)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7장..... 김 종 문 (92)

중공의 침략적 군사정책..... 김 인 우역 (101)

비극 속에 허덕이는 공산주의 사회..... 안 빈 (108)

역사적으로 본 현대국지전쟁 분석..... 이 규 홍 (122)

소련의 압투장..... 박 문 송 (136)

시) 무릇 사람들이 남긴..... 박 인 수 (304)

국민사상의 바탕..... 서 성 (146)

의사결정과 그 「모델」의 활용..... 손 용 기 (160)

중공의 과학기술 수준과

핵병기개발 과정 분석..... 이 춘 섭 (175)

베일을 벗은 록키트 YF-12A/SR-71..... 이 중 덕 (191)

리이더의 인격적 소양..... 이 영 멸 (198)

상하 인간관계와 자기 진작..... 오 현 철 (205)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술..... 조 영 석 (222)

군종특집/우주시대의 종교생활

우주시대의 종말론..... 이 재 덕 (240)

현대 기술과학시대의 신학..... 김 득 중 (246)

과학과 종교..... 이 회 명 (252)

현대 심리전..... 정 성 환 (258)

군종코너

우물가의 대화..... 정 활 진 (277)

이 마음을 풀어라..... 최 원 진 (278)

삶의 모델..... 김 상 학 (281)



미 공군 생활훈련 종군기..... 김 영 울 (215)

항공 교통관제의 자동화..... 윤 승 하 (284)

기능 「올림픽」과 군 기능향상책..... 이 동 수 (297)

<반공수기> 암흑을 뚫고④..... 이 상 욱 (305)

R형에게!..... 김 병 로 (322)

국민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포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미 공수사령관 내방

미 공수사령관 잭 J. 캐튼 대장이 신임 인사차 2월 9일 공군본부로 김성룡 총장을 예방하였다.



매기 중장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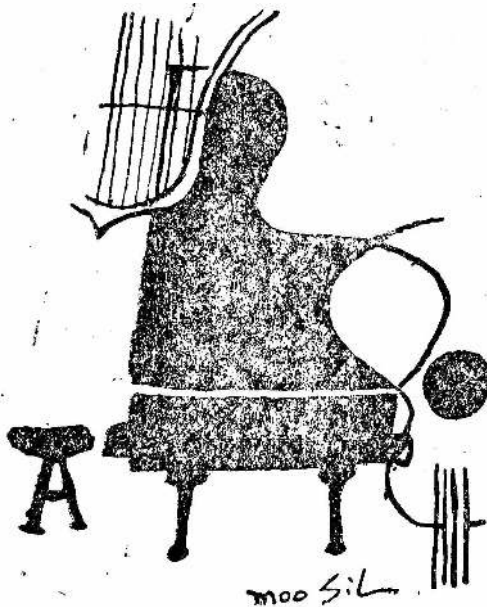
전 5공군사령관 토마스 K. 매기 중장이 이임인사차 2월 9일 공군본부로 김성룡 총장을 예방하였다.

공군

<비매품: 무단 전재금>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김복구
편집실: TEL 206-3251, 69-3511

<제 114·115호 합병호
1970년 제1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새 로 운 결 의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60년대를 보내고, 대망의 70년대를 맞이했다.

자고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때문에 10년마다 바뀌는 한 연대는 연례적으로 맞는 송구 영신과는 달리, 보다 엄숙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는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룩될 경이적인 발전을 상상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벅차고도 희망에 넘친 자오가 용솨음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둘이켜, 지난 60년대는 인류역사상 리고의 연대였다.

인류는 마야흐로 태고적부터의 신비였던 달을 정복함으로써 인간문명의 극치를 이루었으며, 이 밖에도 각 분야에 걸쳐 세계 문화에 빛나는 업적이 수없이 이룩되어 인류발전의 무한대함을 실증해 주었다.

또한 60년대의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도약을 위한 영광스러운 진통기였으니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후진의 자리에서 선진 속의 한국을 목표로 안간힘을 다해 온 것이다.



생각해 보면 오늘의 찬란한 업적은 『땀과 노력』없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실로 모든 발전에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땀과 노력의 대가로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장래를 설계해야 하겠다.

앞으로 10년 후 또다시 새 연대를 맞는 그날 지나간 70년대를 회심의 미소로 돌아다보면서 『땀과 노력』으로 점철되어온 자랑스러운 나, 그리고 공군,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상기해 보자!

그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은 바 임무수행과 책임완수에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제시해 준다.

『영공수호에 이상없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한 『모토』이며, 지상의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천통같은 입전태세 완비! 그것은 『땀과 노력』이 수반되는 충성스런 전 공군 요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훈련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전위 펜텀 공군』으로서의 사명을 구현하는 필요 불가결의 전제 조건은 실로 『땀과 노력』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특)

(집)

1970년대의 전망



1970년대를 맞는

우 리 의 자 세

마 옥

<전우신문 편집부장>

『돌이켜 보면 1950년대는 우리에게 견잡을 수 없었던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으며, 1960년대는 겨우 그 혼란과 불안을 일소하여 안정을 되찾은 시대이며, 이제 앞으로 맞이 할 1970년대는 겨우 되찾은 그 안정을 항구화시켜야 할 사명의 시대라고 나는 내다봅니다.

이 70년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여 보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고히 우리에게 토착화 할 것이며, 또 우리의 경제는 보다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안정은 영구적인 안정으로 고착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 할진대 우리는 다시 1950년대의 혼란과 불안의 원점으로 되돌아 가고야 말게 될 것임을 나는 단언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이 나라의 70년대를 위해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결심이라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성명 한 귀절이다.

이제 우리는 그 성명대로 혼란과 불안을 씻고 안정된 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 이 나라의 번영을 항구화할 사명을 지니고 7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그럼 이제 여기 영광된 새 해 70년대를 맞이 할 오늘의 우리 자세는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닦아놓은 60년대의 기반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건설과 국방면에서 더듬어 보기로 하자.

자주국방만이 승리의 길

북괴는 「적화통일」을 호언

북괴는 언제나 입으로 『남북협상』이니 『남북교류』 운운하며,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70년대의 『무력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잔인 무도한 북괴는 6.25 남침이 실패로 돌아가자 잠시 숨을 돌릴 기회가 될 요하게 되어 마침내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꺾인 남침의 흥세를 어느 때 가는 기어히 성취하겠다는 허황된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온 북한 주민을 무장화하고, 북한 전역을 요새화했다는 것으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다 또한 그들은 소위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망상이 무너짐으로써 지난 해부터는 간접침략에서 직접침략으로 그 방법을 바꾸어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들은 그 방법을 바꾸어 동시다발 형식으로 동·서·남해에서 침입하려다 우리 공군과 해군에게 번번히 섬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괴는 작년의 1.21사태를 계기로 빈번히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려 했으나 우리 육·해·공군 장병들의 철통같은 경비와 작년 3월 1일 조지벌 예비군의 활약과 온 국민의 투철한 반공정신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내일의 번영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자는 이른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역사적인 과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역적인 자기 방위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는데 힘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피되는 이미 수 년전부터 경제건설을 뒤로 미루고 전쟁준비에 전념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볼이 없이 북한 동태를 다시 무력 침략을 위한 전투원으로 강제 동원해서 군사훈련에 광분해 왔고 전 북한 전지를 병형화하고 병기 공장화해서 대남 적화를 위한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괴가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하면서 「게릴라」전을 망상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즉 내 땅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하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주체성 확립

내 땅은 내 힘으로 지켜야

내 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이른바 자주국방에는 확고한 주체성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너무나 우방과의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 의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제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식이 강렬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내 나라의 방위는 남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문다면 그것은 우선 주체성을 잃고 영영 자립의 능력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둘로 크게 나뉘어져 양대 진영간

의 끊임없는 냉전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념 대결과 분쟁 속에 모든 나라는 거의 다 그 나라의 안전보장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안전보장문제를 만들어 공동의 적에게 공동으로 방위하는 집단 안전보장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각국에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6·25 때 우리 국군 장병의 과감한 반격과 인내 그리고 통일이라는 염원이 없었더라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16개국의 참전이 없었음은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염원이 그들에게 인지(認知)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돕지 않았을 것이 뻔합니다.

내 나라의 국방을 우방 국가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주객(主客)이 전도될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 우리는 내 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노력이 1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하여,

『도둑이 들어 오지 못 하도록 울타리를 튼튼히 해 놓고 그 안에서 비록 소 건설이나 생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둑을 누가 막느냐? 두 말할 것도 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도둑의 힘이 너무 강대할 때는 남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국방의 기본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타고 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자유우방과 최대의 선까지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우방과의 유대 강화에 앞서 정치·경제·외교면 등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자체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철한 자주국방 이념과 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

늘날 우리들의 공동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침략자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응징하여 이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70년대에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70년대의 우리에게 60년대에 닦아 놓은 반석같은 기반 위에서 그것을 더욱 견고화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과 국방은 병행

인내와 자중에도 한계

정부는 일찍 우리의 통일 방안을 온 세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의 결의에 의거한 남북의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공산당들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경계를 하고 휴전선을 방어하면서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오면 염원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조국 근대화하여 선진국 대열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통일의 기본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 도당들은 최근에 와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아 가다가는 도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적화통일」이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0년대 말기의 무장공비의 투입인 것입니다.

후방 경제를 교란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려던 그들의 어리석은 수법은 그럴 때마다 번번히 피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5.16혁명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방위력이 나날이 증강되어 가고, 국제적인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가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지난 10년 동안 전쟁준비에 광분하느라고 경제건설을 제쳐 놓았던 탓입니다.

경제적 밑바탕이 없는 국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괴는 온 주민을 도탄에 몰아 넣으면서까지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자수한 간첩이나 무장공비들의 진술에 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선 북괴의 침략을 경계하고 휴전선을 방어하면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로 후진성을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국 근대화물 이룩해서 실력을 배양해 가지고 기회가 오면 「유엔」의 결의에 의거한 자유선거에 임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70년에 할 우리들의 과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원하거나 도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와 참상을 원하는 자유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 다시 받았을 때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름진 땅이 초토화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자주국방」인 것입니다.

적이 우리 땅에 침노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막아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자주국방 태세』인 것입니다.

제아무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라 해도 잔악하

고 무도한 침범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괴는 악랄한 전쟁준비를 서둘러고 호시탐탐히 무력공격을 시도하고 감행해 올 때 우리는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골육상잔(骨肉相殘)의 전쟁을 원치 않으나 규모와 성격이 어떻게 침공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이에 대비해 이길 수 있는 작오와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휴전선이나 해안지만 잘 지켜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선 내 힘으로 막아 보겠다는 자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한다면 우리들의 일에 남이 도와주리라고만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6·25때와 같은 경우라도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 자유를 사랑하는 그 어느 나라인가 와서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우선 남이 와서 도와주리라는 사고방식을 깨끗이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당에는 후퇴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작오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길은 공산당의 도전에는 하나 같이 뭉쳐서 싸우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단결이 금이 가지 않는 한 우리 단결을 깨뜨릴 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이면 무력으로 사상전에는 사상으로 대응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일

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앉아서 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책동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패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살기 위해서 내 주위부터 방위할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삶을 지닌 우리의 임무이며 70년대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 자기가 나가는 직장, 자신이 기거하는 마을을 우리들의 손으로 지킨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자주·자립」하는 길인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을 강화하자

건설하며 싸우는 기치

1968년 3월 1일. 우리는 이때까지 그 형태조차 없었던 새로운 제 2군 「향토예비군」의 창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1960년대에서 우리가 소득한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1·21 무장공비 서울 침투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1·21사태 이후, 울진지구, 삼척지구 그리고 최근의 여러 해안 침투에서 보듯이 북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를 목표로 이미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 하면서 간접침략으로 그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무장을 한 공비를 침투시킴으로써 양민을 학살하고 또 납치하려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향토예비군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박대통령께서,

『……김일성이가 지금 큰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 백만 적위대를 가졌다
고 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해치고 침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한다면 우리도 그들
과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박대통
령은 경전선(慶全線) 개통식(1968년 2월 7일)에서,

『…정부는 금년부터 재 향군인을 무장시키기 위한 무기공장을 금년내
에 완성할 것이고, 여기서 무기를 우리 손으로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5백
50십만 재향군인을 전부 무장시키자는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조국 근대
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이 총진군에서 일면 건설하고 일면 싸우는 기개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가며 증산(增産)과 건설에 힘쓰자
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60년대 말기부터 70년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박한 과
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면 건설, 일면 국방…….』

이로써 향토를 방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의 경우 전면전이 도발했다 해도 우리들은 그에 만전
한 대비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우리는 60년대에 조직된 향토예비군의 그 목적과 그 임무가 중
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1·21사태 이전에 오늘과 같은 향토예비군의 조직이 있었다면 그들
의 맹행을 좀 더 일찌기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앞에 1·21사태나 「프예블로」호 납치사건 이상의 가공
할 사태가 닥쳐오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적의 망상

을 분쇄해서 승공통일의 염원을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70년대의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며 또 우리는 이의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우리들이나 제대되어 예비군에 몸을 두나 또는 이를 자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일치 단결하여 명실공히 제2의 국군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용 없이 형식에 치우치는 조직이나 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맹이가 있고 쓸모있는 정예 조직으로 육성 강화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나간다는 바른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호언하는 소위 「노동 적위대」 백만명 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25 이후 줄곧 오늘까지 전쟁준비에 광분했다 해도 우리는 하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단결 우리 정신자세, 하나로 그 정도의 적과 언제든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

북괴침략 야욕 버리게

70년대를 소위 「적화통일의 해」라고 호언 장담하는 김일성인지라 그들이 장차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을 두목으로 하는 그 악당들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그에 대항한다면 그들의 발악 정도는 능히 쳐부시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호전적(好戰的)인 그들이라 해도 우리 온 국민의 단결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길적인 방위태세와 병행해서 우리에게서 정신적인 방위 자세가 또 한 중요한 것입니다.

헤이된 정신자세에 제 아무리 최신행을 자랑하는 무기를 들었다고 한들 그것이 효과적 일 수 없습니다.

강력한 투지의 정신자세에 방위할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발악이나 발광이라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세가 확립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우리의 교장에 나타난 무장공비를 우리마을 사람들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고도 남을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의 발휘가 70년대를 향하는 우리의 확고한 정신자세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남녀노유 할 것 없이 투철한 반공정신은 이 나라의 눈이요 귀인 것입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그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군·경·예비군 나가서는 이 나라의 정신 신경은 완전히 마비되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여러차례의 공비침투에서 보여준 수 많은 애국 시민들의 감투상을 알고 있습니다.

파주(京畿 坡州) 우씨 형제의 이야기나 서울 용산의 담배가게 할머니 그리고 김포의 한 농부의 무용담, 그런가 하면 울진 산간벽지의 아낙네의 감투상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무장을 한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예비군만이 공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라도 잡을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 이기도 했읍

니다.

그들의 투철한 반공태세, 우리 온 국민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공산당이 6·25때와 같은 전쟁 수법만을 쓰리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이하고 전면적인 것이 되리라고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침범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휴전선 돌파가 불가능해지자 이제 바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하늘로부터의 침투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위낙 공산당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놈들이라 그 수법은 미지수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바다에서 오건 하늘에서 오건간에 상관할 것 없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면서 자기의 교장을 자기의 손으로 지키자는 자세가 확립된다면 십만, 백만이 달려 들어도 하나 접낼 것 없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에게서는 항토방위의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70년대 우리가 해야 할 일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경제건설 접내는 김일성

다시는 큰 소리 못치게

우리는 6·25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이며 또 얼마나 악독한 가를 써지리게 느꼈으며 또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은 최근에 와서 복귀가 침투시킨 무장공비가 얼마나 잔인하고 발광적인가를 직접 보고, 듣고 했습니다.

이렇듯 공산당의 만행을 몸소 겪은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완벽한 반공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우위에서 정신적인 우위까지 서서 「적화통일」이 아니 뛰니하고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김일성이를 코가 납작하게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된 소리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1 일찌기 박대통령은,

『김일성이가 무서워 하는 것은 대한민국 60만 군대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위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김일성이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날이 성장되고 건설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김일성이가 밤에 드러누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되는 위협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도 건설에 조금도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건설이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싸우면서도 건설하고, 건설하면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무장공비 몇 명이 서울에 들어왔다 해서 당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놀란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면서 피난 생각부터 앞세우고 보따리 꾸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빠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얼빠진 사람이 공산당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우리가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리를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잡히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집안 일, 자기의 처세가 좋아야 부하도 따르고 또 남도 믿어주는 법입니다.

만약 공산당이 와서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이 나라를 공산화 했을 때 우리에게 돈이며 쌀이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직장 자기의 고향에 주저,앉아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없이는 공산당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자세가 아니고서는 경제 건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행패가 심하면 심할 수록 우리의 반공정신은 고조되고 우리의 태도는 더욱 침착해져서 맡은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휴전선의 경계임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후방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나라의 국토방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여 사이에 장족의 발전과 전력화되어 가는 예비군을 적극 도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향토예비군은 이 나라의 제2국군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계대하면 우리는 이 대열에 끼어 자신들의 고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간첩이 침투하며 때려 잡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확립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70년대는 더욱 풍요 해지고 기쁨진 강토로 공산침략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방위산업 육성

역사상 가장 방대한 힘

오늘날 우리의 군사력은 60만 대군으로서 우리 역사상 가장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북피의 재침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 최고」는 병력에 국한된 것이며 60만 국군이 모두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 장비는 거의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한 것입니다.

자주독립 국가의 참다운 군사력이란 과학적이고 치밀한 훈련을 받은 사기(士氣) 충천한 인력과 그 동원 체계 이외에 정치, 산업, 과학, 공업력 그리고 생산력 등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제 방위산업(防衛産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60년대에 이룩한 예비군의 창설 또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제통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우리 힘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 손으로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의 우리의 과학력이나 산업력이 공업이나 물자 생산에 영합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군수산업(軍需産業)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탄약을 써서 침략을 일삼는 부리를 물리쳐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건설로 「자주국방」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일찍 앞으로의 복귀 도발 행위가 더욱 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자위력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탄약과 소총을 생산하자는데 그 첫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중에 있는 산업 시설의 그 규모를 더 늘리고 병기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M16 등의 자동 소총과 그에 따르는 탄환, 수류탄 생산공장을 건설하자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군수산업이란 단순히 병기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철(製鐵)

이나 기계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들 관련 공업의 개발을 가져오는 이득도 곁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병기생산 공업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하는 첨단을 걷는 것으로 기술 개발면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 군수 산업의 육성은 비단 자주국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그 육성에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68년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 간에 걸쳐 1차적으로 「와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회합은 이에 앞선 4월 18일 「호놀룰루」에서 가졌던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었읍니다.

또 이 회담에서는 향토예비군의 재무장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1억「달러」의 추가 군사원조를 최단 시일 안에 사용할 것 등이었읍니다.

다음 제2차 회담은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측에서는 「패카터」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측에서는 임충식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여 회담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회담에서는 북괴 도발에 대처하는 방위태세를 검토하고 이에 따르는 국군의 방위, 장비 강화, 예비군 전면무장, 대간첩작전 장비지원, M16 소총 공장건설 등의 제반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했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한·미양국 국방장관들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지원 확약에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회담에서 주목을 끈 것은 M16 소총 생산공장 국내 설치에 관한 협의와 이에 따르는 급속한 추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미국

의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원 약속의 하나로서 극동에서의 미군 철군은 한국에서 만든 제외한다는 것과 주한 미군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군과 함께 공동방위 임무를 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이행은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했던 미 합동참모회의 의장 「윌러」 대장의 이한 성명에서도 밝혔고, 미국방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로 봐서 적어도 70년대 초기까지는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없을 것이고 장차에 대비하여 우리 국군장비의 급속한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70년대 초기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뚜렷해지면 미국은 우리에게 불자지원 정도로 우리의 장비를 강화하고 철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언제까지나 영구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체면문제도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하루 속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토를 지킬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삶을 지니고 70년대를 향해가는 한국민의 의지요 또 이룩해야만 할 중대 과업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명실 상부한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자세로 뭉쳐

풍요한 70년대로 전진을

이렇듯 우리의 올바른 승공의 정신자세와 이에 따르는 강력한 군수산업이 육성될 때 우리의 국방은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엮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은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진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철한 반공 신념의 지도자의 주위에 하나같이 뭉쳐서 자주국방의 결의를 가다듬고 복피의 망상을 분쇄하는 데 혼연일치 총결기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70년대의 풍요한 사회로 향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70년대 초기 우리의 국방을 철석같이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휴진선과 바다와 하늘은 우리 국군이 맡고 국내에서의 공비 암약을 제2국군인 향토예비군이 맡아서 이 강토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굳건한 단결로 자주국방을 이루었을 때 제 아무리 잔악무도한 복피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 얼씬도 못하고 그 스스로가 침략 야욕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어려움과 고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70년대를 넘어설 때 이러한 포부와 이러한 일들을 해 놓았다면 80년대를 맞을 세대들은 그 기반을 위해서 더욱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 나갈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풍요한 사회 70년대에 우리의 국방과 경제건설이 이룩되는 날에는 이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스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극의 목표를 향하여 보다 힘차게 보다 건설하게 전진해 나갈시다.

오늘의 이 우리의 대오에 한 사람의 낙오도 내지 말고 우리의 숙원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분발하고 노력해 봅시다.

영광과 번영은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총결기해서 새 70년대를 맞이합시다.

70년대를 맞는

우리 공군과 그 진로

작전 참모부장

공군준장 장 성 태

서 언

우리 공군은 불과 21년이란 기간에 시속 100마일의 공군으로부터 마하 2.5의 공군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이제 현대 공군으로서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추호의 안일과 현실에 대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리만큼 현금의 국제정세의 긴장과 북괴위협은 가증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안전보장태세는 계속 강화시켜야 할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60년대를 보내고 70년대에 들어서는 갈나에서 있다. 50년대와 60년대의 공군이 성장기였다면 이제부터 맞이하는 70년대는 바야흐로 공군의 전력발휘의 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공군력의 결정적 역할이 과학과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날로 증대 돼 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70년대가 일면국방·일면건설을 국책으로 하는 국가건설의 결정적 시기임과 동시에 북괴도 또한 70년대를 무력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라고 떠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야욕을 무찌를 만반의 입전태세를 갖추는데 온갖 힘을 다해야 될 것이다.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전보장

70년대의 공군의 입전대세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초는 내외 정세가 주는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북괴의 직접적인 위협의 도가 그 주요한 것이 되겠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침략의 마수를 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보장은 그들에게 우리의 막강한 힘과 대비태세를 인식시키고, 우리의 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힘의 균형 밖에는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맹주국으로서 자유우방 여러나라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원조는 점차 자조와 자립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으로써 우리로서는 자립국방의 진요도가 더욱 절실히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71년의 행정권 북귀에 따르는 오키나와기지의 반환문제는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극동 전역에 미치는 전략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월남전 종식노력과 더불어 또한 최근 여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의 시사와도 관련하여 70년대초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안보전략의 주요한 문제로서 대두될 성격의 정세들인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정세분석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극동안보에 미치는 지위의 향상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듭되지만 자주국방의 긴급 진요성과 가중되는 북괴의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북괴의 기도와 위협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괴는 현재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일성 자신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가지는 최내의 취약점 즉 민주주의와 자유에의 국민의 갈망이 폭발될 때 나타날 혁명적 변화를 인식 못하고 있다. 소련이나 동구제국의 급속한 자유화 경향이 바로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한편 급속히 발전되어가는 한국

의 경제성장은 그들 자신이 갖는 취약점을 더욱 자극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초조한 나머지 현재 발광적인 도전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여야 하며, 북괴의 군사정책이 노골화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정확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북괴정세를 분석할 때 예년에 없던 중요한 동향들이 관측되고 있다. 그것은 군의 간부화, 현대장비화, 전주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등 4개의 군사 노선과 유일사상에 의한 사상사업의 강화도 포함된다. 북괴는 내부로는 이와같은 군사정책을 추진시키고 외부로는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를 격화시켜 1·21사태, 푸에블로사건, 동해안무장공비침투사건, EC-121사건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군사정책 아래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력의 비축, 훈련의 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6·25당시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얻은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하여 오늘날까지 공군력증강에 모든 노력을 다해옴으로써 지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경시 못할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최근에도 몇 개의 기지를 개발했고 기존기지에 대해서도 활주로 및 유도로의 복수화를 이룸으로써 일시에 보다 많은 항공기로서 기습공격을 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기지들은 주요장비 및 시설물들이 엄폐화 내지는 지하화되었다. 그들의 700여대를 헤아리는 각종 항공기는 강력한 방공조직과 더불어 우리에게 대한 공중기습의 큰 위협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며 한국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그들의 기도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장차 그들은 앞에서 말한바 적화무력통일의 기본 노선 아래 그들의 야욕달성을 위해 변함 없는 대남교란술책을 일관해 나갈 것으로 보며, 66년도를 기

점으로 전쟁준비, 정찰, 후방교란 70년 및 71년을 동일결실의 해로 소위 4단계의 이정표를 설정하여 어떠한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했을 때 우세한 공군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여 공중기습과 제공권 장악을 기도할 것은 뻔한 일로서 우리는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의 도발행위의 뒤에는 북괴의 강력한 공군력이 기본적 동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공군의 사명과 과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북괴의 남침기도와 있을 수 있는 그들의 공중기습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군력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공군력은 그 특성으로서 공간과 목표에 알맞는 무기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지 깊숙히 침투함으로써 적의 침략기도를 말살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군력은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수단인 동시에 또한 일단유사시 가장 유효한 보복응징수단인 것이다. 일찌기 미국의 레드포드 제독은 현대전에서의 공군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오늘날 공군력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이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없이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아는한 공군력은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또한 타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제 자주국방이란 명제는 7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국군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며, 우리 공군으로서도 전력의 양적 질적 양면에서 정예스럽고도 자주적 현대적인 공군으로서의 성숙기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태세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면의 연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다한 제약 여건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제한된 자원과 군원의 점감을 비롯한 악조건 하에서 산적되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정신무장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겠으며, 참모총장의 통솔아래 일치단결하여 명

명일하 소아를 버리고 대외에 사는 왕성한 사명감에 불타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새로운 70년대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70년대의 우리공군의 진로를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즉각적 대응태세의 완비, 다양한 임무에의 융통성있는 적응태세의 완비,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지휘관리의 효율화의 3개요목으로 집약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소견을 약속 하려 한다.

즉각반응태세의 완비 : 오늘날의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생존요건으로서의 즉각적 반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기습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생존하여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기도를 사전에 탐지했을 때 신속히 선제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치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우리 공군은 최근에 이르러 고대하던 F-4팬텀기의 도입을 계기로 특히 보복공격력의 획기적인 증강을 실현시켰으며, 적과의 균형화된 항공기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신예기의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팬텀기는 특히 맹목 야간 공격능력면에서 인격필종의 능력을 보유하는 유일한 성능을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이 기종을 포함한 기타 신예기종의 확보 및 노후기종의 즉차적 대체로서 신속한 장래에 적과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보유하는 제레기종의 무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전보유기의 전투공격력강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근접지원작전에서 지형숙지를 위한 훈련과 더불어 공격기량의 향상을 기하고 방공작전, 차단작전 등에서 각종작전에서의 전기를 개발향상시킬 것이다. 신속반격태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의 분산 배치를 위한 기지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된 포커스 테티나작전에서도 예상했던 바와같이 유사시 우방공군의 지원에도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규모의 기지확보가 급선무이다. 또한 방공작전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GAP Filler 및 GOP의 완비, ADA협동능력 대기 태세의 신속화를 위한 기지내 작전요원숙소 건립추진, 초저공다방향 동시침투요격훈련 및 AAA표적훈련 등을 계속할 것이며, 긴급출동능력

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장장착, 유류 등의 출동지원장비의 확보와 작전기지 피해를 단시간내에 복구하여 지속작전을 가능케 하도록 각종의 시설장비 및 물자의 확보를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지요새화는 공중기습에 대비하여 항공기를 적절히 분산하고 지하화 또는 엄체화함으로써 지상에 체류되어 있는 보복전력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작전시설의 지하화 또는 엄체화 또한 필수요건으로서 전기지에 대한 기지요새화의 완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군기지는 적의 무장공비나 게릴라의 좋은 공격목표물이 될 수 있으므로 작기지에 대한 외부경비를 포함한 보안대책은 이제 우리 전체의 중요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전에 적응할 수 있는 대간첩작전능력의 증강인 바 공군의 특성으로 보아 그 신속한 기동력과 강력하고도 정확한 공중화력은 모든 대간첩작전에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복귀의 도발을 감안할 때 보다 우수한 장비의 도입과 전술전기의 개발 및 특수전술부대의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임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태세의 원비 : 오늘날의 파괴무기의 가공성은 전면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2차대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대개가 재래식 제한전쟁이며 비정규전이긴 하나 전면핵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같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전쟁양상과 변화무쌍한 작전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완전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각종 전술교리의 개발과 고도의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무기체계의 부단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쟁 및 작전양상에 대비한, 전쟁 및 작전계획의 면밀주도한 분석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각종의 교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분야는 자주국방적 견지에서 볼 때 낙후성을 띠고 있는 분야로서 7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무기체계의 진보가 다른 군보다 항상 앞장서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큰 역점을 연구발전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여년전에 미공

군의 장성 한사람이 그의 연설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와 장비에 대해서만 교리와 절차가 묶여져 있는 공군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현용장비는 다만,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한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현유장비보다 앞선 교리를 개발하고 그 시야를 먼 장래에 두지 않는 공군이란 그 나라의 안전보장의식을 그릇되게 혼미시킬 따름이다」라고 말한 뼈있는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지휘관리의 향상 : 다음으로 우리는 전투지원효율의 증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자주국방의 결실을 맺을 지름길로서 자원관리의 효율화와 지휘관리의 향상을 계속 추진시킬 절대적인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이 노력에는 후방행정분야의 기구의 간소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관리에 있어서 기획 및 계획, 기술, 연구발전, 생산조달, 인력 및 물적자원, 대정부대민관계, 일일의사소통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관리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늘날 세계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 방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PPBS를 중심으로 한 체제분석 비용대효과대비이론 PERT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앞으로 진지한 연구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생산적인 운용능력 즉 적절한 관리기능은 우리의 물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투능력을 증대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며, 공군은 이를 위하여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사람의 현대화와 제도의 개선」으로써 질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기할 것이다. 군수지원면에서는 군원수원 태세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군수능력의 향상, 각종 항공기 및 통신전자장비의 창정비 자립화를 추진할 것이다. 가격절감 운동 역시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국가경제시책에 부응하는 일로서 다루어져야 될 과제이다. 끝으로 지휘관리의 향상에서 앞으로 보다 주려해야 할 점은 지휘관리체제의 현대화로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기획제도 및 동기능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으며 이것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노력의 통합과 집중적 발휘 및

결과에 대한 효과적 평가 분석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70년대의 공군이 발전시켜야 될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획제도와 관련하여 전시계획 및 전시편성에 의한 운영태세의 정비강화가 역시 요청된다.

결 언

현대전의 성격이 사상전이며 과학전인 동시에 총력전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보다 반공정신에 투철하고 정신무장을 갖춘 군인이어야 하겠으며 보다 고도의 전술전기를 체득한 정예공군이면서도 미래지향의 안목을 지닌 발전적 시관의 공군이 되어야 하겠으며 보다 우수한 관리 운용으로서 획기적인 전력증강을 기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가 있다. 성장기의 공군에서 성숙기의 공군으로 진입하는 우리 공군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재침하는 기회만을 노리는 북괴를 지착 시간에 두고 촌각의 여유와 주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괴의 공군력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무력적화 통일 노선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최고도의 준비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의의 사태...공격이나 방어면에서 작전전투의 지속능력의 견지와 철차 그리고 반복되는 자발적 훈련의 습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50년, 60년대의 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은고지신하는 가운데 허다했던 시행 착오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70년대의 공군을 전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실전본위의 운영체제와 연중무휴의 마음의 자세로서 맞이할 것을 다짐하자.

70년대의

아시아의 자주적 안보책

정 윤 중

<신아일보 논설위원>

1. 서

본 논문은 필자에 제시된 주제대로 아시아 집단 안전보장과 아시아인의 자주적인 안보책에 관한 소고이다. 여러가지 정세변동으로 인해 돌아오는 70년대를 기점으로 아시아에는 여러모로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고 그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확실히 예상되는 아시아에서의 군사위기는 그 양 간파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새로운 안보대책이 자주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앞서고 있다.

그 정세변동을 여기 관찰한다면 우선 월남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전망됨에 따라 월남전후에 대처하려는 새로운 모색과 동향이 예견되고 있는 점이다. 또 미·소의 병화공존, 동서긴장의 해빙추세 그리고 중·소의 대립 격화를 통해 미·중공·소변 등 삼대 세력의 대립 균형이 월남전후의 아시아 정세를 주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이 최근에 아시아 집단 안보를 제창하기에 이른 것도 주목할 일이고, 중공의 문화대혁명 이후의 등향, 특히 구전대회 이후 「캄보디아」, 「파키스탄」,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제국에 신임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점은 아시아의 장래가 계속 안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기 쉽다.

그밖에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아시아는 중대한 정세변동을 미리부터 예견케 하는 것이 있다.

1971년 말까지 영국은 「스에즈」 이동의 중동 및 동남아의 군사력을 철수키로 결정했으며, 70년에 만기가 되는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 또는 연장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심각한 안보논쟁을 비롯하여 중·소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년에는 북괴·중공동맹 조약과 북괴·소련동맹조약이 각각 만기가 되어 이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아시아 공산진영의 내부 사정을 복잡화 하게 될 것은 분명하며, 그런 공산진영의 내부갈등이 그들의 호전성을 부채질 할 우려가 다분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미국의 방위부담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일본의 제3차 방위계획도 대중공전제의 뜻 이상으로 공산진영에게는 자극적인 대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이 70년대 초에 대륙간 탄도탄(ICBM)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면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기의 사용이 어렵게 되어 군사적 선택이 제한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미국방성 당국의 증언이 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시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대세력의 대치가 심각하고 정치적 불안, 평화에 대한 위협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함이 컸었지만 「닉슨」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은 아시아의 독자 방위론을 주안으로 짜여져오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아시아인의 새로운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종래에는 손을 빼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시아가 세계긴장의 중심이 될 운명에 놓이리라는 것을 걱정하게 되고 이런 걱정이 결국 아시아의 자주적인 안보에 집약되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자의 정세변동과 아시아 안보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적어보려 한다.

2. 세계의 안보체제 현황

먼저 세계의 집단안보 체제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본 다음 아주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될 것 같다.

세계의 안보체제는 크게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냉전체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본다면 「구라파」에서는 「나토」(NATO) 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양진영이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서구동맹조약의 이념적인 면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집단안보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1949년 8월 24일 발효된 것이며, 그 이념적 바탕에 근거를 둔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공산측의 상호방위조약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동안 「나토」 기구는 내부분열에 직면한 적이 있었으며, 「프랑스」 「드골이즘」의 견제작용으로 한동안 유명무실화한 감조차 없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이런 약제성은 부인할 길이 없다.

「나토」에 비해 공산측의 군사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산주의자들간의 특수 조건과 유대관계가 있기는 하나 「나토」군사 체제에 비해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55년 5월 14일 발효되었으니 「나토」보다 6년이나 뒤의 일이지만 이 조약기구가 공산측의 결속이라는 의의를 떠나 소련군의 동구제국 군대 주둔권을 박제화하기 위한 것에 근본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 아시아 지역에는 「시토」(SEATO) 즉 동남아조약기구가 있다.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지 3년후인 1954년 9월 「마닐라」에서 8개국 (미·영·불·호주·뉴질랜드·태국·필리핀·파키스탄)이 모여 조인한 이 조약기구는 현재 아시아에서 그런대로 대표적인 군사동맹 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 조약기구는 군사적인 활동 외에도 치안, 사회, 문화, 교류 등 광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약기구 역시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 세 나라는 각자 자기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에 이 기구에의 적극참여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중앙조약기구와 「엔저스」 조약기구가 있다. 중앙조약기구는 영국·이란·파키스탄·터어키 등 4개국 간에 체결된 지역집단 안보기구이며 미국은 이 기구에 정식으로 가맹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기구 내의 각종 위원회에 회원자격으로 가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출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영국을 제외하고 여타 2개국과도 공히 양국 간의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래의 조약기구는 1955년 「바그다드」 조약기구로서 발족한 바 있었으나 59년 「이탁」이 동조약기구에서 탈퇴하자 조약 명칭까지도 바꾸어 재출발한 것이다. 이 조약기구도 말이 안보조약이지 군사면보다 경제 사회면의 활동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앤저스」(ANZUS)조약기구는 「미국」「오스트렐리아」「뉴질랜드」 등 3개국 간의 안보체제인데 이 조약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도 「구라파」의 나토 기구같은 안보기구가 형성되지 못하였을 때 발족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동조약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 처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보다 폭 넓은 안보 조약기구가 실현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안보기구인 만큼 이역시 발족할 만한 아주안보기구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다. 또 미국은 아시아 여러나라들과 개별적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 안보조약, 미·중상호조약, 미·일상호방위조약, 미·태 경제 기술 협정 및 동군사원조 협정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호방위조약도 아직은 닉슨 행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닉슨·독트린」은 강력한 아주방위에의 참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그 장래가 밝지 못하다는 전망이다.

반면에 중·소와 공산국가 간의 군사동맹기구는 아시아 여러나라가 가장 가까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만치 않은 대상인 것이다.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1949년 10월 2일 조인) 북괴와 소련간의 우호 협력 상호원조조약(1961. 7.) 북괴와 중공과의 우호 협력상호원조조약 등 현존하는 공산권의 유대 체제는 아시아인의 강력한 반공보투의 등장 없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닉슨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

아시아 안보문제의 장래는 「닉슨」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더욱 관심을 깊게 하고 있다. 즉 「닉슨」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동구 및 아시아 제국 순방을 시작하기 직전 「팜」도에서 아시아와 미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

해 밝힌 연설은 아시아인의 주목을 끌었다. 그 연설에서 미국은 ① 앞으로 월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에 말려들지 않을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②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예전대 상호 방위조약)상의 약속은 지키되 중공과 같은 나라가 핵으로써 이 지역을 위협할 경우 이에 내란이나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침략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③ 태평양국가로서 계속하여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나(이른바 태평양 국가 선언), 아시아의 문제지역에 직접 군사적 또는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종래의 방법(월남전과 같이)을 지양하고 자초의 의사가 있는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보다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④ 아시아 제국에의 원조는 경제적 원조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원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미국이 어느 일개국에만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방침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제국이 상호안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5년 또는 10년의 장래에는 이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닉슨」 연설을 좀 더 상세히 요약하면 ① 분쟁의 군사적 해결을 정치적 해결로 돌리고 ② 미국의 파병 개입을 피하며 ③ 방위는 아시아인의 자력을 원칙으로 하되 ④ 집단안보를 강화하지만 어떠한 공동체에도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고 ⑤ 원칙적으로 내란인 경우에는 개입치 않으며 ⑥ 아시아 제국에서의 미국의 지상군은 점차 철수하되 태평양지역에서는 강력한 미 해·공군기지를 굴속시키고 ⑦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핵전쟁이 아닌 한 이를 배제하고 경제개발 및 자립지원에 치중하며 ⑧ 군수물자 및 기술지원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한하며 ⑨ 비동맹노선을 존중하여 다원화 추세를 지원하고 ⑩ 동서문호를 개방하며 협동시대를 추진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월남전후에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개편에 대비한 미국의 정책 수정을 뜻하는 것으로써 장차 이 아시아지역 방위가 기왕의 집단안보 체제 단위에서 자력독립 단위로 이행되는 것을 미국이 바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 군사세력의 후퇴가 초래할 영

향력의 약화를 경제적 지원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닉슨대통령의 아시아 독자방위론은 곧 미국세력의 후퇴에 따른 중공·소련 세력의 급격한 진출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에 자극되어 대중공, 대소련 접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짐으로써 금후의 아시아 안보는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4. 소련의 아시아 집단 안보 구상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반해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지난 6월 7일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의 기초연설을 통해 미·중공을 제외한 아시아 중립국가들의 집단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련의 이러한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브레즈네프」의 연설에 앞서 지난 5월 28일 소련정부 기관지 「이스베스차」지의 논설위원 「메다베라」의 주장이 이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다베라」는 『월남전후와 「페르샤」만 이동 영국군 철수 이후에 동남아 지역의 세력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중립제국들의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전제하고 이는 곧 중공세력의 효과적인 견제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최근 소련의 대아시아 특히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는 아마도 소련의 전통적인 남진정책이 이 지역의 정세가 월남전을 고비로 대전환의 기미를 구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과 중공과의 관계악화와 중공세력의 강력한 진출로 이 지역에 대한 선제 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즉 하노이를 비롯한 「뉴델리」, 「카불」, 「라발핀리」 등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견제 혹은 저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66년 1월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발벗고 나서 조정한 것도 소련이었고, 당시 「코치킨」이 「타슈켄트」 회담에서 인과 분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나섰던 것은 인도양에 연한 양국의 대립이 중공세력 진출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소련은 그후 중근동에서 남지나 해에 이르기까지 즉 「이란」, 「아프카니스탄」, 「타키스탄」, 인도, 「버마」, 「캄보디아」 월맹 등 비동맹 혹은 친소제국에 군사·경제 및 문화협력을 강화하는데 열안이 되었던 것도 주목할 일이다.

지난 5월 「코시긴」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번갈아 방문했던 것과 「캄보디아」 국방상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여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최근 「하노이」 「모스크바」 항로를 개설한 것 등 모두 소련의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을 둔 미·소정책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대외공약을 축소하고 점차 이 지역에서 방위 부담을 덜려는 친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반하여 소련의 이 엉뚱한 정책전환은 아시아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5. 중공의 핵위협

아시아에서 또 하나 경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중공이다. 중공은 반미적인 동향을 더욱 격화시켜가고 있다. 지난 4월 중공 당 구전대회에서 임표가 『미국을 중심한 제국주의 세력과 소련이 우두머리가 된 수정주의 세력을 다 같이 타도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 한 징조로써 아시아에서의 중공은 그들의 집중적인 핵개발 추진으로 말미암아 만만찮은 존재인 것이며, 동서세력균형의 한 이단자로서 중공의 동향은 아시아안보에 미칠 영향이 결코 가볍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미·소평화 공존 체제의 존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그래서 일단 소련으로부터의 협공을 피하려는 의도 밑에 의면으로는 『반미적, 반소적, 반제국주의』와 『반수정주의』를 선동하면서 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련과 중공 관계를 완화하여 미국의 세력과 그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중공은 1963년 8월 미·소·영에 의한 부분적 핵금지약 체결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중공 자신이 핵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미상 해양원 합동 원자력위원회에서 중공의 이런 핵개발이 70년대 초엽 미국에 대

해 저위급수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된 것은 1967년 8월 2일의 일) 증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핵위협은 곧 아시아안보상의 장래를 나쁘게 영향 지을 우려가 다분하다 아니 할 수 없다.

6. 「포드고로니」의 북괴방문과 중·소관계

69년 5월 중순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 「니콜라이·포드고로니」 등 부의장 「사빌·니아즈베코프」 부의상 「바시리·구즈네초프」 등이 북괴를 방문하여 김일성과 일련의 밀의를 계속했었다. 중·소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해 왔었던 당시에 이들 일행이 김일성과 모의를 기획했다는 것은 공산권내 의는 물론 자유 아시아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집중케 하는 사실이다. 북괴는 중·소 분쟁이 시작된 지난 수년 동안에 중·소 사이에서 소위 중립노선을 지켜 왔으나 월남전쟁을 비롯하여 세계공산당 정상회담총의 일련의 국제관계에서는 모택동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반면에 군사적·경제적인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소련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인연해서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서로가 합치되지 않는 이 해명에서 항시 의심을 받아 왔던 것이 김일성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중공은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브르조아」 분자로 낙인찍어 그 귀족적 생활면까지 공개비난한 것을 비롯하여 북괴에 대한 중공의 태도가 추측 이상으로 심상치 않은 적대행위로 나오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소련의 형식상 국가대표자인 「포드고로니」가 평양을 다녀갔다는 사실은 중공의 입장을 매우 경화시키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실상 소련의 경우 중공의 영향력이 세계공산당간에 접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중공경제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고, 중공과 북괴의 대립을 소련 스스로 부채질 하려는 속셈이 현저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중·소국경분쟁은 더욱 격화되었었고 거의 전면전의 위기로까지 악화되었음은 근자의 일이었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은 지난 10월 20일 북경회담을 열어 전쟁일보전인 양국관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듯

했으니 이 또한 미묘한 사태추이가 아닐 수 없다. 이 회담이 양국의 국경 분쟁에 어떤 극적타결을 모색했는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소 공존의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점이라 하겠다.

7. 북괴의 군비확장과 대중공관계

또한 아시아 긴장의 주동자로서의 위치를 굳혀온 북괴의 계속된 군비 확장은 이 지역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0년대를 『무력 적화통일의 해』라고 호언해 온 김일성이 또 무슨 일을 저지러지 모른다는 것이다. 금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주재 미국대사인 「찰즈·요스트」씨가 안보회의의 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적된 것을 보아도 북괴는 휴전성령 후 지상군을 교성능 장비로 무장시키는 한편 소련제 M-15, 17, 21 「제트」기 및 전폭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잠수함, 미사일함, 어뢰정 등으로 구성된 공격해군을 구축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을 증시해야 할 것이다.

또 북괴는 대남전술을 전환하여 ① 소규모 간첩의 침투로 후방 거점을 확보, 지하조직을 구축해서 소위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며 ② 무장 「게릴라」를 침투시켜 제한된 목표를 공격, 국내의 불안과 국제적 불신을 조성 ③ 이와 병행, 전면전을 도발할 준비도 갖추려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되었다. 특히 관계당국의 집계를 보면, 6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침투공비 수는 75건에 2백 30여명 인데, 69년에는 동기간에 1백 35건에 2백 6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방 침투의 경우 68년의 첫 9개월 동안 26건, 95명에 비해, 69년은 54건, 1백 5명으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희생이 적은 소규모 다발로 대남 침투를 단행하고 있는 북괴의 부단한 도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협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괴가 중공과 야합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하겠다. 이런 사실은 특히 최근의 북괴가 대중공편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경향에서 엿 볼 수 있다. 중공정권 창설기념일에 북괴대표로서 북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이 참석했던 사실을 비롯해서 상호접근의 두드러진 현상을 놓고 아시아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일한 사고에 속

할 것이다.

8. 아시아 안보와 오키나와

미·일 안보조약의 70년대 만기를 앞두고 「오키나와」 군사기지의 반환 문제도 아시아 안보에 직결된 관심사 중의 하나다. 이 미·일 안보조약은 1970년 6월 23일로 만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사토」 수상이 영도하는 일본의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문제 심의회의, 안보문제 심회의 「오키나와」문제 특별위원회의 3자합동회의는 미·일 안보조약을 자동적으로 『상당한 장기간』 연장시킬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동북아시아 제반 정세 하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일의 대수의 인접 관계에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가 곧 일본의 그것에 직결되며, 반면에 일본의 안보가 한국의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키나와」기지의 존속 필요는 북괴의 동향을 주목할 때 더욱 절박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은 불가피한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자주적인 안보는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는 한 「오키나와」기지의 현존 그대로의 보유는 일본을 위해서나 아시아 안보상의 일본의 기여로 보나 다같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이 기지는 한국, 중국, 월남, 태국, 필리핀 등 자유 아시아 여러 국가를 연결한 지역적 안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9.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의 방향

「닉슨」 대통령의 「아시아」 「독트린」에 대해 아시아는 그 스스로 안보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의 아시아의 정세변동은 곧 자유 「아시아」인의 단결된 협력과 방위상의 공동 운명체적 입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앞세워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방위조약의 완전무결한 보완을 주장하고 싶다. 69년 10월 25일

「레어드」 국방장관은 「푸에르토리크」에 있는 2백 80개소의 미군기지를 감축하고 해외에 있는 27개소의 기지는 그 기지가 있는 국가들과 감축방안을 협의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비록 한국, 태국, 월남은 해외기지감축에서 제외된다고는 할지라도 현재 『월남전쟁의 월남화』 그리고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고집해오고 있는 미국이 언젠가는 한국에서 그들 주둔 병력을 철수해 가리라는 것은 결코 속단이 아닌 것이다. 공산세력에의 가장 가까운 위협 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대책없는 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걱정인 동시에 아시아 전체의 그것이며, 결국은 미국의 책임 밑에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한미방위 조약의 보장은 이런 의미에서 시급하며, 공산침략에 대한 한·미간의 즉각적인 대응 보복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자주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아쉬울 뿐 더러 한국의 긴장상태를 방관하지 않는 자유 아시아인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비협조적 정경분리 외교는 이 점을 강조하는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부흥이 곧 공산세력의 침투를 제지시키는 것이라면 그 경제적 발전을 돕는 일에 인색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세째는, 아스팍(ASPAC) 군맹화가 요청된다. 중공의 침략적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는 아시아 제국들이 한데 뭉쳐 중공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 이 문제의 회답은 자명할 것이다. 일본의 반대가 제일 심한 모양이나 미국의 지원 밑에 아시아인의 집단 방위체제를 강구할 필요는 서슬한 아시아의 여러 정세변화를 상기할 때 자유아시아 모든 국가에 공통된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파토」 기구의 구상을 밝힌 바 있거니와 이러한 군사동맹이 월남전 처리 이후에 올 아시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지역집단 안보체제를 가능하게 할 최적이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스팍」 창립 당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이 기구의 군맹화 또는 새로운 동북 아시아 조약기구로서의 「아파토」가 조속한 시일 내에 창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70년대의 「아시아」 정세와 한국의 안전보장

주 영 관

<서울신문 논설위원>

서 론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소련의 「아시아」 진출과 미·소 체제

중공의 동태

북괴의 내부사정

북괴의 대남공작

안전보장과 우리의 자세

서 론

우리는 그동안 먼 앞날의 이야기처럼 해오던 70년대의 바로 문턱에 서 있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70년대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것은 60년대를 보내고 70년대를 맞으면서 세계의 정세와 한국의 정세가 하나의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60년대에 있어서의 「아시아」 정세의 초점이던 월남전쟁은 이제 수습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역할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오끼나오」에 대한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될 72년을 전후하여 극동의 방위선을 중부 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까지 후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영국도 또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군사력을 71년

까지 침수할 예정이다.

「아시아」로부터의 미국의 후퇴와 영국의 철수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역에 군사적, 실력적인 공백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지리적으로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에 유리한 나라는 중공이다.

중공은 69년 봄의 중국공산당 제 9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3년을 두고 벌여온 문화혁명에 일단 매듭을 짓고 「아시아」지역으로의 정치적인 공작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70년대의 「아시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또한 동남「아시아」로 그들의 세력을 뻗으려는 소련의 야심이 있다. 소련은 미국과 영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에서 생기는 공백이 중공에 의해 채워지기 전에 이 지역에 진출하여 중공을 남쪽에서 봉쇄하려 드는 것 같다. 중공과 소련과의 대립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련의 이러한 기도는 그것이 미국의 묵인 하에 추진되든 일방적으로 추진되든 간에 동남 「아시아」의 정치세력 구성에 재편성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70년대의 「아시아」정세는 이상 3대국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일본의 역할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은 70년 중에 동남「아시아」를 모두 합친 것의 2배나 될 것이며, 70년대 중으로 그 군사력도 「아시아」 최강을 노리고 있다. 「아시아」의 약소국가들은 벌써 북쪽으로부터의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계하는 동시에 동쪽으로부터의 일본의 팽창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하게 되었다.

강대국 정치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의 실정은 어떠한가?

북괴의 김일성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70년대를 이 목적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로 택하고 있다. 중공과 소련이 북쪽에서 사납게 맞서고 있는 정세가 계속되는 한 북괴의 행동은 크게 제약 받을 것이다. 그러나 60년대를 통해서 그랬듯이 북괴의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침략으로 불파구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오산하는 사태가 벌어진

다면, 그들은 위험한 긴장상태를 도발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보복력에 눌리거나, 중공·소련의 견제로 전면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군사적인 침투와 정치적인 공세를 교묘히 섞어가면서 한국의 내부적 교란과 국제적 위신의 저하를 노릴 것이 뻔하다. 70년대는 우리가 북괴의 침략에 대해 군사적인 억지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압도, 국토통일의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69년 7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달에 상륙시키는데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장거를 배경으로 「아시아」순방의 길에 오르면서, 「닉슨」 미국대통령은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표방하였다. 태평양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개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자주적인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 「아시아」국가들과 맺고 있는 방위조약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나, 핵무기의 위협이 따르지 않는 국지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그 1차적인 책임을 당사국이 져야한다고 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월남에서의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남에서 전근대적인 전쟁에 한 없이 끌려 들어갔다. 미국은 이곳에 50만의 대군을 투입하고, 연간 3백억「달러」의 전비를 쏟아 넣으면서도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지 못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국내에 영향을 주어, 인종문제·도시문제·학생운동·「인플레」 등의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미국 조약에서는 「아시아」정책에 대해 반성의 기운이 높아졌다. 그 결과 월남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시아」로부터의 미국의 군사적인 후퇴는 「오끼나와」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논의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전략의 전환 때문에도 촉진되고 있다. 72년 안으로 「오끼나와」에 대한 시정권이 일본에 이양된 후, 이 거대한 기지가 현재와 같은 기능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 군사시설을 중공과 소련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대해서는 전략가들의 반대가 많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가상 적국 주변의 노출된 지역에 군사기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미국 전략가들은 중공이 70년대 초기까지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 중공 주변의 기지는 쓸모가 없게 되며, 핵무기가 등장하는 전쟁에서는 미국에 기지를 둔 대륙간탄도탄이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의 전방기지를 본토에 1천「마일」이나 더 가까운 「마이크로네시아」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는 결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완화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국지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오끼나와」의 시설 일부를 한국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미국은 또한 오늘날의 한반도의 긴장이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한 한국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지역의 사퇴악화는 바로 국제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를 「아시아」지역의 다른 분쟁과 구별하고 있다. 월남전쟁이 수습되어 월남에서 한국군이 철수한 후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의 자주적인 방위력이 북괴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문제와 병행해서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아시아」 진출과 미·소체제

70년대의 「아시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또한 소련의 「아시아」정책이 있다. 소련공산당 제1서기 「브레즈네프」는 6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안전보장체제를 제안하였

다. 그러나 이를 제안한 「브레즈네프」의 저의가 어디 있는 것인지, 또 소련이 이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연한 추측으로, 우선 「아시아」의 진공상태에의 대비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 월남전쟁을 수습하고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영국도 또한 71년까지는 「홍콩」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가 무력해진 이때, 미국과 영국이 「아시아」에서 후퇴하면 이 지역의 힘의 진공이 생길 것이요, 세력구성이 재편성 될 것이 뻔하다. 이런 진공을 채우고 세력 재편성에 편승하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나라는 중공이다. 3년 이상에 걸친 문화혁명에 일단 매듭을 짓고 새로운 외교공작에 나선 중공이 이러한 정세를 보아넘기지 않는 것이다. 소련은 중공에 기선을 제하여 「아시아」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 지역의 안전 보장 기구를 설치하자고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은 70년대의 정세 변화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려는 동남「아시아」 일부국가의 경향도 잘 이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이미 소련과 국교를 맺었고, 「필리핀」도 동부 「유럽」국가들과의 동상·문화관계를 넓히려 하고 있다. 소련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원조를 통해 그곳에 기반을 확립하려 하고 있으며, 태국에 대하여까지 우호적인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소련의 또 하나의 의도는 69년의 세계공산당대회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한 「아시아」각국의 공산당을 그들 세력하에 끌어들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소련의 「아시아」공작은 우선은 그 통로가 될 「인디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의 서남「아시아」로 집중될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의 새로운 체제개편에 편승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소련의 남쪽으로부터의 중공봉세를 중공이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면 중·소 양국은 대규모의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소련의 「아시아」진출을 견제하는 것은 70년대에든 계속될 미·소의 공

존재제일 것이다. 미국·소련에 의한 세계의 군사적 양국화의 현상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체계의 유지는 양대국의 공동 이익이 되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의한 「아시아」의 배타적인 지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요, 핵전쟁을 유발할 직접적인 대결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소의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는 한, 북괴가 소련을 업고 전면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한국에 대한 그들의 전술은 여전히 침투·반 정부운동을 통한 인민전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한국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질서와 안정의 필요성을 높여 줄 것이다.

중공의 동태

지리적으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아시아」정세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존재는 중공이다. 7억 5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공은 섬나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시아」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유일한 핵보유국가로서 70년대 전반기에는 적어도 중거리 핵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69년 4월의 9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문화혁명에 일단 수습의 매듭을 지은 중공은 그 후의 대외자세에 있어서도 계속 모택동사상을 높이 쳐들고 있으나 실제행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 합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중공은 뒤떨어진 경제사정으로 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이용하려는 소련의 의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정치적, 외교적 공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대내·대외공작의 사상적인 무기로서 반미주의·소련수정주의 반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련과의 당면한 대결을 극복하기 위

해 미국과의 관계를 이 이상 악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월남전쟁이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는 당장에 개선될 수는 없다. 적어도 중공은 그들 국내체제가 정돈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소련의 관계에 효과적인 썩기를 썩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당분간 중간 조정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69년 초 「바르샤바」에서의 미국·중공회담이 유산된 것도 실은 중공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만한 자체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공과 소련 사이에는 69년 3월의 「다만스키」도 사건에 이어 신강 「위글」 지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등 국경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중공은 소련을 사회제국주의자니 새로운 「쓰아」주의자니 부르며 당면한 전략적인 적으로 삼고 있다. 소련도 또한 중공의 위협을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대 중공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세계공산당대회에서의 「브레즈네프」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중공·소련 양국은 국경분쟁이 전면적인 충돌로까지 악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는 했으나, 쉽사리 타협이 이루어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두 공산국의 대립이 이념적으로나 국가 이해상으로도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개선되려면 오랜 시일을 요할 것이다. 소련과 중공이 대립을 계속하는 한 북괴의 행동은 자연히 제약될 것이며, 북괴는 중·소 관계가 회복되어 「아시아」에서 반미전선이 강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북괴는 지리적으로 중공의 도움없이 한국에 대한 공작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한편 군사·경제적으로도 소련에의 의존도가 높다. 북괴가 한동안 중공·소련의 대립 속에서 중립을 표방한 것은 그 어느쪽도 적으로 돌리고서는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공에서 문화혁명이 거칠게 벌어지는 동안 평양과 북평의 사이는 좀 멀어졌던 것 같다. 첫째 이유는 61년에 시작한 7개년경제계획을 3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괴의 경제가 침체되어 소련의 도움의 필요했던 것이고, 둘째는 모택동의 대국주의적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69년에 접어들면서 북괴와 중공의 사이가 가까와져가고 있는 기미가 보였다. 양쪽 공산당기관지의 논조가 부드러워졌는가 하면 10월 1일의 중공창건 기념식에서는 북괴대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평을 찾아가기도 했다. 70년대의 「아시아」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데다가 중공이 차차 핵전력을 갖게된 것을 계산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괴는 중공과의 지리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양쪽의 공산당이 다같이 공산권 내에서도 매우 교조주의적이고 극좌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세력의 결합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안전보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특히 중공과 북괴와의 관계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괴의 내부사정

60년대는 중공과 마찬가지로 북괴에게도 큰 정체기였다. 61년 9월 노동당 제 4차대회에서 7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한 김일성은 그 5년 후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쿠바」위기를 계기로 소련의 대미정책이 완화되면서 북괴와 소련간의 관계는 악화하기 시작했으며, 소련은 북괴에 대한 경제 원조와 군사원조를 단절하기까지 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괴는 소련을 경제적 제국주의니 강대국의 「쇼비니즘」이니 하고 비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괴와 중공의 관계가 호전되는가 했으나, 65년 2월 「코시킨」이 평양을 방문한 후 북괴·소련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북괴의 경제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한 월남전쟁으로 「아시아」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65년에는 소련·북괴 간에 군사원조조약이 체결됐고, 66년에는 소련의 경제원조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그래도 경제적인 침체는 여전했다.

김일성은 경제적인 침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세력파도 싸우지 않으

면 안 되었다. 67년에 박금철, 이효순 등 반대파를 수척한 그는 공산권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개인신격화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북한주민의 관심을 외부세계에 돌리려고 들었다. 68년 1월의 청와대 기습사건, 「무에블로」 호 남북사건, 69년 4월의 EC-121격추사건은 모두 국내 선전에 이용되었다. 김일성의 이러한 폭거는 그의 정치적인 지휘가 아직도 불안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70년에는 북괴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게 된다. 이 해에 그들의 10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며, 61년에 체결된 소련과의 군사동맹조약이 일단 만료된다. 이때 가서는 북괴가 소련에서 받은 무기도 노후화하기 시작한다. 김일성은 그의 군사적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기 전에 한국에 대해 모험적인 행동을 저지르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우리 세대 안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 중공과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김일성의 그러한 태도와의 관련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소련의 공존체제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중공의 국내질서가 수습되지 않는 한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을 업고 전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괴의 대남도발은 계속 비정규전의 성격을 띤 인민전쟁의 조건조성을 위한 침투·지하조직으로 치중될 전망이다.

북괴의 대남공작

북괴는 궁극적으로 한국을 침략하는 수단으로 세 가지 「혁명역량」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첫째는 그들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에 침투하여 침략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괴의 최근 동태에서도 이 세 가지 노선을 엿볼 수가 있다.

북괴는 「한손에 총을 또 한손에 해머와 낫을」이라는 구호 아래 17세부터 45

세까지의 모든 남녀 주민들로 「노동 적위대」를 조직하였다. 그 수는 1백 30만에 이르며, 이들은 모두 자체생산된 소총으로 무장되고 있다. 또한 주요 도시와 부락에는 지하요새와 방공호를 구축해 놓았다. 그들은 유사시에 이 「노동 적위대」를 능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자체역량의 강화인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에 대한 침투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사로잡힌 북괴간첩들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침투공작을 위한 이른바 124군부대는 모두 2,40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들은 한국의 행정구역 별로 8개 「팀」으로 편성되고 있다 한다. 이들의 목적은 정보를 수집하고, 동조자를 규합하여 지하 조직을 마련하는 데 있다. 북괴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에 「반정부 세력」을 구축하여 침략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세째로 북괴는 중공·소련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공격함으로써 국제정세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줄이고, 서방 세계에서 반전「무우드」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북괴는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자력으로 북괴의 침략야망을 분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때까지는 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안전보장과 우리의 자세

북괴의 대남공작의 세 가지 기본방침은 이를 뒤집어 보면 바로 우리의 대공 투쟁의 노선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통일이며,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하고, 적의 침투 공

작을 도처에서 봉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적의 전면적인 침략을 막을 수도 있으나 전면전쟁의 사태 하에서는 언제까지나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닉슨」 미국대통령은 비정규적인 소규모 분쟁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력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전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로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에 있어서 적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강이 궁극적으로 적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밑천이 된다는 것이다. 북괴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해 있는 이때 우리는 적보다 월등 높은 경제력을 구축함으로써 적에게 위압을 주고 공산주의제도의 약점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독과 동독의 비교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자유세계 각국은 한국이 최근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서 큰 용기를 얻고 있다. 경제적인 부강은 방위력강화의 가장 믿음직한 수단이며 정치·경제안정의 바탕이 될 것이다.

세째는 앞으로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온 국민이 안전보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향토예비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비군은 북쪽으로부터의 침투자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틈을 주지않게 하고 적의 망상을 분쇄하고 우리 주위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째는 국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외교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엔」에서의 적의 집요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지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아스팍」 등의 조적으로 「아시아」 우방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신은 높아졌는데, 이는 북괴와 대결하는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힘이 되었다. 국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높이고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괴를 고립으로 몰아가는데 있다.

70년대의 —

미·소·중공의 핵무기 개발

경쟁과 새로운 국방전략

— 산·군 복합체를 중심으로 —

조 성 결

<대한일보>

◇ 미국의 산·군복합체 <産·軍複合體>

미국에서는 최근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표현화한 일이 있다.

미군의 일부철폐가 발표되었다고는 하지만 월남 평화에의 움직임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진전되지 않고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연속적인 적자, 국내적으로는 물가의 급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미국민의 초조감이 배후를 산·군복합체의 비판에서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 형편인데 비판은 광범위하고 또한 강력하다.

그들의 비판에 의하면 산·군 복합체는 『월남전쟁 확대, 「인플레이」 확대의 범인이요 세금의 휴혈귀』라는 것이다.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A.B.M.(탄도탄요격「미사일」)망의 배치를 「닉슨」대통령이 결정할 것도 산·군복합체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군 복합체에 대한 「닉슨」행정부의 미지근한 자세에의 공격도 격심하다.

▲ 월남전으로 인한 산업성장

산·군 복합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은퇴를 눈 앞에 둔 「아이젠하워」 전 미대통령

이 고별 연설에서 거론한 것이 최초였다. 그때에는 그렇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미국의 저명한 사회 비평가 「프리트·쿡」이 이에 주목, 『전쟁국가』라는 저서에서 크게 취급하여 전미국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산·군복합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월남전쟁에 의해서이다. 「아이젠하워」정권 말기의 60회계년도, 국방 발주액은 225억「달러」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후에도 65년도까지는 63년도의 281억「달러」가 최고로서 거의 비슷한 상태를 계속해 왔는데 월남전쟁이 확대된 66년도에는 단번에 357억「달러」로 늘어나고 67년도 이후에는 매년 410억「달러」를 넘는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발주를 받는 미국의 국방산업은 이제 미국 최대(따라서 세계 최대)의 「매머드」기업체이다. 그것이 얼마나 미국의 국민생활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산·군 복합체는 직접고용 850만명인데 그 세부내역은 군부 340만명, 국방성의 민간 직원 130만명, 국방관계 노동자 380만명이다. 즉 미국 내에서는 9명에 1명꼴이 국방관계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해보면 1가의 생계를 국방관계의 일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인은 전체국민의 5분의 1을 겸한 것이다.

68년도의 국방발주는 국방 지출총액 780억「달러」중 412억「달러」를 점했고 또한 69회계 년도엔 4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발주는 수천의 기업에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그 거의 절반이 25개 회사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 제일은 G.D.사

수주고의 제1위는 G.D.(General Dynamics)사로서 동사의 남품은 원자력 잠수함으로부터 설계대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중지 소동까지 벌인 최신품의 가변후퇴익 전투폭격기 F-111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제 2위는 「로키드」항공사로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초대형 군용 수송기 C-5A 「켈락시」의 「메이커」이다. 이 수송기는 제조경비가 당초의 견적을 훨씬 상회하여 의회에서 크게 두들겨 맞고 있다. 그밖에도 군용 「헬리콥터」, 「샤이안」의 발주를 최근 국방성에 의해서 해약당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여하튼 이 양사의 국방수주 의존도는 아주 커서 G.D.사가 매상총액의 83%이고 「로키드」는 85%를 점하고 있다.

그 밖에 25개사의 「리스트」를 보면 G.E. (General Electrics)사를 비롯하여 북쪽에서 활약한 「펜델」기의 「메이커」인 「맥다일·더글라스」사, B-52전략폭격기를 제조하고 있는 「보잉」사, 기타 G.M. (General Motors)사, 「리튼·인더스트리즈」, 「포오드」자동차, 「스탠더드」석유회사(「뉴저지」주) 등의 초거대기업들이 이에 관계하고 있다.

이들 거대기업은 전미각주에 공장을 갖고 있어 덕분에 각주의 경제도 충분히 운택하게 돌아 가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우요르크」,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버어지니아」, 「매사추세츠」, 「조지아」, 「미주리」의 10개주가 국방 발주액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또한 발주액의 다과와는 직접관계 없이 각주의 의존도는 상당한 것이어서 예컨대 개인소득에서 점하는 국방관계의 비율은 「알래스카」주에서는 29.1%, 「아이다호」주 23.1%,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와싱턴」D.C.) 22%, 「코네티컷」주 20.1%, 「텍사스」주 17.9%, 「버어지니아」주 14.9% 등 높은 비율이며 산·군 복합체의 비위를 거슬리던 주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의회공작

산·군 복합체라는 산업과 군부의 연결은 그 종사자들을 살펴볼 때 한층 더 선명해진다. 상원의 유력의원인 「윌리엄·프롤시마이어」씨(「위스콘신」주 민주당의원)가 밝힌 숫자에 의하면, 국방발주를 받고 있는 미국의 상위 100사에서는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대령 이상의 퇴역장관 2,072명이 현재 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낙하산이 많은 것은 국방수주 제1위인 「제네럴·다이나믹스」사인 것도 산·군의 연결에 있어 긴밀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동사에서 일하고 있는 퇴역장교수는 113명에 달한다. 전 종업원 중에서 점하는 비율로는 0.1%에 지나지 않지만 거의가 중역등 주요한 자리에 있어 그 세력은 압도적이다.

「로저·루이스」 G.D. 사장은 『나는 개인적으로도 자리 배치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사가 군부와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 있고 낙하산식 퇴역장교들이 군부로부터의 수주획득에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사실은 감할 수 없다.

반대로 국방산업의 유력자가 많이 정계와 「닉슨」정권의 중요 「포스터」에 취임하고 있어 그 결과 군부 정계 산업계의 철벽의 이익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다. 의회에서의 지명 승인을 둘러싸고 논의를 일으킨 「데이비드·패카드」 국방차관은 국방산업의 중요부문인 전자기기산업 「유리트·패카드」사의 회장인 외에 「제네럴·다이나믹스」 U.S. 「스틸」 등의 중역을 겸임하고 있다. 의회 내에는 동씨의 국방산업과의 연결이 너무 깊다는데서 이 지명에 대하여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지명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 밖에 거대한 「아폴로」계획의 예산을 갖고 있는 NASA (미 항공 우주국)의 「토마스·페인」국장도 G.E. 출신이고 「제임스·호지슨」노동차관은 「로키드」항공기 부사장으로 있었다.

그밖에 정도의 차는 있어도 국방산업과 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 당국자의 수는 이 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무력한 비둘기(Dove)파 의원들

월남문제로 량상 평화론을 부르짖고 있는 비둘기파 의원중에도 산·군 복합제에는 극히 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풍부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과 산·군 복합제와의 이해관계가 적은 「아이칸소」주에서 나오고 있는 「플브라이트」외교위원장 등은 산·군 복합제에의 공격을 사양치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비둘기파라도 「맨스필드」상원의원의 경우엔 얘기가 약간 다른 모양이다.

「닉슨」대통령이 지난 69년 3월 14일 A.B.M.의 수정배치계획을 발표했을 때 비둘기파 의원단은 일제히 「닉슨」정권과 산·군 복합제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비난했지만 「맨스필드」민주당 원내총무는 반대 운동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동원내 총무가 「몬태나」주 선출의 상원의원이고 「닉슨」대통령의 A.B.M. 배치 후보자의 하나가 「몬태나」주의 공군기지인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

「U.S. 뉴우스·앤드·월드·리포트」지는 이에 대하여 「「몬태나」주에서는 A.B.M. 건설로 주정계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맨스필드」의원에게 대해서 선거구

에서 강한 압력이 가해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는 산·군 복합체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로비스트」(압력단체의 활동가)들이 나가 있어 의원들에게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한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산·군 복합관계의 「로비스트」는 339명이며 국방성은 그들에게 의회공작을 부탁하기 위해 연간 400만「달러」나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들의 일은 산·군 복합체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성의 의뢰를 받아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거기에 선거구의 이해가 얽히고 개선기가 가까와오면 평상시 비둘기파로 산·군 복합체를 비판했던 의원들 중에도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 산·군 복합체와 일반산업의 위축

산·군 복합체가 현재와 같은 거대한 힘이 되면 일반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 관계에서 보면 우수한 기술자는 거의가 국방산업에 집중하여 일반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라만」항공기사에서는 전종사원 36,000명중 약 8,000명이 기술자이고 그들은 고액의 봉급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학자인 「아더·F·번즈」씨는 대통령 고문으로 「닉슨」정권에 참가하기 이전에 장연가운에서 『분명히 국방산업은 어떤 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는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일반산업의 많은 연구소는 국방산업이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주는 급여와 설비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산업의 연구 개발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국방발주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고 산·군 복합체의 『공해』를 지적하였다.

하여튼 국방산업이 호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원인은 거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며, 그 낭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뉴우스위크」저도 최근 발행의 산·군 복합체 특집기사에서 그 『비효율성』을 공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로키드」항공기사의 대형 군용수송기 C-5A의 경우 제조비가 최초 견적보다 20억「달러」나 비싸질 것이라 하여 의회의 분격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국방관계의 생산 「코스트」는 당초 견적의 3배

내지 7배나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으로서 영터리 국방계약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방성의 지지파였던 「조지·마흔」학원 세출위원장은 『군부의 과오는 너무나도 많이 범하고 있어 신뢰의 결여를 가져왔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켈브레이드」, 「하야버드」대학교수는 『국방수주가 총매상중에서 접하는 비율이 큰 기업체는 모두 국유화 하라』는 대담한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월남전쟁에서 돈을 번 기업으로부터 전시이득세를 받자』고 요구하고 있다.

▲ 「포스트·베트남」의 전망

이런 일련의 산·군 복합체 비판에 대하여 「윌터」미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관계자는 『군부와 국방산업을 적대시하는 20세기의 「마녀사냥」이다』라고 반론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기업측은 「켈브레이드」 제안에 대하여 『시계의 바늘을 적어도 수십배는 뒤로 놓은 것』이라고 반박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번영을 끝없이 누리고 있는 국방산업계에서도 내막적인 초조감을 간취할 수 있다. 그것은 월남전 종결에 따르는 군수비의 대폭감퇴를 내다보는 불안감이다.

이미 「그라만」항공기사에서서는 민간용 항공기 외에 「보우트」, 「요트」 등 「레저」용품, 소형 전기계기, 「트럭」차체 등의 제조와 부동산(임대) 산업에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동사는 현재 연간 매출 11억「달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65%는 국방성 관계, 24%가 NASA관제의 수주이고 나머지 11%가 민간수요에 지나지 않는다.

동사의 어떤 간부는 『비군사계획을 보다더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방산업 관계의 기업은 모두가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국방지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시키려고 정부와 관계 각 방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민간수요에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저금의 현상이다.

◇ 긴축국방과 새 전략

「닉슨」행정부는 9개월에 걸친 전면적인 정책 검토 끝에 새롭고 덜 야심적인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5년간의 군사비를 대폭 삭감키로 결정했다.

국방성은 지금 지출을 710억 내지 730억[달러] 이하의 선에 머물도록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재년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보다 약 40억 내지 60억[달러]나 적은 예산이다.

이번 「닉슨」대통령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미방위예산은 더욱 긴축성을 띠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0년간 미 방위계획의 기반이 되어온 2개의 대규모 전쟁과 1개의 소규모전을 동시에 치른다는 원칙 대신에 1개의 대규모전과 1개의 소규모전 만을 치르는 방향으로 미군사력의 역점을 변경시킨다.

▲ 미국은 세계에 대한 군사지원 범위를 줄이지 않는 한 소규모 부대를 가지고 세계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 보다 많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예컨대 월남전이 끝나면 미 육군은 사단수를 전쟁 전보다 훨씬 적게 줄이거나 작사단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다.

▲ 소련이 핵전쟁을 걸어들 경우 이에 보복하고 소련인을 대량 살해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소 두 나라가 자기 상대방에 끼치는 손해에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전략 무기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2개의 짝막한 국가안보결정각서(NSDM)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정부관계요로에 배부되었다.

이들 각서는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 지침으로서 참고가 될 것이다.

행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 각서에는 월남전후 「유럽」 또는 「아시아」에 남아 있게 될 미군 수와 비행기 배 및 사단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국방성, 국무성 및 백악관의 몇몇 정책수립자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전략적 관점에서 보다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번에 결정된 전략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꺼번에 두 군데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만 쓸 수 있도록 미국

내 사단들을 훈련 및 무장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카리브」 또는 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쟁에 재빨리 투입시키기 위해 소규모 공수부대도 둘 것이라 한다.

이번 정책 검토가 완료되기 전 국방성 관계자들은 월남전이 끝난 후 육군 규모를 19개 사단으로부터 월남전 이전 규모인 16개 사단으로 감축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내려진 결정을 보면 훨씬 더 작아 내릴지 모른다. 육군이 12 내지 14개 사단까지 감축될지 모른다고 보는 관계자도 있다. 한편 현존 각 사단에서 3개 대대를 작아버림으로써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머지 8개 사단만으로도 사단병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정 사태가 심각해지면 예비군에서 즉각 3개 대대를 보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위력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항상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이 예산상의 제한이라는 데는 군민 관계자들이 다같이 동의하고 있다.

2차대전 때 「유럽」에 자그만치 1백 개 사단을 주둔시켰던 예로 보아 또 한차례 전쟁이 터질 경우 14개나 16개 또는 28개 사단으로 충분하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어느 국방성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핵무기가 있으므로 해서 적의 공격을 막는데 있어서나 전쟁이 터져 연합군이 패배할 위험에 빠질 때 적을 공격하는데 있어서나 예전과는 차이가 있겠거만 월남전이 이러한 계산에 변화를 가져왔다. 미군을 대규모로 월남전에 투입할 수록 「유럽」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월남전에서, 잠시 주춤하고 군대를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 「닉슨」정부의 장기 군사정책

「닉슨」행정부는 전민주당 행정부보다 모험성이 더 많으면서도 더 조심성 있는 장기 군사정책의 윤곽을 잡기 시작하고 있다.

「닉슨」행정부는 재래식 군사력을 구성하는 비행기, 「탱크」, 선박 및 군대 등 비핵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줄어든 군사력으로서 줄어들지 않은 세계에 대한 공약을 지키려면 미국은 불가불 모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사일」과 「미사일」요격무기 및 폭격기 등 핵무기 분야에서는 그 반대인 것 같다.

「닉슨」정부는 소련과의 무기통제 협정을 모색할 태세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련이 미국에 미치는 피해가 미국이 소련에 가하는 피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듯한 경향이 「닉슨」정부 군사전략의 바탕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군사기획가는 설사 미국이 일반 목적을 가진 병력을 너무 많이 줄임으로써 오산을 범한다 하더라도 큰 불행은 불러 일으키기까지는 않겠지만 전략면에서 병력을 너무 줄이는 오류를 범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닉슨」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발표된 미리 준비한 저서본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정책과 예산에 지침이 될 안전을 얻기 위해 군사전략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것은 국가안보연구자서를 가리킨다.

국방성, 국무성, 중앙정보국 및 군비관리군축국의 전문적인 연구팀들은 그간 작성한 두툼한 평가보고서를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으며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결정도 내려졌다.

「닉슨」행정부가 「존슨」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현회계년도(70년 6월 30일에 끝남)분 예산에서 40억「달러」를 절약하여 지출액을 770억「달러」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방성은 다음 회계년도에는 예산을 710억 내지 730억「달러」로 줄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 이후의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딱딱한 것이다. 예산 책정과정에서 일반 목적을 가진 군대는 근자에 이르러 최고 19개까지 올라갔던 사단수를 2 내지 4개 가량 감축하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세계 각지에 대한 군사적 공약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군대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전투에서 개입하도록 기획 편성하는 대신 한 번에 어느 한 쪽에서만 싸우게끔 계획할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소규모 전투가 일어날 때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특별부대를 무기로는 구전략이나 신전략이나 마찬가지이다.

「닉슨」이전의 행정부들은 주로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와 같이 특별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 한꺼번에 두 곳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두 개의 전쟁에서 중대한 위기가 일어날 때는 미국 지도자들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

「로버트·S·텍나마라」가 국방장관으로 있던 마지막 몇 해 동안 그는 미국이 공격을 받고난 뒤 소련인구의 20% 가량을 멸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전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소련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만들어 내든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닉슨」행정부는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소련이 미국의 예측을 훨씬 앞질러 전략 무기 생산에 광분하게 되자 미 관계자들은 미국이 죽일 수 있는 소련인 수의 두 배에 이르는 미국인을 소련이 죽일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와 같은 『태더』의 불균형 상태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 경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그랬듯이 미국도 불명예스런 후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들의 불안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균형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소련은 앞으로 중동, 「베를린」 및 그밖에 여러 곳에서 보다 더 대담한 모험을 감행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우려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 앞으로 있을 미·소 무기제한회담이 실패할 경우 전략무기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 소련의 산·군 복합체

▲ 값비싼 권력의 장식물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는 「산·군 복합체」의 실패가 「저어널리즘」에 의하여 활발하게 다뤄진 것은 바로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어게를 나란히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확충강화된 것으로 전해지는 소련의 군사력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군수산업의 실패는 그리 명백치 않다.

그러나 소련에도 미국과 다른 형태이긴 해도 산·군 복합체 같은 것이 있어 그 거대한 군사력을 배후에서 뒷받침하고 있을 것이다.

이 소련판 「산·군 복합체」의 실패를 여러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미·소전력은 거의 균형

런던의 영국전략연구소가 세계의 군사력을 분석하여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소련은 전략적 전력 뿐이 아니고 통상전력에 있어서도 미국과 동등한 데까지 군사력을 강화 한다는 「역사적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 평가는 소련의 저도부로서는 대단한 영광인 동시에 역대의 「러시아」황제, 「레닌」, 「스탈린」이 꿈고 있던 오랜 꿈이 드디어 실현한 것이 된다.

현재 소련의 정규 총병력은 347만 미국은 3백49만이다. 실전용 대륙간 탄도탄은 소련에 1,050기 미국에 1054기로 거의 비슷하다. 미국이 소련을 앞서고 있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655 : 129) · 장거리폭격기(640 : 155)인데 소련은 중중거리탄도탄 중거리폭격기 분야에서 미국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전력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 급속도의 전력확장

또한 소련의 지상군은 세계에서 가장 경예를 자랑하고 있다. 병력 약 200만 148개 사단 중 60개 사단은 전쟁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사단이다. 중공과 국경을 접하는 극동 「바이칼」호수 이동)에는 21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사단은 그중 10개 사단이지만 나머지 11개 사단도 준전투중용사단의 규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진전이 현저한 것이 해군의 전력이다. 소련국방차관 겸 해군총사령관 「코드시코프」원수는 『소련의 해군기는 이제 7대양에 휘날리고 있다』고 그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미합동참모본부의 「무터」해군작전부장도 『소련은 불과 10년에 중요한 해양국이 되었다. 미국은 조만간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는 해군국이 아니게 될 날을 자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련은 현재 330척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0척은 원자력잠수함이다.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 81척을 포함하여 142척 밖에 없다. 「레이드」미국방장관이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련은 1년에 8척의 비율로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를 계속하고 있다. 일세인 원자력잠수함의 분야에서도 밀지않아 미국을 따라 앞설 가능성이 있다. 수상함정에서도 35척이 「미사일」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격 항공모함에 있어서는 소련은 완전히 뒤떨어져 있으며 미국은 15척 소련은 한 척도 없다.

그대신 최근 3척의 「헬리콥터」항공모함을 건조했다. 이런 강대한 군사력은 값비싼 권력의 「장식물」이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군부의 발언권 증대

소련의 국방비는 1969년 예산에서 177억「루블」 세출의 13.2%를 점하고 있다. 증가율은 68년 비율보다 낮지만 총액은 사상 최고이다. 그리고 이 국방비 안에는 군사목적에도 이용이 가능한 「로켓트」, 기타의 과학적 개발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과거 10년간 국방비는 매년 약 6.3% 증대되고 있다.

소련은 이제까지 이 거대한 국방비를 국민의 생활수준을 그리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실상 1인당 소득은 1964년 이래 7.5% 증가되고 소비공업에의 투자도 작년에만 25%나 증대되었다. 경제성장률도 연간 평균 5.4%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자연적으로 증가된 수입을 국방비와 소비물자의 생산에 돌려 왔었다.

▲ 증가되는 군부의 영향력

따라서 국방비는 매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데 소련의 역사상 단 한 번 국방비의 삭감을 기도한 지도자가 있었다. 「후르시초프」 전 수상이다.

그러나 군관계자들로부터 불평이 쇄도했다. 결국 1964년 10월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추방극」은 근본을 따지면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군지도자들은 그의 축출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소련의 국방비가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것은 「후르시초프」가 경시했던 통상병력의 강화와 근대화를 현지도부가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사일」망의 정비확충에도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정권 하에서는 군지도부가 무기확충에서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는 군부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현재의 집단지도체제가 충분히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11명의 정치국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대한 정책결정이 늦어지기 쉽다. 더구나 「체코」사건이나 중공과의 국경분쟁 등 정치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군사문제가 많아 자연히 군부지도부와의 협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당(黨)의 통제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도 현재의 소련이 군부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장군들은 당의 지도부로부터 주의깊게 경원당하고 있다. 정치국 안에는 군관계자는 한 사람도 없고 「그레치코」 국방상도 중앙위원의 한「멤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국원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한 번은 군대의 정치위원을 지낸 일이 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도 제2차 세계대전중 「우크라이나」 방면군의 정치위원이었다.

이같이 공산당이 군부를 일단 누르고 있는 형세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군부와 정치지도부와의 마찰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 「우스티노프」의 입김

강대화하고 있는 군부를 배후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주목을 끌게된 것이 「산·군 복합체」이다.

이 산·군 복합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스티노프」 당정치국원 후보겸 중앙위원회 서기이다.

「우스티노프」는 「레닌그라드」 군사기술대학을 졸업한 후 무기설계가로서 유명해지고 7후 모스크바의 「볼세비키」 군사공장지배인으로 활약했다.

그때 「갈탈린」의 눈에 띄어 이후 당의 국방부문에 관여했고 현재도 당내에서 군사공업담당 책임자로서 군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유능한 실무가로서 1941년 「나치」독일의 침략으로 위기에 직면한 군사공장시설을 「우랄」지방으로 이전시켰다.

「후르시초프」로부터는 한 번 군사비를 낭비한다고 비판을 받아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 넘기고 정치국원 후보라는 중요직위에 섰다.

「그레치코」 국방상 등 장군들은 중앙위원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의 서열로는 「우스티노프」가 상위에 서 있다. 그러나 양자는 국방예산을 많이 따내는 작전에서도 항상 협력하고 있다. 「우스티노프」, 「그레치코」 양인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슷한 소련 국방위원회의 「멤버」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미·소 핵전쟁 최근 「스코어」

▲ 소련 ICBM 보유 미 능가?

소련은 핵무기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탄의 보유고에서 이미 미국을 따라왔으며 처음으로 급속히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이곳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소련은 각각 1,050기의 대륙간탄도탄을 갖고 있으나 금년말에는 소련이 미국보다 100기 더 많이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67년 소련의 전략용 「미사일」보유량은 미국의 보유량의 반에도 미달했으나 작년 에 800개로 급증했다.

미국의 저상기저 발사용 「미사일」 수는 변함이 없으나 더 강력한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실험중에 있는 신형 핵탄두「미사일」이 완성되면 미국의 「미사일」 파괴력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전략문제 연구소가 밝힌 「1969~70년 군사력비교」에 의하면 그밖의 미국과 소련 및 중공의 다량학살무기 보유량에 관한 추산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잠수함발사용 핵「미사일」 생산면에서는 미국에 훨씬 뒤떨어지고 있어서 현재 약 160개의 잠수함용 핵「미사일」을 갖고 있어 잠수함용 핵「미사일」분야에서는 4대 1의 비율로 아직도 소련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현재 매년 4척의 비율로 미국의 「플라리스」유도탄잠수함과 같은 「미사일」 16기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플라리스」유도탄잠수함 4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플라리스」유도탄 잠수함 한 척이 16개의 핵「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으며 「플라리스」 핵「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700「마일」 내져 2,850「마일」에 달한다.

한편 중공의 핵폭탄 및 「미사일」개발계획은 서방측이 추정하고 있는만큼 빨리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은 현재 20「킬로톤」급의 소형원자탄 55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며, 소량의 중거리 탄도탄의 배치나 대륙간 탄도탄의 실험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탄을 작년과 같은 1,054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강력한 공격무기인 다탄두궤도 「미사일」을 실험중에 있다.

한편 소련도 이를 실험하고 있으며 소련의 「미사일」 증강은 미국의 「미사일」기저들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 소련 신형「미사일」SS-9

미국정보당국은 소련의 거대한 신형 다탄두「미사일」SS-9이 목표물의 0.4Km 지점 안을 적중시킬 수 있는 정확성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의회증언에 의하여 밝혀졌다.

「방위용」요격「미사일」망의 관리책임자인 「A·D·스타버드」중장은 하원세출분과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소련이 1970년대 중반기까지 개발할 3개의 5「메가톤」급 탄두를 탑재할 SS-9의 공격능력에 관해 미정보당국은 이같이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버드」중장의 증언은 하원이 다탄두궤도폭격망(MIRV)의 개발추진자금을 비롯한 총 23억\$의 국방 구입법안을 상정시킨 것과 배를 같이하여 발표되었다.

미국의 다탄두 궤도폭격망은 소련의 SS-9 다탄두「미사일」과는 달리 약 1「메가톤」급의 소형「미사일」을 적재 하게 되는데 다탄두 궤도폭격망의 정확성에 관한 증언 내용은 하원세출분과위원회 증언록으로부터 발표 보류되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회는 소련의 SS-9 다탄두 「미사일」의 위협을 들어 다탄두 궤도폭격망의 개발계획은 물론 총 7억 4천 6백만「달러」의 지출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말생 많은 「방위용」요격「미사일」의 개발계획을 저지했다.

하원군사위원회는 연례 국방 구입법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소련의 다탄두 「미사일」SS-9는 소련이 미국의 미사일이 반격해올 사이도 없이 미국의 「미사일」을 일격에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다탄두 궤도폭격망과 「방위용」요격「미사일」망은 미국의 보복력을 강화하고 소련의 제 1 공격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 전략문제 연구소의 보고서

소련은 지상에 기지를 둔 대륙간탄도탄의 보유 수에 있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한 반면에 중공의 핵유도탄계획이 상당히 뒤지고 있다고 영국 전략문제 연구소의 연례보고서인 「69~70년도 군비균형」에서 지적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미국이 다만, 잠수함 적재유도탄과 다탄두 유도탄의 보유 및 제

작에 있어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공은 중·소전쟁에 대비할 만한 재래식 무기생산도 실통치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지적된 군사적인 무력균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중공·소련 관계

① 중·소양국은 국경선상에 서로 정규군을 배치했으며 소련은 모두 21개 사단을 그리고 중공은 20개 사단병력을 각각 국경선에 진주시켰다.

② 중공육군은 60만명을 증원했고 중소국경선에 주둔한 부대에 「대포」와 「탱크」를 무장시켰다. 중공은 신탄성 내몽고지방에 둔전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③ 중공의 잠재군사력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병력수에 있으며 그들의 군수산업은 대전쟁에 필요한 대량생산을 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④ 중공의 핵무기도 이러한 열세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들이 지닌 핵분열물질은 현재 20Kt짜리 원폭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⑤ 핵융합물질인 수소폭탄 수「매가톤」을 만들만큼의 분량이 있음에도 중공이 핵실험을 늦추고 있는 것은 핵물질의 대량생산체제가 안 됐음을 뜻한다.

⑥ 중공의 유도탄개발계획도 예상대로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중거리유도탄이 67년도에 배치되었을 터이지만 아직 발사기지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없다. 대륙간탄도탄의 대륙형단시험발사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는 66~68년간의 문화혁명과정에서 핵 및 유도탄개발에 조사하는 과학진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미·소 대조표

①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이 1,054기 소련이 1,050기를 보유하여 평형을 이루었다. 소련은 아직도 유도탄에 있어 액체연료를 쓰며, 다탄두 궤도차량(MIRV)을 개발하고 있다. 소련은 그밖에 각각 마로이 겨냥하는 다탄두 궤도차량도 개발할 단계에 있다.

② 소련은 25「매가톤」짜리 핵탄두를 장치한 가공할 신무기 「SS-9」 「로켓트」 200기를 배치하고 있어 미국 본토의 유도탄 기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③ 미국도 이에 맞서 다탄두궤도차량에 쓰일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④ 미국은 잠수함에 유도탄 656기를 적재하고 있으나 소련은 160기밖에 안 되며 영국은 핵잠수함유도탄 48기 밖에 없다.

⑤ 소련은 이에 대항하여 해저에서 유도탄 16기를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도탄 적재용 핵잠수함을 개발 취역시켰다. 연간 생산은 4척 정도이다.

⑥ 소련은 해병대의 기능에 새삼 관심을 보여 12,000명의 해병대를 창설했다.

⑦ 소련은 종래 지상군의 보조세력 밖에 안 되던 해군력을 급속히 확장 범세계적으로 소련의 이익을 뒷받침할 대양해군력을 기르고 있다.

⑧ 소련의 지중해 함대는 25~60척에 달하며 「탱크」를 상륙시킬 수 있는 배와 「헬리콥터」항공모함도 배치했다.

⑨ 최근 소련은 6개 사단을 극동에 배치한 외에도 「폴란드」에 1개사단 「체코」에 5개사단을 추가 파견했다.

이로써 동구주둔 소련군은 동독에 20개 사단 「폴란드」에 3개 사단 「체코」에 5개 사단 「헝가리」에 4개사단 등 도합 32개 사단이며 그중 10개 사단은 기갑연대 사단이다.

◇ 중공 핵개발의 전망

▲ 70년 까지 수폭 100 개쯤 보유

지난 10년 동안 중공은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쏘를리는 자금과 딸리는 인력을 투입해 왔다. 중공은 핵시대의 자원이 풍부하며, 1960년 소련과 이념분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우라늄」원광을 소련으로 수출하기까지 했다. 난주에 있는 시설에서는 연간 20개의 원폭을 만들어 내기에 족할 「우라늄 235」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공은 현재 여러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 낸 온갖 종류의 원폭을 80개나 보유하고 있다.

이 생산비율은 급상승할 것 같다. 미 과학자들은 중공이 1970년까지 수폭 100을 저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공의 「미사일」개발계획도 급「템포」로 추진되고 있다. 중공은 이미 단거리 및 중거리(1,500마일) 「미사일」을 완성했고, 금년중에 중공연안에 걸쳐 중거리 탄도탄의 백정에 착수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대부분이 중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된다.

중공 「미사일」의 가장 두드러진 목표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공교롭게도 중공업자들에게 북평이 「미사일」개발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정밀기술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일본은 「로케트」 금속인 「티타늄」과 「탄탈륨」을 만들어 내는 진공로와 압연공장을 중공에 매도했다. 일본은 비록 명목상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표를 지키고는 있지만 중공본토와의 거래에서 얻는 막대한 이익이 끄는 유혹에는 저항하지를 못한다. 또한 일본에는 대중공 무역에 대한 수사나 검사를 하는 기관이 없다. 중공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만한 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탄을 완성하자면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추측일 것이다.

▲ 실전용 수폭개발 일보전진

중공은 건국 20주년 기념일(10월 1일)을 노려 실시한 9월 20일의 지하 핵실험과 29일의 대기권수폭실험은 64년 10월 최초의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9, 10번째의 핵실험이며, 특히 최초의 지하핵실험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것은 지하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대기권실험의 실적을 쌓은 국가가 아니면 실험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공의 핵실험능력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공의 핵실험의 의의는 종래의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핵무기개발이란 실제적 목적과 국내외를 향한 정치적 선전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공의 당면목표는 정거리「미사일」과 이에 적재할 소형수폭탄두 개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공은 67년의 실험으로 수폭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68년에는 폭발위력 3「메가톤」 중량 3t의 수폭실험 성공 등 일련의 실험을 통해 수폭탄두의 소형화내지 경량화를 기도해 왔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실험으로 중공은 실전용 수폭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의 지하 핵실험실시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배 풀이의 근거를 두는 사람도 있다.

중공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권내 실험에 대해 아무런 국제적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 미·소와 함께 조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지하 핵실험만을 실시해야 할 날이 올 것을 예상 그때에 대비한 계획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핵실험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핵무기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반면 「정치적 무기」로 변모해가고 있는 이상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 또한 크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런면에서 중공은 건국기념일을 앞둔 2회 연속의 핵실험이 거두게 될 국내에 대한 시위효과를 물론 타국 특히 강대국들이 받게될 충격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소 등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가치가 적어진다는 판단 아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핵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기운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미·소양국은 이번 중공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그다지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듯 하다. 그러나 중공은 미·소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길을 간다」는 등의 방침 아래 조금도 핵개발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맺는 말

▲ 향후 10년은 군축의 시대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은 제 2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장문의 보고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10년 간을 「군축을 위한 10년대」로 선포하고 이 10년 간에 핵무기와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생산을 제한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대규모 핵군축경쟁에 종지부를 찍어 세계인류를 파멸의 위기로부터 구출하자고」 호소했다.

「유엔」 연례보고 중, 총 81년에 달하는 방대한 「서문」에서 「우·탄트」 사무총장은 주로 핵 군축의 중대성을 누누히 역설하는 가운데 「핵무기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안보는 그만큼 더 위태롭게 된다」고 지적, 우선 세계 2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군축회담에서 합의할 이를 때까지 현재 모든 무기를 「동결」시키는 한편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을 중지하라고 호소하고 핵군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중공을 현 군축문제토의에 끌어들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우·탄트」씨는 모든 핵보유국들에게 지하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하면서 가능하면 현 총회기간에 「해상의 비군사화」조약이 체결되어야 겠다고 강조했다.

군 정 신 교 육 의 방 향



유 은 상

차 례

1. 문제의 중요성
2. 군인정신의 기본적 요소
3. 현실론
4. 우리에게 대한 국민의 기대
5. 맺는 말

1. 문제의 중요성

일정한 사회와 그 속에 포함된 가치 체계는 모든 교육의 전제요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를 긴 시간의 안목에서 볼 때 그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이 그 사회의 목적이 되며, 이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주체가 되는 인간의 양성이 바로 교육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는 그 자체 내의 내적인 여러 요소와 그 사회 밖의 외적인 여러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

라 교육도 변화하며, 이 변화가 전진적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하여 방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대두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현상의 유지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보다도 오늘의 현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은 질서를 향하여 현상 타파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 교육의 방향의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군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군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군교육이 필수적이며, 군정신교육의 방향이 문제가 된다. 또한 우리 국군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사회가 국토통일 및 경제적 후진성의 탈피라는 현상타파적 새 질서를 추구하고 있느니 만큼 더욱 더 이 군인정신교육의 방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군인정신의 기본적 요소

군인정신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것을 군인이 감당해 가는 그 기능을 따라 몇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 국군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민족사회의 생활양식을 군집단에 맞도록 해석한 것은 「국군의 이념」과 「군조직 자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요소」와 또한 「군집단의 추상적 목적」이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 되어지는 「전투를 위한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가. 국군의 이념

국군의 이념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군이 무엇이며 또 그 군집단이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국가가 무엇이나를 살펴 봄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국가라는 정치현상을 설명함에는 여러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등장될 것이나 국가라는 정치조직의 출발과 유지의 가장 큰 동인의 하나로써 「친구와 적의 구별」을 말함에는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적의 개념은 라틴어에 나오는 Imminicus라는 개념이 아니라 Hostis라는 개념을 말함을 부연한다.

오늘의 국제사회의 수 많은 국가들도 어떤 한 국가의 입장에서 엄밀히 살펴보면 「친구와 적」들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러

한 적의 존재에 의하여 우리의 인식이 확실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친구와 적의 투쟁에는 수 많은 형태가 존재한다. 우방사회의 가치체제와 적성사회의 가치체제의 투쟁, 경제적 투쟁, 무력투쟁 등 수 많은 투쟁을 통하여 서로의 존재를 부인하며 또한 그 존재에 근거한 생활양식을 부정한다. 이 수 많은 투쟁의 형태 가운데 전쟁이라는 형태의 무력투쟁에서 자국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군대이다.

이러한 군이라는 집단의 이념은 그것이 지키려하는 국가의 가치체제를 말하는 것이며, 그 국가의 가치체제가 선포하는 친구와 적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와 적의 구별은 바로 군인정신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적을 죽임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요 친구를 죽임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장개석을 교장으로한 황포군관학교에서 주운태에 의하여 붉은 사상을 교육받은 임포의 예는 국군의 이념이 군인정신의 기본적 요소로써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국군의 이념은 「군인의 길」 하

나와 「군복무 규율」에 명시된 대로 국가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나. 군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요소

군사회는 민간사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 차이가 뚜렷하다.

민간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적 목적 추구가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게 되며, 어떤 규율보다는 자유가 강조되며, 또 질서는 수평적이다. 그러나 군사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획일성이 강조되며 규율이 강조되고 또한 수직적인 질서가 지배한다. 따라서 군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신적 요소는 민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군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구분해 보면

(1) 명예심, 충성심——군인 하나 하

나가 어떤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명예심과 이것에 따른 충성심이 군인정신의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2) 검소한 기풍, 근면한 습성, 청백한 품성——군사회가 물질적 욕심으로 부패해지면 그들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며 또한 흥기를 든 도둑의 무리가 된다. 무사제급의 가족제도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 Plato의 공화국론 속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십자군들이 사라센을 정복한 후 물질에 눈이 어두어 하나의 장사치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결과 전쟁에 참패한 사실이나, 중국군의 부패한 중일전쟁 당시의 역사적 사실은 청백한 품성 검소한 기풍, 근면한 습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인정신의 요소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3) 책임감, 상경하애, 복종심, 공사구분, 전우애, 희생정신, 준법정신——단결 없는 군대는 가장 연약한 군대이다. 이 단결을 위하여 엄밀한 수직적 질서가 필요한 바 부하는 상관을 존경하고 상관은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나, 국민의 권위가 인정하는 질서에 대한 복종심,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는 희생정신 등 위에 적은 요소들은 강군되는 선결 조건인 단결을 위

하여 필요한 정신적 요소이다.

다. 전투를 위한 요소

전투를 통하여 군의 목적이 구체화 된다. 전투에서의 목표는 승리이다. 전투뿐만 아니라 군대의 목표는 승리에 있다. 이 승리를 통하여 국가가 보전되며 발전된다. 이런 전투에서 제일 요구되는 것은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등이라 하겠다.

상술할 수 많은 군정신의 제 요소들은 불과 몇 주 안 되는 짧은 기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다 구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서 장 기간에 걸치는 시간을 요하여야만 구비되어질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기본 군사훈련은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교육 받은 수 많은 정신요소 중에서 군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것으로 재정리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3. 현실론

가. 사관의 결여, 적에 대한 지 부족

국군의 이념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국군의 투쟁목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국토를 지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적이라 함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배척하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다른 존재를 말한다.

우리의 생활양식이 무엇이며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기애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영광된 것인가하는 문제를 철저히 알고 또 우리의 적이 무엇이며, 적들이 주장하는 생활양식과 가치체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알아 국군의 이념에 투철한 군인이 되는 선결 요소이다.

이에 우리를 어떻게 보아야하며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사관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사관이 철저할 때에만 국군의 이념이 확실해 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명할 때 국군의 이념은 단순한 관념이 되어 버리고 만다.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은 비록 그것이 불렸을지라도 직선적 시간의 개념에서 출발한 그들의 사관인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공산사회의 유물사관을 신앙하면서 저급 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이미 결정된 승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죽는다고 하지 않던가?

또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 사람들도 모든 승패의 원인을 내적인 면에서 찾으

면서, 유일신 「야훼」에 의한 신앙에 기초한 사관으로 역사를 보고있다.

고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패하여 모든 능력자들이 그곳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바빌론의 문화 앞에 정신적으로 항복하고 그들의 신 「야훼」를 버리고 「마르드크라」는 바빌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서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면서 바빌론 나라도 그 나라의 찬란한 문화도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를 것이나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외친 것이다. 이 영원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역사관 밑에 면면히 깔려 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는 사관이 결여되고 있고 과거 식민지적 사관에서부터 민족주의 사관의 정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들 말한다.

또한 적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고 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공산주의는 나쁘다고는 배워왔으나 실상 구체적으로는 이 방면에 무식한 것을 보고있다.

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위에 논한 수 많은 군정신 요소의 함양을 위하여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필요하며 그 위에 군사훈련이 쌓

아져야 한다 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1) 가정교육

우리는 동양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의 소가족제도로 바뀌어지는 과도기에 있다. 또한, 상당수의 부인들이 직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옛날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비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인격에 접하는 시간보다는 점점 T.V, 라디오 등 매스컴에 접촉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가정에서 교육되어 질 수 있는 교육내용도 유교적인 것에서 서구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유동적인 것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 교육

훌륭한 하사관의 양성은 고등학교 교육의 성패에 달려있고, 훌륭한 장교를 길러 내느냐 못하느냐의 성패 여부는 대학교육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들은 성공적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유감스럽지만 부정적이 될 것 같다.

기능과 지식의 면에서는 옛 것에 추종을 불허하는 장교의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실상 군정신에 필요한 제 요소

의 면에서 볼 때는 개선해야 할 남은 것이 많다. 대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때문 보면 그 단면도를 나타낸다.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금전이 거기에도 판을 치고 겨방색은 남은 세대보다 더욱 심한 것 같고 명예심이니 긍지니 합리성이니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은 세대와 새 세대의 대립에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마찌니」의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이야기라면 새로운 세대가 없는 우리에게겐 새 역사도 없고 발전도 없을 것만 같다.

(3) 사회교육

오늘의 사회를 영화, 돈, 기계의 세 낱말로 표현해 버리는 것을 종종 듣는다. 비록 그렇지 못하나 하여래도 금권이 지배하고 정신적으로는 알파한 기계적 합리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필승의 신념이니 영원에 대한 신앙이니 하는 것 보다는 보이는 물질적인 힘이나 기계에 대한 승배가 안 안리에 횡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풍조에 의한 교육은 진리에 대한 신앙보다도 다수에 대한 승배, 금력과 기계에 대한 믿음을 잉태할 뿐이다.

4. 우리에게 대한 국민적 기대

비록 우리 군이 정신적으로 강군이 되기에 흠족할 만한 가정, 학교 및 사회교육의 뒷받침이 결여됐다 할지라도

국민은 우리가 적과 싸워 항상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주기를 열망하고 있고 이것이 민족사회의 방패로 자처하는 우리 군의 목표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새 사회에 대한 뜨거운 환상을 가진 국민들은 누구나 다 거치는 몇 년 간의 군대 기간이 사회의 모든 흐름을 단결 시킨 채 새 사회를 창조할 새 인간을 만드는 교육기간이기를 원한다. 사실 군생활 3년은 대학교육이 주당 23시간의 교육이라 한다면, 군교육은 하루 24시간 다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당 24×6의 즉 주당 18년(대학교육 시간으로 계산하여)이 되는 엄청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교육기간이 새 인간 형성의 기간이기를 기대한다.

5. 맺는 말

기본군사훈련의 몇 주는 강군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다만 시작일 뿐이다. 더우기 가정, 학교, 사회교육으로부터 강군을 위한 정신요소를 구비한 인적 요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전복무기간은 전투의 수행기간이자 강군을 위한 교육기간이어야 하며 새 역사를 창조할 새 인간 형성의 기간이 되도록 재편성 되어야 하겠다.



급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히 동 명

1. 가난 속에서

(1)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농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서민생활——

이것이 바로 몇 해 전까지 되풀이되어 온 농촌풍경이었고 우리 국민의 생활 모습이었다.

너무도 긴 세월을 우리 민족은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해 왔다.

남들은 한결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영광된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던 그 귀중한 시기에 우리는 가난을 마치고 어쩔 수 없는 천부의 것인양, 한탄만 하면서 세월을 허송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과거이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때는 중

요한 원인이 있기는 했다.

근세로 접어드는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는 36년간의 일본 통치하에 허송했고, 전후의 부흥에 모든 나라들이 충력을 기울였던 시기에 우리는 분단된 비극 속에서 또 다시 「6·25」의 쓰라린 동란과 전화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까지 되풀이되기만 했던 가난의 역사, 제자리 걸음의 역사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번영의 역사, 도약의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계기가 바로 5·16군사혁명, 민족의 팔로를 열어준 것이 바로 5·16혁명이며 박정희 대통령이였다.

사회의 안정이라는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면서 경제개발로 집중된 부단한 노력과 같은 신념은 결국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 왔고, 경

급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제는 급속도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는 드디어 번영의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제 1차 5개년계획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장기 종합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펼쳐 놓았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가난 속에서만 허덕였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다.

60년도를 기준 연도로 정하고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되어 나갔던 이 계획에는

첫째: 전력, 석탄 등 동력원의 공급을 확보하고,

둘째: 농산물을 증가시키며 농가소득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며,

셋째: 기간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사회 간접자본을 형성하고,

네째: 유휴자본과 산업자본을 활용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토를 개발 보존하며,

다섯째: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를 모두 잡으며,

여섯째: 기술을 진흥시킨다는 목표

를 설정했다.

(3) 결과는 예상보다 더

꿈 같지만 했던 청사진에 국민은 그대로 기대를 걸었다.

국민은 하나씩 하나씩 희의를 거두고 밟고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지혜와 노력—피와 땀이 얹힌 인내와 투지가 집중되었다.

(4) 새로워진 조국

불과 5년 동안에 조국의 모습은 달라졌다.

곳곳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비료, 정유,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규모의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연산 85,000톤의 호남비료공장이 준공되고(64.4.), 제3, 제4, 제5 비료공장의 건설이 착수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정유공장이 준공(63.12.), 가동(64.4.)되었으며 연산 20만톤의 현대, 연산 40만톤의 한일 및 쌍용시멘트공장이 196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모두 완공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에 처음으로 85,000톤을 생산했던 비료는 1966년에 241,000톤을 생산했고, 430,900톤을 생산

했던 시멘트는 1,880,200톤을, 그리고 유류는 처음으로 국내생산 공급을 하게 되었다.

5년 동안에 광주, 왕십리 및 제주의 3개 디젤발전소와 삼척 제2화력, 부산 화력, 진주 영월화력과 그리고 순전히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춘천수력, 삼진강수력 등이 생겼고 영월화력, 청평수력이 복구됨으로써 1960년에 시설 용량 367,254kw이던 전력은 해방 후 처음인 무제한 송전을 기록하면서 769,485kw로 배가되었다.

서해와 남해의 넓은 바다물이 육토로 바뀌어지고 농지는 바둑판 처럼 정리되어 갔다.

농도와 도로가 뻗어나고 산업철도가 건설되고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리하여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했던 중요 소비물자가 국내생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외래품으로 가득찼던 국내 시장이 국산품으로 완전 대체되었다.

1960년도에 3,28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상품수출은 1966년에는 8배가 되는 2억 5천만 달러로 급격히 상승했다.

57~61년의 5개년간에 연평균 5.0%의 성장을 보여주던 경제는 62~66년의 5년간에 평균 8.3%의 성장을 보

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1960 연도의 8,742원(82.6달러)에서 66년의 31,006로 늘어났다.

(5)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된다」던 우리 사회의 통념은 「하면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가난은 천부의 것」이란 생각은 「가난은 자기 탓」이란 생각으로 변해 버렸다.

2. 3년만에 달성한 제2차 5개년계획

(1) 또 전진

처음으로 피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자 정부는 바로 제2차 5개년계획의 시행으로 돌입했다.

중단을 모르는 전진인 셈이다.

1965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제1차 5개년계획이 끝난 바로 다음해인 1967년부터 시행된 제2차 5개년계획은 1971년을 최종 연도로 하고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에 중극의 목표를 둔 이 제2차 5개년계획은 첫째로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하며

둘째로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고도화 된 공업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배가하며

세째로 7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굳히며

네째로 고용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하고 다섯째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케 하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주력하며

여섯째 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고 인적 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늘린다는 데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 2년을 단축하고

이와 같은 제2차 5개년계획은 67년과 68년, 그리고 69년의 3개년을 추진해나오는 동안 놀랍게도 69년 만에 이르러 그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다.

5개년 계획기간중 연평균 7.0%의 경제성장률을 목표했었으나 67년에 8.9% 68년에 13.1%의 고도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11.7%의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됨으로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3년으로 달성되게 되었고, 수출도 금년으로 7억불 달성이 무난하게 됨으로써 71년의 목표를 2년 앞당기게 되었다.

에너지원의 개발분야에 있어서도 2년을 앞당겨 달성했는바 계획기간중의 목표였던 162만 9천kw의 시설용량 확보문제는 금년 6월 4일 부산화력 제 3, 4호기의 가동으로 조기 달성하게 되었다.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나프사 분래를 비롯한 10개계 열공장과 1개 지원공장으로 구성된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연간 60만톤 생산규모의 종합계철공장 건립을 착수했다.

특히 농어촌 개발에 치중하여 1968년부터 1971년까지의 3개년간에 실시될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 위해 90개 지구에 474억원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401억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90.3%의 수리안전담 조성과 농가 매호당 225,000원의 소득실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인천, 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의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동맥의 대폭적인 확장, 동진강 수리안착사업의 준공과 잇달은 기간산업 공장들의

준공은 명실공히 공업 한국으로의 기
반을 닦아 놓게 된 것이다.

3. 급격하게 늘어난 내살 림, 나라살림

(1) 국민소득은 7.5배로

제1차 및 제2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인 시행은 우리 경제를 놀라게 성장시
켜 놓았고, 개인생활과 국가생활을 크
게 올려 놓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즉 1957년에 7,922원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8,742원으로 별
증가가 없었으나, 1967년에는 41,806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1968년에
는 51,529원이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59,400원, 불화로
185.2달러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예
정이다.

이렇게 되면 1957년에 비해 7.5배
1차 5개년계획 기준 연도인 1960년에
비해 6.8배로 늘어나게 된다.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

1968년에 우리 경제는 13.1%라는
고도성장을 보여 주었다.

즉 1968년의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은

경상시장 가격으로 1조 5,700억원, 불
화로 50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전년도
에 대비하여 명목상 26%나 증가한 추
세를 보였는바 이것은 물가동기를 계
위한 1965년의 불변시장가격으로 1조
1,254억으로 13.1%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실현된 셈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
으로 57~61년의 연평균 5.0%의 경제
성장률을 62~66년의 5년만에 연평균
8.3%로 크게 늘렸으며 특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던, 2차 5
개년 계획기간 중인 67년에는 8.9%, 68
년에는 13.1%, 그리고 금년에는 목표
11.7%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으로써 3개년 동안에 5개년간의 목표
를 달성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고도 성장은 작년도의 일
본이 12.6%, 자유중국의 10.3%, 필
리핀의 6.3%, 태국의 6.0%, 인도의
3.0%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이며 세계
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
로 인정받고 있다.

(3) 없어진 「보릿고개」

해마다 춘궁기면 겪게 되는 「보릿고
개」가 이제 농촌에서는 없어졌다.

조근목피로 근근히 연명해 나가던

급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그 저곳저곳했던 「보릿고개」가 농촌의 발전과 함께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이제 1971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소득 특별 증대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식량증산계획이 완료되면, 1971년에는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 농가호수당 소득 225,000원의 달성, 전체 논·밭의 수리안전담(1,176,000 ha)이란 꿈이 실현된다.

(4) 향상된 문화생활

제1, 2차 5개년계획의 시행, 농촌진흥, 농촌근대화화를 위한 여러가지의 중점적인 시책의 추진은 농어촌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상을 가져 왔다.

벽촌마다 국민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었고 짚신신고 베를 짜임는 자급자족의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 고무신과 의복을 사입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문화수준의 척도인 라디오의 보급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1961년 9월 현재 전국의 라디오 보급수는 70만 7천 34대로 매 1,000가구마다 161대, 인구 1,000명마다 28대의 라디오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967년 7월에 라디오 보급수는 263만 2천 4백 14대로 급증되어 매 1,000명당 90대로 늘었고, 다시 1969년 6월말 현재 351만 3천 2백 52대로 전국의 총 524만 6천 114가구중 67%가 라디오를 갖게 됨으로써 3집마다 1대꼴로 늘어난 셈이다.

혁명직후에 비한다면 무려 7.4배가 늘었으니 문화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겠다.

4. 공업 한국으로

(1) 공업국가로 개선된 경제구조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던 지난 8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업면의 구조를 「공업화」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것은 경제구조면에서 2차산업을 크게 높여준 것을 뜻한다.

1957년도에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1차산업인 농업, 수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은 45.2%, 3차산업인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업이 차지했던 비중은 42.3%, 그리고 경제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2차산업인 광공업이 차지했던 비중은 겨우 12.5%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66년도에 이르러 광공업은 19.6%로 늘은 대신 사회

간접자본과 기타 서어비스업 부문은 44.3%, 농림수산업 부문은 36.1%로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작년에는 다시 1차산업이 28.0%로 떨어지고 2차산업은 21.4%로, 3차산업은 50.6%로 증가되었다.

(2) 제조업분야의 놀라운 성장 27.1%

물론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은 제조업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제조업 분야의 성장률은 또 수 많은 공장건설에서 실현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같이 제조업 분야의 놀라운 성장률이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된다면 공업국가의 실현은 조기단축됨은 물론 불과 몇 년후에 우리 경제는 일본의 경제를 앞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5. 건설 또 건설

(1) 치솟는 공장들

제1, 2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건설된 공장은 너무도 많다.

그 규모만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단일요소 비료공장인 「한국비료」를 비롯하여 동양 최대의 「동양시멘트」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제2차 5개년계획인 67년에

건설된 공장만도

○ 공영 화학의 P.V.C.공장(울산)을 비롯한 석유화학공장

○ 제철 제강부문에 연합철강 일산산업의 2개의 냉간압연공장

○ 한국비료, 풍농비료의 2개 비료공장과 4개의 비료공장의 시설확장

○ 동양, 쌍용의 2개 시멘트공장의 시설확장

○ 합성방직 포리아크릴 등 4개의 섬유공장

이밖에 소다회공장, 셀로판공장, 포리에틸렌대공장, 케이블공장, 타일공장, 피아노, 필터, 시계부속 등 총 40여개 공장이 새로 설립 또는 시설확장을 보았다.

또한 68년도에는 동양대단위 시멘트공장을 비롯하여 42개 공장이 세워졌으며, 69년도에는 호남정유, 울산 「알루미늄」공장, 제련공장 등 9개 공장이 완공됐다.

이와같이 공업한국의 면모는 더욱 더 빛나게 될 것이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우렁찬 기계의 가동소리가 약진하는 한국의 맥박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립과 번영을 다짐하는 근대화예의 길은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

가. 자급자족하게 된 비료

급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8만5천톤에서 128만톤에서 15배 증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업
국가로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비료를 연간 5천만불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 왔고, 농사철에 외국의
비료가 적기에 들어 오지 못할 경우
흉작을 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료공장을 거대하게 만들어
서 우리 농민들에게 싼값으로 비료가
배분되는 것은 커다란 우리의 꿈이
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0년에 충주에
8만5천톤 규모의 비료공장이 가동을
보게 되었고, 다시 1962년에 전남 나주
에 호남비료와 같은 규모로 생산을 함
으로써 비료사정은 완화되었고, 기존
공장으로서 경기화력이 용성인비 5만
톤, 삼척화학에서 석회질소비료를 연
간 2만4천톤을 생산하게 되어 1966년
말에는 24만4천톤의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5개년계획인 1967년도에
는 단일규모 공장으로서는 세계최대
인 요소비료 연간 33만톤의 생산능력
을 갖는 한국비료와 요소비료 18만4천
톤과 복합비료 8만톤의 동일한 규모를
갖는 울산의 영남화학(제3비료) 및 진
해화학(제4비료)이 준공되었고, 용성인

비 5만4천톤의 생산능력을 갖는 풍농
비료가 준공됨으로써 연간 115만4천톤
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에 의존했던 질소질 비
료는 자급단계를 넘어서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68년도에는 충주비료공장을
3만톤 더 시설을 확장하였고 풍농비료
를 배로 확장하였다.

69년도에는 호남비료를 3만8천톤 확
장함과 동시에 인산질비료의 자급자족
을 위한 시설확장과 더불어 국내 가리
질 자원을 이용한 가리질 비료공장의
기업화를 도모할 것이며 따라서 71년
도에는 17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나. 쓰고 남은 시멘트, 38만톤이
650만톤으로 17배 증산

1958년에는 31만톤을 수입하기 위하
여 650만불의 외화를 지불하였고, 1963
년만 하더라도 28만톤을 수입하기 위
하여 520만불의 외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중 한
일시멘트 40만톤, 쌍용시멘트 40만톤,
현대시멘트 20만톤이 완공되고, 66년
말에 충북시멘트 40만톤이 건설됨으로
써 1960년도의 38만톤 생산규모에서
4배가 늘어난 212만톤에 달하는 시설

규모를 갖게 되어 국내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의 여력을 갖게 되었다.

시멘트 시설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1967년도에는 288만톤, 1968년에는 동양회대의 쌍용시멘트, 동해 대단위공장의 170만톤이 준공되었고, 현대시멘트가 20만톤을 배로 확장했으며, 대한시멘트가 12만톤을 증선함으로써 490만톤에 달하게 됐다.

한편 1969년도에는 한일시멘트가 50만톤, 성산시멘트가 100만톤, 동양시멘트가 10만톤을 시설 개량 건설함으로써 160만톤이 증가되어 도합 650만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 확충되는 기계공업

69년에만 182여 방을 지난 50 년대에 극히 저조했던 기계공업은 60 년대에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었다. 산업기계, 공작기계, 섬유기계, 농기구, 자동차, 조선, 통신기, 수송기계공장 등이 건설 또는 크게 확장되었고, 외국과의 기술 제휴의 강화로써 초기단계에는 부분품을 국외에서 도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 부분만 하더라도 선반기, 동력살분무기, 동력경운기, 엔

진 등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전동기, 라디오, 전화기, 변압기, 전선, 텔레비, 발전기, 어군탐지기 등의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객차, 화차, 자동차 등의 국산화가 촉진되었다.

라. 석유화학공업의 단지조성, 외화절약, 8천만 달러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을 개발하는 동기는 최근 수 년간에 걸쳐서 석유화학제품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비량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 이의 수입대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데 있다.

화학비료 P.V.C. 등의 합성수지, 나일론 아크릴화이버, 합성고무, 합성세제, 유기약품 등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고 또한 장래에도 그 수요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은 제 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이룩하여 놓은 원료공업인 정유공장과 이용공업인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연결하는 중간원료의 생산으로 교량공업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서 석유화학공업의 완성시에는 최초의 원료로부터 최종의 제품에까지 국내에서 일괄생산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업구조면에서 종합체제, 기계공업 등

급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과 결부하여 공업화의 관건이 되는 중화학공업 개발계획의 일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67년 7월에 울산에 석유화학공업 단지를 선정하여 착수하게 된 이 사업은 현재로 나프타분해 공장을 중심으로 한 11개 공장은 외자 1억8천5백만 달러, 내자 89억원으로 총투자 2억1천6백만 달러로 70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1971년도에 준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공장의 가동으로 연간 약 1억달러의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8천만 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

마. 연산 60만톤의 종합제철공장 건설
우리나라의 제철공업은 60년도까지만 해도 시설의 미비, 노후 등으로 생산이 부진하여 불과 14만2천톤의 생산실적을 보였으나, 68년도에는 제철이 8만9천톤, 제강이 58만5천톤으로 급격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압연이 70만6천톤, 강판 12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의 활발로 인한 철강재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기계공업의 발전에 따라 제2차 5개년계획에서는 제철공업을 전락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71

년에 106만3천톤의 철강재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7년에 기공식을 올린 포항 종합제철공장은 연산 조강 60만톤 규모로 1971년에 완공함으로써 기계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건설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1천7백만불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장래 300만톤 규모로 확장 가능케 함으로써 중공업 발전에 근간이 되게 될 것이다.

바. 우리 기술진으로 만드는 선박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중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474척(42천톤)의 소중형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132개의 조선공장과 142개의 중소기업공장 20개의 의장품 제조업공장을 보유하고 연간 12만톤의 조선능력과 80만톤의 보수능력을 확보하여 세계조선능력의 0.4%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69년도에는 6천톤급 강제화물선 4척을 조선공사의 기술진으로 건조하였고, 1만5천톤급의 화물선 건조를 위하여 표준형선 제정을 완료하였다.

이밖에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조선공사를 조선공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고 철강, 기계 등 관련공업육성과 해외신용의 확보, 국산화 촉진, 외국합작

투자로 대단위화 할 것 등을 기본방침으로 수립했다.

(2) 풍족한 동력자원

가. 밝아진 전력사정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50년대 후반기까지 발전시설용량은 계속 37만7천kw에 머물러 산업시설의 동력은 물론 가정등까지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전력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원개발에 주력한 결과 66년도에는 76만9천kw로 배가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은 전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기간산업 및 수출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한편 전력수요가 당초 계획하였던 소요증가율 27.2%를 훨씬 초과함으로써 1968년에는 3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것으로 1967년도에서 1968년 9월 사이에 예비충력 없는 송전을 강행했으나 장기적인 한발로 인하여 수력자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제한송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1968년도에는 이와같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군산화력, 부산화력 등 신규로 35만7천kw를 확보하여 시설용량이 모두 127만4천kw에 달하였고 무제한 송전을 재개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전력증가의 추세에 부응하여 당인리화력 5호기 25만kw, 부산화력 4호기 10만 5천kw를 완공하여 총 시설용량이 162만9천kw에 달하여 2차 5개년계획 목표표 69년 5월에 달성했으며, 70년도 이후에 준공될 인천화력, 영남화력, 영동화력, 남강수력, 팔당수력 등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동해화력, 경인화력, 호남화력 등의 민간자급에 의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1971년도에는 417만kw에 달할 것이다.

나. 유류의 국내생산 전량수입에서 전량 국내 공급으로

기간산업의 확충과 연료정책에 있어서 유류증용 정책의 실시, 관련공업으로서의 석유화학공업 개발에 따라 유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게 되어 울산 정유공장의 확장과 제2정유공장의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도에는 울산 정유공장을 일간 원유처리능력 3만5천바렐에서 5만5천바렐로 확장하였고, 곧이어 1968년에는 울산에 나프사분해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공장의 건설이 확장됨에

급진하는 한국경제 발전상

따라 11만5천바렐로 시설규모를 확장했다.

또한 1967년 2월에 전남 여수에 거공식을 한 호남정유공장은 미국 「칼텍스」와 합작 투자에 의하여 일간 원유처리능력 6만바렐의 규모로 추진하여 1969년 6월에 완공을 보아 총시설능력, 17만5천바렐로 확장하였다.

다. 석탄의 2배 증산

196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석탄생산은 지극히 부진상태로서 무연탄 생산 실적은 535만톤에 불과하였던 것이 제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외국차관에 의한 석탄공사의 시설현대화와 대단위탄과의 개발, 민영탄광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966년도에는 1,161만톤을 생산하였고 1968년에는 1,040만톤을 생산했다.

1969년에는 1,200만톤이 생산됐다.

(3) 뻗어가는 나라의 동맥

가. 근대화를 상징하는 고속도로 조국을 근대화 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착공, 추진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중 첫 구간의 서울~오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인천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1968년 12월 21일, 동시에 개통되었다.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횡단하여 전국

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하는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는 총연장 29.4km, 넓이 20.4m의 4차선으로 되었으며 소요시간은 불과 18분(속도 100km)밖에 안 된다.

한편 서울~오산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남북을 횡단하게 될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총연장 428km의 첫구간인 38.6km로서 넓이 22.4m의 4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낙동강 대교를 제외하고 전공정을 완공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

나. 중흥으로 뻗어가는 철도건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송화물의 80% 이상을 철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여객은 약 54%를 철도가 수송하고 있어 철도 일변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1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기 전인 1960년의 철도의 사정은 우선 장비면에서 객차가 1,308량, 화차가 9,541량이고 증기기관차 457대가 동력의 대부분으로서 1년에 여객 약 1억명, 화물 약 1,700만톤을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어 우선 수송의 기초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 1966년도에는 객차가 1,418량, 화차가 11,

454량으로 크게 늘어났고 또 여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동차 163대를 확보하고 종래에 증기로 움직이는 낡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증기기관차를 서서히 없애고 동력을 디젤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디젤기관차 135대를 외국으로부터 도입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철도동력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완전 디젤화를 마침내 1967년에는 이룩할 수 있었다.

다. 통신망의 확장 4배로

통신망은 60년대에 들어와 우체국의 증설, 시내전화시설의 확장, 시외전화시설 확충, 지방통신망의 강화, 7개 도시간의 「마이크로·웨이브」개통, 국제전신전화의 「텔렉스」시설 등 괄목할만한 시설의 확충 내지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우체국을 보면 1960년도의 691국으로부터 1969년에는 1,809국으로 3배가 늘어나 「면1국」이 실현되었으며 1971년에는 1,863국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인구 1인당 연간 우편물 이용수는 1960년의 6통에서 1966년에는 14.2통으로 크게 늘어났고, 1968년에는 17통으로 60년도에 비하여 약 3배가 늘어났다. 시내 전화시설은 1960년의 10만7천961회선으로부터 1969년에는

51만 4천 회선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인구 1천명당 전화대수는 1960년의 4대에서 1961년도에는 16.7대로 늘어났고 1971년에는 20.6대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 시외 전화시설은 1960년의 840회선으로부터 1969년에는 6,904회선으로 8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1971년에는 9,416회선이 확보될 계획이다.

(4) 사회복지 및 문화의 향상

가. 교육시설 확충

지금까지의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무사험 진학제도를 채택, 69년도에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70학년도엔 부산을 비롯한 6대도시, 71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대학 입학예비교사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자질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문화창달의 큰 저해요인인 환자 사용을 전면 폐지했다.

나. 취업률의 증가

우리나라의 고용상태는 농업부문의 만성적인 잠재실업과 특히 「서어비스」업 부문에 상당한 불안전 취업을 저년 낮은 생산성의 취업구조를 지니고 있

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고도성장의 지속과 수출 및 투자수요 급증 등 노동수요를 자극할 여러가지 여건의 성숙에 따라 취업자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63년도 794만7천명이던 것이 지금은 926만1천명으로 늘어나 실업율은 5.1%로 감소했다.

다. 방송망의 확장

급격하게 확장된 것 중의 하나가 문화시설이며 그중 방송망의 확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국, 민영 방송국은 모두 20개이었으며 중계소는 한 곳도 없었으나 지금은 국영방송에 있어서 강릉, 원주의 2개 방송국이 신설되고 화천중계소를 비롯하여 23개소의 라디오 방송 중계소가 새로 건립되고 남양 500kw 송신소, 경산 100kw 송신소 등이 세워짐으로써 국영방송은 전국의 대부분을 그 청취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민영방송에 있어서는 문화방송국의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전주국 등 5개국의 신설, 전주방송국 등 7개 방계 방송국의 신설, 동아방송국, 동양방송국, 동양 FM 방송국,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의 광주, 이리방송국 등 17개 방송국이 신설되었다.

6. 앞으로의 계획과 그 전망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자립경제 기반구축의 터전 위에 우리는 계속 자립과 번영으로 전진을 해야만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제2차 5개년계획을 다시 세워 『잘 사는 내일』, 『자립하는 내일』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71년에 끝을 맺을 제2차 5개년계획이 잡고 있는 기본목표는 첫째로 바로 잡힌 경제질서 위에 모든 산업의 구조를 「근대화」해 나가자는 것이요,

둘째로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촉진해 나가자는 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뒷받침으로서의 중요한 시책의 방향은,

가. 국민소득의 획기적 증가를 꾀하는 것으로 국민 총생산은 1971년에는 150% 늘릴 계획이며 특히 농촌과 도시간에 벌어져지고 있는 소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영농을 여러 모로 개선하도록 하고 농업과 공업간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나. 자립경제를 이루려는 첫출발로
서 우선 국민생활의 기본요건이 되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것이며

다. 공업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서 경제개발을 시무하는 우리들
의 근본목적이 공업화라고 한진대 비
료, 시멘트, 정유, 전기 등의 공업분야
에서 화학, 철강, 기계공업 등에 중점
을 두고 공업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
가시킬 것이다.

라. 71년에 가서는 7억불의 수출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을 것이다.

이와같은 수출의 증대는 외화를 벌
어 들이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공업에 자극을 주어서 생산이 늘
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소득의 증대
를 가져 올 것이다.

바. 고용을 늘이고 인구의 팽창을
억제할 것이다.

인구가 늘어 버리면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이나 성장은 아무런 보
람이 없는 것이므로 계속 고도의 성장
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는 과정에서 자연인구 증가율을 2% 이
내로 떨어뜨릴 계획이며 반면에 이미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주
어 실업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간다.

적어도 노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율을 7.4%에서 5%수준까지 내릴 계
획으로 특히 농촌에 숨어있는 실업자
를 도시로 끌어내어 일터를 줌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빠. 과학기술을 진흥해서 인력을 개
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많아서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남아드
는 실정에 있음을 위에서 밝히었지만
이와같은 노동력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진흥시킨다.

그리하여 이들을 모든 산업분야의
생산에 연결지어 줌으로써 생산을 높
이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올해도 우리는 「통일」의 꿈을 싣고
착수하는 부산~서울간의 고속도 도로
건설을 비롯한 2차 5개년계획의 모든 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력과 수송의 애로도 완전히 해결
될 것이고 농업부문과 광업부문에서
의 성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
은 안정 속에서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
씩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근대
화」와 「자립」 그리고 「도국통일」의
꿈은 그만큼 빨리 실현한 셈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7 장

김 종 문

머 리 말

요즈음에 와서 생활개혁에 관한 여러가지 시책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과거의 우리 생활은 뭔가, 비정상적이며, 비합법적인 요소와 형식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 과연 정상적이었으며 합법적이었을까, 또한 우리 생활은 건설적이었으며, 희망의 좌표(座標)를 향하는 생활이었을까.

요즈음에 와서 우리 생활의 요소와 형식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생활방법이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다음 일곱 가지의 생활형은 본질적으로 보아서 그런 생활방법과 공통되리라 생각된다.

◎ 일곱 가지의 생활형이라는 것은

1. 사고(思考)하는 생활형 2. 행동하는 생활형 3. 건강한 생활형 4. 검소(儉素)한 생활형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 6. 협동하는 생활형 7. 창의(創意)하는 생활형이다.

이와같은 생활형은 거의 상식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그대로 그 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껴 왔다. 이에 일곱 가지의 생활형을 풀이함으로써 독자의 참고에 보탬이 되면 다행이다.

1. 사고하는 생활형

사람의 생활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사고와 행동 두 가지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행동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버리며, 그 반대로 그 사람이 행동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사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버릴까.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사고와 행동의 균형이 잡히고 아니 잡히고가 그 생활의 건전과 불건전 중의 하나를 결정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사고에 있어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독서와 사고이다. 독서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전문적 서적이요 또 하나는 교양적 서적이다. 전문적 서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공에 필요한 서적으로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매뉴얼」이며 이를 세분하면 병과별 전문서적을 가르킨다. 교양적 서적이라는 것은 전문적 서적 이외에 취미, 수양, 예술, 문화에 관한 서적 또는 잡지로서 자기 개인의 인격도야 또는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서적을 가르킨다. 그러나 저속하고 통속적인 부류에 속하는 서적, 잡지는 엄격한 의미의 교양적 서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독서에는 반드시 사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를 하는 경우에 흔히 그 서적에 의존하는 사고방식 즉 그 서적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사고케 하는 독서법은 환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독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이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독서의 의의가 있으며, 사색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역시 사고에 속한 것이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 한 해의 계획은 설날에 세운다는 말과 같이 이런 사고는 그 행동에 앞서야 한다.

독서도 사색도 계획도 말로는 하기 쉽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즉 굳센 의지력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사고가 제거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사고하는 생활을 전지해야 할 것이다.

2. 행동하는 생활형

사고 다음에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은 사고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그 말이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두뇌가 있고 팔 다리가 있다. 두뇌는 사고하는 기관이요, 팔 다리는 행동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두뇌와 팔, 다리는 제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고에 의해서 행동된다고 할 때 행동은 사고로 환원되면서 새로운 차원(次元)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다시금 사고에 의해서 비판되며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간다.

행동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실천을 의미한다. 군대는 국가권위에 직결하는 집단으로서 국토와 민족을 수호해야 하는 대의명분 아래서 이를 위한 실천이 있을 뿐이다. 이 실천에는 방식이 요청된다. 즉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새로운 실천에 필요한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참모업무면에 있어서나 전술면에 있어서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군대는 실천에 있어서 예민하기 한이 없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나 전투에 있어서 한 사람의 실천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영향은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대는 보다 그 감도(感度)가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흥망을 건 전투에서 한 사람의 부족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 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군인의 실천에 있어서는 크고 적은 것의 구별이 없다. 오히려 적은 실천이 중요하다. 군대 교육은 형식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형식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군인의 실천은 사고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고와 행동 즉 사고와 실천 사이에서 유동(流動)하는 공간의 결정(結晶)이라고나 할까.

3. 건강한 생활형

서양에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이미 상식화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은 때로는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격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삼스러워 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문학자 또는 예술가 중에는 「데카당스」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문제이다. 요즈음 세상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데카당스」 역시 가짜가 많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 내에서 많은 「데카당스」와 사귀어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짜였다는 단정을 내리고 싶을 지경이다. 진짜 「데카당스」는 참으로 귀여운 존재이다. 그는 낡은 질서로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서 숨 쉴 곳을 찾아 헤메이기 때문에 그 사고나 행동은 정상적이 아니며 건강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환상만이 그의 세계요 생활이다. 이는 특수한 예이며 새로운 질서와 사고와 행동을 모색하는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는 격언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지당한 말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건강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건강법 보다는 정신적 건강법에 관해서다.

요즘 Recrea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로는 무슨 말로 번역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원어(原語)의 발언(發言) 그대로 「리크리에이션」이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법 보다는 정신적인 건강법에 속할 것 같다. 여가를 이용해서 좋은 그림을 보기도 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도 하며 기타 시청각을 통한 예술작품의 감상 또는 오락을 취하는 「리크리에이션」이 얼마나 정신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4. 검소한 생활형

군인은 원래 검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주로 미국에 의해서 영향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군대이므로 그 생활은 화려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군은 아직도 경제적인 자립을 차지 하지 못한 까닭에 미국 또는 미군의 물질적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인의 정신요소나 「포오즈」에 이르기까지 본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필자는 유감되게도 그런 경향을 띤 군인, 특히 고급 장교중에서 목격해 왔다.

요즘 내핍생활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다. 거리는 신생활부 일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야 우리 생활이 정상화하는 것 같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한국 국민이 분에 지나친 낭비와 사치를 일삼아 왔다는 것을 일종의 악몽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이런 경향을 띤 사람은 군인, 국민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의 물지각한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 소수의 족속의 경향을 그 수를 따져서 그저 간과하면 그만이었지만 이들이 일반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풍조를 생각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군대는 일반 국민의 내핍생활 즉 검소한 생활의 기준이라야 하며 동시에 그 정신의 원천(源泉)이라야 할 것이다.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

서양의 격언에 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시간과는 관련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말한들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Korean Time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인이라면 시간관념을 안 가져도 살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직책이나 임무가 극도로 분화(分化)된 현대에 있어서는 시간 관념을 못가지거나 안 가지는 사람은 단 사람에게서 상대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살아 나갈 자격을 못가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군대에 있어서는 일초를 다루게 된다. 전투시에 일초의 차로 인해서 전국이 좌우되는 일이 있었다는 여러가지의 사실을 독자중에는 직접 체험한 이도 있으며 또는 전사를 통해서 아는 이도 있을 것이다.

군대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시간과 시간의 조립(組立)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시간을 흔히 막연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반적 상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간이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물질이다.

배업에는 재료로서의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재료로서의 시간도 역시 필요하다. 재료로서 무엇인가를 제작한다고 할 때 재료로서의 시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작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돈을 쓰는 것처럼 시간을 써야 한다. 즉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사람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즉 「스케주올」이라고나 할까.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이 사회에서 살아 나갈 자질을 못가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6. 협동하는 생활형

우리 민족이 비협동적이라는 경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열등하다는 말도 흔히 들어 왔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요 또 하나는 사회적 생활이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닌 바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모두가 사회의 성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개인이면서도 개인이 아닌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 날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시인들 또는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런 경향은 시인들 또는 예술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사회에 대해서 품는 불만과 아울러 개인을 존중하는 즉 개인의 창작을 절제시 하는 데서 오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은 그때에는 도피였겠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경향은 도피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개인의 창작이라 하더라도 작품으로서 세상에 내놓는 바에는 그는 사회와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간에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인 또는 예술가치고 현실 사회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생각조차 안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인간은 자연의 형태로부터 탈피되면서 문명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있어서는 일반 현실사회 보다 더 협동이 요청된다. 왜냐 하면 Teamwork이 잘 되고 아니 되고가 그 군대의 실력여부를 결정하는 Key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Key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동은 「메카니즘」으로서 마치 인체의 조직과 같다. 인체는 수 없는 부분과 부분이 모여 조직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7. 창의하는 생활형

인간의 역사는 창의의 역사일 것이다. 창의의 역사는 개인의 창의를 집적(集積)일 것이다. 오히려 개인의 창위가 역사라는 대하(大河)의 창의를 이루어 놓았을 것이다. 창위가 없는 개인, 창위가 없는 집단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 존재의 가치가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한국인의 생활에는 창의되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20년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거의 별다를 것이 없다. 이는 발전도 퇴보도 아닌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의 특징은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맴도는 자체는 결국 퇴보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하라는 말은 아니다. 본질이나 특성은 변치 않되 이를 빛내는 생활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맺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1. 사고하는 생활형 2. 행동하는 생활형 3. 건강한 생활형 4. 검소한 생활형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 6. 협동하는 생활형 7. 창의하는 생활형에 관해서 언급해 보았지만 독자로서 하여금 막연하다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이상과 같은 생활형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데 착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을 잃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일곱가지의 생활형을 요약 해 본다.

1. 사고하는 생활형은 즉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색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행동하는 생활형은 즉 사고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으로서 이를 통해

서 얻는 경험은 다시금 사고에 의해서 비판되며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3. 건강한 생활형은 즉 신체의 건강법도 필요하지만 「리크리에이션」이 얼마나 정신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검소한 생활형은 즉 군체는 시민이나 국민의 내핍생활의 기준을 벌써 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은 즉 재료로서의 시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작업하며 제작한다는 관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 협동하는 생활형은 즉 인체는 수 없는 부분과 부분이 한데 모여 조직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창의하는 생활형은 즉 한국인의 생활에는 2)년전의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거의 별다른 것이 없다. 이는 발전도 퇴보도 아닌 것이다.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자기를 확립한다는 것은 자물성과 자발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이다.

자물성과 자발성이 없을 때 타물성에 강요되고 지배된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된 한국의 창건」——이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중공의 침략적 군사정책



김 인 우 <역>

중공 즉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CPR)은 현금 군사정책상 여러가지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중공은 그 제한된 경제적인 자원으로 의욕적인 국가목표를 어떻게 하면 신속히 달성할 수 있겠는가? 중공은 그의 핵전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직접 대면하여 좀 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중공이 자주발설하는 침략적인 군사행동이 곧 따를 것인가? 중공이 미래에 미국의 세력에 과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서구의 관측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지만 중공의 군사 전략가들의 현재 고려해야만 하는 몇몇 주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해답의 시황이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제1요인..... 현금 중공은 미국이 중공을 공격하거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하도록 도발하는 행위를 피하는 동시에 세계의 소위 혁명지도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모택동의 사상은 이른바 「페닌」의 이론에서 유도된 것으로 그들의 변함없는 신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까지 강력한 상대에게 공격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중공의 현 군사전략은 이른바 그들 중공의 강제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에 직접 도전하기 전에 요구되고 있을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얻으려는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미개발 지역에는 아직도 혁명도발의 기회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은 소련으로부터 국제공산당 운동의 주도권을 탈취하려고 애쓰고 있으므로 중공은 지금 자기가 미국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주동자라는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혁명세력임을 입증하여 가고 있고 가공할 핵전쟁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공은 세계열강의 지위 획득과 같은 장기 국가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부족한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 미국이 검증하는 중공의 위협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면 한수루 중공의 세계 열강으로서의 지위획득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중공은 양면전략 즉 미개발국가에 혁명의 의사를 투입하는 동시에 혁명층동에 대해서 미국의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공의 지도자들이 제척하고 있는 양면전략이란 미개발국가에 대하여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혁명을 책동하는 동시에 제한된 자원개발과 잠시 동안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필히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을 공공연히 전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의 전략은 서구에 나온 중공간행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력을 기울여 획득한 핵군사력의 지위를 앞으로 이용하려는 중공의 의도를 쉽게 평가하는 조리있는 이론이 결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확실히 두 개의 핵폭발실험은 중공의 핵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중폭격을 받을 취약성(脆弱性)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요인보다도 중공이 베트남전쟁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준다. 중공의 근력에 베트남전쟁에 지원을 겸중하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물론 하노이당국은 월명이 그 전보다 더

철저한 중공의 위성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월남에 머무르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른바 국부적인 혁명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는 반면 해방전쟁을 책동한다는 것은 임포(林彪)의 저서 속에 요약되어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정치권력은 실탄으로부터 성장된다는 모택동의 주장은 핵전쟁시대에도 적용된다.

▲ 소련의 대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족해방전쟁은 아무리 격렬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일반 핵전쟁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 적에 대한 혁명투쟁을 결정하는 때에는 무기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 이른바 혁명완수의 주요인은 사회 불안에 있으므로 외부적인 지원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

▲ 국지적인 혁명은 가능한 모든 지역에 있어서 동시에 불안을 조장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개발국가에 최초에는 민족민주정부를, 후에는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여 자연히 개발국가가 교립될 수 있는 것이다.

▲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미국과 그 맹방을 교란시킬 수 있다.

▲ 소위 혁명은 그들이 가져고 있는

것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혁명수행을 위한 토착력을 개발할 때까지 혁명을 연기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러한 중공의 입장은 핵폭발실험을 서술하지 않은 임포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후에 나온 다른 성명서에서 천명된 바 있다. 「무기보다는 인간을」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라」 핵시대에 있어서 혁명완수를 위한 토착적인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미개발국가에서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선진국가를 고립화하는 기회가 있다는 주장은 중공의 원조를 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중공이 담하는 적절한 대답인 것이다. 중공의 대변인이 미개발국가들이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핵무기의 개발증산을 좋은 일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도우려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사실 중공의 전략가들은 핵무기가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인습적인 군사원조는 제한되어 왔다. 중공의 전술이란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군사원조를 제한하고 동시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 양면전략은 국내의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공

의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는데 소용되는 것이다.

제2요인……중공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소련의 핵방위력에 의해서 일단 이룩된 국가안전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대하여 독자적인 핵군사력 구축의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공의 지도자들은 두 개의 핵폭발실험이 서방군사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더 발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공이 갈구하고 있는 세계 열강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핵폭탄이 현 항공기나 전략폭격기 및 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공의 전략가들은 그들이 현실적인 전략가들이라면 자유 「아시아」가 적어도 미국의 핵군사력에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초창기에 있는 중공의 핵군사력을 사용하면 미국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중공이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보유할 때까지는 「아시아」 인접국에 대한 위협은 소련의 핵방위력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중공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중공을 대신해서 자기의 핵군사력을 사용하겠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중·소분규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핵군사원조의 단절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함으로

써 중공이 중요한 핵보유국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더구나 소련은 중·소관계가 현재상태와 같이 악화되기 이전 1958년 가을에 제2 금문도(金門島) 위기가 있었던 초기에도 군사원조를 꺼려하는 빛을 보였다. 그러므로 「스탈린」이 초기에 그러했던 것과 중공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식성명에서는 가볍게 취급하여 왔다. 두 개의 핵폭발 실험을 한 이후 중공은 현재 독자적인 핵무기 운반조직 및 지휘통솔체통을 확보한다는 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극히 제한된 경제자원을 가지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3요인..... 핵군사력을 급속히 이룩하려는 중공의 요구는 진군사력을 근대화하는 끊임없는 필요와 결부되어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제한된 자본을 투입하는 데 저저를 가하고 있다.

중공은 소련의 전지도자가 지상군을 줄이고 핵전략군에 주력을 기울여 왔다는 1960년 1월 「호루시초프」의 연설과 같은 성명을 발하고 있지 않다. (「호루시초프」의 계획도 전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중공의 계획은 자원배분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모택동의 이념은 대지상군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고 소위 인민해방군(PAL)은

인구조건과 경제발전이 긴요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인민해방군은 재래식군대에 의한 침략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해야 하면 중공의 이념에 의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한다 하여도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군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은 미국에 대항하는데 유효한 핵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상군을 근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무엘 B. 그리피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해방군은 중차동포 트럭과 다른 기동력 증기계장비 및 현대식 탱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군은 폐쇄된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의 수륙양용 군사력은 미발달단계에 있다. 그는 베이다 등 중공의 전자통신장비가 1941년 1942년의 서구 육해공군과 같은 단계에 있다고 추산한다.

현존군대의 현대화는 핵군사력의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많은 경비를 요하게 될 것이다. 중공경제분석에서 유리가 기술한 바와 같이 「핵무기개발에 타당한 경제력은 무엇보다도 국민총산액의 초기와 경제성장을 및 상품수성에 달려 있다.」 중공은 1960년 1961년의 심한 경제침체에서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경제압박이 군사력의 급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면 경제발전 및 자립경제를 위한 장기 투자의 삭감을 필히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4요인……군사경비가 농업개발투자와 외환자본의 삭감을 초래한다면 격증하는 인구의 호구(糊口)문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중공은 인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증산할 수 없었으며 많은 식량을 수입하여 왔다. 화학비료공장 개발에 주력을 해왔지만 인구가 현비율로 증가한다면 농업부문 또는 식량수입에 투자가 증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엄청난 산아제한 정책은 별로 성공을 본 것 같지 않다. 중공이 오랫동안 서구보다 낮은 생활양식에 익숙하여 왔지만 군사력 증강계획에 있어서 미래에 다가올 격심한 농업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무시할 수 없다.

제5요인……중공은 절박한 지도자 계승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몇년 동안 중공의 지도자들은 그들 인민에 대한 이념적인 통솔을 유지하고 인민으로부터 정치적인 충성을 얻는데 주력을 기울여 왔다. 1959년과 1961년 사이 3년동안 체험했던 지배통치는 극복될 듯 하지만 외국의 관측자들이나 중공의 지도자들 자신도 모택동의 사망이 그들 인민들에게 가져다 줄 충격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택동이 물러나면 이른바 인민해방군이 다가올 지도자 계승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공정권은 육군을 치밀한 조직과 효율적인 지휘통솔 기술 및 정치적 이념적인 완제품의 표본으로서 성장시켜 왔다. 그러므로 육군은 필요하다면 강압에 의해서 모택동의 후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게 할 것이다. 모택동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육군지도자들의 계획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지도자가 계승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려는 육군의 역할은 중공이 핵군사력 발전에 모든 군사자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다른 강력한 이유를 내어 놓게 한다.

제6요인……중공은 세계열강의 지위 획득과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 및 기지 미개발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을 위한 제반 능력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일반화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공의 세력증식을 억제하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한 중공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장기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ICBM이 아니더라도 중공의 핵군사력은 소련을 잠정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MRBM은 소련의 주요저에 이를 수 있으며 소련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이 중공을 전폭적으로 저지한다는 확신은 없다.

중공의 현재나 미래의 행동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소련은 확실히 중공의 완강한 행동에 대하여 이전 보다는 강하게 통제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의 중공의 행동을 소련이 저항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소련은 중공이 「아시아」에서 우세한 공산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을 꺼려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련이 군사 정치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확실히 중공의 세계열강의 꿈을 소련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중공의 지도자들은 계획수립에 소련의 핵군사력원조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립」은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이 분야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개발지역에서는 중·소경쟁의 증폭이 엿보인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소련과 「쿠바」는 지점을 확보하

려는 중공의 노력을 반대하고 있다. 중공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후퇴를 맞고 있으며 「나셀」과 같은 「불충실한 지도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중·소경쟁은 극단에 이르고 있다.

두 개의 주된 공산세력은 자유세계를 매장하겠다는 필요성에 일치하고 있으나 시기와 전술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공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협조와 저지에 더 이상 의뢰할 수 있다. 사실상 소련, 중공, 미국의 삼면 관계는 전략상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으며 장차 이러한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 같다. 이러한 변경된 국면은 중공의 전략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소련의 전략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제 7 요인……중공은 현 전략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무기통제정책에 결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A·I·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공은 세계적인 부분핵실험 금지경향 등 자유세계의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구나 핵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금지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중공은 미국의 강한 반발을 저지할 것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번째 핵폭발실험 이후 중공의 무기

통제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에 핵자유지대에 대한 폭발 이전의 확인이 있다. 첫번째 폭발실험 이후 중공은 핵무기 통제협정의 첫단계로서 모든 핵보유국 및 잠재적인 핵보유국들의 상호 또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공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약속이 조인될 때까지는 핵실험의 중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의 핵무기통제계획은 두 가지의 목적 즉 핵실험의 역효과를 없애는 것과 「아시아」지역에 최초 불사용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중공이 중대한 재래식전쟁이 발발한 경우 「아시아」제국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 8요인.....여러가지 난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지도자들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시키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아시아」제국에 대하여 핵보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내에 중공은 「아시아」지역에 대하여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며 미국본토를 위협할 힘을 어느정도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중공의 잠재 위협에 대처한 힘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중공의 전략가들이 「아시아」맹방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에 의해 확보된 비교적 복잡한 방어조건을 이해하고 있는 것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보장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하는 바와 같이 뚜렷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미국이 요격용 유도탄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한 중공은 잠인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자체가 중공의 ICBM이나 수중발사탄도유도탄 및 수중발사순항유도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게 된다면 「아시아」맹방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의 신빙도는 완화하게 될 것이다. 중공과의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 70년대 말에는 미국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요격용 유도탄을 보유하는데 긴 저도기간을 요하겠지만 미국은 이 무기를 채용할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 무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유한다면 이는 「아시아」인접국이나 미국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군사력을 개발하려는 중공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부가적 방편이 될 것이다.



제 1 장 서 문



비극 속의 허덕이는

공산주의 사회

안

빈

남의 나라를 침략하며 못살게 굴던 제국주의가 사라진 이 세계 위에 또 하나 두드러진 자유인류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공산주의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연합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토가 두 쪽이 된 이래 그 북쪽 땅에는 공산당이 허수아비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로 하여금 또 한번 비극 속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한 슬픈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 겨레가 한 나라를 세워 짓밟혔던 과거를 잊고 새 세계의 새 역사를 만들려던 꿈은 산산히 깨어졌으며 붉은 제국주의는 조국과 민족도 아랑곳없이 이유도 없는 미움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음으로써 마침내 민족의 열과 더 나아가 조국의 통일 독립의 길을 막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공의 자취가 되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세계는 모든 인간을 노동노예로 만들려는 공산주의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유민의 무리로 크게 갈라지고 그 싸움이 가장 사나운 곳에서 우리는 반공을 더욱 다짐하는 혁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와 같이 새로운 삶을 찾아 놓여난 사람들 안으로 숨어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에서 분쟁을 일으켰고 피를 흘리게 했으며 조국이나 민족보다 공산당을 찾은 것이 더욱 행복한 길이라는 거짓된 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불안 속에서 떨게 하였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떡을 주고 그들의 생활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그 대가로 빼앗아 갔으며 인간의 머리에서 희망과 이상을 노략질해 갔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불행한 원인을 개인의 자유에 있다고 말하며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권리까지 모두 공산당이라는 하나뿐

인 기관에 맡기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수다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급과 불평 등이 없도록 해 준다는 공산당의 유혹대로 먼저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유마저 잃고 말았던 것이다. 공산당의 진실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먼저 가난한 까닭을 모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몰수한 재산은 공동의 소유라는 명분만 세운 채 공산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이지 말라」라는 구호를 내걸어 하루를 일하면 그 날만 먹이를 줌으로써 남은 돈으로는 무기를 만들거나 공산당의 높은 간부들이 합부로 썼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도 쉴 날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그날 그날 먹고 사는 데서만 만족해야 하고 감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본가적 생각」이며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민의 적이 되려는 것이라고 떠들면서 파괴와 살인을 예사로 저질렀던 것이다. 공산당은 이 세계가 반드시 공산주의까지만 발전하고 그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다가 저절로 죽을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 때는 오직 공산당원만이 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야릇한 사교(邪敎)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 빨리 오도록 하려면 가족이나 민족, 조국 인연 따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의 「모택동」은 세계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는 두 가지의 큰 소득을 본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공산주의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인구가 많으므로 전쟁이 사람을 동시에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인민이 고루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일을 저지른 노동자들」의 행복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여 그 구실 아래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폭력기구의 간부들의 생활만 날로 호화스러워져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침략주의에 불과하다. 이제 세계의 자유민들은 공산당의 거짓과 잔인스러움에 넘치는 자취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을 위하여 사는 동물이기 보다 내일의 희망을 건설하

기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깊이 공산주의의 노리는 바를 알아야 하겠고 그 어두운 마음에 새롭고 밝은 자유의 빛을 던져 스스로의 죄악을 뉘우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먼저 공산주의의 빛 가지 사상을 알아보고 자유 민주주의의 참 뜻을 밝혀야 할 줄 안다.

제 2 장 공산주의의 몇 가지 사상

1. 공산주의와 인간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가치를 다른 동물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먹고 자식을 낳는 일을 할 뿐 오직 다르다는 것은 다만 기계를 쓸 줄 아는 동물이라고만 해석한다. 고로 사람의 정신도 결과에 있어서는 물질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과 물질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먹는 문제와 성욕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자본주의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라고 본다.

개인의 재산 소유를 못하게 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서 식량을 주고 옷을 입혀 주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중공이나 북한 피퇴직단 아래 얽매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옷감을 배급받고 있을 뿐이다.

중공에서 실시된 인민공사에서는 남녀를 별거하게 하고 부부생활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밥은 공동식당에서 나누어준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하며 아내는 남편에게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하고 선전을 하였다. 중공 치하 인민공사에서 일하는 부부들은 자기의 자식을 기를 염려까지 없게 되고 만났다.

부부생활이나 어린이를 기르게 되면 그만큼 노동하는 데 태만해지므로 우선 가정부터 없애야 하겠다는 정책 밑에 모든 개인 가족은 집단숙소로 개조되고 부부는 따로 수용되고 낳은 자식은 탁아소라는 이름의 고아원 같은데

서 길러가는 것이다.

이 인민공사 운동은 실시한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많은 중공 지하 인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지금은 지극히 봉쇄한 농촌에만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은 빵과 성육의 충족만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 기계처럼 같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무슨 공동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언제나저 무슨 일이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똑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어찌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일 생각이 다르다면 그는 분명 반동분자거나 공상을 많이 하는 태만한 분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남녀의 교제를 최대한 이용한다.

연애는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교섭을 위한 물질적(육체적) 본능적 욕망일 뿐 아무런 귀하고 또 가룩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육욕적인 연애는 인정하지만 순수한 정신적 연애감정은 끝없이 불순하게 보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도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끝없이 융솟음치는 성육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6.25 때 중공이 괴뢰군을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총 한 자루 주저 않은 채 괴뢰와 쟁과리를 울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전선을 뚫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물리치려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옛부터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일컬어 왔다. 사람은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사람은 빵과 성육만으로 그날 그날만의 목숨을 이어 가는 동물이 아니라 높은 이상(理想)을 이루기 위하여 뜻과 희망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사는 것이다. 비록 험벗고 굶주려 죽을망정 정의가 아니면 좃지 아니하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것이다.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립되는 말일 뿐이다. 고대광실에 앉아 호의호식 하면서도 불평과 슬픔을 느낄 줄 알며 가난한 초막사리에서 하루 한 그릇의

죽을 먹을망정 즐겁게 웃을줄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인류사회의 역사가 되었고 문명이 된 것이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남은 생산품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맺어진 사랑의 열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생명의 값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 인간의 타고난 의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모두가 아내와 남편을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남편이 가족을 위하고 아내가 남편과 자식에게 봉사하는 것은 구속이나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보람이요 기쁨인 것이다. 만일 이것을 고르스럼게 생각한다면 그는 새나 짐승만 같지 못한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귀한 값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2. 공산주의와 종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한 「마르크스」이다.

이 세상에 오직 물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사회서 인정하는 종교와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 나라의 헌법으로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종교와 신앙을 박해할 자유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간퇴시킬 뿐 아니라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의 감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공공연한 박해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신이고 또 용서함과 사랑을 주장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공산주의의 적까지 모두 사랑해야 하므로 이는 마땅히 불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산치하 지역의 교회는 모두 농기구 창고로 쓰이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여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노동의 태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하나님이나 또 성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앞잡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가므로 자연 노동자들의 반항이 있게 되고 자본가들은 이 반항을 달래기 위해서 탈 잘하는 사람으로

△ 비극 속에 허덕이는 공산주의 사회 V

하여금 성경이라든가 기타 종교적인 책을 만들어 풀이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노동자들로부터 반항의 힘을 빼앗는 달콤한 마약이라는 것이다. 종교를 오래 가질수록 노동자는 그만큼 오래도록 빼앗김을 당하고 또 급기야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진리는 그토록 물질적인 타산에서 속이기 위하여 어떤 돈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불교를 일으킨 석가모니 같은 이는 재물과 권세가 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찾고 얻으려한 것은 결코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나 더 큰 권세가 아닌 인간 영혼의 참된 안식이 없을 뿐이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생각하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값을 알기 위하여 오히려 명예나 권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내버렸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본가나 권세있는 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것처럼 무식한 이도 없을 것이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가 만백성에게 준 것은 한없이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증거한 것이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참된 삶의 태도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러한 성자의 주장은 물질을 신으로 받드는 그들 공산당이 좋아 할 리 없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인류사회의 문화가 발전한데에는 그 뒷받침으로써 종교와 신앙의 힘이 지극히 큰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자들의 무식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 줄기찬 힘은 세월이 거듭할수록 더욱 넓고 깊이 뿌리를 뿔어 왔다.

옛부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지어 종교를 가지는 동물이라고 말해온 것은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굴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또 성실하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됨 값이 있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부자의 것이거나 가난뱅이의 것이 아닐 뿐더러 세도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종교는 계급의 차별이나 부

귀의 한계를 두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만 백성의 영혼 위에 있는 것이다. 종교는 현실의 빵과 영화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그들의 헌법상의 조문으로만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신의 자유를 허용하듯이 그것을 박해할 자유도 용납한다는 궤변 아래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높고 가룩한 마음을 낮고 천한 본능의 노예를 떨어 뜨려 산다는 것은 다른 짐승과 같다고 우겨냄으로써 인간은 강제로 소나 칼 같이 부려 먹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종교적 감화로 가룩한 마음을 가진다면 세계를 공산당의 독재 아래 두고자 전쟁마당으로 물고가 압귀처럼 날뛰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산주의와 혁명

「오직 폭력만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와 다른 모든 계급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도하는 구호로써 백년이 지나도록 인류의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의 불씨를 심어 왔다. 혁명이라 함은 파괴에서 그치는 혁명이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설적인 혁명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만들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부술 것을 선동함으로써 혁명을 위한 혁명을 주장한다. 공산철학에 의하면 혁명은 자본가의 착취가 극도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궁핍한 생활이 막바지에 다달으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까닭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영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태여 혁명을 선동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혁명을 떠드는 이유는 정녕 혁명을 위한 길일 뿐인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산당이 생긴 것은 1948년의 일이었고 그해를 전후하여 세상에 발표된 「마르크스」나 「엔젤스」의 이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에 의한 혁명의 선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던 자본가를 타도한 때에는 자비도 인정도 둘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주적으로 이긴 노동자 계급만이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917년 「로시아」에서 공산당은 무지막지한 폭력배를 앞장세워 「크레물린」 궁정 앞 넓은 마당을 붉은 피의 바다로 만들었다. 노동자도 아니고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장래 같은 무리들이 한바탕 살인을 하고 사라진 뒤 이 넓은 마당의 산더미 같은 시체 사이에는 낮이나 망치 등이 흩어져 있었다. 오늘날 공산당의 우두머리 나라인 소련의 국기가 붉은색 바탕에 낫과 망치를 그려 붙인 것은 그날의 비참했던 것을 과장하려는 과피와 죽음의 혁명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앞선 조건으로는 우선 그가 인정이라든지 동정심 같은 것을 내버리고 아무런 가책없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이나 지식 혹은 인격이나 도덕은 오히려 혁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혁명기의 혁명가에게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도덕과 원수를 식별하는 복수에 불타는 눈이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더욱 소름끼치는 이론은 혁명을 치르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일지라도 가림없이 써야 하며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자본가를 남김 없이 하나라도 더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최고의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사랑의 의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것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고 말한다.

혁명은 으레 오고 말 자본가들의 죽음은 좀 더 빨리 가지고 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본가를 하루 빨리 평안한 죽음에서 쉬게 하는 가장 자비스러운 일이므로 조금이라도 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여 가장 신사적인 보루라고 주장한다.

만일 이런 혁명과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이든 자본가보다 먼저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혁명시에는 지식이나 이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떠는 주먹이 앞서는 것이며 정의가 있는 점이 아니라 복수를 하여 이기는 그것이 곧 정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그들의 중심인물을 제외하고는 직접 혁명을 위한 전투원들을 조직할 때에는 지식인이나 또 그밖에 도덕과 인간의 값을 말하는 사람들을 넣지 않는다.

「본가는 노동자의 원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식의 전부이며 공산주의자는 그것만으로 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식을 굳게 믿고 소리 높여 외칠수록 그는 열성당원이요 영웅이라고.

칭찬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떤 종교이든 그것이 사교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 한결 같이 살이나 방화를 비롯한 복수나 미움의 행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기 때문에 만일 몽매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옮겨 옮겨 여겨졌을 때는 공산주의는 그들이 원하는 피의 혁명을 시원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노동자라고 불려서 강제로 혁명에 끌려 온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아껴 뒤로 물러선다면 그들은 당장 그를 무서운 인민 재판에 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무는 노동자들 전체가 잘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원수인 자본주의를 죽이는 거룩한 혁명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겨 비겁하게 물러섰으니 이는 마치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아끼는 자본가의 태도와 다를바 없으며 또 원수를 향하여 복수를 할만큼 강한 적개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 그들과 대통하였거나 동무의 성분이 좋지 못한 증거일 것이요 이미 당과 여러 노동자 동무들의 공동의 소유가 된 목숨을 아직도 자기 개인 것으로 가져고 있었으니 이것 또한 자본가의 심보므로 단호히 용서할 수 없소」라고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가는 곳마다 자본가들의 피로써 더 많은 붉은 깃발을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수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고 죽였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6·25 동안에만 하더라도 이미 이땅에 그 목숨의 권리까지 몰수 당한 중공군이 방방이, 수류탄만 차고 우리 강토를 짓밟아 와서 시체의 산을 이루게 했던 것은 너무나 뚜렷한 죄악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사된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오십년 동안 5천만명 이상의 억울한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실체는 혁명이 일어나고 권력을 잡는때까지 이루 해야 할 수 없는 여저 소리로 가득하다.

그들이 말하는 혁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실행되는 나라에서 자본가들은 너무 많이 착취하여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되고 노동자는 혈빛고 굶주리다 못해 죽음의 한 걸음 앞까지 왔을 때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으나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떠들거 던 것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그토록 죽일

만한 감정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러시아의 혁명만 하더라도 혁명을 선
 동한 처음 공산당 지도자들 중에 노동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는 온 국민의 9할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목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를 그만큼 착취하고 또 배가 불러 터질
 만큼 된 자본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제 겨우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노
 동자들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기
 보다는 가소로운 거짓이라고 지탄을 받기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꼭 그
 것을 우긴다면 러시아의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망치를
 들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 몇 사람의
 노동자를 위하여 농민들이 거들어 준 강제혁명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북한괴뢰 집단에서도 자기들이 혁명을 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소련군과 중공
 군대가 들어와서 공산주의의 공자도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을 총테로 우겨
 공산당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공산혁명은 우리 한국 같이 국민 거의가 가난한 농
 민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기 전에 배부른 자본가가 많고 세계 제일의 공업국
 가이므로 노동자의 수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먼저 일어나야 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공산주의는
 어제와 같이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까지 혁명을 위하여 그들의 권력으로 인
 간을 죽이는 반 미친 열성당원을 더 많이 만들어 알맹이 없는 선동적 구호
 로 부모하고 잔인한 폭동을 계속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폭동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살인과 약탈을 배우고 또 멸지 않아 그것을 실습하기
 를 원하는 공산주의를 평화를 사랑하는 정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오직 하나 뿐인 주인이 되기를 위하여 그보다 더 귀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봉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위에서 밝힌 여러가지 이유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평화스럽고 순박한 사람

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생긴래야 생긴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발생하여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할 수 없이 잔인한 폭동이 지난 후 그 피물은 시체 위에서만 삭되고 또 자라난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위에 생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처럼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크게 강조하는 그 까닭을 분명히 알고 그럼으로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닮지 아니했고 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본 그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다름 없이 국민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의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거기로부터 나온 사상이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지나친 미움을 가진 저극히 좁은 감정적 계급적 분파주의자들의 독선적인 소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만에 의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이념을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중의 일부인 노동자들만을 위한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말하는 국민이라면 노동자이어야 하고 그들만이 국민이며 다른 자본가나 기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들의 여지를 구태여 정의 내린다면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들이 하는 정치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미 그것은 공산주의의 것이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 아닌 다른 사람은 자본가가 아닌 바에는 무조건 노동자로 불려야 하는 어색한 고집을 또 세운 후에 주장될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에는 국가보다 당(黨)이 위에 있으므로 국민보다 당원이 높아지고 당원이 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개인은 아무런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자격이 없고 당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정당수의 전체주의이지 개개인의 인격적 우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근본이 틀리는 역설인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사를 국가나 정부에 내놓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직 당의 의사가 텃밭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것이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됨으로써 의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결치체에 지나지 못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당의 무리한 정책을 모든 국민 앞으로 밀고 가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색의 대표인 것이지 실은 허수아비들인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뽑힌 대의원인가를 본다면 당에서 공천하는 한 사람씩의 후보자로서 선거라는 형식을 전성으로 거친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에서 입후보시킨 사람이 선거에서 낙선된 예는 선거 전에 죽지 않았으면 지금껏 없었을 것이다. 공산당식 선거는 여러 사람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내놓고 좋으나(원통) 나쁘나(검정통)을 묻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가지는 공산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고집할 근거는 찾을 길 없다.

2. 계급과 평등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들의 목표가 노동자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분리를 시켜 적은 수효의 자본가를 위하여 많은 인원의 노동자가 고생하여야 하는 자본주의를 꺼꾸로 뒤집어 자본가가 노동자를 위하여 고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가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요 노동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첫째로 자본가 없는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가 없는 자본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무식한 말밖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며, 둘째로 착취를 말하기 전에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별다른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기 싫은 노동을 억지로 시켰다고 구실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며 세째는 사회 사람의 계급이 구배하여 경제적 조건만으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와 아울러 비계급적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선전하는 공산주의가 혁명 후까지 남은 다른 계급이나 혁명을 반대하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뚜렷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잘못을 변명하기 전에 우리들은 벌써 그들의 목적이 만 사람의 평등을 위한 참된 정의를 가져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재산을 가진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코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차별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재산을 못가지게 하는 그 길뿐이라고 말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된 평등」 이상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람된 평등」 보다 「재산을 가지지 않는 비서의 평등」이 완전하다는 증명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재산을 가짐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된 평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갖지 않는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당원이고 또 한 사람은 과거 그의 가문의 성분 때문에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차별을 둔다면 함께 먹고 같이 잠 잘지라도 공산당의 일에 참여하는데서 말하는 불평등은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두고 두 남자중 한 사람을 거세한 다음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목표는 「사람된 평등」과 「삶의 평등」이 주어지는 한 아무리 큰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지라도 그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법률의 적용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재산의 불평등을 구실로 사람의 성분을 나누고 「삶의 평등」마저 빼앗아버리는 것이 공산당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만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재산에 따라 평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고 생각하는 자본가 계급이 이 나라의 빼권과 아울러 모든 일을 좌우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민주국가의 지배권은 「사람된 평등」과 「정치를 하는 평등」을 지닌 전국민에 의해서 좌우될 뿐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인간관계는 재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이나 값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진실로 숭고한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공산주의자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는 계급 없는 사회라면 지배계급이 지금이나 앞으로나 없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 지구 위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가

장 엄격한 계급의식이 살아있는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뿐인 것이다.

그들은 혁명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의 재산이 있고 없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숙청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의 혁명이 일어난 초기 소련에서 있었던 공산소년단원이 저지른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혁명을 일으킨 공산당은 그들이 장차 사회에서의 반동세력을 없앨 목적으로 모든 소년들을 교육시켰다.

이 가운데에는 노동자의 자식은 물론 농민이나 저주 혹은 귀족의 자식들도 강제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은 공산당원으로부터 아직도 인민 앞에 그 재산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자본가나 저주들은 인민의 영원한 원수라고 배우게 되었다.

순진한 소년은 그날부터 지주인 자기 아버지의 계급과 자기의 계급은 이미 같을 수 없고 또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땅을 공산당에게 바치고 하루 속히 혁명 계급이 된다고 말했으나 완강한 꾸지람만 들었다. 그는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반동분자는 숙청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교훈을 되새겨 가며 어느날 밤 푸르게 날이 선 낮을 들고 자기 아버지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치고 말했다.

이른 새벽 그는 피물은 머리를 안고 공산당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백하였다. 공산당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를 벌 주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칭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모든 당원이 본받아야 할 가장 영웅적인 혁명주의자라고 떠들었다.

이것이 공산당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로 맺어진 인간의 인연도 계급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기의 소속한 계급을 깨닫고 그 원수를 죽여 없앤 다음 공산주의를 이루는 길만이 참 행복에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현대 국지전쟁 분석



이 규 홍

「아폴로」12호가 두 번째로 달착륙에 성공하여, “인류 최초로 달에 섰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미국의 너슨 대통령은 「아폴로」12호의 성공은 전인류의 위대한 진전을 뜻하는 것이며, [지구상상의 인류의 단결을 한층 긴밀하게 할 것이다”고 언명한 바 있다.

지구 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층 단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 전쟁은 지양될지도 모른다.

이날 로마 법왕 바오로 6세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영광을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선의의 인간들에게 평화를” 이라고 축복의 말을 한 것과 같이 지상에서는 인류 간에 서로 피를 보고 싸우고 있는 월남, 태국, 중·소국경기타 중동,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슬픈 일을 개탄하였다.

이 지상에서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

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모든 국가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하여 진실한 모색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 후 열핵병기(熱核兵器)와 그 운반수단의 발달은 다시 말해 “보탄 누르기 전쟁”으로 화하여 인류 진멸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으며 전쟁은 인류의 평화를 문제로 하여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안전보장 문제나 또는 인류 평화 문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우리가 그 저 앞아서 기대하는 것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에 대하여 깊은 과학적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 쓴 글은 먼저 “일반적 요청의 일부에 대답하려는 것으로, 제2차 대전 후의 “국지전쟁에”대하여 사적고찰을 가하려는 것이다.

역사는 장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나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류에 무엇인가
경험적 지식을 줌에는 틀림이 없다.

칸트가 말하듯이 경험만으로는
진실한 지식이 되지 않으나, 경험없이
진실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제2차 대전 후의 국지 전쟁사를 고찰
한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국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전쟁이
어느 것이나 국지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전쟁”이 모두
“국지전쟁”이라고 성급히 단정할 수
는 없다.

그것도 “냉전” 개념이 있기 때문이
다. “냉전”이 전쟁의 한 형태이나, 또
는 전쟁의 “의제개념(擬制概念)”에 불
과한 것인지는 논의될 절이다.

“냉전”은 열 핵병기에 둘러 있는 동
서 양전쟁의 투쟁이다.

그러나 열 핵병기는 그 자체가 갖는
상호자멸의 가능성에서 열 핵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냉전”의 투쟁수단은 정
치 수단을 주체로 하는 것이지만, 국
지 전쟁은 열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되며 또한 적용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국지전쟁”은 “냉전”
의 일 국면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

“냉전”이 “전쟁”이나 아니냐는 고
사하고,

“현대전쟁”을 고찰할 경우, 냉전을
무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론(小論)은 각 각의 구체적인
국지전쟁에 관하여 고찰하려 하는 것
으로서 “냉전”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만 “냉전”을 포함한 “현대전쟁”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현대 국지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국지전쟁”을 중심으
로 한 구체적으로 어느 전쟁을 생각
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문제가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말 하듯이 전쟁은
폭력을 가지고 하는 양자의, 쟁투이며
전투는 전쟁의 속성(屬性)인 것이다.

전쟁은 평소 전투를 동반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소련의 체코 침입은 전
쟁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소련은 확실히 군사행동 즉
전쟁수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체코가 응진하면 전투가 야기되었
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같이
느꼈던 사실이다.

체코의 무저항에 의하여 전쟁은 아

역사적으로 본 현대 국지전쟁 분석

기 되지 않았으나 소련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쟁행위임에는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체코 침입과 같이 일방적 군사행동으로 전투가 야기되지 않았던 것도 국지전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해서 “국지전쟁”으로 간주하는 것을 아래에 적어보면 지금까지 전쟁임을 볼 수 있다.

- 즉 (1) 국·공 내전 (2) 인도차이나 전쟁 (3)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4) 카시미르 분쟁 (5) 마테 반란 (6) 비올빈 반란 (7) 한국 전쟁 (8) 금문·마조포격 (9) 인도네시아 내전 (10) 라오스 내전 (11) 티베트 반란 (12) 요아 해방 (13) 인도·중공 국경분쟁 (14) 서 이리안 분쟁 (15) 마레지아 분쟁 (16) 베트남 전쟁 (17) 인·파 전쟁 (18) 태국 반란 (19) 중·소 국경분쟁 (이상 아시아 19전쟁)
- (20) 레바논 출병 (21) 파레스치나 출병 (22) 시나이 전쟁 (23) 스에즈 전쟁 (24) 쿠에트 전쟁 (25) 예멘 내전 (26) 아덴 반란 (27) 중동 전쟁 (28) 키프로스 분쟁

- (29) 키프로스 내전 (30) 키프로스 위기 (31) 알제리아 내전 (32) 알제리아·모로코 국경분쟁(이상 중근동·북아 13전쟁)
- (33) 기니아의 반란 (34) 콩고 동란 (35) 콩고 분쟁 (36) 앙고라 분쟁 (37) 나이제리아 내전(이상 중남아 5전쟁)
- (38) 기리시아 내전 (39) 헝가리 동란 (40) 체코 침입(이상 구라파 3전쟁) (41) 카테마라의 반혁명 (42) 쿠바 혁명 (43) 쿠바 진공 (44) 쿠바 위기 (45) 베네주엘라의 반란 (46) 토미니칸의 반란 (47) 벨루 반란(이상 미 대륙 7전쟁)

이상의 47의 전쟁은 여러 학자의 의견이 다 같이 꼭 일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국지전쟁을 고찰함에 필요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총괄하여 약간의 느낀바를 서술하기로 한다.

1.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끝나지 않는다.

이상 선택한 47의 전쟁에 관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1년

에 2회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 전쟁의 지속기간을 계산하면 매년 평균 세계의 6개소에서 전쟁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많은 해(1962, 1965)에는 10개소에서 전쟁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연합은 전쟁의 참태에서부터 장래의 세대를 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냉전개시와 더불어 동서 대립 선전의 장소로서 화했을 뿐이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의 평화에의 염원은 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원인론을 말 하였으나 어느 것이나 만족할만한 대답이 없었으며 여기 소론으로서는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개개의 국지전쟁을 총괄해 보면 당사자 간의 내재원인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립, 종교적 대립, 종족적 대립, 국가적 이익의 대립이 있으며, 당사자 이외의 객관적 원인으로서 제 2차 대전 후의 공백과 전후 처리의 미결, 동서대립, 식민지붕괴, 경제발전단계, 사회불만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당사자 간의 내재원인과 객관적 원인과는 상호 관련되며 어느 것이 궁극적 원인인가를 단정 하기는 곤란하나 자본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삼는 공산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국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가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전쟁을 발생케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인간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초 협력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대립 속에서의 협력, 다양한 통일이야말로 인간사회의 당연한 자세이며, 그것은 가족, 지역사회, 민족국가에 있어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조직화된 것의 다양한 대립이 주축이 되어 협력과 통일의 단계에는 도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관계는 대립의 극치로서의 전쟁에까지 발전된다.

특히 다양한 대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을 강제하는 것이 전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쟁의 원인이 되며,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중식이 없다.

역사적으로 본 현대 국지전쟁 분석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대로의 독립의 주체로서 자기들 스스로의 사상을 견지하며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으려는 나아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무산독재의 권력욕을 갖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인간의 독립의 주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적인 욕구는 공동체로서 국가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국가적 이익은 다양한 통일, 대립과 협조의 균형 밑에 제어되어야 하는 것이나 인간욕구의 무한계성과 국가 상호 간의 이해부족의 역사적 단계는 대립을 표면화한다.

또한 전쟁원인이 탐구되었다 하더라도 전쟁원인을 제거할 수도 없으며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그치지 않는다.

2. 전쟁지역은 3A 지역이다

전쟁지역을 지도 상으로 전개해 보면 전쟁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즉 3A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W·W 로스토가 [경제 성장의 단계]에서 과거 3세기에 걸친 3개의 전쟁유형, 즉 제일의 식민지 전쟁(식

민지 독립전쟁을 포함), 제2에 지역적 침략, 제3으로 현세기에 있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에워싼 대량전쟁을 지칭한 것과 같이 3A지역은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순으로 식민지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문명의 중심인 구라파 열강의 구라파 전쟁의 본거지였다.

미국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독립을 달성하고 오랜동안 고립을 지켰다.

소련방의 성립, 일본의 진출은 서구열강과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둘러싸고 쟁투가 확대되었다.

제2차 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미·소 양대국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미·소 양대세력의 출현은 서구 열강의 후퇴를 의미했다.

서구열강의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는 세력의 균형의 변경, 내성적 내소날리즘의 발전을 피하여 식민지 독립전쟁으로 접어들었다.

미·소 양대국의 대립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소에 있어서 사활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사할의 지역의 싸움은 열 핵전쟁의 위기를 가져오고 국지전쟁은 상호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소련은 그의 힘을 아시아로 확대시켰다.

이와같이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는 전쟁의 주 무대로서 등장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미 독립을 달성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후진성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파를 받아 혁명적 국지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3. 전쟁은 경제적으로 발전 · 도상의 지역에 문화적으로 · 로는 회교도, 가톨릭지역 · 에 많다.

전쟁은 부유지역(1인당 750불 이상)에도 야기되고 있다.

예를들면 체코와 헝가리아가 그렇다.

그러나 빈곤(1인당 350불 이하), 극빈지역(1인당 100불 이하)에 압도적으로 많다. 전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은 몬트리올 연설에서 (1966. 5. 8.) "1958년 이래 중대한 폭동이 발생한 건 수는 극빈한 나라에서 87%, 보통

빈국에서 69%, 중급 소득국가에서 48%이다. 따라서 폭동발생과 경제적 후진성과의 사이에 부정하기 어려운 상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과 안정이야말로 안전보장에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폭동과 전쟁과는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맥장관의 연설에는 일리가 있다.

회교도지역의 전쟁은 11건, 그의 종교지역과의 전쟁은 9건, 회교도 판제지역의 전쟁은 합계 20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47전쟁의 43%이다.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근동, 북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회교문화권이 민족주의의 발흥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로스토가 말하는 식민지 독립전쟁, 지역적 침략의 단계에 발전하였기 때문에, 전쟁회수의 많은 것도 긍정이 가는 바이다.

그러나 파키스탄, 인도, 아랍, 이스라엘, 터키계의 키프로스인 회랍계의 키프로스인의 싸움과 같이 연속한 전쟁을 회교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총이나, 또는 코랑이나에 상증되는 것과 같이, 회교의 비타협적 성격이 전쟁의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 현대 국지전쟁 분석

가톨릭 지역의 전쟁은 10건으로서 그중, 7건은 라틴 아메리카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독재와 혁명의 나라”라고 그러나, 그 혁명은 쿠데타에 의한 상층부 권력의 교체에 불과하며 근대화는 현저히 지연된 지역이다.

이 후진성은 좌익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비올빈의 반란도 같다.

기타의 2건의 가톨릭 지역의 전쟁은 헝가리, 체코이며, 전쟁의 성격은 반혁명 전쟁이었다.

가톨릭 지역의 공산주의에 대한 취약성을 가짐과 동시에 반공적 성격도 갖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4. 전쟁의 정치지리상의 특성은 집단 안전보장체제 지역 상호간의 전쟁이 없었, 또한 미국과의 안전보장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의 내부적 공격이 있었으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금문·마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집단안전보장 상호간의 전쟁은 핵

전쟁에의 발전의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국지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과의 안전보장 지역에서도 9건의 전쟁이 있다.)

이중, 비동맹과의 전쟁 1건(인파전쟁), 기타 7건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다.

7건의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6건이 내전이며, 1건이 국제전이었다.

이 1건은 금문·마조의 포격이지만 미·중 조약체결 이전에 전쟁이 개시된 것이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지역에 접한 전쟁으로서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는 내전으로서의 최랍내전, 비올빈의 반란, 라오스 내전은 어느 것이나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 체결 이전이나 또는 미체결의 지역의 전쟁이다.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 하의 지역에서도 전쟁이 발생하는 것, 특히 그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하여, 내부적 공격을 받는 것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가 전쟁역제에 반응이 아닌것을 표시한 것이나 안전보장체제 이전의 또는 안보체제가 없는 곳에서 공산주의의 외부적 공격을 받는 것, 안보체제 체결 후의 외부적 공격을 받는 것은 단, 1건인

것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가 공산주의의 외부적 공격에 의한 전쟁억제에 공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전쟁의 목적적 성격의 특징은 식민지 독립과 이른바 공산주의 혁명이다.

47개의 전쟁에 관하여 목적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식민지의 혁명적 독립 2건

식민지의 비혁명적 독립 또는 병합 8건

혁명정권 수립 10건

혁명정권 보지 5건

혁명정권의 영역적 확대 3건

이 통계는 중·일 국경분쟁, 중·소 국경분쟁은 영역목적으로서 제외하고 있다.

소위 혁명관계의 전쟁은 20건(식민지 독립 외 2건을 포함),

식민지 독립은 10건이다.

식민지 독립전쟁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쿠바의 독립이 늦어진 것과 같이, 남아있는 식민지에 있어서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식민지의 해방에 의하여 일단 종결을 보았다.

이른바 혁명전쟁은 중공혁명, 쿠바 혁명, 동구혁명 등이다.

전쟁을 예외로 생각하는 미국은 급속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소련 점령 지역의 공산화를 허용하고, 중국 공산당을 단순한 토지개혁자에 불과하는 것으로 큰 오인을 했다.

그러나 회랍의 내전은 미국으로 하여금 결단코 단연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한국 전쟁은 반공체제를 강력하게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대담한 공산주의 봉쇄정책은 드디어 성공 한국, 회랍, 금문·마조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완전 저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저지는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

반혁명전쟁이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야기되고 있음은 공산주의의 모순을 여지없이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반혁명이 그들의 이른바 혁명의 진행과정에 일어난 사소한 저항인지 또는 공산주의가 붕괴해 가는 제일보 인지는 역사의 심판에 기다려볼 일이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전쟁과 소련

권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반혁명의 태동, 카스트로의 혁명론 등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의 동향 등이 그들이 어떻게 균형이 잡혀질 것인가는 현대 전쟁의 역사적 마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전쟁의 당사자 관계는 내전적 성격을 갖는다.

47전쟁의 당사자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순전한 내전	16건
내전과 국제전의 병합 또는 복합	14건
순전 국제전	17건
내전과 국제전의 병합 또는 복합 관계로서 생각되는 것은,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 분할국가와 제3국의 연합(분할국가만의 당사자 관계는 없다. 이것은 분할국가가 동서 대립의 산물이며, 그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와 반란자에 제3국이 연합하여, 정부연합, 반란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식을 갖는 것 등이 있다.

전쟁의 목적적 성격이 혁명적 성격을 갖는 것은 전쟁에 내전적 성격을 부여하며 동서대립은 내전과 국제전의 복합 형식을 부여한다.

순전한 국제전도 17건이 있으나, "전쟁은 국가간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방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국지전쟁에는 동서 특히 미·소·중공이 개입한다. 이것은 국지전쟁이 동·서 냉전 속에 들어가 대리전쟁의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개입의 상태에는 조정적, 비판적, 결합적, 일방적 등의 구분이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원조와 작전개입)으로 구분된다.

이를 종합하여 미·소·중공의 개입전쟁 건 수를 통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미	29건
소	35건
중공	23건

미·소·중공의 전쟁회수는 5,3,5회이며 소련이 적으나 전쟁개입 건수는 가장 많다. 미국은 영국이 전쟁당사나 또는 개입자인 경우에는 주로 영국에 위임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쟁 건 수는 가장 적다.

여하간 국지전쟁의 대부분은 미·

소·중공이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국지전쟁 자체가 미·소·중공의 세력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지전쟁은 미·소·중공의 냉전에 들어가 태리전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개입의 특징은 조정적 개입이 많은 것, 일반적 개입은 군사원조, 작전 개입이 많은 것이다.

소련의 특징은 일방적인 정치개입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일방적 계획지도 개입이 현저하다.

중공은 중·소 대립 후 비관적 개입이 지배적이다.

조정적 개입은 미국의 13건, 소련의 2건(중·인 국경분쟁, 인·파 전쟁), 중공의 1건(알제리아·모로코 국경분쟁) 뿐이다.

미국이 조정에 있어서 압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군사원조 개입은 미국이 5건, 소련이 4건, 중공이 3건이다.

작전개입은 미국 2건(회랍내전, 콩고) 소련 0, 중공 1건(인·파전쟁)이다.

소련은 작전원조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배후에서 계획 지도하며 즉 간접 침략을 행하였으며, 4건(마레 반

란, 비올빈 반란, 한국 전쟁, 회랍 내전)이다.

미국도 2건(카테마라 반혁명, 쿠바 진공)이 있다.

8. 전쟁에 있어서의 선제공격자가 반드시 강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 전쟁, 체코 침입, 스에즈 전쟁 등의 사례가 나타내듯이 국제적 성격의 국지전쟁에 있어서는 강자가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이 “힘”의 투쟁인 이상, 강자의 선제공격은 당연하다.

특히 이 힘의 관계는 폭발적인 것이며, 시일의 천연이 힘 관계를 불리하게 할 것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강자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믿은 생각할 수 없다.

47의 전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자의 선제	11건
동정도의 선제	8건
약자의 선제	28건

위의 통계를 보아 약자가 선제공격 한 사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 국지전쟁이 혁명적, 반

식민적이며, 내전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약자의 선제공격이 언제나 합리적 판단 하에서 개시될 것은 아니다.

많은 식민지 독립전쟁은 "독립"에 의 동경에서 간접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헝가리 동란이나 콩고 동란과 같은 충동적인 선제공격도 적지 않다.

이상에서 전쟁억제의 논리는 국제전에 대하여서는 군사력의 균형을 잃지 않을 것. 내전에 대하여는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도 하여금 균형을 잃을 엄려를 주지 않게 할 것. 충동에 대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것 등이다.

9. 전쟁은 정치 전쟁이다

전쟁은 군사행동(군사전)을 배놓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군사행동과 정치행동(정치전)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전의 냄새가 짙은 전쟁을 군사전쟁, 정치전의 냄새가 짙은 전쟁을 정치전쟁이라고 하여 통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전쟁 6~7전

정치전쟁 40~41전

위의 숫자가 나타내듯이 현대의 국지전쟁은 정치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전쟁(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인.파전쟁, 시나이 전쟁, 스에즈 전쟁 및 인도차나 전쟁)에서도 "교섭하면서 싸운다"는 상황을 느꼈으며 현저한 정치전의 냄새를 풍겼다.

현대 국지전쟁을 정치전쟁으로 이끈 이면은 첫째로 전쟁의 혁명적 성격이다.

그것은 약자가 강자에 대한 도전이므로 정치전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둘째로 국지전쟁이 동서냉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 행동의 필요를 요청한다.

세계로 열 핵전쟁의 가능성이다.

동서냉전에 관련된 국지전쟁은 비록 비 핵전쟁이라 하더라도 열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갖는다.

열 핵전쟁의 상호자멸의 가능성은 열 핵전쟁에의 발전을 억제하여, 군사전의 제한, 정치적 해결에의 필요를 요청한다.

여기서 정치전이 등장하여, 비록 군사전에 있어서 승리를 얻지 않더라도

도 정치전으로 승리하므로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으며, 정치전의 지위를 향상하게 되었다.

정치전의 지위의 향상은 전쟁을 하여 보다 한층 정치전쟁으로 이끌었다.

10. 군사전의 형태는 재래형 및 비재래형과 이들의 복합형이다. 핵 위기는 있었으나 핵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군사형태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재래형	28건
내핵위기(內核危機)	5건
비재래형	5건
복합형	2건

핵 위기를 갖는 재래형 5건의 전쟁(한국전쟁, 인도네시아전쟁, 금문·마조포격, 스에즈전쟁, 쿠바 위기)는 어느 것이나 핵전쟁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외의 정치적 압력, 핵전이 갖는 상호자멸의 가능성에 의한 것이었다.

핵 전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 재래형 전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의 폭력 무한계 행사의 내적 법칙의 수정을 의미하며, 폭력사용의 제한의 법칙을 부각한 것이다.

폭력의 무한계 행사 내지 확대와 제한과의 상호 모순하는 법칙은 현대 전쟁의 특질이며, 군사전략의 중요한 과제이다.

비재래형은 기왕에도 있었지만, 하나의 전투형식에 불과하며, 재래형 전의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비재래형은 군사전의 주 형태로 되어 더구나 전쟁의 승리를 피한 것이다.

비재래형에 의한 전쟁의 승리는 정치전에 의지하는 것이 많으며, 군사적으로 장기의 저항을 계속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비재래형 전략가가 말하듯이 비재래형 뿐으로서는 상대의 군사력을 격감할 수 없으며, 재래형에의 자기발전함의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의 시간을 요하며 “시간”은 군사전략의 중요 요소이다.

섬멸전략의 전통을 갖는 서구의 군사전략가는 시간의 요소를 무시하기 일수이며 장기의 전쟁에 대하여 취약하게 보인다.

북합형은 비재래형의 재래형에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형태이며,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이 알리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11. 정치전은 국내 정치전을 하부 구조로 하여 당사자 정치전(직접, 간접) 국제 정치전으로된 다면적 구조로 되었다.

제2 차 대전까지의 정치전은 국제 정치 전만으로 되어 있으며, 더구나 군사전의 보조적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지전쟁에 있어서 정치전은 국제 정치전의 확대와 더불어 당사자간의 직접, 간접의 정치전, 또한 국내 정치전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국지전쟁을 정치전쟁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전술한 바와 같다.

국내정치가 국내 정치전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계급 국가론이나 다원적 국가론에 의하여 국가의 통일성이나 국가의 우위가 상실되어 약한 구조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지도기관으로서의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국내정치는 상호 경제적 관계이긴 하나 심리적으로 상호작용을 끼쳤으며, "전쟁"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이 국내 정치전의 등장은 동시에 상대의 국내 정치를 방해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간접 당사자 정치전과 포리 일체의 관계에 있다.

미국민의 베트남 반전운동이 만일 내생적인 것이면, 국내 정치전의 실패를 의미하며, 북베트남의 시사에 의하면 북베트남의 간접 당사자 정치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치전은 논리적으로 말하여 전쟁이 정부, 국민을 포함한 국가의 행위이므로 전쟁주체의 확보를 의미하며, 모든 정치전의 하부 구조이다.

쿠바 위기에 있어서의 케네디 정부의 사퇴가 실증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정치전에 성공하면, 상대의 간접 당사자 정치전에 있어서도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체코의 사퇴가 알리듯이 국내 정치전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현대의 국지전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전쟁이다.

상술한 고찰은 전쟁의 사실적 현상을 전제 한 것이지만, 전쟁이 언제 발발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이 적지 않다.

이 불분명한 전쟁을 연막형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연막전쟁은 16건 전쟁으로서 명확한 형태의 전쟁은 중간 형태의 전쟁은 18건이다.

13건,

오늘날 베트남 전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 발발시기에 대하여는 정설이 없는 것과 같이 전쟁발발의 애매성은 “유사즉응(有事即應)”의 개념에서는 불충분하며, “상시즉응(常時即應)”을 요구한다.

전쟁 발발의 애매성과 더불어 전쟁의 종결도 애매하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이면 정치적 협정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 협정이 체결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중동 전쟁은 9일 전쟁이라고 일컫거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장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있어서 진실한 평화가 화해로서 이루어지며, 정치적 협정이 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후세사가(後世史家)들은 1948년 이후의 양자의 전쟁을 10년 전쟁이라고 칭할지 모른다.

전쟁의 발발, 종결의 애매성은 「켄틀세」의 전략가들이,

“지금이야 말로 전쟁도 아니며 평화도 아니다. 오로지 대결 뿐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냉전—국지전쟁—냉전의 연속적, 포괄적 전략의 필요를 의미한다.

군사력도 또한

“READY FORCE에서 OPERATING-FORCE”에의 전환이 요청된다.

(69. 11. 5.)



소련의 암투상

박 문 송

1. 권력투쟁

1917년 10월 「레닌」의 지도에 의해 수행된 「볼셰비키」 혁명의 승리로써 「러시아」는 세계탄방에 사회주의 국가수립을 선포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이미 50주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소련 내부에서의 형태와 양상은 매우 복잡하였고 또 다양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히 국제 공산주의 운동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규 그리고 「볼셰비키」 당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관계를 들어 그 사건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건들로서 특징지어진다.

첫째로, 1869년의 제1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마르크스」 주의나, 무정부주의

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칼·마르크스」 대 「바쿠닌」과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는 1872년에 「바쿠닌」이 드디어 유혈의 추방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둘째로, 1876년의 제2 「인터내셔널」 내부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폭력혁명이나, 의회주의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레닌과 「카우츠키」와의 싸움이였다.

셋째로, 1903년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중심의 조직이나, 비 「프로레타리아트」도 포함하는 당의 조직원칙이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레닌」의 「볼셰비키」 대 「마르토프」의 「멘셰비키」간의 싸움이었는데 바 여기서 「멘셰비키」는 여겨 없이 탄압을 받았다.

넷째로, 1925년 12월의 제14차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 당대회에서의 일국 사회주의 건설이나, 영구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스탈린」 대 「토로츠키」

의 싸움이였다.

다섯째로, 1948년의 「코민포름」에서의 말하자면 소련식 공산주의나, 「유고」의 독자적 공산주의 건설노선이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스탈린」 대 「티토」의 투쟁이였다.

여섯번째로, 현재 한창 불꽃을 튀기고 있는 중·소 분쟁에서의 모택동주의나, 「호루시초프」주의나 다시 말해서 교조주의나, 수정주의나 하는 문제를 둘러싼 모택동과 「호루시초프」와의 대결 등이다.

그러나 「모」·「호」의 대결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역사가 직면한 일대 위기의 큰 문제이다.

위에서 보아 온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권력투쟁과 「이데올로기」 분쟁은 거의 모두 숙청에 의해서만 해결되어 왔고 그것도 어제의 「동지」에 대한 살륙으로서만 종결되었다.

2. 「레닌」과 혁명

10월 혁명을 바로 앞둔 1917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레닌」은 이른바 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가와 혁명」을 썼다. 그는 그 저서에서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① 「프로

레타리아트」는 혁명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한 후 착취자의 반항을 진압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광범한 주민 대중 즉 농민 소 「부르조아」 반 「프로레타리아」를 지도하기 위한』 국가를 필요로 하며 ②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를 통해 「부르조아져」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한 것이며 ③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대중들 속에서 극히 소수를 차지하는 착취자이며 그리고 억압은 주민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며 착취제급이 소멸되면 제급 억압의 기구로서 국가는 소멸한다.

그러나 「매 개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며 또 그들은 수요에 의해 분배를 받는다」는 공산주의적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는 국가는 「노동 및 소비의 척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이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그것만큼 공동생활의 기본적 규제를 준수하는 습관을 충분히 가져며 그들이 그만큼 생산적으로 되었을 때」 국가는 완전 소멸할 것이다.

「레닌」의 이와 같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이론적 및 역사적 출발점

에 입각하여 「러시아」에는 1905년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과 1917년 2월의 혁명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1917년 10월 25일(구력)에 성공을 본 사회주의 혁명(10월 혁명)이 또한 「레닌」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련 「볼셰비키」당의 창설자로서의 「레닌」은 일찌기 1893년에 「퍼리스부르그」(현「레닌그라드」)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그루우프」의 지도자가 되었고, 당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두개의 「그루우프」 즉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부정하는 「나르드니크」(인민파)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싸웠다.

그 후 1895년 사회민주당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동맹」을 조직했지만 곧 체포되어 동부 「시베리아」로 유형되었다.

그 후 「레닌」은 1900년 가을에 외국에 망명,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의 기관지 「이스크라」(불꽃)를 발간하였고 특히 1903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술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를 경제투쟁만에 국한시키려는 「에코노미스트」(경제주의자)의 기회주의적 경향을 논박했다.

그밖에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혁명

에 있어서의 농민의 역할을 밝히고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이론적으로 품었으며 혁명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1903년 7월에 있었던 제2차 당대회에서는 「이스크라」가 준비한 강령은 채택되었지만 당의 규약에 관해 당을 규율에 의해서 조직된 진위대로서 보는 「레닌」은 당을 조직적 규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르토프」와 대립하여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마르토프」, 「악셀리로드」, 「트로츠키」, 「프레하노프」 등) 간에는 분열의 위기가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1904년 5월에 「레닌」은 「일보진진 이보후퇴」를 저술하여 「멘셰비키」파에 대한 공박을 가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와 「이스크라」가 「멘셰비키」수중에 옮겨졌으므로 「레닌」은 「이스크라」 편집부를 물러서고 1905년 1월의 「회의 일요일」과 「10월 총파업」후의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성립 전후를 통해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을 써서 「프로레타리아트」를 지도자로 하며 빈농을 그의 동맹자로 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의 전술을 전개했다.

그 후 「레닌」의 1903년 이래의 압두결과 1912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멘셰비키」파는 당내에서 일소되었다. 「레닌」

은 다시 1916년에 이르러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저술, 제국주의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야로 규정했고,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법칙을 발전했으며 그리고 일국 내에서의 「프로레타리아」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밝혀 놓았다.

1917년 2월 혁명이 성공하자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전쟁계속에 반대했고 즉시 병화를 요구하는 「볼셰비키」 투쟁을 지도하는데 나섬과 함께 「러시아」에서의 이른바 혁명의 제1단계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으로서의 전화가 가능하다는 4월 「테제」를 발표했다. 그 후 「레닌」은 한때 「핀란드」로 망명, 「국가와 혁명」을 저술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밝혀 놓았다.

「러시아」에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후 소집된 제2차 전 「러시아·소비에트」 대회에서 「레닌」은 「소비에트」 중앙 집행위원회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1918년 5월 이후 대소 간섭전쟁과 국내혁명의 후발에 의하여 「전시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 등을 거쳐 특히 「네프」(신경제정책)를 둘러싼 「토로츠키」 등 많은 반대파들과의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3. 유클의 역사

「레닌」에게서 「스탈린」에게로 계승된 「소비에트」의 유클혁명의 이면을 보면 「토로츠키」가 말한 「혁명」은 불법」이라는 불법의 정도를 끄적하도록 넘어서고 있다.

10월 혁명은 「니콜라이」 2세의 온 가족을 비롯해서 황족, 귀족, 승려, 저주, 장교, 헌병, 경찰에 이르기까지 살해하고 뒤이어 「카데트」당 「멘셰비키」 「에스에로」당 등 의회 민주주의자들을 분쇄해 버렸다. 그 밖에도 사방에서 봉기한 백군을 전멸했다. 계속해서 외국의 무장간섭 군과의 교전에 있어서 혼란과 기아에 달라죽은 전체 희생자 총수는 천만명에 달했다.

「레닌」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파트론」이었던 문호 「막심·골키」마저도 10월 혁명의 적색 「테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 (1917년 12월 1일 「노바야·쥐즈니」=「신생활」지).

『맹목적인 모험자들은 사회혁명의 것말을 높이 들고 폭력행사의 길로 돌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혼란에의 길이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파괴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레닌」들은 모든 죄악을 범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테스토프그」의 시가진 「모스크바」의 파괴, 언론의 탄압, 부의미한 체포와 살인 등 「레닌」은 노동계급의 피로써 실험하면서 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자는 이러한 「테러」 정치 속에서 기적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폭력행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기아와 산업시설의 파괴와 장기의 유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이 당시 반혁명의 선봉자였던 「코라스노프」나 「제니킨」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바로 혁명의 지지자이며 「레닌」의 상담역이었던 「골키」에 의해 공표되었다는데 더욱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10월 혁명을 직접 지도한 「레닌」 자신이 혁명운동의 제1호를 적색 「테러」를 가치고 발족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잔」시의 중학교장을 지낸 온후한 「일리아·울리아노프」를 아버지로 가진 「올라저미르·울리아노프」 즉 「레닌」(나중에 개명)이 폭력혁명의 지도자가 된 데는 그의 만형인 「알렉산드르·울리아노프」가 1881년 3월 1일 당시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여 사형에 처해진 사실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레닌」은 제정에 대한 복

수의 사상이「격렬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구두고치기였던 아버지 「비사리온·주가슈비」가 죽음으로써 학비를 대어줄 사람이 없어져 「치프리스」 신학교를 중퇴한 「이요시프·주가슈비」였다. 그는 1898년 「에스에르」당의 영향을 받은 「레닌」단체인 「매사매·다츠이」에 가입했다.

그가 행한 최초의 혁명활동은 제정 「러시아」의 대관으로서 「치프리스」에 군탈하고 있던 「코카사스」 총독 「그리야즈노프」장군을 암살하려는 「테러」행위였다.

「레닌」은 그의 형의 「테러」행위에 자극되어 「직업혁명가」가 되었으나 「스탈린」처럼 직접 제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일은 안했다. 그는 단사람을 시켜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말하자면 「레닌」은 적색 「테러」의 총지휘자이며 감독자였다.

당시 「스탈린」을 능가하는 적색 「테러」의 「베터린」으로서 「카모」(본명은 세몬 베트로잔)라는 청년이 있었다. 대담무쌍했던 그의 「테러」활동에는 갖가지 전설적인 이야기거리가 남아 있다.

「카모」는 항상 「레닌」의 지시를 받아 가며 「테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레닌」의 미망인 「크로프스카야」의

저자 「레닌」 활동의 지휘자인 「레닌」과 「테러」 활동의 실행자인 「스탈린」이 혁명의 「파트론」이었던 「골키」의 공격을 묵살하고 또한 연래의 동지인 「지노비예프」 「카메비프」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폭력혁명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4. 「스탈린」 사후

「스탈린」은 1953년 3월 2일 밤 뇌출혈로 사망했다.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 그의 병치료를 담당했던 많은 의사들은 의심과 불신을 받아 왔다.

더우기 유태인 의사 암살음모 사건도 있었던 터여서 그들의 수난은 컸다. 심지어 소련방 보건장인 「트레차코프」 자신이 직접 의사들의 치료활동을 엄밀히 감시하기까지 했다.

당시 소련공산당중앙위 간부회원으로 서 「스탈린」의 측근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서기인 「포노마렌코」는 나중에 「플랜트」대사로 좌천되어 「바르샤바」에서 행한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탈린」은 7월 5일 임종시 혼자 병실에 방치된 채로 헤매면서 죽어갔다.』

민중의 공포 뒤에서 신격화된 독재자는 최후까지 고독했다. 그의 장의식은 붉은 광장에서 붉은 기와 붉은 꽃다

발 속에 파묻혀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나 진심으로 슬픈 눈물을 흘려 준 사람은 없었다. 대신 대중들이 내뿜는 안도의 숨 소리는 붉은 광장에 매아리쳤다. 죽어간 「스탈린」에게는 전쟁에서 잃어버린 장남 「야코프」 외에 차남 「와실리」와 딸 「스베틀라나」가 남아 있다.

「스탈린」이 죽어감과 함께 독재의 왕좌를 노리는 무리들은 제각기 눈치만 볼 뿐, 선뜻 후계 독재자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 집단지도제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선 제1위로 「마렌코프」, 제2위로 「베리야」, 제3위로 「몰로토프」, 제4위로 「워로실로프」, 제5위로 「호루시초프」, 제6위로 「불가닌」, 제7위로 「카가노비치」의 순위를 결정하고 독재의 왕좌 경쟁전을 그대로 받아 안은 채 넘어 갔다.

다음 독재자를 결정하는 일은 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짓는데 성공한 것은 「스탈린」의 자식을 치치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자식 「와실리」는 앞서 번사한 「나제스다·아아리즈에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서 그는 부랑배였던 것이다.

그러나 「와실리」는 공군대학을 졸업했으며 독·소전쟁에서는 대좌로 승전, 후에는 공군소장이 되었다.

그 후 다시 「스탈린」의 반년에 「와실

리」는 공군중장으로 승진 「모스크바」 군관구 공군사령관의 요직을 차지했고 또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원으로도 선출되어 그의 전도는 유망했다. 이것은 새로운 독재자들에게 있어서 큰 두통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재의 황좌를 노리는 전기 7명의 집단은 일치된 결정으로서 「와실리」를 감금하여 「스탈린」의 장의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군관구 공군사령관의 직책을 박탈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호루시초프」가 독재의 황좌에 오르자 「와실리」는 공군중장으로부터 소장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다음으로 「스탈린」의 사위인 「유리·지다노프」도 장인의 죽음으로 피해를 받았다. 그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과학·문화부장으로 올라갔고 나중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으로 뽑혔으며, 한 때 「스탈린」의 후계자로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그의 모든 직책은 박탈되었고 중앙위원으로부터 평당원으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이즈음 「호루시초프」의 사위인 아주베이」가 장인의 덕택으로 「콘소몰스카야·프라우다」지의 편집자였다가 일약 동지의 편집장이 되었고 다시 「이스베스차」지의 편집장으로 영전하여 제22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것

과 마찬가지로였는데 오늘날 「호루시초프」의 실각과 더불어 「아주베이」도 「지다노프」와 같이 그의 요직에서 추방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독재체제하에서는 하나의 평범한 진리로 되고 있다. 「스탈린」 사후 「말렌코프」 「불가닌」 「카카노비치」의 순위로 집단지도의 간판이 옮겨졌지만 독재정치 체제하에서 집단지도제가 오래 계속된리는 만무하다. 집단지도제라고 하는 것은 독재가 결정되기까지의 과도기의 변칙적 현상인 것이다. 그것은 「호루시초프」가 독재자가 되고 나자 전기 7명중 「호루시초프」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모두 추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6명중 최초로 피의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다름 아닌 「베리아」였다. 「베리앙」 「말렌코프」와 견주어 독재황좌쟁탈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특히 적색 「테러」 조직의 총책임자였던만큼 다른 경쟁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미움을 받았던 강한 적수였다.

1953년 6월 26일 「크레블린」 회의실에서 「말렌코프」 이하 전원이 동원돼서 「베리아」를 체포했다. 20여년간이나 계속 당중앙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15년간이나 「게·페·우」의 두목으로 있었던 「베리아」였던만큼 그의 세력은 무시

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7월 10일에 야 비로소「베리야」체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베리야」는 내무기관을 동원하여 정권의 탈취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은 10월혁명 당초부터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 외국의 「스파이」 노릇을 해 왔고 반혁명적 행동에 종사해 온 가장스러운 조국의 배반자였다.』

5. 「말렌코프」의 오산과 그의 진통

「스탈린」의 후계자가 되는데 자신을 가졌던 「말렌코프」는 제1의 강력한 「베리야」를 처치하는 일에 「몰로토프」 이사가 협력한 것을 자기의 독재확립에 봉사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몰로토프」, 「워로실로프」, 「카가노비치」는 더할 것도 없고, 1894년에 출생했고, 1918년에 입당한 「호루시초프」로서도 1902년에 출생했고, 1920년에 입당한 「말렌코프」에 비하면 훨씬 선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누구 하나 이 젊은 후배인 「말렌코프」를 독재의 왕좌에 올려 놓기 위해 협력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말렌코프」의 가장 큰 오산은 집단지

도 제하에서 당직과 정부직을 한 손에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중앙위원회 제1서기라는 알맹이를 버리고 소련의 수상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택했다는 것이다. 공산정권 하에서 당의 중추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독재권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으뜸발을 잃어버린 격이 되었다.

이에 반해 「말렌코프」의 진출로 당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실질적 지도자로 승진, 곧 당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된 「호루시초프」는 당중앙위 간부회에서 「말렌코프」, 「몰로토프」, 「워로실로프」 등 보다는 하위이기는 했으나 왕좌쟁탈전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무기를 손에 쥔 셈이다.

당의 인사권을 장악한 그는 「말렌코프」와의 「샤탈릴」과 「포노마렌코」 등을 차례로 당중추로부터 추방하고 자기세력을 크게 확대했다. 「말렌코프」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만 셈이다.

「호루시초프」에 의해 여지없이 그 세력을 쥐인 「말렌코프」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완전히 그의 위신과 권위가 추락되었고, 제1부수상으로서 응당 그를 보좌해야 할 자리에 있던 「몰로토프」나 「카가노비치」 등도 본척만척 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간 또 「베리야」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렌코프」는 생각했다. 1955년 베마침 개최중이던 최고회의 석상에서 「말렌코프」는 내각수반의 지위를 내팽거쳤다.

그는 사의표명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원래 당무에만 전념해 와서 경제기구를 실질적으로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또한 농업의 불만족스런 성파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

이 기회에 나보다도 더욱 근무에 능통한 사람으로 교체해야겠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직하기로 했다.

「말렌코프」 퇴각 「후루시초프」, 「카가노비치」, 「미코얀」 등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그루우프를 제압하고 수상 후임에 「불가닌」이 올라 앉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절격적인 작업이었다.

아무리 당중후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수반의 지위에 「몰로토프」나 「카가노비치」 같은 대선배가 취임한다는 것은 「후루시초프」로서는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절대적인 독재권을 장악했던 「스탈린」마저도 수상의 지위를 자기와 동격인 「트리코프」에 맡기지 못했고 격이 훨씬 떨어지는 「몰로토프」를 내세웠던 것이다. 아직 독재권을 확보 못한 「후루시초프」에게 있어서 수상직

에 자기보다 선배를 올려 놓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후루시초프」는 당시 자기가 스스로 정부수반의 지위를 차지하려고도 시도했다.

그러나 표면 집단지도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판국이었던만큼 자기 혼자서 당과 정부를 독점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렌코프」와 같이 이빨 빠진 호랑이 격으로 되어 조만간에 거세당한 서투른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스탈린」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려고도 했으나 「후루시초프」는 「스탈린」이 가졌던 그와 같은 여건을 구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6. 「후루시초프」의 집권과 반대파

「불가닌」의 수상취임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몰로토프」였다. 그것은 그가 1931년 12월 9일 「레닌」 「로이코프」의 뒤를 이어 소련내각의 제3대 수상을 지낸 이래 「스탈린」의 후계자로 크게 저명당해왔었고 더욱이 「스탈린」 사후 「말렌코프」와 「베리야」에 의해 그의 진출의 길이 막혀졌었으나 곧 「베리야」가 암살당했고, 「말렌코프」가 수상의 자리에서 쫓겨남으로써 이번만큼은 자기 차례가 될 것에 틀림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대가 어그러지자 「몰로토프」 「호루시초프」에 대한 증오감은 극도에 달했으며 「호루시초프」 세력의 전복에 광분하기 시작했다. 후배에 의해 밀려 나간 점에서의 불만은 「카가노비치」 「보로실로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몰로토프」의 처 「쎌추저나」는 허영심이 강한 유배여자로서 「호루시초프」에 대한 불개심은 자기 남편에 못지 않게 반 「호루시초프」투쟁으로 「몰로토프」를 더욱 증동하였으며 또한 그 여자의 친구로서 같은 유배인인 「로자·가가노비치」(「스탈린」의 제3부인)도 역시 오빠인 「카가노비치」를 중추로 하는 반 「호루시초프」 전선의 결성을 서두르게 하였다. 「모스크바」 교외의 「몰로토프」 저택은 「호루시초프」 타도 음모의 아저트로 되어 있었다.

「호루시초프」는 「불가닌」의 「콤비」로 독재정권확립의 길을 마련하고 즉시 정적인 「몰로토프」와 「카가노비치」 및 말렌코프」에 대한 특별작전을 전개했다.

당조직을 장악한 강자 「호루시초프」는 외상직 있던 「몰로토프」를 제쳐놓고 소련외교의 중요문제를 마음대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1954년 10월 중공과의 동맹조약을 갱신한 북경회담에 「호루시초프」는 「수슬로프」만을, 소련방회

의 외교위원회의 자격으로 대동했고 1955년 5월 「티토」와의 화해를 목적했던 「벨그라드」회담에도 「세펠로프」만을 민족회의 외교위원회의 자격으로 대동했다. 외상 「몰로토프」는 완전히 「로보트」 취급을 당한 것이다.

제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175명의 당 중앙위원들은 거의 모두가 「호루시초프」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으므로 중앙위원회 총회에서의 「호루시초프」의 승산은 확정적이었다.

「호루시초프」가 믿은 곳은 바로 중앙위원회 총회였다. 「호루시초프」는 지급전화를 걸어 각지의 중앙위원들을 비상소집 중앙위원회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는 「크레믈린」 회의실로 모이게 하여 당중앙위원회 총회로 간부회의 회합을 당 중앙위원회 총회로 전환시켜 「호루시초프」에 대한 절대 신임의 표명과 반 「호루시초프」파 탄핵을 경의하려고 했다. 이에 반 「호」파도 대결수단을 강구 이미 반 「호」파의 진영에 가담하고 있던 「불가닌」은 소련수상의 이름으로 「크레믈린」 중의 경비대를 동원하여 중앙위원들이 「크레믈린」 중 내에 난입하지 못하게 하며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없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양파의 대립은 위기의 절정에 달했다, 결국 「호루시초프」의 승리로 끝났다.

국민사상의 바탕



서 성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만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란 물질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의 작용이다.

생각이라면 우선 인생에 대한 생각을 비롯하여 기쁘고 즐거운 것, 그리고 슬프고 노여운 것과 또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생각이 있다.

인류의 역사란 한 마디로 말해서 생각의 흐름이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것을 자나 깨나 생각한다.

그 생각이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개인이나 민족은 생각이 모자란 다른 사람이나 민족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생각에는 건전하고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해롭고 나쁜 생각이 또 러다하

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생각이 앞서서 이롭고 좋은 생각을 짓밟는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하였었다.

그처럼 한 민족이나 인류에 있어서도 좋건 나쁘건 간에 애당초부터 하나의 생각이 영글어 온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현실도 따지고 보면 그 옛날로부터의 생각이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으며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일까 하는 것을 간추려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를 빛나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조건일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사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사상이란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이루어 온 것들을 생활의 현실과 이끄러 때고 앞으로 살아 가는데 필요한 이정표로 삼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 사는 동물이다.

이 말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되 값지게 살기 위한 뜻깊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족도 반만년의 역사를 겪어온 훌륭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아무도 지워버릴 수 없는 한국민족의 독특한 사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운 현대라는 때에 살고 있으면서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의 값을 찾아야 한다.

삶의 값을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겨레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조용히 우리들의 가슴까지 전해온 사상의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멸의 흐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일찌기 아사달이라고 불리었다 한다.

아사달은 아침 햇살이 평화롭게 비치는 동녘을 뜻하는 말이다. 이 따시롭고 아담한 곳에 하늘의 신이 내려 한 도성을 이룩하였다는 아름다운 신화에 뿌리 박고 유유한 5천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하늘의 뜻은 밝고 올바름이요. 힘과

영원을 상징한다.

하늘은 배초로부터 영원의 훗날까지 있는 것이며 거기 있는 태양은 모든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든 자기들의 처음 조상을 하늘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저바른 들녘에는 푸른 숲이 무성하고 거기에 수 많은 짐승의 벼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름 모를 꽃들이 어울려 피어 나비와 꿀벌을 회롱했을 것이다.

여기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환웅천왕이 강림하여 한 아기를 두었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했던 것이다.

단군은 하늘을 되시고 계사를 드리는 신단을 쌓고 옷 사람들을 거느리며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산천, 풍성한 먹이, 즐거운 삶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하여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믿고 섬기기를 생활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하늘의 뜻과 명령을 좇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그후 한 나라나 겨레를 이룩하는데 주심상이 뇌었고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하늘의 뜻을 전하고 받드는 이가 단군이므로 단군은 왕으로 숭배되고 백성들의 한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해와 같이 밝음으로 바로 하느님은 해가 될 수 있었다. 해와 같이 밝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생활의 이념이 되었다.

해는 온 천하 만물 위에 고루고루 빛과 따사로움을 내려 사랑하고 길러준다.

그러므로 사람도 온 천하 만물을 고루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먼저 자연을 사랑했다.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했다.

며들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았다.

단군의 치세원리(治世原理)였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사상도 헛벌치럼 사람도 만인을 고루 유익하게 보살핀다는 것이었다.

그후 이 평화로운 땅에 북쪽의 민족들이 여러번 쳐 내려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 안에서 남을 해치는 침략의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것은 전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원시의 사상을 버리지 않은 증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밝혀진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 가운데는 만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만일, 남의 몸을 상하게 하면 많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며, 또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잡혀가서 그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밝지 못한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는지 알 만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침내 밝음의 법은 주색을 잃는 사람들에게 엄한 계율이 되어 지킬 것이 강요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해치지 않는 것을 버릇삼고 밤에 잠을 잘지라도 문을 걸어 아니했으며, 여자는 경조를 지키고 남자는 음탕한 생각마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여하튼 밝음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생활기준이 되어 오고 있으며 해는 아직도 민족의 신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때에 와서는 역대 임금의 성이 해(解)로서 불리워지기까지 강조되고 신라를 창건함에도 광명이세(光明理世)라는 이념으로 백성을 다스림에 근본을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서양문화에서 말하는 평화정치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5천년 전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줄 뿐더러 특히 평화적인 정권의 이양이 신라시대의 제도나 백제, 고구려의 역사에도 뚜렷이 남게 된 것이다.

신라는 최초의 시조인 박혁거세를 추대할 때에도 육촌(六村)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선거의 형식을 밟았고, 고구려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군공평의(郡公評議)를 열었으며, 백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사상은 신을 모시는 제사나 혹은 엄한 법이나 민주적인 정치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니는 옷부터 밝고 티없음을 상징하는 흰옷(白衣)으로 통일했던 것을 보아도 알만하다.

이 흰옷은 부여시대부터의 풍습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잘 입은 티이다.

이런 우리나라를 가르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군자의 나라」라거나 「큰 사람 나라」라고 칭하고 여기 사는 사람을 일컬어 선비나 선인이나 혹은 열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화 랑 도

우리 민족의 사상을 가장 뚜렷이 나타낸 실적을 화랑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랑도는 신라 진흥왕(眞興王 24代) 27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라 청년의 모임이다.

신라는 일찍부터 서로 돕고 아끼며 힘을 모아 일하는 정신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일어난 나라이다.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메서나 도 물건을 만드는 데도 어디까지나 임금의 뜻을 화합함으로써 만드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

집안의 명예나 나라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용맹스럽고도 희생할 수 있는 기풍이 강하였으며,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임금을 위하여 쾌활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 신라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나라 안에서 화랑은 하나의 수양단체로서 원래는 그 이름을 「원화」라 하고 어여쁜 소녀를 뽑아 단장을 삼았던 것인데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 귀족 소년 중에서 인물이 밝고 품행이 좋은 사람을 뽑아 단장을 삼아 화랑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화랑은 충성과 의리를 존중하여 각 가지 훈련을 쌓아 그 중에서도 진흥왕 23년 사다함(斯多舍)이라는 화랑이 나타나 대가야 정벌(大加耶 征伐) 싸움에 큰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다함의 무리는 무려 일천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그의 출중한 인품을 따르고 있었다.

사다함의 나이 십 육세에 신라군의

선봉장이 되어 대가야의 병사들을 무찔러 크게 이긴 공으로 왕은 그에게 가야의 집 삼백기구를 주었으나 발자말자 놓아 주고 또 왕이 넓은 땅을 주었으나 사양하고 말았다.

그가 평소애 「무관량」이라는 소년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차에 무관량이 병이 위중해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몹시 슬퍼하며 음식을 들지 않던 사다함도 마침내 그후 열흘이 못가 따라 죽고 말았다.

신라의 이러한 화랑정신은 공(公)을 위해 사(私)를 돌보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과히 지니지 아니하며, 의로운 일이나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강한 겨레 사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화랑의 기상은 민족사상의 한 전통을 이름과 아울러 겨레의 명예와 생명을 저킴에 용감하게 앞장을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화랑의 중심 사상이던 원광법사의 다섯 가지 계율은 유교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랑의 정신도 멀리는 개국이념(開國理念)과 그 뜻이 일치하는 것이요, 그 시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태도에서 우러나온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외국의 침략과 구국정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헤아릴 수 없는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일찌기 지금부터 이천 백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륙에서 자리잡은 한 나라가 그 세력을 우리나라 반도에까지 펼쳐 영토를 차지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륙민족의 번다한 침입과 몽고인이나 일본 민족의 침입은 항상 우리나라를 불안 속에서 떨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다한 외국의 침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이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또 한 번 이나마 고유의 사상이 변질하지는 아니했던 것은 특히 기록한 만한 일일 것이나.

우리나라 옛 역사는 한족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가득해 있다.

북쪽에 이룩된 고구려도 이러한 한민족의 침략에서 평화와 행복을 원하던 우리 민족의 활을 뭉쳐 만든 나라였다.

고구려의 건국이념은 우리 민족을 안일하게 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는데 그 첫째 뜻이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도 그 이름이 뜻

하는바 동녘의 밝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힘으로써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힘 영원한 번영을 넓게 외쳤던 것이다.

고구려 건국초에는 선비라는 유목민족이 나라를 침범했으나 고구려 명장 부분노(扶芬奴)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대무신왕(大武神王) 때는 요동태수가 그후 신대왕 때는 한나라, 고국천왕 때는 다시 요동태수가, 동천왕 때는 위나라 관구검이, 중천왕 때는 위나라 위지가, 봉상왕 때는 연나라, 영양왕 때는 수나라의 삼십만 대군이 침범하였으나, 모두가 크게 지고 돌아갔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일어났으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국이었던 것이다.

고려조에는 굴안과 여진족을 위시해서 몽고족까지가 넘보았으며, 이조시대는 북방민족과의 오랜 싸움에 지친 나머지 영원히 잊지 못할 망국사상을 퍼트리고 말았으니 그것이 곧 사대모화사상이었던 것이다.

이조 5백년은 민족 정기의 망실시대이며 또 민족사상의 분파시기이기도 했다.

잠음저렴 밖으로 용맹스러운 민족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평화스러울 줄 알았다. 그러나 밖으로 떨지 못한 용맹은 안으로

굽어 들어 드디어 사색당쟁으로 동족간에 때를 갈라 모략, 중상, 도살을 일삼는 부끄러운 역사를 피와 눈물로 물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구국 사상의 자취

특히 알만한 구국사상의 상징으로는 울지문덕이나 연개소문 같은 대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지만 고려조의 삼별초의 자취만큼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 주는 대목도 드물 것이다.

때는 고려 고종, 대륙의 흑룡강 유역에서 일어난 몽고족이 차츰 그 세력을 넓혀 마지막에는 고려에까지 그 위세로 덮게 되었다.

결요로는 고려를 보호한다 하고 안으로는 강화의 명목 아래서 착취를 일삼게 되었다.

그 발단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몽고가 굴안을 없이한 이후 때때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과중한 선물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 언동이 오만불손하기 비할새 없었다. 그러던 고종 12년에 「저고여」라는 몽고 사신이 고려를 다녀가는 길에 노적에게 맞아 죽게되어 몽고의 구실은 더욱 든든한 것이 드디어 고종 18년에 군사를 보내어 싸움을 걸어 왔던 것이다. 고려 왕조는 안으로 문무(文武)의 다름이 심한 데다가 워낙 강

한 몽고에 이길 수는 없어 강화조약을 맺는 바 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완전한 행복이 아님을 알 몽고는 계속하여 두 차례 세 차례의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마침내 왕자를 볼모로까지 하여 데려가고 말았다.

고종 46년에는 도읍을 강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원종(元宗) 때에는 반도의 땅 북쪽은 모두 몽고의 것이 되어 버렸고 고려는 명색만이 남게 되었다.

고려의 왕조를 39년간이나 강화에 옮긴 이유도 따지고 보면, 립준하고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끝까지 몽고와 겨루어 보코자 한 강한 민족사상, 즉 독립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섬에 머물러 있는 사이 옛 도움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논의되어 신하들 사이에 이론이 단단치 않게 대립되었다. 섬을 벗어나면 즉시로 몽고의 지배를 받아 드리게 될 것이 완연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 임금을 중심으로 한 문신들은 대개 몽고와 강화하여 물으로 나가기를 원하였으나 무관들은 이와 반대로 끝까지 머물러 몽고와 싸우기를 고집했던 것이다.

힘이 약한 고려는 30년을 몽고의 대군과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옛 도움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무관을 이끌던 임연이 병들어 죽자 문신들은 무관을 거세하고 왕을 피시키고 몽고와 강화하는 길을 택하여 물으로 나오라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한 것이 삼별초이다.

삼별초는 최씨가 세도할 때 만든 특별 조직이었다.

이 반항에 대하여 왕은 그 명부를 빼앗아가게 되고 배종선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병들은 그후 4년동안 진도와 제주도로 물러 다니며 정부군과 몽고연합군의 추격을 견디어 끝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7십여 인이 남았을 때 산중 깊숙이 들어가 조국의 망함을 울분하면서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왕명을 거스린 죄라 할지라도 오랑캐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그 정신이야 말로 끈기있는 우리 민족의 자량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맨 주먹으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라 안에서는 네 차례의 사화(士禍)를 거치는 사이 조야의 신하들은 나라 생각보다는 자기 당의 오랜 세도와 반대당의 멸족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

이때 나라 안팎의 일을 염려한 사람

중에서 출중한 이로서는 이황(李滉), 이이(李珥) 같은 분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이이(李珥)·율곡선생 같은 분은 왜구와 오랑캐들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장차 이 나라에 큰 변란이 닥칠 것을 알고 임금께 품하여 십만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모든 신하들의 한결같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이씨조선이 연산군 이후 당쟁에 몰두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는 태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여러 장수들이 곳곳에 일어나 자리잡고 서로의 위세를 겨루다가 이씨조선의 부패와 분열이 가장 심할 때, 「오다 노부나가」란 사람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은 후 그의 부하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통일을 하였던 것이다.

새로히 통일된 일본은 최심식 무기로 장비를 갖추고 그 힘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대륙까지 노리게 되었다.

드디어 선조 25년(임진년)에 20만 병력을 거느리고 왜구는 이 땅을 짓밟기 시작했던 것이다.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나라와 국민은 걸잡을 수 없이 혼란한 지경에 빠지고 훈련된 왜군은 조총을

쏘면서 질풍처럼 나라와 백성을 짓밟아 갔다.

부녀자는 능욕 당하고 장부는 참살 당하였었다.

당황한 선조는 애통소(哀痛詔)를 내리기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한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웠다.

우리나라 역사상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적과의 싸움에 나선 것은 실로 이때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도를 타고 물려드는 왜구를 쳐부신 이순신장군의 한산섬 싸움은 크나 큰 성공을 거두고 마침내 나라를 건질 수 있었으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그의 백의종군(白衣從軍)이다.

그의 공로를 탐한 원균이라는 자가 임금께 이순신이 모반을 꾀한다고 간하여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옥에 내리기까지 했다.

이때 왜병은 더욱 그 기세가 총진하여 원균이 이끄는 우리 해군뿐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이에 감연히 이순신장군은 왕께 아뢰되 어차피 죽일 몸이면 원통한 별탄 입혀 왜놈과 싸우게 해 줄 것을 간언하였다. 이에 다시 그가 다시 수군통제사가 되기까지 아무런 관직없이 일개 장부의 신분으로 싸움에 임하였던 것이다.

나라를 사랑함에는 반드시 높은 벼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이순신장군의 높은 애국애족심은 그 옛날 신라 화랑들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면 사사로움을 돌보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정녕 수천년을 살아 움직이는 밝은 사상의 증거였던 것이다.

그는 무술년 8월에 왜란의 원흉인「도요도미」가 병들어 죽고 그의 유언을 받들어 첩퇴하는 적병을 노량 앞 바다에서 전멸시키려고 적의 대부대와 만나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적의 탄환에 맞아 쓸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발표되지 아니하였다가 완전히 적을 무찌른 다음에야 알려지니 이는 혹시 군사간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것을 염려한 장군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진양생의 기생 논개가 왜장의 목을 겨안고 남강 푸른 물결 속으로 띄워떨어 떨어저간 일이며, 행주 대첩에서 세운 권율장군의 장한 기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얼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임진란을 치른 다음 선조는 임금의 자리에 머물기 41년에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15년 동안 위에 있는 다음 인조(仁祖)가 혁명을 성취했으나 뒤미처 이

왕이 인조가 일으킨 혁명 유공자에게 상을 내림에 대하여 그 불공평함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 난리를 역사상 가장 큰 내란으로 나라 안은 물론 당시 후금(後金)이라는 오랑캐 나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넘보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마침내 인조 5년(丁卯)에 후금의 왕자 아민(阿敏)이 삼만 병졸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종 14년에 후금은 나라 이름을 정(淸)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씨조선의 굴복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조정은 명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터이므로 이에 복종치 아니하였더니 드디어 청나라 태종은 친히 1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 왔던 것이다.

모든 충신들과 더불어 남한산성에 피신하였던 왕은 좀체 성문을 열지 아니했으나 신하들 사이에는 항복하여 화합하자는 파와 싸우자는 편으로 갈리워 옥신각신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왕족들이 피난가 있던 강화도가 메았었다는 소식이 있자 임금은 주화파(主和派)를 앞세워 항복을 하였던 것이다.

청 태종은 임금으로 하여금 사대(事大)의 예를 갖추게 하는 한편 명나라와

의 관계를 끊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나중에 효종이 됨)을 볼모로 베껴가고 또 항복을 배척하던 홍익한, 유집, 오달제 등 삼학사(三學士)를 잡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끝까지 버티어 끝내는 무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나라의 결핍을 수 없는 소란과 불행이 겹쳐도 한 줄기 빛줄은 살아서 이 민족의 혈맥 속에 그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혼을 불어 넣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동학혁명 사상

우리나라 사상의 전통을 살필 때 앞서 말한 바대로 단군의 건국사상을 처음으로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영원히 굳어져 아니하는 독립정신으로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씨조선의 큰 난리가 몇 차례 지난 뒤 우리 민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잃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론에만 그친 학문의 범위를 넓혀 그것이 실생활에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수광, 유형원, 박세당 같은 여러 학자가 이러한 실학사상의 중심을 이론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문예부흥기라

고 일컫는 영조,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물질문명도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양반제도에 대한 비판이 학자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였고 지리학, 역사학, 수경학(수산학), 금석학 등을 비롯하여 농림, 의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의 연구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한국사상의 최초의 개화기라고 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학문의 새로운 개척보다는 세도가 더욱 판을쳐 경향 각저에는 탐관오리가 난립하여 인심은 극히 사나워지고 있었다.

순조 11년(1811)에 세도정치와 차별 대우에 반발을 품은 흥경래 일파의 난이 일어나고 나라 살림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소란케 하였던 것이다.

그후 이씨조선은 말기에 접어들자 때원군이 집정하고 그의 섭정에 이어 일본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의 민중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곧 동학혁명이다.

동학의 사상은 옛부터 우리 민족이 섬기던 하느님(참음) 사상에 유교, 불교, 선교의 특징을 합쳐 만들어진 것이다.

동학의 선구자인 최재우가 죽은 뒤에 도 밝음의 영원을 믿는 민중들은 한결 같이 이 사상에 뜻을 보아 고종 27년경부터는 어둡고 짙은 세도정치를 향하여 수 많은 민중이 동학의 이름으로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조정이 이 소란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청국에 원병을 청하여 분노한 민중을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 운동은 그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문화운동인 갑오경장의 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단 동학혁명이 옛날의 낡고 썩은 것을 완전히 부시지는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민권주의적 사상은 동학에 있어서 가장 앞장을 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족이나 또 일부 귀족들에 의해서 짓밟히던 사람들에게 사람됨 권리와 생활의 자유를 찾게 한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상의 살 모음이었던 것이다.

만사함을 이롭게 다스리던 밝음의 뜻은 그것을 지키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민족으로 탄생했던 것이다.

민중생활의 발전과 이익을 부르짖던 이조 중엽의 실학사상이 동학혁명으로 민중의 운동이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옛부터의 명맥이 끊이지 않았음이

들어나게 된 것이다.

3. 1 독립정신

서기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므로 이를 합쳐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나라를 파하고 민족을 소멸하기 위한 조약을 강요하였다.

우리의 오랜 역사는 무시되고 백성이 지켜온 삶의 원리마저 빼앗긴 채 더러운 욕에 깔리고 더러운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 만년의 역사를 지워 버릴 수는 없었다. 수 많은 채적의 침략에도 견디고 이긴 전통의 민족은 하늘의 빛이 있는 한 영원히 살아질 수는 없었다.

악독한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문화와 성품은 빼앗기지 않은 채 어느 때고 한 번은 다시 일어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대통령이던 윌슨씨가 민족자결주의의 사상을 소리높이 외치게 되자 거기에 호응한 나라 안팎의 애국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독립과 조국해방을 위한 쟁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때는 1919년 3월 1일 자계 대표가 온 밀하게 연락하여 이날 오정 때를 같이 하여 일시에 일어났던 것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2천만 민족의 분노에 찬 고탈호리는 세계 만방에 한

국의 힘과 기백을 들어 내었던 것이다.

원 옷것을 여며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것처럼 순박한 연교를 한 번도 남을 해친 일 없는 밝음의 백성은 이제야 말로 오래 쌓인 왜적에의 설문을 위하여 분기하였던 것이다.

3.1 정신으로 나타난 사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민족은 반 만년의 역사를 지닌 오직 한 핏줄이다.

밝음을 사랑하고 순결을 자랑하고 만 백성을 이롭게 하기에 한 뜻이 되어 살아 왔다. 하늘이 내신 이 겨레는 저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의 사상이 깃들어 있다.

둘째, 옛부터 우리는 어떠한 폭제도 허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백성이었다.

자유는 하늘이 내린 은혜요 권리이므로 이는 깃밟힐 수 없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사상.

세째, 백성이 원하고 백성의 행복이 중심이면 건국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삼국시대의 민본주의 그리고 동학혁명에서 크게 주장되던 민주주의 사상.

네째, 오직 자기의 안병을 위해서만 싸우던 화랑의 빛을 받들어 만인류는 싸우며 말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평화사상.

다섯째, 모든 나라와 국민은 모두 자

기의 길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하며 어떠한 다른 세력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되며, 오직 이 길만이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자주사상.

여섯째, 옛부터의 밝음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으며 고로 어떠한 폭력도 행하지 않으며 또 용납할 수 없다는 비폭력의 사상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토록 가룩한 사상의 줄기는 하루 아침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천년의 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켜지고 다듬어진 것이었다.

이는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온 세계가 없어 질 그날까지 이 민족의 가슴 깊숙히 영원히 남아 있을 사상인 것이다.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상

1948년 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대한민국은 그 후 또 하나의 사상적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생각할수록 가슴에 사모치는 6.25의 참극이다.

수 천년을 오랑캐나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온 이 나라에 역사와 민족을 망교자 하는 반역의 무리가 나타났으니 곧 공산당이 그것이다.

이들은 조국과 민족보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더욱 더 크게 받들고 있다.

민족은 이제 철통같이 단결하여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뒤흔어진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살을 베고 뼈를 깎아 팔고자 하는 공산당은 지금도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3·1 정신과 한핏줄을 이어받은 겨레의 안녕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 많은 선열의 무덤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려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공산당과 타협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그냥 바라 볼 수도 없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다. 아무리 억센 적이 우리를 짓밟았을지라도 우리들의 얼은 죽은 일 없이 우리 민족의 피는 깨끗이 지켜져 온 것이다.

우리는 소련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에겐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풍습이 있는 것이며 한국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상과 바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은 자유주의 때문도 아니고 자본주의 때문은 더욱 아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재산을 분배우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친락주의요. 제국주의요. 또 공산주의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은 공산주의를 제국주의와 같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산당은 어둠 속에서 날뛰는 아귀처럼 자신의 목을 숨기면서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희망해 왔다.

공산당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는 밝음의 나라에 사는 민족이라 하였다.

밝음이란 깨끗함과 정직함과 남을 도움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데 깨끗함을 잊고 정직을 버렸으니 우리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괴의 공산침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가? 6·25 때 공산당은 이 어둠을 교묘히 뽕고 들어 왔으며 4·19 전후 5·16 혁명이 있기 그 전날 밤까지 우리는 희망마저 잃은 불쌍한 겨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밝음을 다시 찾기 위하여 화랑을 배우고 이천신을 아는 조국의 어린 아들딸들이 맨주먹으로 빛을 가리운 모든 권세를 쓸어뜨리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4·19라면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잘못된 과거의 뉘우침으로 피땀 흘려 속죄의 일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5·16혁명이었던 것이다.

4·19와 5·16은 이 나라의 겨레가 잊은 밝음을 다시 찾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공산당과 또 그에 못지 않게 낱고 벽은 이기주의, 권위주의, 사대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쫓기였던 것이다.

꺼져가던 반만년의 햇불은 다시 불타올라 이제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사상을 온세계 위에 다시 한 번 밝힌 지금, 모든 겨레의 한결같은 힘과 애씀으로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내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역사가 있는 처음날 온천지에 가득히 나뉘던 밝음은 지금도 우리들 젊은이의 가슴마다 살아 있다.

이 빛은 아무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진하는 우리 조국과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들에게 반공 민주주의의 굳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민족이 되려는 굳은 결의로 황폐한 땅이 개척되고 세계평화를 위해 그 힘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으며 생각하고 믿어온 밖의 사상의 즐거리를 찾아 보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반만년 전 그 옛날 아름다운 이 강산에 살던 백성들은 하늘을 섬기며 그처럼 밝고 깨끗한 백성이 되고자 한 웃길을 여며 탄인을 고루 사랑하고 돕는 것을 생활의 보람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멀리하였다. 그런 나머지 악독한 침략 앞에서 오랫동안 많은 수고와 서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끝내 멸망하지 않는 한 뗏줄의 얼을 지키며 오늘을 맞이하였다.

큰 나라를 섬기었으나 그것은 어질고 순한 연고일 뿐……。 그러나 결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이 처음 나라를 세운 이 땅에서 깨끗함과 정직함과 사랑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불려가며 오손도손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평화의 앞장을 서고 있다.

우리의 사상은 광명한 햇빛처럼 모든 생명과 정의를 사랑하는 그것이다.

의사결정과

그 「모델」의 활용



중령 손 용 기

1. 의사결정과 성취도의 두 가지 합수

(1) 의사결정의 성질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과정으로부터 의식적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 의식적 과정 속에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포함될 때는 의사결정은 자기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으로 나눈다. 여기서 연구의 방향은 주로 후자의 경우인데 이를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써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과정으로써의 의사결정은 모든 관리활동이 그러하듯이 관리자는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부하를 조직하고 지휘하며 통제하여 가면서 업무를 조직 목적에 달성하도록 하는 조정자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이라 함은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관리자가 결정짓는 선택의 활동을 말한다. 선택의 활동은 두 개 이상의 가능한 대체안(Alternative) 가운데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Choice or Selection)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은 사회적 과정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합법적이어야 하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결정은 결정자의 인격(Personality)의 이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 계획 수립의 동기, 명령, 저시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며 행동의 말살로 표현되기도 한다.

(2) 성취도의 두 가지 함수관계

업무수행의 성취도(Achievemen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성취도 = f(의사결정의 질) • (의사결정을 구현키 위한 조건)
(Achievement)

업무수행이 조직목적에 잘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는 의사결정의 질과 사의결정을 구체적인 행동화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계획수립의 장애정도와의 함수관계에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①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의 질(Quality)이란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말한다.

창조적 사고란 반복적인 방법에 따라 과거의 경험에 의한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는 달리 종래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비약이 있으며 혁신(Innovation)이 있다.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창조적 사고는 친제적인 두뇌를 가진 몇 사람에게 의해서만이 고안 내지는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오늘날의 관리 활동에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창조적 사고의 제발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 분석적 방법 (Analytical technique)

이 방법은 문제를 여러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각 요소에 대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제거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은 현행 권리활동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는 데 널리 적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둘째 : 자유연상법 (Free association)

자유연상법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로이 대체안을 열거하는 방법이다(대체안 열거에 있어서 Go-Stop의 원리).

이 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대체안을 열거함에 있어서 개인의 비판이나 혹은 자유로운 대체안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자유로운 생각의 창출은 어떤 대체안의 질적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 추구에 있기 때문이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집단창의(Brain Storming)는 자유연상법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오스본」(A.F Osbon)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자유로운 생각의 도출은 많아 나올 수록 가치 있는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평등시켜 질적 추구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아이리어의 Tritch-Trike).

세계 : 강제관련법(Forced relationship technique) 이 방법은 기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실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우연한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방법으로써는 적절치 않겠지만 신기한 「아이디어」 도출방법으로써는 유용한 것이다.

이상의 창조적 사고력을 제발하는 세 가지 방법은 특정한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재능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재능의 추진을 위한 환경조건의 조성이다. 즉 공식적 의사전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비 공식적 의사전달의 역할,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의 형성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② 의사결정을 구현키 위한 조건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행동화 혹은 그의 촉진제 역할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의 보장에서 연유하고 있다.

첫째 : 동기부여

의사결정을 실행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의욕의 지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인간관리에 있어서 Y이론 (「맥스 로우」의 인간관리)에 입각한 인간상이다.

둘째 : 분위기의 조성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은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물질적 보수 이외에 중요시 하여야 할 점은 정신적 보수이다.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가정을 들어 볼 수 있다.

사 례	물질적 보수	정신적 보수
1	+	+
2	+	-
3	-	+
4	-	-

※ + 높은 보수

- 낮은 보수

여기서 분위기의 조성문제와 관련지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례 2와 3의 경우이다. 사례 2의 경우 아무리 외적 보수가 높다 하더라도 내적 보수가 적거나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례 3의 경우와 같이 외적 보수는 낮다 하더라도 내적 보수가 높은 경우 등은 조직으로부터 유출율(Turnover ratio)이 높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연구는 항상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이다.

세계 : 상담적 지시

어떠한 지시의 형태이나를 막론하고 훌륭한 지시로 부하의 참여의욕을 고취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관은 부하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일, 창의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왜 이 일을 하여야만 되는가(Why do you do this.....) 하는 이해와 설득 그리고 부하와의 의견의 교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상향식(Bottom up) 관리풍토이다.

2. 의사결정의 여터 「모델」

의사결정의 몇 가지 「모델」(Model)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근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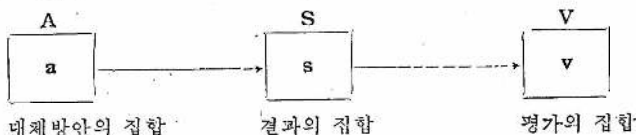
「모델」이란 현실의 정황을 단순화 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현실의 단순화는 가설의 체제이며, 현실의 재현이다. 그리고 「모델」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한다.

- 첫째 : 언어적 「모델」(Verbal model)
- 둘째 : 도표적 「모델」(Diagramatic model)
- 셋째 : 수학적 「모델」
- 넷째 : 컴퓨터 「모델」(Compute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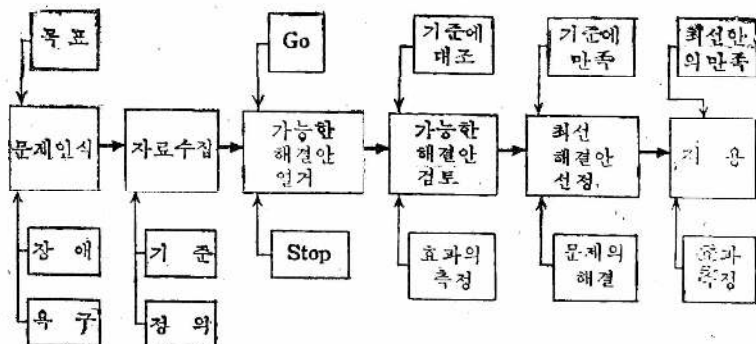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서 의사결정의 「모델」을 도표적 「모델」에 따라 설명하려 한다.

※ 의사결정의 기본 「모델」

- ① 대체 방안(a) : 결정이 직접 대상이 되지만 그 자체는 아직 비교되지 않는다.
- ② 결과(s) : 대체 방안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 ③ 평가(v) : 대체 방안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이는 상호 비교된다. 이때 높은 평가의 결과로 얻어진 대체 방안이 곧 선택되는 것이다.
- ④ 대체 방안(a)과 결과(s)와의 관계(f) : $s=f(a)$
- ⑤ 결과를 평가하는 관계(g) : $V=g.s$
- ⑥ 평가의 판단기준 : 최대화 혹은 적정화



(1) 문제해결 「모델」 I.



이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모델」은 다음에 설명하려는 몇 가지 「모델」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모델」을 주로 하여 설명을 가하기로 하고 이하는 설명을 그치기로 한다.

① 문제 인식단계 :

문제의 인식단계는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사실적 발견(Fact finding)이다.

사실적 발견으로써 문제=목표(수준)-현실(수준 이하)로 보는 사후적 행동과 위 식에서 차이-이상=기회(수준향상)로 보는 사전적 행동으로 나뉜다. 여기서 착안하여야 할 점은 목표수준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즉 과거의 목표수준 : $Gt-1$

과거의 업적 : $Pt-1$

타 조직에 있어서 과거의 업적 : $Ct-1$ 이라고 할 때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목표수준 Gt 는 .

$$Gt = 2Gt-1 + \beta Pt-1 + rCt-1, \quad 2 + \beta + r = 1$$

이 식에서 세 개의 변수의 가중평균에 따라 Gt 가 결정되는데 과거 업적과 당기 업적과의 비율을 중요시 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목표수준의 결정에 P의 변수를 중요시하게 되고 또 다른 조직과의 경쟁을 중요시 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목표수준의 결정에 C의 변수를 중요시 한다.

② 자료 수집단계 :

자료 수집은 문제를 둘러 싸고 있는 사실적 발견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는 것이며, 사실 가정, 기준을 포함한다. 사실의 질서정연한 배열은 곧 근원적 자료와 부차적 자료의 배열인데 이는 특히 연구방법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다. 여기서 지면의 제한을 받고 있는바 구체적인 설명을 가할 수 없어서 연구방법의 접근방법만을 열거하는데 그친다. i. 기술적 접근방법 ii. 철학적 접근방법 iii. 법학적 접근방법 iv. 구조적, 기능적 접근방법 v. 행동양식론 접근방법 vi. 비교론적 접근방법 vii. 생태학적 접근방법 viii.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도를 달리하여 크게 i. 정적-동적 접근방법 ii. 전통적-과학적 접근방법 iii. 미시적-거시적 접근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다.

• 의사결정과 그 「모델」의 활용 •

기준의 설정방법은 다음에 설명하려는 가능한 해결안의 열거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준은 적정기준(혹은 만족기준)의 설정을 말하는데 해결하려는 방안 선정(대체안: Alternatives)에 제한조건이 되는 가능성, 적합성 그리고 경제적인 수락성의 검토이다.

가정이란 장래에 대한 현실의 재현을 의미한다. 이 현실의 재현이 목표(수준)의 달성을 위한 방향제시이며 해결하려는 장애제거의 욕구 유발의 동기(Motivation)가 된다.

③ 가능한 해결안 열거단계 :

이 가능한 해결안의 열거는 일명 대체안의 탐구라고도 한다.

이 대체안의 탐구는 앞서 설명한 창조적 사고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제의 인식 단계에서 벌써 대체안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대체안에서 벗어나서 개방적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선입감(Stereotype)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해결안을 열거하는 단계에서는 집단 창의력의 동원을 필요로 한다. 먼저 질적으로 높은 대체안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력을 발전하는데 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 많은 대체안을 들어 놓고 나서 서로 통합하고 보완하는 데서 가치 있는 대체안이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④ 가능한 해결안 검토단계 :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체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당연한 과정이다. 즉 대체안의 결과에 대한 추정과정은 대체안을 실행에 옮겼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확실성을 탐구하는 확률 분포의 검토와 위험도의 분석이다.

그밖에 인간의 과거 경험에 집착되는 편견과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반영하는 편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을 불확실성 환경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불확실성 환경 밑에서 대체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한편 가급적 불확실성의 회피 혹은 감소에 있다(예: 극소-극대(Min-Max))

의 원리나 내부 통제 의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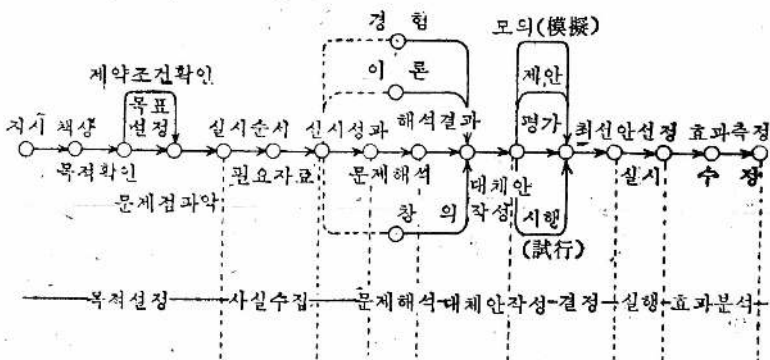
⑤ 최선 해결안 선정단계 :

얼거된 대체안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척도가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의 가치에 따라 문제 해결의 만족을 주는 대체안을 최선 해결안으로써 선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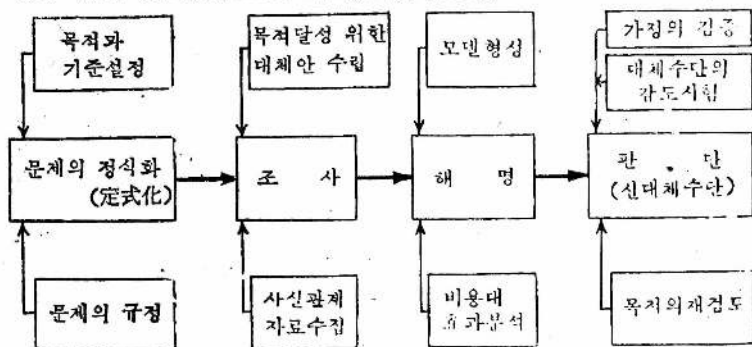
⑥ 적용단계 :

이 적용 단계는 최선 해결안을 구체적인 행동화 단계로 옮기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수립은 행동화이로 옮겨짐에 따라 꾸준히 효과를 측정하여 다음 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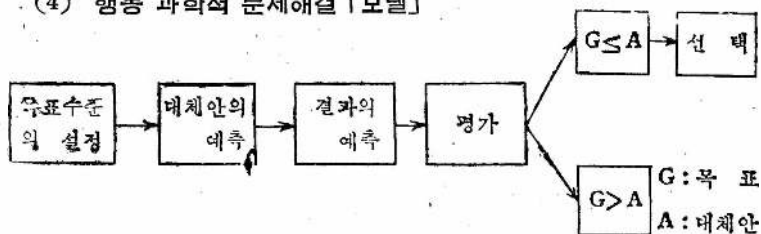
(2) 문제 해결 「모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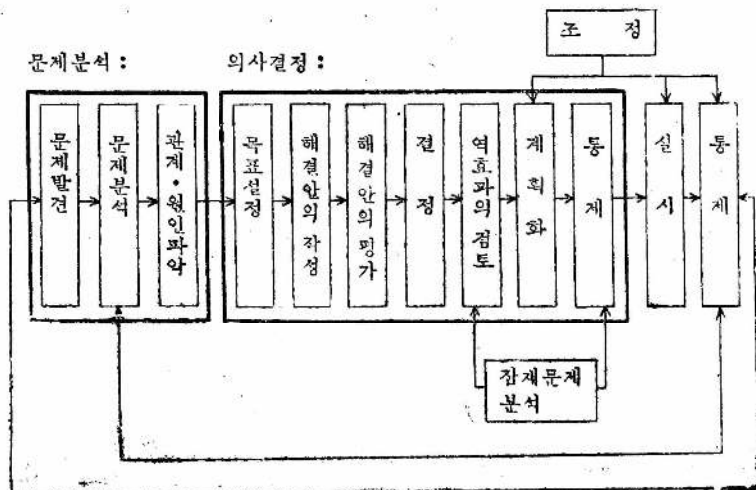
(3) 체계 분석(Systems analysis)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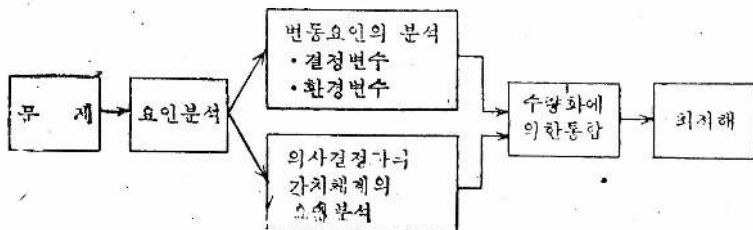
(4) 행동 과학적 문제해결 「모델」



(5)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과정 「모델」



(6) O.R.(Operations Research)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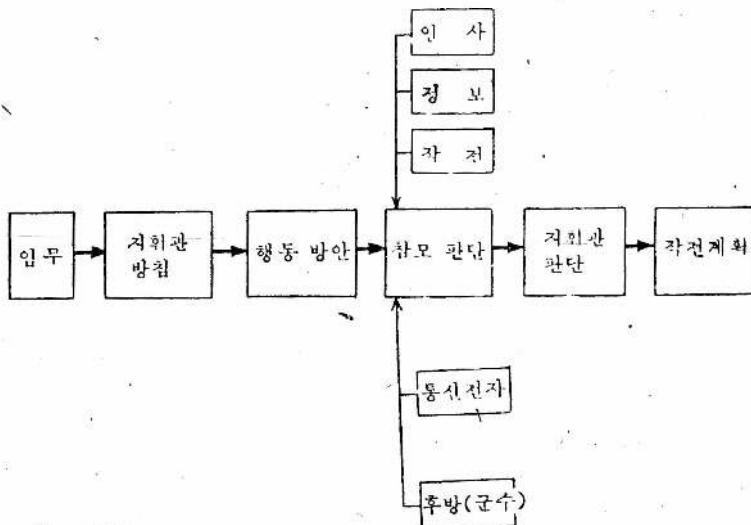
의사 결정의 효과 E는 결정변수 A_1, \dots, A_m 과 환경변수 B_1, \dots, B_n 의 함수관계에 있다.

$$E = f(A_1, \dots, A_m : B_1, \dots, B_n)$$

이때 중요한 것은 결정 변수와 환경 변수인데 이 두 변동 요인에 따라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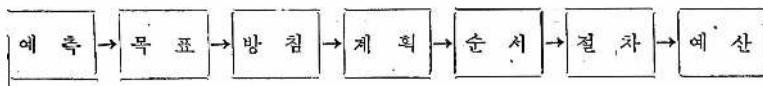
즉 확실성 「모델」과 불확실성 「모델」이다. 전자는 환경변수의 요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두 개 이상의 요인이 있는 불확실성 「모델」이다.

(7)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의 「모델」



3. 계획 요소

앞서 설명한 의사 결정과 그의 「모델」에 대한 능력은 구체적으로 계획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계획이란 미래 달성하고자 하는 희망의 결과(Desired results)에 최선의 행동 방안(Course of action)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몇 개의 행동 방안 가운데 선택적 결정(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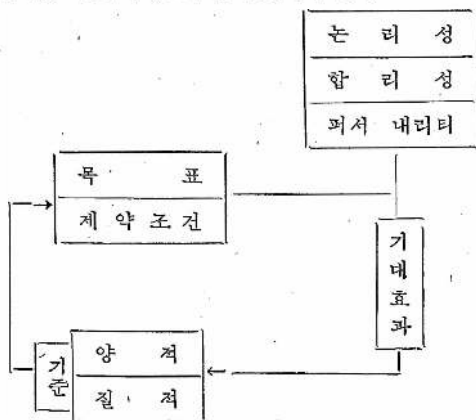


(1) 예측(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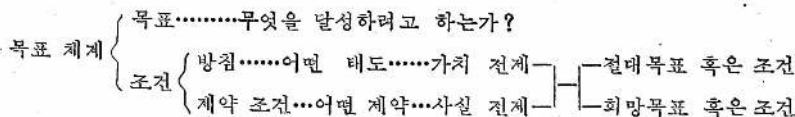
예측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미래를 추구하는 예저적 활동을 말한다. 이 예저적 활동은 계획 결정의 기초가 되며 정보(Information)의 정확한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2) 목표(Goal) 및 방침(Policy)

목표와 방침은 편의상 목표 체계로하여 설명하려 한다.



목표의 설정은 먼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위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피서내리티(Personality)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 행동의 기대 혹은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이 되어 어떤 계약조건 밑에서 목표는 수립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설정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방침과 제약조건)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목표의 체계화와 통합이다.

방침은 행동의 가치 기준, 지침이며 이는 곧 조직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자 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된다. 제약조건은 의사 결정자나 의사 결정자를 포함하는 조직의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것이다. 즉 인적 자원, 자원의 한도, 기술 수준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조건의 정도에 따라 절대조건과 희망조건으로 나눈다.

절대 목표 혹은 조건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달성 목표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안이라도 만족되어야 한다. 희망 목표 혹은 조건은 상대적으로 달성 되도록 바라는 목표 또는 조건이다.

(3) 계획(Program)

계획은 방침을 구체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도 행위이다. 따라서 계획은 세 가지 의의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획의 의의	계획의 조건
<p>① 합목적성</p> <p>a. 계획요청의 출처</p> <p>b. 그 동기</p> <p>② 가능성</p> <p>a. 내용의 충실정도</p> <p>b. 실행력과 수용체제</p> <p>③ 관련성</p> <p>a. 기본적인 것인지, 아닌지</p> <p>b. 시간적 고려</p> <p>c. 규모와 종합성</p>	<p>① 합목적성의 조건</p> <p>a. 목표 방침의 일치</p> <p>b. 기대효과 예측</p> <p>② 가능성의 조건</p> <p>a. 입안의 가능성</p> <p>b. 내용의 충실정도</p> <p>c. 실행력과 수용체제</p> <p>③ 관련성에 있어서의 조건</p> <p>a. 내외 정세와의 관련</p> <p>b. 시간적 관련</p> <p>c. 종합적인 관련</p>

(4) 순서(Schedule)

계획에 따라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순서를 부치는 것이다. 이 순서는 통상계획에 부쳐 사용한다.

(5) 절차(Procedure)

절차는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계획은 무엇(What)을 할 것인가이며 순서는 언제(When)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게(How)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는 데 있다. 업무의 표준화를 기하고자 할 때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정한다.

(6) 예산(Budget)

예산을 장래 기대되는 결과를 수치로 추정하는 것으로 통상 화폐단위로 표시된다.

4. 의사결정 능력 훈련기법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내훈련(In Service Training)의 방향은 점차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향으로 전환되어 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중견관리층의 능력향상 계획에는 64%가 의사결정 훈련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서 P. S. T. (Problem Solving Training), P. D. I. (Program development Institute) 그리고 P. A. D. (Planning Ability Development)라는 과정까지 설치되었다.

따라서 많은 교육훈련 기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새로운 기법 두 개 만을 소개하려 한다.

(1) 직무교육(O. J. T.)

이 직무교육은 집합교육(Off-J. T.)과 달라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교육(Learning by doing)이다.

이 직무교육에서의 교육의 주안점은 문제분석과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① 문제분석 :

a.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문제의 포착력)?

- b.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가(우선순위)?
- c.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원인파악)?

② 의사결정 :

- a. 목표는 명확한가(목표관리)?
- b. 생각하고 있는 중점은 무엇인가(목표분석)?
- c. 창의성이 있는 대체안들인가(대체안의 탐색)?
- d. 기준에 따른 대체안을 선택하고 있는가(대체안의 선택)?
- e. 반대효과를 고려하고 있는가(역효과의 검토)?

(2) 미결함 훈련(In Basket)

이 미결함의 훈련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법으로서 다음 네 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

1단계 목적 :

부실서한 정보를 모아 조직화 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향상— 정보의 처리, 분석능력,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태도, 쟁점의 배제 등의 훈련—

2단계 목적 :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개의 대체안 수립능력의 향상—해결안을 찾으려는 의욕적인 태도 광범위한 견해(목 넓은 사고력), 지혜의 제발훈련—

3단계 목적 :

몇 개의 대체안이 나오면 각 대체안의 이행에서 오는 결과의 예측능력의 향상— 사고의 일관성,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인과관계의 이해 능력의 훈련—

4단계 목적 :

몇 개의 대체안 가운데 최선의 해결안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향상— 조직목표의 이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훈련—

이러한 네 단계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서(입안), 서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시간 내에 결정토록 한다. 이러한 결정은 집단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여 가면서 최선안을 선정토록 하는 것이다.

5. 맺 음

문제의 분석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개인의 지식과 기능의 종합적 잠재력으로 표현된다.

$$\text{능력} = f(\text{지식}) \cdot (\text{기능})$$

이러한 능력의 잠재력은 구체적으로 조직의 관리향상을 지해하는 요인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제하게 되고 생산성을 향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향상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분석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 있는 인간상은 첫째, 흐터져 있는 정보 혹은 자료를 조직화 하고, 둘째, 명백한 문제와 불분명한 문제를 판별할 수 있으며, 셋째, 발생할 사태를 예측하며 넷째,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다시 검토하여 볼 수 있는 여유있는 자질(Traits)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박정희대통령 문언록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길은 자포와 자기와 자학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냉정과 지혜와 금도의 질인 것이다.

◇...발전과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와 난관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민족의 자립과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과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노력을 다해야 할 엄숙한 시점에 놓여있다.

중 공 의 _____

과학 기술 수준^과

핵병기 개발과정 분석

이 준 섭

<국제문제 연구소>

머 리 말

중공은 당내의 탈권투쟁을 위요한 소위 문화대혁명으로 야기된 홍위병의 난동과 친,반모세력간의 치열한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적 대혼란이 있었으나 핵병기 개발면에 있어서 광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4. 10. 16. 제1차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 32개월만인 1967년 6월 17일 제1차 수폭실험(3메가톤급)을 단행, 중공의 수폭개발과정을 보면 모택동이 핵국가화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대로 집전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즉 1958년 6월에 모택동은 『10년 내에 원폭 및 수폭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호언한바 있다. 이러한 모의 예언이 발표된지 6년만인 1964년 10월 16일 원폭을, 8년만인 66년 10월 27일에 핵미사일(탄두 1톤급)

을, 9년만인 1967년 6월 17일에 수폭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원폭에서 수폭까지 개발기간은 32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모택동의 예언보다 앞당겨 성취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공의 과학기술기준을 미·소의 경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미·소·영은 원폭실험을 성공한 후 평균 5~6년이 지난 후에 수폭을 완성한데 비하면 빠른 속도이며, 프랑스보다 뒤져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핵폭탄과 미사일은 최고수준에 달하는 약 2,000여종의 관련된 과학, 공업기술의 종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66년 10월 27일의 핵미사일실험(600킬로)과 1968년 12월 27일 제3차 수폭실험(수메가톤)은 이러한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수준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데 그 중요성을 내포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중공은 4년
간에 걸친 당내의 탈권투쟁을 위한 문화
대혁명의 결산을 위하여 1969년 4월 1일
에 열린바 있는 「구전대회」(중공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유소기의 일파
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 인군사체제를
확립하는데 일단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중공은 핵탄두의 양산과 운반수단인 미
사일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닌
가 보인다. 특히 문화대혁명과정에서 일
어난 혼란과 파동은 핵병기개발면에 있
어서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면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
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입증되
었다고 하겠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지역에서의 중공의 위신
을 증대 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미
·소양국을 포함한 기성핵대국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공당의 기본로선인 민족해방전쟁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한층 호전성을
띄지 않을까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들
은 「구전대회」에서 보고한 임 쵸의 「정
치정세보고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공의 과학기술수준과 핵병
기 개발면에 수반되는 공업기술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와 운반수단인 미사일개발의 진도를 추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중공은 1949년에 국민정부로부터 탈
취한 자연과학연구의 기구를 개편하여
기술고등교육제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자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과학기술제
정비를 위한 정치, 경제, 문화와 병행하
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또한 중공과학계의 간부들 대부분
이 자산계급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
주의혁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
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은 이른바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노동계급과 단결시켜
사회주의 공업 건설에 협력시키기 위한
배치를 취함에 있어 시기별로 4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왔다.

가. 제 1 단계

1949년~1955년에 국민정부에서 탈취
한 과학연구 시설을 개편하고 과학기술
간부의 양성, 개조, 단결시킨 시기로서
이 기간중에 과학자들에게 「변증법적 유
물론의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것을 작전
문분야의 지도원리로」하였다.

나. 제 2 단계

1956년~1957년에는 반대세력을 극복하여 사회주의 공업건설을 급속도로 추진하기 위한 당의 지도방향이 강화되어 지식층의 힘을 사회주의 건설에 이용하기 위해 과학자 660 명을 동원 과학기구의 재조정, 과학기술의 발전방향, 이론과 실제, 중점임무와 일반임무를 명시하는 한편 과학계획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연구기초를 제정했다.

다. 제 3 단계

1958~62년은 제1차 5개년계획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뒤를 이어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의 「12개년계획」을 실천토록 계획을 진행한 시기였으며 또한 「제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과학계는 1957년도의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자들 중에는 당의 「대중로선」에 의문을 가지고 학술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외국과학기술을 권위한다고 숭배하는 사조가 잔재하였기 때문에 중공당으로서의 모택동의 이른바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원칙」에 의해서 대토론회를 전개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중, 소이념분쟁」이 격화되어 소련의 군사 및 경제원조가 중단되기 시작한 불리한 제반여건하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공 과학기술자들은 자체의 자연자원과 자연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대규모의 수리공사의 설계연구, 원자력반도체 및 전자계산기 등을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방시대를 탈피하여 순수한 중공자체의 과학기술진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중공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실태를 살펴 보면 1949년 10월부터 1963년말까지 51,900여종의 과학기술도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것은 그 기간중 중공에서 발간한 신간도서의 총부수의 30%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63년 6월 26일 「광명일보」).

또한 중공 내에서 외국의 중요 과학서적을 취급한 출판사는 1959~63년말까지 무려 937종을 번역 출판했다. (1963년 5월 1일 「광명일보」).

2. 과학기구

중공은 종합적인 과학기술연구센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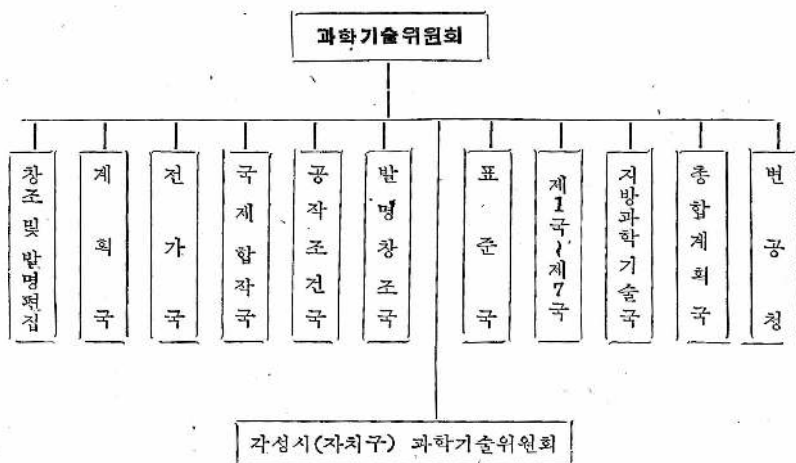
서 1949년 11월 1일 국민정부의 중공부
직속으로 있던 중앙연구원 및 북경연구
원을 흡수하여 설치한 중공농업과학원,
중공의학과학원 및 기타 연구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중공과학원이 설치된

이후 1958년에는 군과학원을 설치하고
군사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개
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따라서 중공의 과학기구조직은 별표
1, 2표와 같다.

별표 1.

과학기술위원회 기구



(주) (중공 국무원공보) 1959년 제12호

3. 과학기술 발전 계획

1949년 10월 1일 이른바 중공정권이 수립된 이래 과학기술교육에 주력하여 왔으며 1956년에 「과학발전 12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소련과 같이 교육방침을 기술분야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1950년전과 1960년

을 비교하여 본다면 별표 3, 4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공은 일반과학보다 공업부문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배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원 산하의 중앙각부, 성, 시, 자치구의 연구기구에 대하여 각부 문별로 보면 연구자 및 기술자중에는 지방소속의 7,000여명을 포함하여 도합 32,000명의 과학 기술자 중에는 우수한

☆ 중공의 과학 기술 수준과 혁명기 개발과정 분석

능력을 가진 해외에서 귀국한 600여명과 소련에서 학위를 받은 2,000명도 포함되어 있다.

는 연차별 연구기구, 연구자 수 및 각부 문별 과학기술연구기구의 인원 수는 별 표 5, 6, 7표와 같다.

따라서 중앙과학원에서 발표한 바 있

별표 3. 과학기술 인적자원 현황표

	대학, 고진, 졸업생 수	공학자수	공학자의 비율 %	과학자 수	과학자비율%
1950년	125,000	21,000	17.1	10,000	8.6
1960년	700,000	210,000	30.0	44,000	7.6

(주) 1960년의 과학자 수는 동년에 학위를 받은 자로서 중공측 자료에 의해 추정

별표 4. 60년도 과학자의 분야별 인원

분 야 별	인 원 수
물 리	10,000
화 학	15,000
지리(지질, 지구물리학)	15,000
기타(수학, 천문학)	4,000
계	44,000

별표 5.

연차별 연구기구 및 연구자수

년 도	연구 기관 수	고급 연구자 수	연구원 총 수	연구원 및 직원포함학수	
1949	14	224	660	5,239	
1952	31	317	1,292		
1955	47	423	2,483		
1957	68	446	5,506		17,336
1959	105	800	7,000		40,000

별표 6.

부문별 과학기술연구기구 인원

기 구 부문별	기 구 수	공작자 수(단명)	
		총 계	연구자 및 기술자
총 계	848	11.86	3.25
기 초 과학		2.83	0.59
공업, 교통		5.92	1.47
농업, 목축 어업		1.03	0.12
의학, 위생		1.21	0.22
기 타		0.82	0.09

별표 7.

기술자 수의 증가표 (단위 천명)

연 도	전 기술자	대학졸	기 타	기술자 의 증가 저 수
1952	164	32	132	100
1953	210	42	168	128
1954	232	57	205	160
1955	344	73	271	210
1956	449	92	357	274
1957	496	114	382	302
1958	618	131	487	377
1959	1,000	149	851	610
1960	1,100	172	928	671
1961	1,270	217	1,053	774
1962	1,400	271	1,129	854
1963	—	330	—	—

4. 국제 협력 관계

중공은 이른바 정권수립 이래 과학기술 발전에 혈안이 되었다. 소련, 동독 등의 공산주의국가들과 과학기술의 합작 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자로서의 상호교환 및 연구자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중공이 처음으로 체결한 과학기술 협정은 「중, 소 과학기술합작협정」(1954년 10월 12일)과 기타 동구공산제국과 비슷한 종류의 협정을 체결한바 있는데 상대국의 과학기술수준과 특수성에 따라 협력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실패로서 중·소 과학기술합작협력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 과학협력

1954년 10월 12일 체결한 「중·소 과학기술합작협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로서의 교환된 정보의 상호교환과 전문가의 상호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국은 각각 위원 7명을 선정하여 「중·소 과학기술합작협력위원회」를 조직하며, 이 위원회는 연 2회의 위원회를 열어 의정서를 작성하고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 등의 연차계획을 수립한다고 결정한다. 예를 들면 1953년 10월 13일의 「중·소 과학기술합작위원

회 제10차회의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은 천연가스의 종합이용, 마이크로웨이브시설, 오이루시에무원구를 위해서 중공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중공은 모리부팅, 당구스텝핑의 선풍공정, 탄광가스의 방출문제 및 합성암 모니아공정의 과학연구의 시안을 위해 소련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2) 소련은 중공에 도금, 동력기계 제조,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축재료, 공업방면의 과학기술자로 및 고분자화합물의 물리화학연구, 유기염료 중간체의 연구자로 등을 제공하고 또한 중공은 소련에 도금기계제조, 건축, 석탄공업, 방직공업 및 화학공업방면의 과학기술자요, 또는 화학제품의 과학보고, 농산물의 종자검본을 제공한다.

(3) 1956년 3월에 체결한 바 있는 「도부나 원자력 합동 핵연구소설치결정」에 의해서 소련, 중공,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북괴, 외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의 과학자가 「도부나」에서 원자력의 합동연구에 종사하기로 되었다.

(4) 1957년 10월 15일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국방에 관한 신기술, 특히 원폭제조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를 소련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중·소대립이 격화됨으로써 판명되었다.

(5) 1957년 12월 11일 「중·소과학원간의 합작협약결정」 내용을 보면 대체로 5개종류의 연구태마 중에는 1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1959년 6월 20일 소련은 일방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중·소대립이 점차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관계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따라서 중공과학자들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외치며, 과학기술의 자주적 발전과 자력에 의한 핵병기개발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1964년 10월 16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소의 과학기술에는 따를 수 없다.

중공은 서구제국과 일본에 유학한바 있는 1급과학자가 700여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400여명은 서구제국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과학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프랑스의 쿠리연구소에 근무한 바 있는 전삼강, 미공군로켓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전학삼, 도부나연구소부소장이었던 왕감창 등이 있다.

5. 핵병기 개발과정

중공은 1954년 10월 12일에 체결한 「중·소과학기술합작협정」에 의한 소련의 과학기술원조를 받음으로써 핵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게 하였으며 또한 1957년 10월 15일에 체결한 바 있는 「국방

신기술에 관한 협정」에 의해 소련에서 원폭제조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핵병기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64년 6월 16일 제1차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중·소대립이 점차적으로 격화됨에 따라 그러한 사실들이 자유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핵실험에 있어서 「중공군의 역할」이란 논문과 기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 할 수 있다.

1959년 6월 20일 소련의 중공에 대한 과학기술원조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중공의 교부장인 진 의는 전국민들에게 핵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1964년 6월 16일 제1차 핵실험(20KT)을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핵개발연대와 핵병기제조에 필요한 제시설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원자력개발 연대

중공에 있어서 핵개발의 시초는 원자력개발 연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 7월에 「원자력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주로 소련의 과학기술원조에 의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9년 6월 20일 소련이 중공에 대한 과학기술원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부터 중공은 독자적인 과학기술진에 의해서 원, 수폭개발과 미사일개발에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원자력개발 연대를 살펴 보면 별표 8과 같다.

별표 : 8.

원자력 개발 연도표

연 도 별	내 용
1953. 7.	「원자력종합개발계획」을 확립하고 주로 소련의 과학기술원 조에 의해 개발한 것을 결정.
1954. 10. 12.	「중·소과학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고 우라늄광의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기술자료를 도입.
1955. 4.	「중·소원자력 평화이용 협정」체결하고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기술정보 입수.
1957. 10. 26.	「중·소극방선기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원폭제조에 관한 과학기술자료를 입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원폭제조에 착수.
1958. 3.	군사과학원을 설치하고 원자력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1958. 6.	북경에 열출력 7,000~10,000KW급의 연구용원자료를 가동함.
1964. 6. 16.	중공의 서북지구 「노무늬」호 부근에서 제1차 원폭 실험에 성공(우라늄 235사용 20KT 탐상).
1965. 5. 14.	제2차 핵실험 성공(공중투하 50KT 리저음 6 검출).
1966. 5. 9.	제3차 핵실험에 성공(공중투하 250KT 핵 융합물질 검출).
1966. 10. 27.	제4차 핵실험에 성공(미사일에 의한 핵탄두 1톤급을 400~600마일의 목표물에 명중).
1966. 12. 28.	제5차 핵실험에 성공(열핵물질을 사용 300KT급).
1967. 6. 17.	제6차 핵실험에 성공(최초의 수폭실험 3메거톤급).
1967. 12. 24.	제7차 핵실험에 실패(기폭장치만 폭발함으로써 실패, 제2차 수폭실험으로 추정).
1968. 12. 27.	제8차 핵실험에 성공(대기권에서 제3차 수폭실험 3메거톤 급).

나. 핵개발 시설

중공은 핵개발에 필요한 우라늄광의 산지로는 신장, 호남, 사천, 강서, 광둥, 요령, 흑룡강성 및 내몽고 자치구, 동지의 20여개소에 달하는 우라늄 광산 11개소의 원자로, 3개소의 우라늄정련공장, 가스광산공장, 우라늄처리시설 및 푸르토늄생산시설, 7개소의 미사일공장, 7개소의 미사일실험장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에 시설한 생산용원자로는 프랑스의 GI형에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난주의 가스 광산공장은 미국의 「오구릿지」 K-25공장시설과 비슷하다고 한다.

한편 1969년 6월 15일 호주의 「프란시스·제임즈」 기자가 중공의 핵개발 시설을 돌아본 후 「선데이·타임즈」지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간숙성의 만리에 시설한 한 공장에서 만도 연간 약 300킬로의 「푸르토늄 239」를 생산하며 또한 포두에서도 30킬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난주시 북쪽에 있는 「알라산」 속에 가스원심분리공장을 가동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동기자가 중공의 핵개발계획의 책임자로 알려진 왕충량에게 핵병기 및 미사일개발을 위해서 국민총생산고의 약

15~20%를 사용하고 있는나고 질문한 데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공은 핵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임즈 기자가 중공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원자탄을 제조하려면 1년에 수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거만 원자탄 보다 열핵 물질과 수소폭탄을 제조하는게 주력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사실은 중공이 원폭보다 수폭제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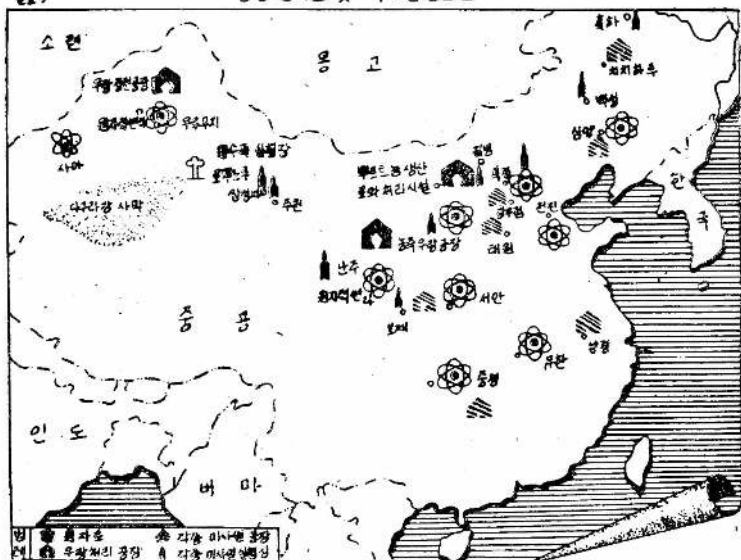
그러므로 중공은 앞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와 병행하여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년 후인 72년에는 핵탄두의 양산과 아울러 미사일분야에 있어서도 실전용으로 수십 기를 배치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공 내에 있는 핵개발시설, 미사일공장 및 미사일실험장을 살펴 보면 별표 9와 같다.

6. 핵병기 제조능력

1967년 6월 16일 제1차 수폭실험에 성공함으로써 4번째의 수폭보유국으로 등장했다. 또한 66년 10월 27일 제4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의한 핵탄두의 실험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

별도9 다 중공원자로 및 핵시설분포도



시 말하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목표지점에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개발을 병행하여 발전시켰다.

한편 미국의 랏부박사는 1964년 6월 17일 제1차 핵실험 이후 중공은 월산 1~2발의 원폭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랏부박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연간 약 50-100여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미국원자력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중공은 수폭원료인 「중수소화리저움」을 (1폰드는 0.45킬로) 당 25불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수소화리저움」 1폰드는 TNT화약 2만5,000톤의 폭발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공의 경우 산 가격으로 대량파괴력을 가진 「중수소화리저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중공은 원, 수폭제조에는 다소 월값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자금부담 능력

중공이 핵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면을 고찰해 보면 핵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핵개발을 위해 「탄화탄계폭」에 투자한 자금은 약 20억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20억불 중에는 연구과정중에서 실패한 부분의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지식이 잘 보급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건설한 우라늄농축공장 및 기타 우라늄방식의 공장건설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억불 정도라고 한다.

또한 프랑스가 「비에르랏트」에 건설한 우라늄농축공장도 약 1억불의 예산을 책정한 것 등을 종합한다면 중공에 있어서도 10억불의 자금을 투입한다면 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0억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어서의 추산이므로 이것을 그대로 중공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제기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공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본다면 노동집약적 상품이 싸고, 자본집약적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싼 일본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원(元)과 원(圓)의 교환비율은 1원대 150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강철을 구입할 때의 1원은 일본의 30~50원의 가치밖에 없고, 식량을 구입할 때의 1원은 일본의 200원이상

에 상당한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어서의 소요 자금을 그대로 중공에 적용할 때에는 그러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하는데 기계류와 주변시설(주로 방사선 방호시설)에 따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호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규모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맹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중공과 같이 인건비가 싼 경우(노동자 1인당 평균급료는 90원이라고 한다면 약 23불)로서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원자력위원회의 추정에 의하면 중공이 제1차까지 사용한 자금을 약 5억불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추정에는 기술지식의 보급, 농축우라늄시설의 규모외에 싼 노동력도 고려했을지 모른다. 여하튼 중공이 제2차 핵개발에 투입한 자금은 제1차 핵실험까지 5억불~10억불이라는 거액을 소비한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5억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중공 화폐로 환산한다면 12억원이 되고, 10억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24억원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정도의 자금지출이 중공경제에 부담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비교

해 보기로 한다.

제2표는 제1표에서 계산한 중공의 물적국민소득을 서방측 방식의 수치로 수정하여 이를 다시 환산에 의거 불로 환산한 후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國聯統計)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1967년도의 중공의 국민소득은 동년의 일본의 국민소득의 반절도 못되는 액수이고, 미국의 67년에 비하면 15분의1로 추정된다. 또한 1인당의 소득으로는 중공의 인구를 7억4,000만명으로(1957년의 이미 발표된 수자에 연 2%로 곱해서 계산) 1인당 71불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타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45배, 영국과 프랑스는 22배, 자유중국에 비해도 중공은 그 반절보다 적은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중공의 국민소득을 1인당 100불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소득 전체를 700억불~800억불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1인당 소득면으로 볼 때 빈곤한 편이다. 그러나 중공과 같은 공산 중앙집권적 경제체제하에서는 국민소득의 1~2%밖에 해당되지 않은 핵개발비의 염출은 크게 분배되지 않은 일이다.

중공이 국가예산은 1960년에 예산액을 발표한 이래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60년의 국가예산이 700억원(약 300

억불)으로서 프랑스의 예산에 비하면 2배에 달한다. 그러나 중공의 국가예산은 중앙과 지방을 합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반반정도이므로 60년도의 예산규모를 중앙정부의 액면에 국한한다면 대체로 동액이 된다. 그러면 중공이 60년도의 국가지출이 예산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제1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64년의 재정규모는 약 350억원(약 150억불)로 추정되며 또한 경제침체가 호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60년도의 재정지출은 예산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환산한다면 12억원이 되고, 10억불이라고 한다면 약 24억원이 된다. 그러던 이러한 정도의 자금 지출이 중공경제에 얼마나 부담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중공의 경제 규모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제2표는 제1표에서 계산한 중공의 물적 소득(國聯統計)과 비교한 것이다.

61년부터 63년까지의 재정규모는 64년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그렇다 할 지라도 5~10억불을 한번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 핵개발에 착수한 1960년 이후 수년간에 지출한 것이므로 재정규모 전체에 접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1표 국 가 예 산 (1965년도의 추정)

구 분	금 액	비 고
세입규모	420억원	
세출규모	420억원	
경제건설비	190억원	45%
사회문교비	66억원	16 "
국 방 비	85억원	20%
행정관리비	25억원	6%
채무지불과 대의원조비	12억원	3 "
기 타	42억원	10%

제2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 (단위 억원)

국 별	연 차	국민소득	1인당국민 소득	국 별	연 차	국민소득	1인당국민 소득
중 공	1967	513	71원	서 독	1967	1209	1,567원
일 본	"	1,197	959 "	영 국	"	1106	1,506 "
인 도	"	422	84 "	프랑스	"	1089	1,644 "
대 만	"	35	197 "	이태리	"	670	1,620 "
미 국	"	7,897	3,279 "	캐나다	"	574	2,099 "
소 련	"	3,720	1,532 "	태 국	"	49	120 "

사실이다.

7. 금후의 전망

중공은 1964년 6월 16일 제1차 핵실험 이후 8차에 걸친 실험에서 핵병기개발 단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거둔 것만은

1966년 10월 27일에 실시한 제4차 핵 미사일 실험에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라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이후 열핵물질의 생산과 수폭제조

에 주력하였고, 핵탄두를 목표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개발면에 있어서도 핵병기 개발과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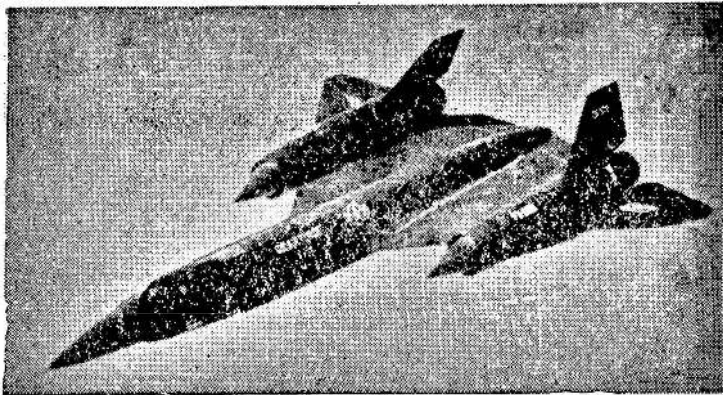
1970년도에는 수폭보유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80기~100기의 IRBM이 실전용으로 배치될 것이며, 72년 이후에는 수폭 및 핵탄두의 비축을 완료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정거리 9,000킬로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실전용으로 배치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미국과학자들의 예상은 과거에 미국에서 핵병기 및 미사일개발과정에 비추어 예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공의 경우, 1965년 11월 10일 소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래 중공진역에서 전개된 홍위병의 난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친, 반 모 세력간의 부력충돌은 마침내 공업생산부문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핵병기 개발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1945년부터 10년간이다. 미국무성에서 극동지역의 정치, 군사문제를 담당하였고, 또한 1951년부터 주일연합군최고사령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바 있는 미국의 중공군사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바 있는 「아리스·시

에」여사는 1968년 10월 8일 일본의 매일신문사 「아시아조사부」에서 「핵시대의 중공과 아시아」라는 연재에서 「미국정부는 69년도에 중공은 대륙간탄도탄(ICBM)을 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의 견해로서는 최초의 핵개발계획보다 3년간 지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써 문화혁명이 핵개발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중공의 핵개발기술에 대해서 적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리스·시에」여사의 견해는 문화대혁명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과, 친·반 모 세력간에 전개된 무장투쟁은 공업생산부문에 많은 지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은 1968년초부터 중공은 사정거리 1,200~1,500킬로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실전용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제국은 중공의 핵병기의 위협을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핵병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본토를 비롯한 오키나와, 일본, 등지에 ABM망(대미사일요격망의 배치)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 외전이 보도한바 있다.



베일을 벗은

록키드 YF-12A/SR-71

이 종 덕

현재 자유 제국의 군용기중, 가장 그 형태가 멋있으며 특수한 비행기는 록키드 YF-12A/SR-71일 것이다.

널리 공개를 하고 있는 미국의 항공 업체로서는 드레의 일이며, 초비행이 시작될지 2년 이상이나 되었다.

1964년 2월 29일, A-11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행기가 당시 미국의 존슨대통령 발표로 밝혀진 후, 『세계 최초의 마하 3실용기』로서 베일이 벗겨진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후 A-11은 전투기형의 YF-12A, 전략기형의 SR-71의 양형으로 발달했

고, 후자는 일정수가 생산되어 부대를 편성하여, 그 일부는 오키나와에 배치되어(미 본토 외에 SR-71이 배속되고 있는 곳은 오키나와 뿐이다) 있음이 공표되었으나, 여전히 그 메이타나 작전상황은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정보에 밝은 세계 각국의 항공관계 기자들도 그 궁금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R-71기를 생선계획한 미 항공기술계의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인 록키드사의 부사장 그라렌스 L. (케리)존슨씨가 스스로 YF-71에 관하여 그 탄생계획의 개요를 말함으로써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설계자 자신에 의하여 마하 3의 실용기 내용은 그야말로 귀중한 자료이며, 항공계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존슨 부사장의 담화에 의하여 미공군과 NASA가 협동하여 3기를 제작한 YF-12A중 2기를 사용하여 시험비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재개」한다는 의미는 이번 시험비행이 NASA의 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며, 종래 XB-70을 사용하여 실시된 초음속 여객기(SST)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공군의 A-11에 의한 시험비행은 이미 종료하고 있으며, 또한 SR-71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비행도 공군에서 록키드사에 대하여 종료하게끔 명령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은 종료

존슨씨의 언명에 의하면 SR-71의 생산량은 이미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공구 등은 아직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재고는 할수 있는 태세에 있으며, 공군은 이전부터 F-12를 발주하고 싶다는 의향감저만 분제는 예산관계 여하에 달려 있다.

SR-71부대는 전략항공단(SAC) 제

9전략정찰 비행단 뿐이며, 2개 비행대에서 편성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빌리지에서 작전하고 있다.

3기 제작된 YF-12A의 원형기는 A-11의 설계가 요격기로서 적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평가시험이 완료된 후, 1966년 중기 이래 비행상태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금번의 NASA의 연구비행을 위해서 재 정비되게 됐다.

특히 이 기간에 1967년에 1회만 단기비행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예외이며, 그 후 계속하여 에드워즈기지의 격납고 속에 보관되고 있었다.

NASA의 연구비행계획은 69년 말까지에는 개시하게끔 되었다.

여기서 3기가 있어야 할 YF-12A의 원형기를 어찌서 2기만을 신계획에 사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1기는 언제 사용할 것인가 하며 염려하는 측도 있겠으나, 실은 YF-12A의 원형 제3호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체는 후에 개조되어 SR-71의 복좌연습기형으로 되고, SR-71C라고 호칭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SR-71B가 취역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SR-71C는 사고로 인하여 손실되었다. 이 사실은 이번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존슨씨 말에 의하면, YF-12A와 SR-71은 외형적으로는 동일하며, 단지 SR-71은 기수 양측의 차인이 선단까지 연장되어 이 때문에 전장이 약간 길어졌을 뿐이다.

「스킹크 계획」의 내막

세계최초의 마하 3급의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스킹크 계획」이 어마히 진행되었는지, 최근 존슨씨가 미국의 항공우주학회에서 한 강연에 의하여 그 비행기의 개략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YF-12A는 1960년 회계 연도에 공군에서 발주를 받은 후 처음 비행하기까지 불과 3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초기설계는 록키드에서 선발된 불과 75명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행해져 세부설계단계에 들어가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그러나 200명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

YF-12A의 비행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동력부분과 기체와의 일치화, 그 중에서도 공기취입구였다.

흡기계통의 시동 불량에 종종 나타났으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러 있었던 몇 차례의 추락사고의 원인은 아니다. 하비월사에서 개발된 안정 증배계통이 이 시동불량에 의한 발동기추력부족에서 일어나는 피칭에 대처하기

위해 조종사들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흡입구의 센터보트는 비행중에 이동 변형하게끔 되어 있으며, 특히 마하 그 이상에서 시동할 때에 유효하게 고려되어 있으나 이 프로그래밍은 아주 어려웠다.

센터보트는 마하수에 의하여 이동하며, 또한 영각과 옆으로 미끄러지는 각에 의하여 경사지게 되었다.

SR-71/YF-12A의 기체는 경량화하기 위해 아주 얇은 g에 기준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Q리미트는 같은 마하 3급의 XB-70의 약 75%에서, 피치각과 뱅크각도 똑같이 g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선회변경은 상당한 것이다..

기체는 고도 30,000m, 속도 마하 3.5에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U-2와는 다르나 굉장히 경량의 구조로서 고고도순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투기의 표준적인 화중배수는 FY-12A의 경우에는 전연 염두에 두지 않았기로 했으며, 또한 현용의 수송기와 비교해도 훨씬 멋이 있고 부드럽다.

세계 최대의 물꼬이 된다.

YF-12A/SR-71의 장비발동기인 P&W·J58을 존슨씨는 터어보람제트라고

부르고 있다. J58은 컴프레서의 서팅을 후기연소기(Afterburner)에 파이프를 통하여 공기를 조정하는 새로운 수법을 쓰고 있으며, 아프터버너나 사용으로서 순항중은 흡기온도를 발동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편 배기온도가 여기 모니터되어, 발동기의 조정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진다. 컴프레서에 빠져나간 바이패스 공기류는 흡기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컴프레서의 사아저나 스토울을 방지하게끔 움직이는 한편, 연료 소비특성을 10~15% 개선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외기류를 부르인 도어에서 흡입하여 아프다바나일부에 흐르게하여, 배기가스와 혼합시켜 기본저항을 감소시키는 방식도 설계시의 문제의 하나이다.

존슨씨 말에 의하면 계획에서는 수직 미익과 동체에도 이 효과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또 하나는 시험중에 일어난 이상한 문제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긴급강화하였을 시, 발동기의 케이스가 내부의 브레트보다도 먼저 급속히 냉각하여 브레트가 줄어든 케이스의 벽과 부딪혀 『세계최대의 불꽃』을 발생한 것이다.

재료관계에서는 치타늄 가공이 특히

대문제였다.

기본적인 치타늄합금으로서 베타 B120을 사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6,000개의 부품은 실로 5%가 『로스』의 것이었다고 한다.

이 문제의 개발에는 치타늄 메탈사가 협력하여 수소절단, 적정한 열처리, 성형법 등이 연구되었다.

YF-12A는 구조중량의 93%가 치타늄으로 최대의 강도, 중량비를 얻기 위해 록키드사에서 당시 사용되고 있던 120,000PSI의 끌 수 있는 강도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200,000PSI의 치타늄합금을 사용하였다.

YF-12A는 순항중 장시간에 걸쳐 기체 전표면이 500°~600°F에 달하므로 기체의 장비품은 거의 사용할 수 없으며 접화선, 와이어, 시일재, 액압액, 전자장비품 등은 거의가 모두 새로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유압계에 사용하는 액은 식유제의 액체이며 최초에는 펜실버니아 주립대학에서 개발되어, 이를 록키드사가 적당한 활성을 갖게끔 개량한 것으로서, 최초의 코스트는 실로 1갈론당 130불이었다.

『FF-12』의 유압계는 각 엔진에서 가동하는 두개씩의 펌프에 의한 4개의 독립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안정 증대장치

마하 3이상의 기체에서의 승무원 탈출방식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었으나, 결국 현용의 제트전투기와 같은 개방식 사출좌석으로서 「F-111」과 같은 캡슐식은 채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량경감을 위해서 「YF-12」가 강도가 약하므로 그와 같은 급격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침은 적어도 1회의 예로서 정확한 것이 증명되었다.

즉 「SR-71」은 테스트 비행중에, 선 회중에 피치업을 일으켰을 때 코크비트에서 동체가 돌로 갈라져 조종사를 초음속 기류 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러나 조종사는 생명이 이상 없이 무사히 강하하였다.

이 사출좌석은 ○속도, ○고도에서 마하 3, 고도 3만미터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으며 존슨씨 말에 의하면 「특히 파장이 높은 해면에 불시착하는 이외에 만족한 작동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건에 대하여서도 현재 해결책이 진행중에 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존슨씨는 최초 발동기를 동체 내에 수용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은 결

국 방지하였다.

그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동기 흡기구를 동체 및 주익의 충격과의 밖으로 놓기 위해,

또 하나는 브로잉 에질타에 의한 저항감소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발동기를 동체에서 충분히 떨어진 바깥 날개에 장비하면 만일의 경우 한편 발동기가 정지했을 경우의 추력과 저항의 불균형에 중대한 문제로 되었다. 이 때문에 만약 한편 발동기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밀세콘드 단위의 작동하는 안정증대장치가 개발되었다.

좌우의 수직미익은 전 유동식이며 내측으로 15도 기울어져 있으며 또한 「YF-12」에서 비행중에 늘어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펠트럴 힌이 장비되어 방향안정을 개량하고 있다.

델타형의 주익에서 전방으로 늘어나는 고정체인은 2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고속 비행중에 일어나는 풍압중심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미사일 기타의 장비의 수용실로 되어 있다. 체인은 또한 방향안정에도 필요하게 되어 있으며 「SR-71」은 체인이 기수까지 늘어나 있으므로 충분한 방향안정이 될 수 있으므로 후부동체 밑에

집어낼 수 있는 벤트럴 환기 폐지되었다.

조종석도 특제

[YF-12]는 3발의 [AIM-47A]공대공미사일을 2발은 좌측의 종렬탄창에, 1발은 우측의 후방탄창에 수용하고 있으며 우측의 전방백이에는 화력제어계(FCS)의 장비나 계기가 탑재되고 있다.

이 무장체계는 원형의 시험계획중에 도론에 대하여 수회의 시험이 행해졌으며 우수한 명중율을 나타냈다.

[SR-71]은 체인내는 정찰장비의 수용 스페이스에 붙이고 있다.

후부 좌석 다음의 동체 내에는 미부까지 모두가 연료탱크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랜딩은 착륙장치를 열어서 지키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타이어는 300°F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것이 되고 있다.

[YF-12]에서는 마하 3.0~3.5의 순항속도에서 60분 이상 비행할 실적이 있으며 고속과 착륙시에 있어서 비행특성도 다 같이 우수하다.

퓨우즈 ASG-18/GAR-9(AIM-47) 화력제어계통은 원래 [F-108]레이리어 계획 때문에 개발된 것으로서, [YF-12]의 제작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는 이미 그 롱레이더 시스템은 [B-58] 허스트라에 탑재되어 테스트가 계속되었다.

레이더는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서 지상에서 발신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도록 충분히 방호하자 않으면 안 된다.

톱프라 방식은 특히 헤드온 식 요격법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다.

제58용에 특히 개발된 연료는 기화압력이 얇으며 또한 아프터버너 노즐 등을 점동시키는 액압계의 미디어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기화압력이 얇음으로써 연료는 발동기내에 온도 600°F, 압력 130PSI로서 분사된다.

조종석은 시계의 스프링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에르저로이라고 불리는 스프링체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특히 개발되었다.

또한 각종의 모캄이나 개발공구 등도 종종 검토되어 예를 들면 연료탱크도 실물은 아주 크게 제작되어 있으며 온도변화나 기체의 자세변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시험되고 있다.

생산기는 1대당 1,500~1,800불

[YF-12]의 발동기 나셀에는 내외의

여러 곳에 공기유량을 조정하는 바이패스용이나 흡입용의 도어가 붙어 있으며 이 도어는 내부 압축시 흡기구의 변화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흡기구의 중심에는 예민한 센터보드 가 전후에 활동하며 또한 배기구의 노출도 플랩에 의하여 가변면적으로 되어 있다.

센터보드는 이륙시에는 최진방으로 이동하며, 고속 순항시에는 후퇴하여 흡기구 면적을 가장 적게 한다.

나셀 전방에 있는 바이패스 도어는 저속시에 열리며 컴프레서에 충분한 공기를 흐르게 한다.

그러나 공중에서 재시동할 때는 개방위치로 할 수 있다.

센터보드의 주위의 경계층은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위에 열려져 있는 브리이드 구멍에서 빨아들이며 나셀 밖으로 배출된다.

나셀의 중간점에는 발동기와 나셀의 가운데로 흐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도어가 있으나 이 도어도 고속비행중에 닫혀져도록 되어 있다.

배기구의 면적은 이륙시에 최소 고속순항시에 최대로 되게끔 플랩에서 가변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직전의 나셀 주위에는 제3의 록기도어가 있어 저속시에는 열리고 고속시에는 닫혀

진다. 저속에는 말한 필요도 없이 세 58발동기의 추력은 대부분 엔진마운트에 전해진다.

그러나 고속시에는 추력의 70%가 흡기부에서 발생하며, 27%가 배기부에서 그리고 불과 17%가 엔진마운트에 전해질 뿐이다.

또한 센터보드의 앞단에서 발생하는 항력은 추력의 1%에 지나지 않는다. [YF-12]의 비행시험에 있어서 소닉부음의 강도는 거의 계산과 같았으나 변동의 범위는 대단히 넓으며 $\pm 200\%$ 에 달하여 특히 환음속 범위에 있어서 변동이 심했다.

록키드산은 결국 [F-12]전투기의 실용형의 배각에는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존슨씨는 현재는 지금까지보다 일층 신기종의 원형기로서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며 과거 수년간에 폭격기형을 포함한 몇개의 바리에이션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스타니움제 고성능기구의 가격은 아주 고가며 [F-12]가 만약 백기 발주되었을 경우에도 한기당 가격은 FCS, 미사일, 기체, 발동기를 포함하여 1,500~1,800불이라고 한다.

리이더의

인격적 소양



이 영 렬

사람은 거의 다 일생에 한 번은 리더를 경험한다. 그 지도하는 대상과 판도는 다를지언정 리더 아닌 사람이 없다. 대통령, 장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장(家長) 아닌 사람이 별반 없고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는 반장, 집에서는 언니로서 학생들과 동생들 간에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장은 그 학교에서의 리더이지만 그 교장 아래 있는 선생은 또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리더가 되고, 장교는 그 직무 안에서 부하에 대한 리더지만 사병들도 내무반에서 혹은 선임자라는 입장에서 하급자 후배들에게 대해서 리더의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게되면 사회가 존재하고 역사가 흐르고 있는 한 비록 그 판도와 대상의 차이는 있을 망정 그 누구고 수명으로서, 선도자로서, 주관자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생을 경험하게 마련인 것이다. 리더의 가치개념이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선견자」라, 「공복」이라 혹은 「봉사자」라 각기 달리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하려는 리더의 용어는 장관이나

대장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를 막론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 독자에게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리더」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 혼자만으로서 리이더가 될 수 없다. 거기에는 피지도자, 추종자, 동료, 후배 등「다른 사람과 반드시 관련지어야만 리더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 다운 품격과 교양을 산중이나 들역에서 홀로 수련할 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폭스럽고 다양 다질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지도할 때에 빛나야 하고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형편과 요구가 무엇이며 그 만족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심리와 사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를 다룰 때 그 부하를 모르고서는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리더는 그 이끌어가야 할 대상에 따라서 갖출 인격적 소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본지의 독자가 군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군대 사정에 따른 군 리더의 인격적 소양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군대 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세대 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으로 8·15해방, 6·25동란, 4·19의거, 5·16혁명 등 갖가지 변혁을 겪으면서 제도의 생활방식과 사고형태까지 변화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일제 때 교육받은 사람과 근년에 교육받은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같을 수 없다. 도덕관념, 가치관념에 있어서 현대 젊은이들은「낡은 세대」를 아예 무시하고 대든다. 군대의 하층 구조는 거의 전부가 이런 기질의 소유자들로 되어 있다. 피라밋 형으로 구성된 소수의 지휘권은 대개가 다 구시대적 사고 체질이 돼 있음으로 해서 인생관, 윤리관에서 대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실례로 권위의식같은 데에

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저급 젊은 사람들은 제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있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상관에게 경례를 붙이는 것이 어떤 인격적 존경심이나 부러워하는 선망(羨望)에서라기 보다는 부득이 불가피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는 분끼리 인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윗사람 아랫사람을 구분해 놓고 거기 존경과 경의를 강제한다는 것은 젊은 기질에 대해서는 비위에 맞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그토록 강조하고 단속해도 「결례」로 말미암아 걸려드는 자가 허다히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인격도 계급도 확인됨이 없이 지이프차 앞자리에 대해서 무조건 경례를 해야만 하는 일은 윗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데 알맞는 제도이다.

그런가 하면 군 내 상위층은 지이프차의 앞자리, 행사 때의 자리서 열에 신경을 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예는 그것이 제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지만 그런데다가 신경을 기울이는 사실은 결국은 아직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된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지도층과 그것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하층 구조의 「부합사회」, 「세대차」 그것이 곧 군대에서 지도해야 할 대상들의 특성이란 것이다.

군대 특질 중 다른 하나는 「가치 기준」의 뒤바꿈이다. 과연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충성」이니 「신의」니 하는 따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직한 의미에서 그것은 「과거」의 가치개념이다. 정신적인 것을 숭상하고 물질적인 것을 천시하던 생각은 이제 일종의 「신화」가 되어 버렸다. 현대인들은 이 글의 제제(提題)자체도 흥미가 가치 여부에 지극히 회의적임이 사실이다. 저급이야말로 우리들 인생관 윤리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해타산」이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도 실은 자기와 자기 자손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한 타산의 소산이며, 3년여를 보수없이 군에 복무하는 것도 실은 그래야만이 남은 생을 탈썩없이 살 수 있다는 이해 타산에서 순응하게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종교를 신봉하는 것도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때 이것도 역시 「이해타산」에서 예외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논리 자체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심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곧 시대적 기풍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물론 순간적인 결단에 의해서 예외는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여 이웃과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파히 찾기 힘들 정도이다. 이토록 「이해타산」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사회이자 또한 군대생활인 것이다.

군내의 특질 중 또 하나는 「강제성」의 합리화에 있다. 무서운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을 다룸에 있어서는 엄격한 군율과 철저한 명령체제가 서있지 않으면 가공할 만한 재난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각이한 성격의 지닌 사람들을 통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강제성이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군 내에서의 리더는 이런 강제성이 부과된 「제도상」으로서의 통솔, 즉 「타율」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 자신의 「인격적 감화」에 의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피차에 구속과 강제를 받으면서도 참고 거기 순응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격성과 강제성의 분별력 없이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히 행사해서 강제성 일변도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뜻하지 않은 차질이 올 수도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본래 사람의 성품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다고 본다. 선천적인 것이 근본적이기는 하나 성품은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교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리이고

간에 리더는 본래부터 리이치다운 성품을 타고 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리이치다운 성품이 사실은 따로 없고 다만, 리이치더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효과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성품을 교정하고 거기 필요한 기질을 돌구는데 힘쓰는 것이 소용될 뿐인 것이다. 이럴 때 과연 앞서 지적한 바 군대의 특질에 맞춘 리더의 인격적 소양은 무엇이어야겠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실성」이라든지 「광용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성품은 필요한 것이다. 군대 내처럼 각박하고 요령이 편용되는 사회가 별반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하에 대해서는 「충실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지휘관에게는 관용성을 요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에 와서 가치기준이 뒤바뀌고 이해타산이 윤리기준이 돼 있고 강권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질서에서의 관용이란 엄격하게 말해서 「질서파괴」요 「낡은 도덕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① 여기서 리더는 평소 「민감성」을 지녀야 할 것을 제창한다. 민감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층 중시되어 오는 터인 바에야 작전을 맡아 수행하는 군 지도자가 세상과 부하의 사정, 그리고 부하들의 사상적 흐름에 대하여 둔감하다면 이는 「추종자」는 될지언정 「리이더」는 되기 힘들다.

부하들의 정신적 동양을 재치있게 파악하고 거기 적절한 대책을 세울 줄 알만큼 시대와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성도덕(性道德)에 대한 시대적 귀추에 대해서도 건폭적인 긍정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논리와 경향은 이해할 줄 알만큼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아폴로가 날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대에 80밀리 대포로 싸우려는 계산법과 논리를 가지고서는 현대의 리이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리이더는 특히 세태차를 절감하고 시대 감각에 좀더 민감해야 할 것이다.

② 지금 세상은 과학적인 세상이다. 주먹구구식이거나 우연에 맡기거나 예닐처럼 천운에 맡기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며칠 몇시 몇몇 몇초까지를 미리 예정하고 일을 착수하는 것이 시대적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군 리이더는 적어도 상당한 두뇌를 가진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이란 일사 불란해야 하는 법이다. 아랫 사람들에게 각기 계획의 일단을 맡겨 세우게 하고 그것을 정점에서 종합 정리할 사람이 곧 리이더라고 볼 때 그런 두뇌가 없는 사람은 리이더의 소양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역사의 개척자는 항상 그만한 계획성이 충만하였었다.

③ 리이더는 시대와 상황에 민감해서 바른 판단을 얻어야 하고 거기에 대처할 만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과감성」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케네디대통령이 쿠바 위기 때 취한 「결단」과 그 「용기」, 이승만 박사가 취한 포로 석방 때의 「결단」과 「과단성」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의 표본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한다. 이럴 때 경계해야 할 일은 만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계획한 일을 단행하되 군 특유의 강제성을 원용해서 부하를 괴롭히는 일은 과감성과 구분해서 생각할 문제이다. 우유부단하고 여기 저기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지도자적 품격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소신에 대한 「과감성」이 있어야만 리이더의 판도는 날로 더 넓게 인정받을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뒤 자유의 기풍은 굉장히 강조돼 왔고 또 모든 국민이 이 자유를 최대한 향유하게끔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성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사회가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정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실은 자유의 신장을 위해 불가피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기가 질 줄 알아야만 지도자 다운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하의 책임까지도 자기가 도의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출세와 진급에 관련시켜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따위의 비겁한 행위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⑤ 끝으로 리더가 갖출 인격적 소양중 하나는 「용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름만큼 「외곬수」라면 그렇게 답답한 일은 다서 없을 것이다. 「규정」만 알고 「인간에」가 결핍된다면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에 친구와 협력자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질서를 무너뜨림이 없고 군기를 심하게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용성」이라 할까 「용통성」이라 할까 「정치성」이라 할 만한 수단에 의해서 사태를 수습 지도할만한 소양도 겸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차 기본질서가 강제성과 세태 격차와 가치개념의 전도에 처해 있는 데에서의 군 리더는 특히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 소양은 비단 그것 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상의 몇 가지는 리더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동시에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받는 부담과 고통도 많을 줄 안다. 리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청첩, 면접, 향응 등은 분명 괴로운 부담임에 틀림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하급자가 다 같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 격차가 있다해서 대치함이 없어야 하고 오직 이해타산만으로는 인간관계가 아닌 그리고 타율에 의한 강제적 추종만이 아닌 좀 더 옛 윤리관적인 「인화」와 「신회」와 「봉사」의 인격관계가 군 사회에서도 편만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상
하
인
간
관
계
와

사
기
진
작

오
현
철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나는 역량은 그 구성원을 결속할 수 있는 기구조직의 상태, 구성원의 심리적 동향, 구성원간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유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군대는 혈연적 결함을 전제로 한 가정과 같은 집단도 아닌 것이며, 또한 부부, 인근, 우인 관계 등과 같이 다스간의 선택의 여지를 두고 이루어져 있는 집단도 아닌만큼, 군의 지휘관들은 부대라는 하나의 집단현상에 대한 연구와 면밀한 사태분석에 주의를 기울여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가정과 같은 일차적 집단에 있어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종속, 지배, 복종의 관계가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나는 성격, 구성원 간의 교호작용에 있어서 자칫하면 아늑한 인간관계가 결핍되기 쉬운 것이 상례이며 복잡, 미묘한 감정의 뉴앙스로 얽혀 집단 자체의 역량을 절감, 비속시키는 예가 허다한 것이다. 반면 지나친 인간성의 편중으로 말미암아 집단의 기강을 해치고, 집단의 존립 자체를 위태로운 경계에까지 몰아넣는 예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양자의 경우를 적당히 지양하여 어느 편에도 편중치 아니하는 방

도를 택하여 하나의 목적 하에 귀일시킴으로써 그 집단의 역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군대조직은 개인의 개성이나 육구경향이 적게 허용되는 곳이며, 따라서 개인의 육구 기대를 군대조직의 임무에 합치 내지 조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는 군인만을 강조해서 인화가 도모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상관이 부하를 통솔함에 있어 부하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자기는 거시만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인간은 지위와 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시킬 성질이 아닌, 또는 그 부하가 할 일이 아닌 것은 그에게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인간관계적인 제 요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져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고취와 사기라는 상관관계적인 면에 새로운 안목의 개발이 우리 성년국군의 제일 과제인 것이며, 바야흐로 굳건한 저반 위에 새로운 전통과 안정된 체제확립이 서서히 이루어져가고 있는 지금, 현재적 군부의 건설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라 단언치 않을 수 없다.

머우 조직의 기초가 되는 전체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는 아직도 제1차집단적 인간관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모두 제 일차 집단 관계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현상은 군대 조직내에서도 현저한 심각한 병폐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능상 또는 계급상의 위계질서를 가부장적 상하질서로 대체하여 전인격적 지배·부종관계로 규정하려 하고, 공과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하지 않으며, 극히 의식적이고 비밀을 많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집단현상에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존속 발전하여 나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의 성격에 알맞는 인간관계를 갖는 데서 비롯한다 함은 재론을 요치 않는 바이다.

상하좌우의 엄격하고도 화기에 찬 관계는 군대의 질서유지의 근본이 되며, 공사의 명확한 구별은 기강확립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단결은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

이 되는 만큼 부대단결의 긴밀화에 노력해야 될 것이며,

단결은 운명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데서 촉구되는 것이다.

올바른 인간관계로 맺어진 군대라면 최강의 군대로서 자부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X X X

조직체란 공동목적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상호협조 단체인 것이다.

그러나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늘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자률적으로 상호협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소위 상호 반목적인 협조가 어느 조직체이건 굳게 하는 법이며, 이와 같은 상호 반목적인 협조관계가 있더라도 그 소기한 밖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하다.

구성원들의 단순한 일꾼으로서의 생산단위로서 추사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협조체제를 저항하고 구성원들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는 사회에 단위로서 구성원을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두케 된다.

그 이유는

- ① 구성원들이 일을 하되 그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 ②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구성단체가

목적하는 밖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조건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영향하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제1차 집단이 생길 것 <동료간에 친하는 것과 같은 것>.

개인의 존엄성과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게 할 것.

상하 관리관계에 향상된 인간관계를 조성할 것 등이다.

인간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자 개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그 비슷한 점만을 인식하여 인간문제 이해를 상식에 불과한 것이라 믿고 별 관심을 주려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매일 인간을 상대한다는 인식없이 대하게 되며, 끝내는 경험으로서 인간문제 취급을 상식화하게 되는 것이다.

업무상의 착오는 그 정정이 간단하나 인간관계의 풀릴한 취급에서 오는 결과는 수습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곤란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인간문제 이해에 있어서 상식에 속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전체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문제 취급을 상식화하여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관리자는 부하를 지도하는 상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사기의 양양, 유지에 절대적 장애가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관리는 여러 사회적, 기술적 조건의 발전에 따라서 복잡한 변모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과학적 발전은 관리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개척이라는 문제와 인간관계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직이 인간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상, 그 조직 구성원은 표준화된 기술이나 공식적 제종조직 또는 기계적 방법에만 기초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비론리적이며 비제도적인, 즉 자연발생적인 조직적 성원으로서 활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조직내에서의 인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 대규모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인간은 경제적,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 비개성화의 현상을 초래한 데에 바로 인간 관계론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전통적인 관리기술에 대치하거나 또는 그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도 새로운 일면을 첨가함으로써 상호보완하고 조직원의 인간적 요인과 자발적 협동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두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론을 하나의 관리기술로 볼 때, 이것은 주로 관리자의 부하에 대한 태도, 즉 부하의 사기와 자발적, 협조적 태도를 양양시키고, 조직내의 인화를 도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기의 의의와 그 중요성

관리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결국 사기의 문제에 귀결된다.

조직의 목적을 성공적,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물 등용함도 물론 중요하나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용했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백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촉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징계와 같은 권위적, 강제적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기양양이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다.

무릇 사기란 용어는 일찍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제1차 대전중 군부층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1920년 이래 직업상의 사기의 성질과 가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제 육, 교육, 사업, 종교, 정치, 광고, 운수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관리자들은 다소 의식적으로 또는 특수하게 사기를 중요시 하였다.

사기라는 말은 누구나 언뜻 듣기에는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 정의를 물으면 대답에 곤란한 말이다.

여기서 이의 뜻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개인의 경우는 개개 구성원의 그의 직무에 대한 태도 즉 그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표시된다.

이 만족감은 그의 기본적 요구와 그의 만족 충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개인의 기본적 요구는 각각의 가치관단에 따라 각색의 것이 나오겠으나 대체로 그의 동료, 상관, 기타 여러가지 근무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많은 경우의 조사를 하여 보면 대체로 동일한 요구나 추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기가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열성과 목적의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사기의 이러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하여 단체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체로서의 여러 사람의 단체적

인 심리상태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의 뜻을 「레이튼」은 「어느 기관을 구성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시종일관 단결하여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사기는 소속원들이 그가 종사하는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체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참여의식을 느끼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사기의 문제가 더 많이 연구되고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조직, 단체로서의 사기의 문제가 주요연구 대상으로 등장, 양자가 종합적으로 연구되어 가고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경우 이의 촉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제 등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권위적, 강제적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편 방법에서 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구성원의 사기양양이 무

엇보다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다.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또한 일관하게 상호 단결하는 집단의 능력인 이 사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 구성원이 그가 소속한 조직체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
- 구성원이 상관의 리더십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
- 구성원간에 가지고 있는 신뢰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조직체의 능력성
- 구성원의 지적, 감정적 및 육체적 건강

이 사기를 형성하는 전술한 바의 다섯 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볼 때, 다섯번 째의 요건 만이 구성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며,

그 밖의 요인은 그가 취하는 환경이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환경적 요건중에서도 통일적으로 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인간관계와 관련을 가지는 두번째, 세번째 항목의 요건이며, 양자중에서도 상관으로서의 감독자와의 관계인 것이다.

즉 일반 구성원이 경영층과 접근하게 되는 것은 이 감독자 글을 통하여 달성되기 때문이다.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의 근본요소는

개인에 대한 존경이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 개인에 대한 존경 없이는 찬된 인간관계도 사기의 양양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존경은 대략 태도와 행위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을 존경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즉, ① 각 구성원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상의 필요의 충족이며
- ② 각 구성원의 개인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감정상의 필요에는 안정감, 성공감, 소속감, 참여의식 등이며

이 중에도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감정요구인데, 왜냐하면 이 감정 안에는 상술한 바의 사기의 두번째, 세번째 항목의 요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공감은 업적과 이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니, 일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개인의 능력이 문체되는 것이다.

구성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우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함은 물론 그의 감독, 관리자도 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스스로 느끼는 경우 그 구성원의 사
기는 양양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하여도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기 어
려운 직책은 마끼져 않는 것이 좋다는 결
론이 자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소속감은 직업단체내에 있어서의 개인
의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어떤 집단에 소속하려하며
그 구성원들과 우정, 친밀감 등 동료의
식을 가져갈 기대하는 것이다.

소속감과 관련하여 일체감이 있다.

이것은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자기자
신의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자기
가 소속한 집단의 규모가 클 수록, 사회
적 평가가 높을 수록, 조직체내의 종적
유동성이 클수록, 자기의 기본적 욕구가
많이 충족될 수록 증대하는 것이다.

소속감, 일체감은 조직원 사이의 빈번
한 접촉이나 성격, 신념의 유사성이 발
견됨으로써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에 증대
되는 것이며, 이로써 조직에 대한 자부
심, 열대의식, 충성심을 얻고 사기를 높
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의식,

누구나 어떠한 조직체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조직의 중요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지위가 낮다하더라도 그

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기대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문
제의 결정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참조되
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혼자서 관리 감
독자가 법적으로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
고 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모든 구성원의
투표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의방식을 많이 이용하여 그들
의 의사를 듣고 같이 문제를 논의할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리,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는 경우 그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근무능률이 향상됨은 물론 상
하관계도 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
사결정 자체가 보다 현명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이 일단 이루어진 후 그것이
집행되어 나가는 경우 그것이 보다 효과
적, 능률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감독,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발언을 장려, 권유하여야 하며, 구성원
들로 이러한 토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용
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우리의 주변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은 회의실의 공간만을 차지하고 시간만 낭비하며 토의의 진의는 망각되기 쉽다.

이와같이 적극적으로 하위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상부의 의사가 하위자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하위자의 의사도 상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위자에게 지시만 하는 독재적 관리보다 하위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도하는 민주적 관리가 상호간의 의견교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의상달의 길이 보통 막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감정상의 요구와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고 고려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 앞으로 할 일을 예고하는 것, 모든 일에 참여시키는 것, 신뢰하는 것 등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개인을 존경함으로써 생겨서는 조직체가 얻는 바 소득은 좁은 줄은 생산성과 능률이던,

이 결과로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즉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원의 개인적인 이익까지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향상은 상호협조와 생산성과 능률로서 관리,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인바, 이의 부단한 연구는 임무수행을 위한 동기 부여는 물론, 현존 환경에의 적응, 개인과 조직의 일체화를 위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부하가 반응하는 바람직한 상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열거하기로 한다.

(가) 좋은 감독자의 선택

감독자급에 있는 사람은 일의 내용만을 아는 소위 PROFESSION에 정통한 사람만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관계에 밝은 소위 리머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감독자급만이 훌륭하다고 좋은 인간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나 최고 관리층의 좋은 감독이 따라야 하고 중간경영층이라든가 감독자층도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이란 그것이 구두이건 서면이

건 간에 한 조직체에서 혈액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인간들이 상호 결속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이란 상호과정으로서 하부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직체의 목적, 운영방법, 업무의 변경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상부층에 있는 경영자층은 하부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나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업무개선의 제안

구성원들이 업무개선안을 고안 발표하여 이에 대하여 그 공적을 인정하게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각 조직체마다 필요하다.

여기서 고려되는 점은 이 제도에는 반드시 공적인 인정의 방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이는 자구성원의 동업감과 개인존중감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개인상담

개인상담제도는 Western Electric Company의 연구결과인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알 때에 능력이 온다」라는 연구결과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인상담에 있어서는 구성원이 보다 말을 많이 하게 하되 자기 스스로 자기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회화를 유도함이 현명한 것이며, 전문가층이 무조건 권고를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마]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개인상담에서와 같이 일한 병이 난 뒤에야 치료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서의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회화에 동료들끼리 업무에 관하여 주고 받는 회화 속에서 관찰하게 함으로써 불건전한 태도, 취미, 작업관습 등을 발견하게 하고 일반적인 치료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회화의 내용으로는 결론문제, 권한 위임문제, 시간의 근무 등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며, 집단심리분석을 사용하는 이 회화는 일종의 개인상담분석과 비슷한 것이다.

이와같은 지도방법이 있는 까닭은 어떠한 지식을 배움으로써만이 감독자가 진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역시 하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흥동, 안정감, 성공감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감독자급이나 종업원 측이나 스스

로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은 오직 그가
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에 가능한 것이다.

〔바〕 태도 조사

태도는 심성의 상태를 말한다.

심성의 상태의 참된 성격은 개인의 행
위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즉 태도는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태도는 개인의 언
어와 행동(무엇을 하며, 무엇을 말하는
가)의 표현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① 특정시에 있어서 그 조직체에 존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만족, 혹은 사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② 구성원의 발표를 통하여 직무의 각

면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
성원의 특정한 태도와 감정을 조사함에
있는 것이다.

〔사〕 불평의 조사

구성원들이 구성원 상호간의 오해, 분
화, 질투, 급여문제, 직무의 한당, 잘못
된 직무분담, 기타 등에 대하여 불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상관 (또는 상사)에 대한 청원

② 인사기록에 대한 호소 등이 있는
때 이중 상관에 대한 청원은 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나 이것은 일반적
으로 불평이란 상사에 대한 불평인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문언록

◇……산을 깎아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고, 사막에 물
을 대어 옥토를 만들어 잘 살고 있는 근면한 민족들의 본을 받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
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뉘뉘하게 대
답할 수 있게 하자.

◇……자유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원칙에는 여하한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자유는 목숨을 건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죽음을 각오한 방위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

미공군

생활훈련 중군기

김 영 율

실제로 뱀이 전설이나 신화에서 처럼 상상적인 위력과 불가사의 힘, 그리고 알아내기조차 힘든 간특하고 음흉한 기저를 갖고 있었더라면, 직접 자연과 맞서 수렵, 채집으로 생활을 잇고 자기 이외의 제조조건과 치열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우리의 혈거원시 조상들은 어찌했을까?

독사와 구렁이 같은 첫눈에 등골이 오싹해지기 쉬운 파충류들이 우군거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소위 정글은 흔히 타잔영화류에서 대부분 그렇게 파장 묘사되었지만, 실제의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로 유익한 자연생활의 길을 가르쳐 주는 도장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병육성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훈련목적에 공헌하고 있는 바가 큰 것이다.

특수전 개발과 그 교육의 일환으로 비올빈 클라크 공군기지에 있는 미태평양 공군사령부 이하의 생활훈련학교에서 실시 교육하고 있는 전과정이 바로 그 좋은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신병에서부터 고참 대령에 이르기까지, 개중에는 일주일 이내에 교육을 마치고 월맹이나 월남에서 특수작전임무를 수행해야 된 전투공작요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하간 피교육자로서 본 교육과정에 입과한 장병들은 우선 교관으로부터 정글전 개요와 정글에 대한 이체까지의 과장되고 쓸데 없는 공포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실습과 훈련을 통해 깨우쳐 지게 되리라고 짐작은 짓인사를 받게 된다.

그것은 피교육자들을 집짓 골탕을 먹이거나 간접적으로 소위 기압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요원으로서 담을 질러 주고 간접적으로 요령을 터득해서 나중에는 대담히 뱀까지도 날로 먹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주물러 뱉 수 있게 자연생활력 증진 및 그 적응도 개발과 특수전의 실제적인 전술 및 전기 연마에 있음을 권명하는 것으로서 원전생활의 실전적인 교육을 본 과정을 통해 전부 이수케 된다.

본 학교는 특수정글전 교육에 있어서

□ 미공군 생환훈련 중군기 □

유능한 베테랑급 장교 5명과 18명의 정정한 정규교관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류의 특수전 훈련을 담당 교육하고 있는 학교로는 1949년 일본에 세워진 미제5공군사령부 생환훈련학교와 1955년 버지니아주 랭글리(현재는 플로리다주 홈스테드 공군기지)에 세워진 수중생환훈련 학교가 있다.

집낼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교관이 팔뚝만한 길이 25피이드나 되는 긴 뱀을 목과 어깨와 팔에 칭칭감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만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질리게 마련이다.

이 학교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의 관속과 담력을 길러 줄 목적으로 각종 파충류물 이를 태면 도마뱀, 물뱀, 악어, 구렁이 등과 짓궂은 흑곰, 귀여운 오리새끼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이 총망라된 특수관 자체 동물원을 갖고 있으면서 교관들이 직접 이들 동물들의 우리며 또 서식처로서의 동물들을 파고 짓고 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학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시작되는 2개 학급을 편성 교육하고 있는데, 그 입과 초기와 제1교시의 교습개요 지도시간의 대부분이 마치 수업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물에 대해 갖기 쉬운 공포심을 없애 주려는데 힘을 쓰

듯, 피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정갈 공포증 내지는 기피증을 없애 주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짧은 학습시간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시키야 되고, 더욱 지형일체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짜임새 있으면서도 간결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

지금껏 필자가 받은 인상으로는 생환교육은 뱀과 직결된 듯한 것으로 생각된다.

팔뚝만한 뱀을 감고 수업을 계속한다든가, 날로 그 자리에서 뱀을 잡아 먹이는 등 보통과는 전혀 별개의 것을 보여 주며 그 습관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뱀을 잡게 되면 맛 있는 뱀요리에 제관들을 우선 초대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대소간 뱀을 조식이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듯 마찬가지로 뱀도 사람을 꺼리고는 있지만, 먼저 뱀한테 지분거리려는 말아야 합니다.』

교관의 귀뜸이다.

일개 학급의 정원은 평균기별로 52명인데, 13명을 한조로 작기 4개조로 나뉘어 수업과 훈련을 받으며, 작조마다 정교관 한 사람과 원주민 조교 한 사람이 따른다.

□ 미공군 생환훈련 중군기 □

이 학교의 임무는 선정된 요원에 대하여 기상조건이나 생소한 환경에 관계 없이 생환하여 자기 부대에 귀환을 가능케 하는 교리, 절차, 장비 및 기술의 활용 면에서 훈련을 계속시킨다.

그리고 학생은 게릴라 활동, 폭동의 원인적 요소 및 특수군(Special forces)의 조직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당교의 임무는 다른 여러 활동 가운데서도 기본생환, 기아, 익사, 탈수, 담열, 한랭, 상처, 세균 및 방사능과 같은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생명을 보전(전투생환(비자발적으로 전투중에 우군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을 때 전투요원이 취해야 할 모든 조치, 여기에는 개별적인 생환, 도피 및 탈출, 체포된 후의 행동에 관한 계절차를 포함한다). 도피 및 탈출(어떻게해서 군사요원이나 선발된 개인들이 적의 점령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군지배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계절차 및 작전).

폭동진압작전 및 지시된 특수훈련에 있어서의 학과교육과 작전훈련을 수행케 되어 있다.

실제로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기저훈련분야는 저항력훈련 실험실과 그 다음에 따르는 야외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야외 활동기술의 훈련이나 행군기술은 고정 병영훈련이나 기동훈련에 있어서 직접적인 교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야외훈련을 망라한 지속적인 기준 위에서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환훈련의 학과장 교육은 기본적인 교진보된 생환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승무원들을 양성한다.

학생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배경, 용구를 주기 위하여 광범한 여러 학과의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간(공식적으로는 12일간)은 학과와 실험실 훈련에 중당되며, 학생들은 낙하산 조종 및 착지법, 수중생환, 생환약품 및 위생학, 전쟁포로로서 취해야 할 특수한 문제와 작위행위에 대처한 저항 및 탈출, 이용가능한 식물, 물고기, 사냥을 통한 식량획득법 기타 생환 원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세계도처에 걸친 대표적인 지형지세의 기상, 개별적으로 당면하는 제 위협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학생들은 지상함박, 위장, 도피 이동의 원칙에 대해 교육은 받는다.

본 훈련과정 중 생환법과 분리되어 다루어 지는 것이 도피 및 탈출과목이다.

□ 미공군 생활훈련 중군기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도피 및 탈출 교육담당 장교가 생활법 교육담당장교의 임무를 아울러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방지역을 비행하는 공중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법에 관한 내용이 도피 및 탈출에 관한 브리이핑에 포함된다.

적지역에 투하된 공중 근무자는 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비상식량 및 생활장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자신이 동물의 생활습성으로 옮겨 갈 수도 있어야 하며, 육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육지를 떠나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지역에서 도피 및 탈출하는 사람은 마치 포수에 쫓기는 동물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법 습득은 도피 및 탈출 그리고 생활을 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활법을 대별하여 육지에서의 생활, 바다에서의 생활 및 해안에서의 생활으로 나누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하산 기술, 생활장구 사용방법,
통신기 사용법, 개인위생법,
음식물 구득방법,
음식물 조리방법 및 저장방법,
의류 등이다.

화요일 새벽이 되었다.

호기심 속에서 기다리던 생활 야외훈련을 떠나는 날이다. 대원은 총 52명 모두가 부대귀환시까지를 대비해서 모두 면도와 조발을 깨끗이 마쳤다.

개인장구 점검과 인원점검을 마친 인행은 교관과 원주민 조교의 인솔에 따라 방향을 알 수 없는 숲 속 깊숙히 전진을 계속한다.

기세를 부릴 당시의 일본군들이 쓰던 첩모와 의문스런 육중한 전차의 포신이 개울가 가파른 곳에 녹슨 채 버려져 있다.

행군지 상공엔 계속 구조용 헬리콥터들이 만약을 생각해서 실세 없이 맴돌고 있다.

가파른 산정을 좌로 돌아 왼뼀클로망을 잔뜩한 어두운 숲을 헤치고 노영지를 찾아 분대별로 행동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거처구축 장소에 알맞은 곳을 찾아 각자 개인위장과 대피소 구축에 일손이 바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만들 거처의 종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비, 추위, 더위, 일광 또는 곤충(인간에 해를 주는 곤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처를 구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 밤만 쉼 목적으로

로 거처를 구축할 것인가 또는 장시간에 걸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다.

기후, 기상, 지형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공중 전투요원들은 여행(여기서 여행은 생활을 위한 것 또는 적지에서 탈출할 경우의 요행을 말함)을 계속하지 않는 한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훌륭한 거처를 구할 수 없으면 즉시 낙하산 캐노피, 짐승껍질, 나무껍질, 나무가지, 잎, 잔디 또는 추운 겨울같은 계절에는 눈덩이 등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잘 수 있는 거처를 구축할 야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조명 등의 불빛 또는 홍수나 사람의 왕래를 피하여 제곡이나 숲 속에 설치해야 한다.

거처를 구축할 장소를 선택하고 나면 우선 각 거처에 알맞게 비 줄기가 용이하게 흘러 내리도록 경사를 급히 하고, 문 방향은 바람방향에 대하여 90°각으로 출입구를 낸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바람을 받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평균 3피이드 높이로 그물침대를 낙하산과 침낭을 이용해서 숨서있게 꾸어매었다.

정적이 깃든 산야에는 스산한 들짐승 울음소리만이 지렁 울릴 뿐이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전대원 기상—피곤한 눈초리로 허기를 느낀다.

사냥에 쫓기는 사슴마냥 일방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 갈증과 공복을 주목하여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무균정수의 음료수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또한 획득한 물을 어떻게 정화하며, 공복을 면하기 위하여 음식을 어떻게 획득 저장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며, 실지로 본 훈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그 방법이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가지의 유익한 것들을 무진장 갖고 있는 것이다.

일찍을 들면 은대저방에서는 호두, 밤, 알몬드열매, 도토리, 개안, 나무류의 열매, 브라질 나무열매, 솔방울씨, 열대저방에서는 코코아열매, 야자수 열매, 유나무열매 및 매캐데미아 열매 등이 있어 견과류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영양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량의 유용한 단백질도 포함하고 있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견과를 맺는 식물은 전세계를 통하여 어떠한 풍토를 가

□ 미공군 생활훈련 증군기 □

진 저대라도 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북극저대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음료수 취수방법으로 쓰는 나무에 『마룩비』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저녁노을이 다 진 후에야 비로소 줄기에 파인 홈으로 물을 뽑아 내고, 새벽 햇살이 비칠 때 동시에 분비현상은 중지되는데 보통 하루만에 15 내지 50가톤의 무균정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심각한 약용식물로 『도구루』라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특히 더운 지방에서 생기기 쉬운 상처에 효과가 있으며 저혈계 구실을 아울러 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교구』라는 비누나무가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비울빈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그대로 그 액즙을 비누대신 쓰고 있는데 피부세척 및 세탁에 아주 훌륭한 쓰임새를 갖는다.

이 『교구』나무 속 줄기를 잘게 썰어 짓기면 거품이 일면서 먼지는 물론 박테리아를 비롯한 웬만한 세균은 깨끗이 없앨 수 있는데 삼푸대신 의복, 식기류 소독에도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도구없이 음식물을 조리하는 방법에 관한 실습이 교관의 구수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파충류나 포유동물 속에서 헤엄치거나 공중에 날으는 동물은 어떤 것이나 모두 식용으로 쓸 수 있다.

매뚜기와 털이 없는 유종,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딱정벌레, 빈대, 개미 알, 흰개미 등은 먹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지방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일단 불에 구워서 말리어 먹어야 한다.

곤충과 같은 것은 말리어 가져오 밀가루, 옥수수 가루, 콩 등에 섞어서 먹을 수 있다.

가열한 돌로 김 내는 방법, 돌로 끓이는 방법, 찜대 다리를 이용한 조리방법, 판자 요리방법, 들쭉 이용법 등이 있다.

돌로 끓이는 방법은 큰 용기나 구멍이 뚫린 나무에 물과 음식물을 넣고 끓일 때까지 붉게 달은 뜨거운 물을 넣는다. 약 1시간 또는 음식물이 잘 끓었을 때까지 큰 일사귀로 덮어 둔다. 증기를 끓이는 용기는 나무껍질이나 구멍을 뚫은 신표판이나 방수물을 장치하면 된다.

찜대마치는 냄비가 된다. 이것이 타버릴 때까지 태우면 음식물은 잘 익게 된다.

다음 물 쯤 이용법인데 어떤 종류의 음식물이라도 땅에서 요리할 수 있다. 음식물의 분량에 따라서 약 2피이드 깊이, 2~3피이드 깊이 그리고 2~3피이드역 넓

□ 미공군 생환훈련 중군기 □

이로 구멍을 파고 돌을 선택하나 개울의 돌은 터치므로 피하고 저를 약 3인치되는 낙엽, 장작 등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풀이나 잎사귀를 준비, 땅구멍에다 불을 피운다. 구멍 위에 푸른 잎사귀를 놓고 그 위에다 돌을 쌓는다. 그 뒤에 불을 피우면 되는 것이다.

작은 고기조각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요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정됐던 야외생환훈련을 갖가지 유익한 것들을 익히면서 끝마치면 학생들은 「나는 생환했구나」하는 안도의 숨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회상에 잠겨본다.

미공군 생환학교는 포괄적인 전투생환

훈련에 요망되는 광범한 지식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로서 참모와 교관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학교의 주된 관심은 한 사람의 군인, 개인에 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어떠한 비상사에서도 안전하고 명예로운 귀환인 것이다.

그것이 적과 대치된 사태이든 아니든간에 이것은 다시 싸우기 위해서 귀환한다고 할 수 있도록 이 학교는 저상의 어떤 곳에서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도구와 훈련을 한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에이·조지」 기

박정희 대통령 문언록

- ◇……무방비상태의 자유는 침략과 압제를 자초하는 법이며,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만다.
- ◇……창의는 현상에 만족할 줄 모르는 즐기찬 의지의 산물이며 기술은 발전과 향상의 모체이다.
- ◇……자유는 자의나 방종이 아니며, 자물이요, 자치이다. 진정한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개인은 봉사해야 한다.
이 봉사정신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사랑없이는 발휘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술



I. 유격전술의 일반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원자시대에 유격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세계적화를 위한 혁명수행 과정에서 흔히 이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유격전이란 적의 후방에서 독립 혹은 반독립된 소수부대로 실행되는 작전으로서 보통 이 작전은 정규 혹은 비정규 부대를 가지고 연관성을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다.

유격전을 수행하는 최대의 목적은 적의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등 각분야에 걸쳐 방해, 교란, 침체시키는 것이며 가능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정규작전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목적(혁명수행)에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때는 보통 정규전쟁과는 다른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파괴적이고 「테러」를 수반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신적인 행동을 자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때는 시간, 지형, 정보의 3요소가 절대 불가결한 것이며,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민첩하고 공격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이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유격대라 하면 과거 만주에서 보던 변의대(便衣隊), 비적(匪賊)

등을 연상하는데 현대에 있어서의 유격대는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였을 때 또는 「민족반항운동」 등을 감행할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며, 장기적이고 지구적이며 막대한 소모와 장비를 수반한다.

절구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거나 어떤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는 본질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특수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전쟁의 한 종류인 유격전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주변지대(외곽, 버마, 인도차이나반도, 말라야, 필리핀, 한국) 또는 혁명수출을 위한 지역(인도네시아, 아프리카계국, 남미계국) 등지에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유격전은 한 지역의 확보라든가 장기적인 점령을 확보하고 있음을 중요시 하지 않고 적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과 적 전력의 점차적인 약화를 노리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힘을 보존하면서 전력증강에 전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후방식에 있어서 고정된 양식이나 전법을 고수치 않고 임기응변을 많이 사용하며 유격대원들은 희생적이고 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기습과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여 신속히 퇴각하는 전술을 겸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격전은 전반적으로 지구전 방식을 쓰며 전술적으로는 공격 혹은 방어 두 방식을 다 사용하나 항상 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고로 현대와 같은 과학시대, 핵(核)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의 균형하에서는 상호전제가 이루어져 좀처럼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지전(局地戰) 또는 재래식 전쟁이 세계도처에서 유격전이라는 전쟁방식이 가미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Ⅰ. 모택동의 유격전술

1. 모택동은 어떠한 인물인가

모택동은 1893년 12월 26일생으로 금년 76세다. 호남성의 작은 마을에서 중농(中農)의 장남으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반역아(反逆兒)로 만생받은 소년시대를 지냈다고 한다. 마치 복귀의 김일성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역사를 조작하는 것보다 같이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모택동이 자기의 아버지를 수전노(守錢奴), 흡혈귀(吸血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혁명가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작일지도 모르겠다. 모택동이 19세에 사범학교

에 철학하여 새로운 사조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그의 혁명가정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세계 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불란서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였다.

그때 노동자로 모집되어 간 사람 중에는 현재 중공 지도자의 한 사람인 주은래와 월명의 호저명 등이 있다.

모택동이 중공에 정식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중국공산당 창당대회 겸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호남대표로 1927년 상해에 나타난 때부터이다.

1927년 9월 추수(秋收)폭동에 참가하였다가 실패하자 정강산(井崗山)에 도망쳐 들어갔다. 약 천명의 패잔병을 데리고 산간벽지이며 교통도 두절된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삼은 그는 곳곳에 있는 토비(土匪)들을 흡수하여 소위 홍군(紅軍)을 조직하였다. 1928년 5월 남창(南昌)폭동 때 실패하고 도망쳐 온 주덕(朱德)과 합세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곧 모택동 유격전술의 시초이다.

이때 사용한 전술을 보면 춘추전국시대의 병학자인 손자(孫子)의 병법을 많이 본따 사용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百戰)이 위태롭지 않다」는 원리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아군의 병력이

적군의 10배인 때에는 적군을 포위 십팔해도 좋다. 동수(同數)이거나 전투력이 우세한 때에는 진드리기만 하라. 이에도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절대로 맞서지 말라」라는 손자의 원리를 충실히 이용하였고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격전을 직접 거취하고 통솔한 자는 주덕이었다.

이러한 중공 혁명사상(史上)에서 이름이 높은 정강산투쟁(井崗山鬪爭)에서 실행된 모택동방식에 의한 혁명과 전술은 이른바 유격전으로서의 시초가 되었으니 이로부터 유격전은 중국 공산혁명을 추진하고 달성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그들은 유격전과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전략과 전술에다 이론적인 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이 투쟁에서 모택동은 혁명의 근거지를 농촌에 두고 이를 외부로 점차 파상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혁명화한 농촌에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정책과 여기에 병행하여 유격전을 통한 철저한 항전을 시도하는 새로운 전술을 채용하게끔 되었다. *

이때 정강산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장개석 국민당군대, 봉건지주, 매판자본가 지방군벌, 부패관료들 사이에는 여전히 분열과 반목이 도사려 사기가 저하될 군

대였다. 이러한 군대에 대항하는 모택동으로서의 국민당군대가 추격하며 공작하는데 장애가 되는 몇 가지의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 ① 작전상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였다
- ② 자급자족으로 자활할 수 있었다.
- ③ 주위의 농민을 자기의 혁명대열에 흡수하였다.
- ④ 중국공산당이라는 배경을 가졌다. 이와같은 적의 약점과 자기의 유리한 점을 잘 이용하여 자기세력을 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확보된 지역의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2. 모택동의 전술

모택동의 전략과 전술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저구전론(持久戰論)의 3단계설이다.

「전략적 후퇴, 상거(相阻), 반격」이 뼈대를 이루는 저구전론은 중일전쟁에서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적의 공격과 아군의 전략적 후퇴방위의 시기이다.

제 2단계는 적의 전략적 보수(保守), 정체(停滯)와 아군의 반격준비 단계이다.

제 3단계는 아군의 전략적 반격과 적

의 전략적 후퇴의 시기이다.

그리고 정강산 두쟁시 4대원칙 16자(字)풀이를 내 세웠다.

① 적진아퇴(敵進我退)=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후퇴하고

② 적지아고(敵止我攔)=적이 멎으면 우리는 교란하고

③ 적피아격(敵疲我擊)=적이 피로해지면 우리는 공격하고

④ 적퇴아추(敵退我追)=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이것은 작전 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군사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후퇴한다고 하여 단순한 패배적 후퇴가 아니며 적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아군의 공격에 유리하게끔 대비하는 것으로 적이 정지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습을 감행한다는가 교란한다는 것이다.

저구히 당연한 원칙인데도 원태가 문장의 작란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러히 풀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이 알려져서 세계각국의 군사전문가는 물론 흔히들 인용하는 말이다.

이 외에도 모택동의 전 혁명과정을 통한 작전지휘 상의 원칙이요 원칙이며 현재에도 중공군이 성전(聖典)처럼 떠받들고 있는 기본 전법을 소개한다.

첫째. 10대 군사원칙

- ① 우선 분산, 교란된 적을 공격하고

집중(集中)된 강대한 적은 나중에 공격한다.

② 먼저 중소 도시와 광대한 농촌을 점령하고 대도시는 나중에 점령한다.

③ 적의 병력을 섬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도시나 지역의 점령은 목표로 하지 않는다.

④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포위, 섬멸하고 손실이 분명하거나 손득(損得)이 상반된 때에는 소모전을 피한다.

⑤ 준비없는 전투나 자신이 없는 전투는 하지 않는다.

⑥ 용감하고 피로를 모르는 작전을 기른다.

⑦ 되도록이면 기동중의 적을 섬멸하며 진격공격전술을 중요시하여 적의 거점이나 성시(城市)를 점령한다.

⑧ 성시의 공격은 적의 수비가 약한 곳을 택하여 단번에 공격한다.

⑨ 적으로부터 노획하는 무기나 포로는 자기편에 보충케 하고 아군의 불적 인적자원의 보충은 항상 전선에서 한다.

⑩ 휴식과 정비훈련은 각 전역(戰役)의 중간에서 실시하며 적으로 하여금 휴식과 재 정비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

둘째. 기본전법

① 성동격서(聲東擊西)=일종의 전체 양동작전이다.

즉 2개의 공격목표가 있어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서는 공격하는채 하면서 그 방향에 적의 주의력을 집중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능한 준비도 하고, 기만도 하면서 적의 병력과 신경을 최대한으로 기만하여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다음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신속 과감한 방법으로 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군이 흔히 쓰는 전법이며 현재 월남전선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월맹군이 쓰는 전법의 하나이다.

② 화영위정(化零爲整)=일종의 집중 전법이다.

적과 접촉하오는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패주하는 듯이 후퇴하며 분산한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동안에도 적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적의 추격이 멎거나 휴식하거나 틈이 생길 때에는 미리 약속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적의 후미 혹은 측면을 집중된 병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 전법 역시 흔히 쓰는 것으로 상대방이 전법이나 지형에 미숙하거나 정보에 부정확하고 주민동태에 익숙하지 못

할 때에는 아주 사용하기에 맞는 전법이다. 과거 만주나 중국본토에서 강력한 일본군이 이 전법에 고심했으며 현재 월남에서 미군도 이 전법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③ 화정위영(化整爲零)=일종의 분산 전법이며 전항의 반대전법이다.

즉 대부대를 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불리하면 분산하여 도주하고 도주할 때는 순간적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전법이다. 이것은 유리한 조건이 따라야만 한다. 현재 월남에서 「베트콩」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없어지고 그들이 밀림지대에 숨어서 사라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민으로 변하여 때연히 미군앞에 나타나서 놓고 있다.

이러한 전법도 과거 중공군이 많이 사용했고 현재 월남에서는 각 전투의 약반수가 위의 두 전법에 걸려들고 있다.

④ 피실격허(避實擊虛)=일종의 기습 전법으로서 유격전의 대표적 전법이다.

이것이 적절히 사용될 때에 그 성과는 실로 크다는 것이다. 적의 좋은 장소 시간과 병력의 집중을 피하고 적의 불리한 장소, 불리한 시간에 허한 곳을 발견하면 전력으로 그 허를 찔러 공격하는 것이다.

고로 유격대는 어느 곳이 실(實)이고

어느 것이 허(虛)인 것이냐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정보수집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⑤ 선마타권(旋磨打圈)=일종의 기만 전술이며, 뱀틀을 돌리듯이 빙빙 돌려서 적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잡게 하고 파르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무장한 소수인원으로 조직된 유격대와 상호협동하여 적의 정면 측면 할 것 없이 쭈시고 공격하여 혼란케 하여 적의 유격대가 얼마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못잡고 우왕 좌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집중된 병력을 피하고 적의 약점을 포착하여 기습을 가하는 것이다. 이때의 적의 심리변화는 몹시 신경질적이 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삼천초목이 다 유격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⑥ 마작전법(麻雀戰法)=일종의 신경전으로서 전항의 전법과 흡사하지만 이 전법의 특징은 더욱 소수의 조로 나누어서 더 많은 초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작패 모양으로 많은 패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데에서 나온 전법이다.

⑦ 전벽청야(堅壁清野)=일종의 초토화전법이다.

이것은 과거 「나포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이용한 것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초토(焦土)작전이다.

보급병참선이 밀어진 침입군에 대하여서는 좋은 방법이며 중국에서 일본군이 이 작전에 고생했으나 현재 월남의 미군의 강력한 기동력의 뒤통수 공격에 이러한 곤란을 느끼고 있지 않다.

Ⅲ. 「보·구엔·지압」의 유격전술

1. 「보·구엔·지압」이란 어떤 인물인가?

「보·구엔·지압」(武元甲)은 1912년 「캉빈」성에서 중산계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하노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중학교 교사, 신문기자 등을 거쳐 1937년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41년 중국 연안(延安)으로 가서 군사와 정치를 배우고 귀국후 호志明(胡志明)과 손잡고 무장 유격대를 지휘하여 불란서 군대를 격파하고 「디엔·비엔·푸」에서 승리함으로써 8년이라는 긴 혁명전쟁을 완수하였다.

현재는 명실공히 월맹(越盟)의 제 2인자이며 월맹정권의 부수상 겸 월맹군 총

사령관, 공산당 중앙위원, 정치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월남에서 활동하는 「베트콩」을 총지휘하는 자가 바로 이 자르 세계의 유격 전략가로서 모택동 다음 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2. 「지압」의 전술

월맹은 혁명전쟁과 혁명군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고 중국은 광대한 국토와 수 억의 인구를 가진 반식민지국가로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런데 월맹은 중국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국토가 적고 인구가 적다는 점에서 우선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과 특징의 차이점에서 월맹군과 「베트콩」의 유격전술 또한 다소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것은 근거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공의 모택동이 정강산, 연안등지에서 대 근거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본군과 싸우는 식으로 「지압」도 「소비에트」를 조직했으나 실패하여 모두 분산되고 만았다.

그 후 「지압」이 전개한 전술은 월남 전

지역에 걸쳐 천 민중이 총 봉기한다는 전술로 바꾸어 성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월남전은 전선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현재 월남에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 전술로 말미암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적을 발견한 곳이 전선이며, 고정된 전선은 없다.

우리는 승리를 점차 쌓아 올림으로써 적을 피로케 하는 동시에 우리는 증강되고 전투의 주요목표는 적의 병력이지만 우리의 병력은 온전해야 한다.」 이것은 소위 「인민의 전쟁」이라는 유명한 원리이다.

「지압」은 초대 「해방군」 선전대장이 왔을 때

- ① 군사보다 정치선전을 중시하고
- ② 지방의 무장 유격대를 훈련하여
- ③ 전술은 유격전술을 쓴다

는 3대 원칙 하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작을 하여 결국은 전 「인민의 전쟁」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월맹군 총사령관으로서 1947년 불란서군에 대한 저구전(持久戰)을 선언하면서 다음의 3단계를 내세웠다.

제 1단계 전략적 방어단계

병력을 보존하고 농촌지대를 보호하여

소규모의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을 확보 동원한다.

제 2단계 전략적 교착단계

유격전을 확대하고 적을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유도하고 대중의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촌을 무장 조직화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게 한다.

제 3단계 전략적 중반격단계

혁명군이 우세하고 국제정세가 유리하고 적군이 약화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략전술은 내략 들어 맞아 마침내는 불란서 군대는 패하였고 월맹은 승리하였다.

이상은 「지압」이 월맹 8년전쟁을 중심으로한 전략 전술중의 3단계론이 있다.

그 전략중 유명한 「디엔·비엔·푸」의 승리는 최종단계인 총 공격과 승리를 위한 정규군으로서 기동전을 한 것이었다.

현재 월남의 「케산」에서 월맹군을 제 2의 「디엔·비엔·푸」를 기도하는듯 한 데 전투의 양상과 그 지형이 흡사하다.

즉 3면에 산이 있고 이 산이 이 전투의 판전을 쥐고 있다는것,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라는 성역과 비무장지대 등의 유리한 후방 보급기지가 있어서 정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택동이나 「지압」

이 주장하는 제3단계 전략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압」은 8년전쟁중에 불란서 군대에 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저형적으로 긴게 생긴 월남 땅에서 불란서 군대를 분산시키고 그것을 교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불란서군은 부대병력을 활용하는데 실패하였으니 즉 처음에 북부에서 공격하여 적을 때망케 하고 다음은 중부와 남부에 증집을 두어 공격하고 적을 교착시켜 놓고 다시 북부로 옮겨 「더엔·비엔·푸」의 승리로서 전쟁을 끝나게 하였다.

그간 뚜렷이 나타나는 전술은 빈약한 무장과 장비에 비해 왕성한 민족적 저개심과 대중의 지지로서 전투를 한 것이었다.

고로 부병(伏兵) 기습 「테러」 등 전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자동차 한 대 없이도 재미같은 인민을 동원했고 무선통신 기재 하나 없이도 자전자만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중장비도 없는 공병(工兵)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으며, 굴을 파서 불란서 진지 안에 불착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불란서 군이나 식민지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을 무조건 「테러」하고 죽였는데 이 공포와 진술은 성공도 하였지만 민심 수습에는 실패 하였다.

호저명이라는 「민족적 영웅은 호감이 가나, 공산당은 싫다」는 민심이 지배적이 된 후 근 백만이라는 북부 월남사람이 남부로 탈출하여 온 것이다.

3. 「지압」의 유격교본

이 교본은 현대 유격전에서는 가장 권위있고 체계있는 종합적인 책이다.

여기에 유명한 7대 원칙을 소개하면

① 영리성(伶俐性)

영리하게 기능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싸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7대 준칙이 있다.

가. 한 지점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점을 공격한다.

나.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면서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한다 또한 적이 철수할 때에는 철저히 추격한다.

다. 적의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에만 공격한다.

라. 진진 후퇴를 적절히 한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응봉성을 가져야 한다.

마. 적을 공격하여 성공하든가 격파하고나면 즉시 철수할 줄 알아야 하나 적

의 포위와 공중의 지원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가져야 한다.

ㅂ. 성공이 확실치 않을 때는 공격을 하지 않고 무리한 전투는 하지 말아야 한다.

ㄷ. 한번 사용한 전술은 반복 사용하지는 안 된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활동성이고 예리하고, 지능적으로, 전투를 하며 자유자재로 전투를 변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주도권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 하는대로 따르게 하는 것으로 항상 적을 앞질러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몇가지 준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적정(敵情)과 정세를 철저히 연구하여야 한다.

ㄴ. 계속적인 강화와 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호협동하여 사기의 양양과 감투정신을 키우는 것이다.

ㄷ. 적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한다.

ㄹ. 적을 우리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ㅁ. 적의 약점을 발견할 수 없으면 약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적으로부터 주도권을 박탈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③ 공격력(攻擊力)

항상 공격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여 적으로 하여금 수세에 빠지게 하고 활동범위를 좁게하여 우리 주민대중을 보호한다는 것을 모택동의 16자 원칙을 예로 들었다.

④ 결단성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결단성이 필요하다.

상부의 명령이 없어도 우리에게 유리하고 성공이 확실시 되면 즉각 공격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작전중 우리가 불리해 지면 즉시 철수할 줄 알아야 하며 작전도중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 하면 주저치 말고 수정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치(秘密保持)

도처에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이므로 유격대는 물론 정구군과 주민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주민들은 항상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전투 전, 중, 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며 자기의 언행에 주의하며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말을 삼가한다.

부대이동 기간은 주요 도로는 피하고 부락에 들어갈 때는 개가 짖지 말도록 해야 하며 진지를 점령할 때는 말을 삼

가하고 가능한 한 동작을 적게 한다.

부상 당했을 때는 신음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고 이동할 때는 아무 것도 남기지 말도록 흔적의 유무를 살피는다.

또한 적지에 들어갈 때는 지령과 전달 문서 이외에는 가져가지 말 것이며 항상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배반자를 경계한다.

적의 첩자는 반드시 섬멸하여야 하며 상부는 감독하고 하부는 모범적으로 비밀을 지키도록 주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⑥ 신속성(迅速性)

적은 우수한 항공기 포병 및 좋은 병참과 수송 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고로 적은 증원과 증강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좋은 기회와 시간을 획득하면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전투나 활동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⑦ 완전성

유격대원들은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의 무기를 뺏아야 한다.

그리고 적에게 손해를 주고 격퇴시키는 것보다 포로와 무기의 노획을 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본에서는 유격전의 기본 요소로서 인민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민이라는 「안테나」 없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인민으로부터의 보호 없이는 비밀을 지킬 수도 없고 신속한 이동을 할 수도 없다.

인민의 협력 없이는 적을 공격할 수도 병력을 보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인민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격대는 고기(魚)며 인민은 물(水)」이라고 말하였다.

IV. 복귀가 사용하는 유격전술

이상에서 실편 바와 같이 유격전이란 어느 일방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적 후방에서 적의 각 분야를 혼란 마비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며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전술 형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격전을 공산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즐겨 쓰고 있다.

모택동과 「보·구엔·저업」의 유격전술이 말해 주듯이 공산주의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사여구로 꾸며질 기만 허위 선전도

잔인한 살인과 방화 「테러」행위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감행한다.

모택동의 유격전 기본전법에서 전벽청야(堅壁清野) 즉 초토화전법을 내 세우고 있는 것이나 「보·구엔·지압」의 유격교본에서 「주민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배반자는 섬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지지 획득 문제이다.

모택동의 유격전도 「보·구엔·지압」의 유격전도 주민의 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들은 주민을 물론, 유격대를 고기로 비유하고 있다.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주민의 지지 없이는 유격대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정치선전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 정치선전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감행되기 때문에 진실성이나 실현성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래서 태만이 허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허위선전도 불평 불만에 가득찬 주민들의 심정에 영합하면 큰 효과를 거둔다.

모택동은 중국 국민의 항일정신과 반

봉건사상에 영합하였고 호지명은 월남국민의 반식민지정신, 민족주의, 엄전사상(嚴戰思想)에 영합하였다.

유격전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소 그 형태를 달리 한다.

모택동은 중국의 광활한 국토와 방대한 인구 때문에 연안 정강산등 근거지를 확보하여 이를 확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압」은 근거지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남 전역을 전장(戰場)으로 설정하고 전선없는 전쟁이라는 전술에 의해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북괴의 김일성도 그와 그의 군대가 항일전쟁의 빨치산 생활에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선전하고 있다.

마치 유격전에 일가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하고 있다.

그의 선전은 허위와 과장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그가 중공의 유격전술에 이해를 갖고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 못할 것 같다.

앞으로 만일 그가 한국에서 유격전을 도발한다면 모택동과 「보·구엔·지압」의 유격전술을 많이 원용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지위상상에 초조해 하고 있는 김일성 일당은 앞

으로 대한민국의 민심교란, 중요시설과 피요인암살 등 도발을 격퇴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음에서 북괴의 대남 적화 전략전술을 파헤쳐 본 다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2. 6·25전 공비의 전술

<무장폭동>

1948년 2월 8일 북괴는 피뢰군의 창설로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남한에서는 공산당이 불법화됨으로써 공산당 간부들이 도망쳐 월북하게 되었다.

북괴는 이들 월북자와 동조자들을 유격전에 이용기 위하여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공산통일을 위한 기지는 북한이라고 공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5·10선거 반대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인 도시무장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1948년 4월 제주도 무장폭동사건, 10월에는 여수, 순천 반란사건, 11월에는 대구 반란사건 등 연이어 일어났다.

전통적인 유격전술은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옮겨지는 것이 원칙이나 남한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터지

게 되었다.

그러나 발단은 도시지만 활동은 산악지대와 농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장공비>

① 지이산 공비

여수, 순천 반란사건에 실패한 일부 반란군과 지방 공산당이 야합하여 백운산, 지이산을 거점으로 대규모의 유격활동을 하였다.

교통의 두절과 공비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지이산 공비 특별사수리 군경들의 고난도 매우 컸었다.

② 태백산저구 공비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산줄기가 북향과 가깝기 때문에 공비들의 근거지는 이상적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북에서 침투한 훈련된 공비들이 주동하였다.

③ 상호 연결과 최후 공세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북괴는 태백산과 지이산의 두 거지를 근거지로 남한 내에서의 공비와 정규 피뢰군에 의한 적화통일을 기도, 남한 내의 공비로 하여금 경상도와 전라도의 양 지역을 산으로 연결하여 남한을 양단시켜 놓고 무력침략의 정적작업을 했다.

그러나 우리 군경의 철저한 공비 토벌 작전으로 남침이 시작되던 1950년 6월 이전에 이들 공비는 깨끗이 토벌 섬멸되었다.

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뒤우치고 전향하였으며 공비도 대량 항복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월북하였다.

당시 공비가 활동할 때의 북괴는 반드시 삼팔선 근방에서 무력충돌 사건을 야기시켜 토벌대를 교착시키는 작전을 썼다.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경찰에게는 지서의 습격, 방화, 가족의 학살 등을 자행하였으며 우익 지도자에 대한 「테러」와 납치 등을 감행했다.

그러나 주민의 저지를 얻지 못했던 이들 「테러」 활동은 필연적으로 소멸할 운명에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 도당이 기대했던 6·25 침략군에 대한 길잡이 혹은 호응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북괴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6·25 전의 남한 내의 공비는 완전히 실패하고 그 책임을 남로당의 창립지도자 박헌영에게 뒤집어 씌워 충살을 했던 것이다(1935. 12. 25. 사형언도).

이것은 책임추궁이 아니고 공산당의 상투수단인 자기의 반대자, 혹은 장차 유력한 경쟁자들을 없애는 공산당 수법에서 나온 것이다.

3. 정보간첩에서 무장공비까지

북괴는 남한적화로 「공산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행패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괴의 극악한 간첩침략의 수단과 방법은 정전협정 조인 이후 15년 동안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북괴의 간첩침략의 변질상을 편이상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정전협정조인 이후 자유당 말기까지

6·25 무력 남침에 실패한 북괴는 전후 복구사업에 광분하는 일방 많은 정보간첩을 밀파시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부문의 정보수집에 혈안이 되어었다. 따라서 이때는 남한에 연고자를 가진 이남출신을 골라 정보수집과 잘 아는 사람 포섭을 위주로 한 소위 밀봉교육을 시켜 남파시켰다.

그래서 이때는 남파 도총 발각시의 호신을 위한 권총과 수집된 정보의 송신을 위한 무전기 등을 휴대시켰고 임무수행을 위한 다액의 돈을 지참시켜 주로 도시로 잠입, 장기간 체류케 하였다.

② 민주당 시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4.19 학생의거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빈약하며 사회적으로 부패한 곳은 바로 공산주의의 온상이다.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괴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공산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때라고 하여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위장된 「평화통일」을 외쳤던 것이다. 이때 북괴는 많은 간첩을 남파시켜 주로 청소년층에 파고 들어 갖가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른바 「남북교류」를 선동했다. 따라서/당시의 간첩은 지하에서의 정보수집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선동활동을 차행한 일종의 선동 간첩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이 당시 무력 담침의 만용을 부리지 못한 것을 훗날 크게 후회하면서 「4.19 때 밀고 내려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남한에 지하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일성의 이 발언이야말로 우리의 경계를 요하는 무서운 독설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의 이같은 후회는 곧 실천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점확보」를 위한 무장간첩의 출동인 것이다.

③ 5.16 이후 67년까지

5.16 이후 제 3공화국의 수립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인 질서가 확립되자 민주당 시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북괴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북괴는 간첩침략의 방법에 있어 그 수집이 불가능했던 간첩활동의 방법 또한 변질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초기에는 다시 정보수집과 요인포섭을 위하여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날이 안정되어가는 우리의 민주정치와 성장해가는 우리의 경제력, 나날이 신장되고 선양되어 가는 우리의 국위는 김일성에게 정적인 지하운동만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이다.

여기서 북괴는 155마일에 걸친 휴전선 상에서 무력침공의 만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양민학살과 약탈, 방화와 납치, 그리고 심지어는 철도 폭파사건 등 야만적 「테러」 행위를 서슴치 않게 된 것이

다.

따라서 이때에는 간첩들은 사격과 파괴, 그리고 「테러」 행위를 위한 특수훈련을 받고 3명 내지 5명씩 한 조가 되어 남파됐으며 무장 또한 기관단총과 수류탄 등 중무장을 하고 침투한 후 유격활동을 위한 근거지 확보에 주력하는 일방 파괴 살인을 자행케 했다. 이 당시 간첩활동의 주요목표는 「게릴라」 활동을 위한 근거지 확보와 앞으로의 파괴활동을 위한 탐색활동이었다.

④ 1968년 이후 현재까지

1968년에 접어들면서 부터 북괴는 노골적인 침입과 극악한 전쟁도발을 시도하였다. 1968년 1월 21일 북괴 무장공비의 서울 침투사건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때 생포된 무장공비 김진조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북괴는 현재 「124군 부대」 밑에 8개의 기지를 설치하고 1개 기지에 300여명씩 북괴 정규군을 간첩 또는 「게릴라」전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 1개조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여 수개조씩 침투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1.21 사건」은 거점확보를 꾀해온 북괴의 끊임없는 침투작전이 깨진 후 파괴전술로 옮기기 시작한 최초의 대담한 준동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성격이 검토, 분석되어야 한다.

그 배경으로는

① 1.21 무장공비 사건이야말로 70년대의 남한적화를 꿈꾸고 있는 북괴가 6.25 이후 최초로 시도한 본격적인 무력침입이며 이것은 이른바 「평화적 통일」을 앞세워온 북괴의 정체전환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② 1.21 침공사건의 배경에는 한국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북괴의 경제정책의 파탄에서 발작된 좌절감이 작용했다.

③ 주목할만한 사실은 근래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남방송이 증공의 모택동을 찬양한 것과 때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소위 모택동사상의 알맹이인 「해방전선론」이 북괴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번 침투는 그 작용의 소산일는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④ 북괴의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되었으며 또한 대남공작에서 신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김일성은 당 및 괴뢰집단의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숙청운동행 권력체제를 군부의 강경파에 의해 지배되도록 북괴 권력구조를 변질시켰다. 즉, 전쟁에 대비한다는 구실하에 보다 강력한 권력의 집중을 꾀한 것이라고 하겠다.

⑤ 외교적인 면에서 볼 때 북괴의 도받은 「평화 통일론」의 실질적인 포기

선언인 동시에 무력공세에의 전환을 말해주는 것이다.

⑥ 북괴는 「1.21침공」을 통해서 남한의 전체적인 안정기조를 깨트리려고 시도한 것이 틀림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정치 및 사회적 불안과 긴장상태를 조성시킴으로써 한국으로 끌리는 외국의 투자의욕을 위협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4. 무장공비의 훈련 조직 활동 상 전망

<훈련>

정보간첩 전술로부터 무장공비전술로 중점을 전환한 북괴는 다음과 같은 훈련에 주력하였다.

① 선발된 간첩에 대해서 장기간 밀봉 교육을 하며 또한 단기집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② 과거에는 당성장화를 목적으로 정치교양을 주로 하던 것을 육체단련에 중점을 두어 산악훈련, 사격, 도수공방훈련 무전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조직>

북괴는 무장공비 전술의 전환으로 과거 주로 남한 출신의 간첩을 파견하던 것을 최근에는 북한 출신의 피퇴군 장교급으로 5내지 7명을 1조로 하는 소조편성

으로 무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1.21 사태시에는 31명이라는 소대 규모의 무장공비를 서울에 침투시킴으로써 앞으로의 북괴의 무장공비 조직에 있어 인원의 증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도 전원 활동면에서 민첩한 북괴군 출신 장교급으로 조직되었다.

<활동상>

과거에는 도시중심으로 장기 잠복공작으로서 위장된 평화통일 선전과 지하당 조직을 하던 것을 근태에는 친척이나 연고자를 남치 또는 유인하여 대동 월북하는 과정에서 정세정찰을 하면서 농어촌에 침투하여 거점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더우기 최근에는 무장공비화에 따라 산악저대를 배경으로 유격기지를 확보하여 앞으로의 유격전술을 준비하는 한편 잔인무도한 파괴 살상까지도 자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본격적인 공비활동으로 나온 것이 67년 9월의 철도폭파에 이어 68년 1.21 무장공비의 서울 침투라고 할 것이다.

<전망>

이상에서 보듯이 북괴의 대남공작은 이제 분명히 종전의 「평화통일」 공세로부터 무력수단에 호소하는 「계밀라」 전법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이 입증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북괴 무장공비의 침투 공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생포된 무장공비의 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966년 10월에 개최된 소위 북괴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말한 김일성의 연설 속에서도 입증된다. 즉,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병진정책을 역설하고 「천민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인민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등의 4대 방침을 지시했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 주요 군사시설과 공장시설이 모두 땅 속으로 들어 갔으며 이미 백만을 넘는 노동적위대의 편성을 완성했으며 1965년 5월과 67년에 체결된 소련·북괴간의 군사원조 협정으로 많은 장비들이 북괴측에 들어오고 있는 정황이 나타남으로써 상기한 전투적 과업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확인된 북괴장비의 현대화를 보면 2개 대대의 MIG 전투기, 잠수함 4척, 중형전차, 레이더, 대공유도탄, 군함, 대형 어뢰정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괴는 평양, 청천강, 원산 등을 연결하는 제 2 방어선을, 명북 강계 일대에 걸쳐 제 3 방위선을 구축해 놓는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 등은 북괴가 한반도의 적화로 「공산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V. 결언

북괴는 한국의 적화를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삶이 자유스러워지고 기쁨지게 될수록 그들의 야욕은 더욱 불붙고 있다. 때문에 잘 살려는 우리의 의지는 그들의 야욕을 분쇄하려는 노력과 병진되어야 한다.

북괴의 침략야욕이 노골화하고 행동화한 이상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지난 경험들이 말하여 주듯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소극적인 자세는 파멸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적의 도전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어떠한 곳 어떠한 때에라도 그들의 야욕을 부셔버릴 결의와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와 힘을 갖출 때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튼튼히 지켜질 것이다.

<※ 참고서적=내외 문제연구소 발행 '이기전적 「무장공비의 전술과 우리의 대응책」>

우주시대 와 종교생활

우주시대의 종말론

이 재 덕 군부

☆ · ☆

1. 인간의 달 정복이 의미하는 것.

역사상 처음으로 소련이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을 때 일본의 한 천문학자는 『인간은 이제 신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말을 하였다. 또 소련의 한 우주인은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미국 우주인들이 하느님을 찬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느님이 안 보인다』는 무신론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인간들은 기대하던 대로 우주과학을 극도로 발달시켜 드디어 달을 정복하고 말았다. 이제 머저않아 인간의 우주 내에서의 행동 반경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쯤 인간은 과연 신의 권위를 침해한 것인가? 인간은 이제 궁극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을 찬양하던 바오로 6세는 『이번의 기술적 과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흥분이 어찌면 인간들을 광기에까지 몰고 갈까 염려된다. 여기에 위험이 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우상 숭배자가 되게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아폴로 11호의 성공은 기술 팀워크의 승리』라고 높이면서, 그러나 『미주 신대륙 발견에 비해 달은 자연과 인간생활을 위해 죽은 것이며 황무지』라고 평하고, 더우기 인간 가치의 저하와 기계문명의 우선주의의 가능성을 들고 이미 『인간은 기계문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미국의 아폴로계획의 책임자중 한 사람인 린베만 박사도 『인간의 달정복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문제이지 신학적인 문제는 아

나라』고 하면서, 『신학이 우주를 누가 지었느냐?』를 이야기하는 대신 과학은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묻는 학부』이라고 과학과 종교의 범주의 차이를 비쳤다. 물론 우주시대라고 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석학적인 면에서 시대적 차이를 볼 뿐이다.

2. 성서안에서의 종말론

인간사교에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 우리 인간도 누구나 한번은 죽는 것이며(개인적 종말) 자연과학에서 질량의 불변의 법칙이 진리인 것처럼 종교에서의 영혼불멸에 대한 관념은 거의 보편적인 것이다(J. T. Addison). 그러나 기독교 종말신앙은 자연과학에서의 경험적 사실이나, 다른 종교사상에서의 영혼불멸 관념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오직 성경적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Sola Scriptura). 따라서 계시 신앙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의 중심이요 근거이기 때문이다(Sola Christus).

성경에서의 종말사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구약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비친 신상(神像)과 홀연히 나타난 하나의 돌(石)에 관한 계시를 읽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는 세계사의 과정과 세계적 종말을 예견케 하는 예언서이다. 볼트만은 구약의 다른 곳에선 물론 구원과 멸망,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역사안에서의 심판을 의미하고 전세계적인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세계의 끝에 관한 교리와 후속하는 구원의 시대에 관한 교리라는 의미에서의 종말론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후기 유대교 묵시 문학에서 인간의 운명을 세계의 운명에 대치함으로써 우주론을 역사화한 것이다. 이전 영구회귀적 시대관념은 현재의 Aeon과 장차 올 Aeon의 두 시대관념으로 바뀌어지고 그와 더불어 참다운 종말론이 수립되었다. 드디어 역사를 종말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게 된 것이다. 다가오는 세계의 종말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는 거의 신약성경 전체에 망라해 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롬 13:12)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벧전 4:7) 「때가 가까웠다」(골 1:3, 2:10, 히 10:25, 약 5:8) 등.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

는 종말론적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한 새 역사를 보는데, 옛역사와 새 역사 사이에 계보적 연속성은 없다. 하느님의 배성, 그의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현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앞에 이른, 오고 있는 비역사적인 새세대에 속했다는 의식이었다. 물론 역사의 종국과 새 세계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겠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고후 5:17)이다. 새로운 Aeon은 이미 실재한다. 신약에서의 종말사상은 거의 바울과 요한에 근거한데, 바울이 아직 장래의 우주적 사건에 대한 기대 속에 있음에 비하여 요한에게 있어서는 최후심판은 예수의 오심에서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파악된다(요 3:19). 여기에서 바울과 요한의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의 때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계의 끝에 있을 그의 Parousia(곧 재림)와의 사이를 의미하고, 요한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영광받는 것과 믿는자 개인의 지상생활의 끝과의 중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가 다 믿는자의 존재는 하나의 종말론적 존재요, 그러면서도 아직 세계 안에 있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요일 3:2)고 한다.

3. 종말사상의 중성화 내지 세속화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종말사상의 성격은 매우 긴박성을 띠고 있다. 그러기에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Parousi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과 의혹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Parousia는 한 특정한 날로 기대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날을 정하셨고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일어났던 실망과 의심은 진정될 수가 있었다. 물론 뒤편과 박해의 시대에는 세계의 끝이 임박했다는 기대와 소망이 열정적으로 불타 올랐지만,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인임과 동시에 공민(公民)인 그러한 생활양태에 점차로 빠져들어 갔고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은 기다리는데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말론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리던 세계의 종말은 불확정한 미래로 옮겨졌으며, 성례, 전적인 신앙(Sacramentalism)이 발생하므로 종말사상의 중성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신자들의 관심은 보편적 종말론, 즉 세계의 운명보

다도 오히려 개인영혼의 수원으로 저항하게 되었고 영혼불멸의 측부들이 현재 교회가 집례하는 성례전으로 말미암아 보충되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에서 점차 예배하는 교회로 되어 갔고 인자(人子)가 교회의 예배 의식에 입재하므로 어떤 모양의 구원이 현재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이 세계안에서 갖는 역사가 길어졌고 역사에 관한 관심은 더 발전해 갔다.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이미 그의 저서 「연대기」에서 교회사를 세계사의 틀속에 넣었다. 그는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해서 역사를 두 시대로 구분하고, 전 역사 과정은 하느님의 섭리 아래 있고 또 의미와 목적을 가지나, 역사가들은 과학적인 연구로서 모든 경우에 그 뜻을 판별해 낼 수 있으며 역사의 의미는 역사 자체안에 내재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목적론적 섭리의 개념을 세속화했다.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신국론(神國論)에서 땅의 나라(불신앙)와 신국(신앙) 사이의 투쟁을 그렸는데 이 목적론적 투쟁 판도 자연의 어두운 세력과 불합리성, 그리고 계속된 이성간의 투쟁으로 이해하고, 종말론적 완결관념을 이성의 승리로 해석하고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결말로써 간주할 수 있게 되므로 세속화의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다. 이러한 세속화의 가능성은 중세에 이르러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세(J. B. Bossuet)의 「세계사론」(1681년)을 거쳐 비코(G. B. Vico)의 「신과학(新科學)」에 이르러 구체화했다. 그는 역사과정을 섭리인 동시에 또 자연적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섭리관념을 하나의 초월적인 힘으로 중성화했다. 그는 신과학(新科學)(*Scientia Nuova*)을 합리적 신학이라 부르고 섭리는 자연적 빛(*Lumen Naturale*) 혹은 상식 (*Seusus Communis*)으로서 작용한다고 믿었다. 비코는 역사과정을 「직행(Corso)」과 「역행(Ricorso)」의 리듬으로 흐르는 주기적인 것으로 이해하므로 종말론적인 관념을 제거해 버렸다. 칸트는 역사과정의 목표를 합리성으로, 합리적 종교에로, 도덕적 신앙에로 향하는 진보라고 주장하므로 기독교 전 역사를 계시종교로부터 이성종교에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는 섭리를 「절대정신」으로 대체시키고, 『역사의 목표는 종말론적인 미래가 아니라 절대정신이 철학적인 사고에서 실현되는 그 역사과정 자체(Totalital)』라고 주장한 헤에겔에 와서 철저해지고 헤에겔 이후 관념론에서, 그리고 특히 카알

탐스의 유물사관에서 기독교의 목적론적 종말론은 완전히 세속화해 버렸다.

4. 현대의 종말론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목적론적인 역사관념의 세속화에 대해 알아왔다. 그 결론으로 볼트만은 『섭리개념은 과학으로 촉진된 진보관념으로 대체되었고 종말론적 위성에 관한 관념은 점점 더 증진하는 인류의 복지에 대한 낙관적인 신앙으로 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낙관적인 진보신앙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파괴할 운명적 사건들이 이미 문앞에 이르렀다』고 갈파했다. 많은 역사철학자들은 낙관적 진보사상을 거부하고 종말론적 역사관을 쫓면서도, 역사의 핵심, 곧 고유한 주체를 인간 자체로 보고 「여기와 지금(hic nunc)」이 우리의 유일한 실재라고 하므로, 결국 역사는 무한한 진보라든가 혹은 그 종말이 있다는가 하는 역사 지식의 최후의 지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성에 관한 것이며, 모든 현재는 종말론적인 현재라 하여 역사와 종말을 동일시했다. 볼트만은 이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면서 더욱 더 현재적 실존적 종말론을 전개해 간다. 볼트만에 의하면 매순간은 하나의 종말론적 순간이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안에서 이 가능성은 실현된다. 기독교적 실존이 하나의 종말론적 비세계적인 실존이며, 동시에 또 하나의 역사적 실존이라고 하는 이 파라독스는 루터의 명제인 *Simul Justus, Simul Peccator*(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와 같은 의미이다. 볼트만은 『보편사 속에서 네 자신을 살피지 말라. 도리어 너는 네 자신의 개인적 역사 속을 들여다 보아라. 항상 네 현재 속에 역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너는 방관자로서의 아니라 너의 책임적인 결단에서만 볼 수 있다. 매 순간 속에 종말론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잠들고 있다. 너는 그것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볼트만의 현재적 실존적 종말론보다는 요사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신학적인 전망인 볼트만의 미래적 종말론은 현대 종말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볼트만의 희망 신학에 의하면 인간과 세계가 종말론적 지평선 내에서 보일 때 그들은 끝나지 않은 것, 시작하는 것,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진 것, 하느님에 의해 계속 열려 있는 진행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약속에 관한 성서적 말씀은 역사 위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이념이 아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를 본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으나 아직 새 존재의 전체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계시는 선교의 말씀(볼트만)이 아니라 미래를 잉태하고 전진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신은 우리 위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달려가신 것이다. 신은 존재(발트)나 실존(볼트만), 우주 혹은 역사(파넬버어그)에서 찾지 않고 신과 그리스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명감에서 만나려고 하여야 한다.

5. 결 론

세계 2차 대전 20년 후인 오늘의 신학은 본체파의 비종교화를 거쳐서 세속화 신학, 다시 세속 이후시대 신학으로 변천을 거듭하고 있다. 신이 그리스도 속에서 이미 죽었기에(알타이저) 신죽음의 신학의 종말론은 과거에 있고, 신이 세속 도시에 계시기에(하비·카스) 세속화신학의 종말론은 미지의 미래보다는 시민적(카스) 가슴에 젖어 있는 현재에 있다(볼트만). 반면에 현대인은 과거의 전통이나 비극적인 현재를 좋아하지 않고 미래를 좋아하며 비판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며 명상적이 아니라 행동적이다. 신학은 순간순간 고통한 결단을 만들어 나아가는 단독자나 예외자 같은 개체실존(볼트만)이나 헤에켈적인 철인(파넬버어그)을 그리며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집단적 사고와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 나아가는 혁명적 인간상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 회망신학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는 단지 부활의 전주곡이 아니고 부활 역시 십자가의 의미는 아니다. 십자가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신 하느님은 약속과 힘』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십자가의 Scandalon(거침)과 신앙의 역리성을 성실하게 다루지 않은 미래에서 본 영광의 신학이요, 과학적 낙관주의에 동조해서 적 문제를 소홀히 본 데서 그의 신학이 새워졌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볼트만은 성서적 종말론을 오늘날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새 의미를 자극하는 힘 있는 박차로서 해석하려고 한다고 밝힌 걸키는 비판하고 있는데 (Theology Today P. 117) 이것은 그가 미래를 말하지만 결국 그는 미래를 잊고 있으며 그 공허를 매꾸려고 그 자신은 십자가의 종말론적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정치적 유폐의아 형식으로 꾸미고 있음을 뜻한다. 그의 복음에 대한 정치적 해석학은 방법론에서

는 성서적이요, 내용면에선 종말론적이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다분히 혁명적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죽음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죽음의 저쪽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상이다. 정신적인 자아는 죽음을 관통해서 생명적인 것으로 보존된다는 것,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을 신학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계의 유한성, 따라서 역사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을 그리스도 신앙은 알고 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전체적인 하느님 나라의 실현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현대 기술과학 시대의 신학

김 득 중 군무



인간의 지적사 파악이 한창 발달하던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과학이 더욱 발달하게 될 20세기 경에 가서는 모든 종교와 신학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 말에 이르러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학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또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드디어 인간으로 하여금 달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른 우주에 이르기까지 결정과 지배의 손길을 떨치며 초인간적, 신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 만세」를 부르며 「영광을 인간 두뇌에로」, 그리고 「찬양을 과학에로」 구가 하면서 그 마음 속으로는 종교와 신학의 조사를 중얼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를 특징지어 주는 우주시대, 기계시대, 컴퓨터시대, 또는 기술과학시대의 도래로 하이텍가가 말했듯이 「기술은 우리 시대의 숙명」이 되고 말았다. 기술문

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우리 이전 시대에 있어서 신께 의지하려던 것을 이제는 과학기술과 기계가 모두 해결해 주고 있다. 오늘날의 인간에게 있어선 기계와 기술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 신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과 기계의 힘에 호소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같이 보인다. 과연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성숙한 시대」 「성인된 세계」가 도래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실상 최고도의 과학을 구사했던 우주국의 과학자들과 우주인들은 광대한 우주와 그 무한한 신비에 머리를 숙이고 더욱 경건한 자세와 신앙적 기도를 보여 주지 않았던가? 그들은 과학이 더욱 발전할수록 더욱 신앙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Pascal의 말처럼 인간은 인간이지 신도 동물도 아니기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종교와 신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실제로 인류역사상 종교를 결여한 시대와 민족이 과연 있었던가? 그렇게 종교란 것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Essentially) 보편적으로(Universally) 그리고 불가피하게(Incurably)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날과 같이 최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인간의 신앙과 찬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 종교는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고 신학은 어떤 모습으로 이 급변하는 기술과학시대 앞에 자신을 태부시켜야 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일반 사회의 사상조류를 한전으로는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행적 흐름에 아주 민감하여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대로 기독교 선교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신학은 이 원리에 따라 그 형태와 강조점을 달리해왔다. 그리고 20C에 들어와서는 볼트만(R. Bultmann)에 의해 비신화화신학이 대두하여 원시적 세계관에 의해 기록된 성서를 그 안에 포함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 그것을 재해석하여 현대의 세계관 및 과학사상으로 구성된 새 시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나타내 전파하려고 했고 또 본히퍼(Bonhoffer)에 의한 계속화신학이 나와 기독교복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

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 로빈슨(Robinson) 감독의 「Honest to God」 이후에 대두된 알타이저, 해밀턴, 바하니안, 등 급진파 신학자들에 의한 「신 죽음의 신학」은 아예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날의 과학사상과 현대의 문화사조에 적합한 새로운 신개념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Barth, Bultmann, Ebeling)으로부터 역사의 신학(Gogarten, Pannenberg, Moltmann)으로 혁명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요즈음의 구미신학은 한결같이 미래 또는 변화란 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을 무의 한계상황이란 절망에 가두어 두는 실존주의 철학을 넘어서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의 소망을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중세 기까지의 신학이 우주론에 기초한 객관적 교리적 신학이었다고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이 인격적 실존에 근거한 초월적 주체적 신학이었다면 최근의 신학은 역사에 근거하여 내일에 소망을 두는 미래의 신학, 소망의 신학으로 변화되고 있다. 놀라운 변화가 예측되는 미래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의 도가 커지는 것과 함께 미래학(Futurology)이 학문의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신학의 분야에서 이같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주요 인물은 베야르 샤프맹과 언스트 블로호로 알려져 있다. 자꾸 세속화 되어 가는 기술문명의 세대와 적극적인 대화의 길을 모색하려 했던 하비 루스도 「세속도시」란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신학의 주변에서 두 분의 안내자가 보여 주는 지도의 손길을 따르고 있다. 그 두 분이란 샤프맹과 블로호이다. 두 사람의 사상에 차이가 있기는 해도 양자가 모두 미래가 현재에 끼치는 힘인란 견지에서 초월을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가 인간존재의 환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몰트만(Moltmann)과 판넨버그(Pannenberg)도 블로호의 소망의 원리에서 미래와 소망의 존재론을 배우고 있으며 복음을 계시관념에 관련시켜 말씀의, 신학(Barth)이니 케리그마 신학(Bultmann)이니 하고 전개시키는데 반대하고 약속(Evangelia)과 관련시켜 소망의 신학, 출애굽의 신학으로 전개시키려 한다. 꼭 기독교 신학의 전체를 하느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의 소망에서 재해석하려고 한다. 저들이 믿는 하느님은 과거나 현재의 하느님이 아니라 미래의 신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신학은 미래를 어떻게 내다 보고 있는가? 먼저 베야르 샤프맹의 미

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그의 종말론을 살펴 보자.

메야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지금까지의 진화의 발전과정을 미래로 계속 연장시켜 본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 비전은 지금까지의 진화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형이상학적 관념이나 상상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중 첫째는 일심화의 정점에 대한 비전이다. 즉 인류의 집합화에 대한 비전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대세계엔 여기저기에 작은 수렵집단이 있었다가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선 비옥한 지역에 입주한 농경집단이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에로 뻗어나갈 확장력을 거르게 되었으며 그 다음 단계엔 대륙의 대부분을 덮는 몇 개의 초기 문명권이 등장하여 실제적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엔 그 집단이 점점 확대되고 서로 분리 흡수 과정을 겪는 중에 전보다 더 큰 집단을 이루어 나왔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불가항력적으로 합체되어가는 이 뚜렷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대진영이란 두 개의 커다란 집단도 결국은 하나로 합체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 진화과정을 통해 본 그의 예견이며 확신이다. 그렇게 미래는 범유기체의 세계로 깨어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인간 특화의 임계점과 출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동물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지질학적인 시간의 경과 속에서 출현과 소멸을 거듭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생존경쟁에서 패배했는지 아니면 그런 신비한 노쇠인지 여하간 그 종식과 종말은 분명히 있어 왔다. 그것은 시대의 힘이 없다는 증거다. 그런데 인간도 소멸의 씨를 자기 존재 안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종식과 소멸에 대한 방비책을 시공간적 해결에서 찾아보려는 견해도 있었다. 즉 인간은 그 지성을 활용해서 경쟁을 피하고 노쇠를 막아서 생존의 기간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야르는 종의 소멸을 이같이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통해 막아 보려는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차원의 탈출로서 종의 소멸과 종식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즉 다른 종에 속한 동물들은 확산을 통해 수천 종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인간만은 자기 집합과 집합(Convergence)으로 인해 오직 하나의 종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운

동과 모습은 어떤 특이한 결합, 곧 인간의 생장과 불가역진성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정신적 탈출로서 종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종말은 초인간의 종식이 아니라 그 초인간이 사물의 구구적인 품 안에서 정신적 탈출에 의해 일종의 초인류어로 즉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종말(미배)에 대한 그의 비전이다. 이같은 페야르 샤르댕의 우주진화론적 미래학과 블로호의 「소망의 원리」에 토대한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 등은 확실히 가공할 정도로 마구 발달하고 있는 기술과학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함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생겨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진화를 토대로 우주적 집중 혹은 수렴(Convergence)과 정신적 탈출에 의한 초인류의 즉위를 믿는 페야르의 미래학과 소망의 닻줄을 미래에 던진 채 하느님 나라와 같은 그 무엇을 대망하는 언스트 블로호에서 과학기술시대의 종교가 갖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막연히나마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과학기술시대 신학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는 과학과 종교의 일치문제이다. 그 양자의 일치는 우주적 수렴을 믿는 페야르의 신앙이기도 하다.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페야르 사상의 두 중심은 우주진화과정의 종극점인 오메가 포인트와 우주적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성의 오메가와 계시의 그리스도, 즉 이성과 계시, 과학과 종교이다. 그런데 샤르댕은 우주적 진화의 미래에 있을 우주적 수렴에서 그 양자가 일치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둘이 일치된 것을 그는 오메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현대 기술 신학이 과학과 종교의 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큰 과제인 것이다. 둘째로는 기독교 복음을 새로운 사상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제이다. 몰트만 식으로 과학이전의, 기술이전의 세계관과 사상으로 제시된 기독교 복음을 새로운 기술과학 시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재해석 재표현하여 선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새로운 인간론의 수립과 거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확립이다. 쾰히비 록스의 강연문 중에는 『기술과학은 많은 난제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변모시켰다. 생활양식, 사고방식, 생산양식 등등, 그리고 온갖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러져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과학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것

을 조종하는 인간이 무엇을 감행할지 모른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나? 이것은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진한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사회와 세계를 뒤바꾸어 놓는다고 하여도 역시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인간이 기계가 될 수 없는 일이고 기계의 주체, 그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다. 더구나 기계자체는 스스로 아무 문제도 해결 못 하고 다만 인간에게 문제해결의 수단을 제공할 뿐이므로 여기에 기계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책임성이 문제되게 되는 것이며 또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더구나 인간이 기계의 노예화되어 인간다운 존엄성을 찾지 못하게 되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학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술혁명이 오매가가 되어선 안 된다. 최후의 것, 그것은 결국 인간혁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윤리학의 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시대 신학의 당면 과제는 미래학에 근거한 새로운 종말론의 수립이다. 미래학의 대두와 함께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의 끝에 달리는 부류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와 종말론이며 소망이라는 이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준 미래에의 소망으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성경의 신, 특히 구약의 하느님은 출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예언과 약속으로 알려진 「소망의 신」(롬 15: 15)이며 블로호의 말대로는 “장래를 그 존재양태로 가진 신”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은 그 장래의 목적에서 수출받아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종말론은 신학의 종장이 아니라 그 서장이어야 된다. 종말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와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줄 미래의 변화가 어떤 연관성을 띠게 될 것인가? 즉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의 세계와 기독교 신학이 소망하고 대망하는 장래의 세계는 어떻게 합치될 것인가? 기독교 신학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새롭게 이해, 그리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신학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오늘날 과학기술시대 신학의 형태와 특성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과학과 종교

이 희 명

<서강대학 교수>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하면 일반적인 견해는 두 가지가 모순된다는 편이 많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과학이 제자리에 서게 될 16세기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문제의 완전한 답변은 단 시일 내에 내려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인류가 우주 탐험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이 마당에서 한 과학자로서 제한된 종교적 지식의 바탕과 현재 알려진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과학과 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과학의 제 1 원칙과 신의 존재

모든 자연과학을 통하여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원칙이라 하면 아마 어느 과학자든지 서슴치 않고 「인과율」(The Law of Cause and Effect)을 들을 것이다. 이 법칙은 쉽게 말해서 「모든 자연현상의 결과에는 그를 가져온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수소분자 2개와 산소분자 하나를 적당한 조건에서 결합시키면 반드시 물 한분자가 생겨나며, 또한 물 한 분자가 있으면 이것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결합하였다는 원인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에서는 적당한 조건하에서 H_2 와 O 를 결합하면 H_2O (물)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며 또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만일 과학에서 이 제 1원칙을 부정한다며는 과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을 볼 때에 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가져 오게끔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제 1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과학에서는 이 제 1원인을 캐내

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제 1 원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종교에서는 이를 신이라 할 뿐이요,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이 제 1 원인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제 1 원칙과 종교에서의 신의 존재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진화론과 종교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은 이미 다루어 졌으나 다음에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볼까 한다. 이들 문제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며 또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것은 생물의 진화론과 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관계일 것이다.

1858년에 「다윈」과 「월레스」가 자연도태에 의한 생물의 진화론을 제창한 이래 오늘날까지 진화론 자체에 관한, 그리고 진화론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무수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는 모두 진화론에 대한 정확성을 잃은 오해와 일부 종교인들의 좁은 견해 때문에 빚어낸 것이자 진화론과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현재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물은 과거에 살고 있었던 생물에서 변화하여 생겼다」는 것이다. 즉 과거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중의 일부는 멸종하여 현재 살아 남아 있지 않고, 또한 일부의 생물은 변종하여서 새로운 종의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물론 한 학설이지만 현재에도 이를 대치할만한 더 나은 학설이 없을 뿐더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증거들이 이 학설을 뒷받침하였거 이 학설을 부정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현재 생물학자 간에는 거의 예외없이 진화론을 사실로써 받아들일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도태제 생물의 진화론과 종교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다음의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즉 생물의 기원과 사람의 진화와 이에 관한 성서의 구절일 것이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볼 때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에서 생겨

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최초의 생물은 미생물체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생물의 발생은 수십억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지구상의 현 조건 아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태고의 지구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최초의 생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생물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여러 원시적인 생물들은 자연 도태를 거쳐서 그 중에서 그 때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들만이 살아 남았을 것이다.

생물이란 본질적으로 자체와 동일한 자손을 생식하는 것이지만 생식 과정에 있어서 때때로 사고를 일으켜서 후손이 조상과 미소한 변이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유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의 후손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천만년 동안을 거쳐서 생물들은 후손에게 미소한 변이를 계속 전하게 되며 이들 변이는 누적되는 것이다.

그 결과 변종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신종이 생기는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이와 같은 진화의 결과 남아 있는 것들이다.

한편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사람도 틀림없는 생물이다. 따라서 사람도 위에서 말한 진화과정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어느 생물이나 마찬가지로 차차 진화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즉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종류의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된 것이다. 이와같은 생물의 기원이나 진화과정은 단순한 이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밑을만한 실험적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생물의 기원과 진화론과 종교와의 소위 부합되지 않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서의 창세기 제1장에는 세상의 만물이 신의 말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이 창조 작업이 7일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간의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성서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 들여야만 한다는 일부 종교가들에게는 이와같은 성서의 가르침과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된 생물의 기원 그리고 그 후에 따른 진화과정 간의 모순이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

정하기까지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주로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신은 계시와 정의에 의하여 전지전능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의하여서 아무런 전능한 신이저만 자신의 본성인 전의성 때문에 정당한 것을 어길 수는 없다.

또한 성서는 신의 계시에 따라 사람을 통하여 옮겨진 신의 말씀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의 말이니 이는 틀림없는 절대적인 진리이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잊기 쉬운 점은 신은 사람에게 신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서의 의미에는 신의 진리가 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사람에게 알릴 주교자 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은 전지전능하므로 성서를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할 때에 21세기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하였다면 성서가 저술된 그 당시 사람들이 어찌 신이 전하고자 하는 진의를 알아 들을 리가 있었는가? 따라서 신은 성서가 저술된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엮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구절중 그 당시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현상의 묘사가 20세기인 오늘의 그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서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성서를 개별적인 임의의 해석을 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마치 과학적 현상이나 사실을 아무라도 마음대로 개별적 해석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전문적이며 권위있는 과학자에 의해야 하듯이 성서의 해석도 전문가이며 권위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정식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 두어야 한다.

생물의 기원이나 진화 등의 과학적 사실에 대하여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론내린 판단을 내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또한 금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로서는 사람의 영신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요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로서는 과학이든 종교이든 진리를 밝히는데 있어서 같은 현상에 대한 진리라면 단 하나이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된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하나의 진리를 두고 과학과 종교에서 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그 진리를 사람인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지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교에 관한 이해가 과학의 발달로서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종교에서 제시된 바가 그 후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도 허다하다.

생물의 기원과 기독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물의 물질적 구성 성분을 보면 결국은 미생물의 그것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다만 물질들이 어떻게 체제화 하여서 생명을 지니게 되었는가에 있을 뿐이다.

성서의 창세기 장에는 「신이 우주를 창조한 후에 이를 보니 그들은 훌륭하더라」라는 구절이 있는 데 이 구절의 내포된 뜻과 신의 전의성에 따르면 물질이 진화하여 원시적인 생물이 생기고 이 생물은 신이 마련한 자연법칙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물의 진화는 바로 신이 의도한바 그대로의 자연법칙에 따랐을 뿐이지 그 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생물의 진화와 종교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다음에 사람의 진화 문제는 어떠한가? 사람의 경우도 다른 생물과 같이 고등 동물에서 진화하였을 것이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원숭이류에서 변하여 생겼다는 것은 진화적 근거가 희박하고 사람과 지금의 원숭이류가 먼 옛날에 같은 조상 동물에서 갈라져 한편으로는 원숭이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진화하였다는 증거가 더 많다. 따라서 원숭이류는 사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으며 생물학적 그리고 진화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사람과 같은 진화의 결과이므로 오히려 사람의 생물학적 「형제」라고는 볼 수 있어도 조상이 될 수는 없다. 생물학적인 형제지간 관계는 비록 원숭이류 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 심지어 아메바나 박테리아까지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같은 진화의 결과인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진화에 대한 교회의 정식적인 입장은 다른 과학적인 문제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신의 의도는 사람을 포함한 생물도 신이 마련한 자연법칙에 따라 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시작은 아마 매우 고도로 발달한 동물에게 영혼을 주입시킴으로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도 그의 전의성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람의 진화와 종교 간에도 아무 모순이 없는 것이다.

우주개발과 종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계기로 하여 사람은 드디어 오랫동안의 숙원을 이루는 첫 단계로 돌입하였다. 아폴로 계획의 성공이야말로 과학의 발달의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어서 안 될 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것 같으면서도 과학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의 발달도는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점차로 더 많이 개발될 것이요 사람이 머지 않은 장래에 월세계 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혹성에도 착륙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태양계외의 세계도 개척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사실의 발전이 종교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을 가져 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과학자들과 종교가들은 다같이 우주개발로 인하여 종교에 도움이 될 망정 절대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우주개발은 또하나의 신이 마련한 자연법칙을 따르는 자연현상을 밝히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자를 구성하는 여러 미립자들의 신비스러운 정도의 운동과 작용이거나 가장 원시적인 단일 세포생물의 작용이든가, 심지어는 세포내의 미소한 구조체 내에서의 에너지 대사작용 같은 것을 과학자들이 캐내면 낼수록 알 수 있는 사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연법칙의 힘이다. 그러므로 놀랄 정도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의 결과 신의 존재를 과학 속에서 발견하고 종교가가 되고 있다.

우주개발과 더불어 지구위의 세계에서 생물이나 심지어는 사람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놀랄 필요가 없으며 과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외계에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신의 자연법칙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상 몇 가지 점을 검토하여 봄으로써도 과학과 종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서로 상충되고 또한 상호적이며 전혀 모순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현대 심리전



정 성 환

제 1부 심리전의 의의

가. 심리전의 선례

심리전은 전쟁이전 전쟁중 그리고 전쟁 후를 막론하고 전개되며 상대방 심리전 담당자에 대하여만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어떤 전쟁법칙이나 관례 혹은 관습에 따르는 것도 아니며, 어떤 지형이나 전투배치 또는 유명한 전역 등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즉 심리전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이다. 심리전의 성패는 작전 실시 후 수 개월이나 수 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진다. 더우기 성공했을 경우 그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것이다. 실패했을 경우는 말 할 수 없이 치명적이다. 심리전은 바로 모든 전쟁의 제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학상의 정확성과 명확성은 조적적이며 합법적인 폭력행사라는 극히 명확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쟁개시나 종결국 승인, 적

국 결정, 평화선언 등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문제로서 군인의 책임권 외에 있는 것이다.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는 힘의 행사에 있어서도 군인은 고차원(즉 정치적 차원)의 권한에 의해 군사활동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합법적이며 정당한 명령에 따라 적이 한정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전진할 따름이다. 그러나 심리전 분야만은 그렇지 않다.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끝없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전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 수단과 성격으로 보아 전쟁개시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심리전은 또한 표면적인 적대행위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된다. 때때로 적은 심리전에 있어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며 대부분 위장하고 있다. 공격하는 경우 심리전 담당자는 적국의 정취자이면서도 결코 회답을 주지 않는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또한 명백한 유일의 적인 적의 심리전

담당자와 싸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의 심리전 담당자는 공격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성공, 실패 다같이 측정 가능한 요소는 아니다. 심리전술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몽마(夢魔)와 종이 한 장 사이에서 기획된다.

심리전을 적용한 바 있는 가장 초기(기원전 1245년으로 추산)의 사해로써 「미디어나이트」 인과의 대전에 있어서의 「기메온」의 초룡과 물주격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서 사사기 제 7장에 「미디어나이트」인들은 「기메온」보다 훨씬 우세했으며, 일족축발의 대세였다. 이에 대하여 봉상의 전술로써는 무력하다는 것을 안 「기메온」은 현대적인 보통 안전제일의 작전보다는 2차의 영감에 따른 그 시대의 기술과 군사적 형식을 고려해 놓았다. 그는 300명의 정예를 이끌고 적군을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뜨릴 묘안을 안출하였다. 당시 그의 전술에 의하면 그는 100명을 일단으로 한 부대마다 한 사람의 초룡잡이와 한 사람의 꿩잡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꿩 불과 나팔을 쥐게 하여 그는 3만명의 효과를 창조해 낸 것이다. 초룡은 현대의 그것과 달라 「스위치」 하나로 켜다 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주격을 이용하여

이를 감추고 밝히고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기메온」은 군대를 밤중에 적진 주위에 적당히 배치해 놓은 다음 스스로 진두에 서서 물발적으로 일제히 물주격을 땅에 놓고 나팔을 하늘 높이 불어 냈다.

「미디어나이트」인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해부라이」사가들은 어리석게도 이 공격을 신에게 물리고 있다. 「미디어나이트」인들은 이 싸움을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며, 「이스라엘」인들은 「미디어나이트」인들을 추격하였다. 이 싸움으로써 「미디어나이트」인들의 문제는 낙착되었으며 그후 「기메온」은 「미디어나이트」인들을 전멸시켰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심리전 즉, 기발한 도구를 갖고 적진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작극 고대사에 공통의 사실로 되어 있다.

과거의 심리전으로써 가장 유효하였으며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최대의 정복자 징기스칸은 완전히 수적인 중앙으로 세계를 압도한 난폭한 「다달」의 우수한 기병부대를 갖고 몽고 정복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은 내몽고의 부족들이 몽고 주변의 인구 조밀한 지역들을 힘만을 갖고 압도할

★ 현대 심리전 ★

수 있는 충분한 인구를 생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기스칸」 제국은 대단한 창의, 고도로 기동화된 힘의 사용, 정보의 완벽한 활용, 전세계의 반에까지 미치는 전략적 조정, 모든 형식을 갖춘 선전 실시의 기조를 확립한 것이다. 몽고인은 중국에서 송조와 싸웠으며, 또한 신성 「로마」제국과는 「프러시아」에서 4,000마일이나 상호 떨어져서 싸웠는데 당시 몽고세력 앞에는 누구도 적대자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몽고인은 작전을 계획하는데 적자를 활용하는 외에 막대한 수의 위력 또한 군대의 난폭성에 관한 이야기를 확대선전하기 위한 소문이나 기타 모든 수단을 활용하였다. 몽고인은 적이 공포를 느끼기만 하던 적이 무엇을 생각하던 간에 이를 고려치 않았다. 구라파인들은 몽고의 침자들이 카로상에서 이와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몽고군대는 경쾌하며 통격적인 군대라고 생각하였으며, 사실 수적으로 열세한 기병을 「무수한 부대」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 구라파인들은 몽고인들이 7세기 이전에 그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군대의 경쾌함과 참모부의 냉정한 정보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스칸은 적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

게 하는 수단으로 적의 침자까지 활용하였던 것이다. 간첩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군대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와같이 몽고인들은, 전략적 및 전술적 선전에 있어서는 우수했다고 하지만 결코 선무선전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피정복민족을 자국민으로서 대치한 중국인이나, 피정복민족을 전향시킨 바 있는 「모하메트」족과는 달리 몽고인은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면서 수 세대 동안 친화를 저배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계는 밀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소멸되고 말았다.

나. 심리전의 의의

심리전은 군사력을 기대 않고 군사적 승리를 획득하려는 노력이다. 어떤 시대에는 심리전의 활용은 스포츠맨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노련한 군인이 말보다도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제 1차 대전에는 「루덴돌프」 자신이 연합군의 최대의 공적으로 간주한 무기, 즉 선전을 검토하는 것을 주저하는 인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도 제 2차 대전은 다수의 미국 육·해군 사관들을 심리전 분야에서 일하게끔 하였다. 가장 탁월한 업적의 하나

는 전연 민간인의 원조와 아이디어는 받지 않고 수행되었다(가달카나도에 있던 「바텐」대위는 직접 전단이나 강연 원고를 써서 차용한 해병대의 비행기를 통해서 직접 살포하다가 격추되었다).

심리전은 사전에 『심리전이란?』하는 정의는 없다.

정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심리전 또는 군사적 선전을 정의하는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일정한 정세, 저서, 회화 또는 연구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결정한다.

② 특징업무에 관련된 책임 또는 권위를 결정한다.

③ 지정된 수단을 가지고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서술한다.

제 ①의 정의 방법은 조사에 목적을 만족시켰다.

그것은 정치, 군사적 정세를 용이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제 ②의 방법 즉, 기구적 방법은 그것으로 정의를 둘 수 있을만한 기구가 존재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전이란 미국의 전시정보국(O.W.I.) 또는 전략정보국(O.S.S.)이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경우이다.

제 ③의 방법 즉 기능적 내지 역사적 방법은 행동이 일어난 후에 정세를 평가하는 데 유효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독일인이 선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행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모든 선전의 제 1과제가 합리적인 불신(不信)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선전에 관한 선전을 믿는다는 것은 슬프고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모든 군대 안에서도 정부 내의 「선전가」는 자신에 유리한 결론을 전개하는 전문가이며 만일 그들이 자신의 업적에 관하여 근사한 설명을 붙일 수 없다면 사실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선전」이란 군사적이건,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간에 어떤 특정한 공공목적 을 위하여 특정집단의 정신이나 감정을 좌우하도록 꾸며진 모든 형식의 공공연한 대량적 전달의 계획적 사용이다.

이 정의는 대부분의 대학교재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선전의 상식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목적 을 위해서는 정의를 한 방향에 한정하여 이것을 엄격하게 적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군사선전이란 특정의 전략적 또는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 특정의 적성(敵性)

중립 또는 우호적인 외국 집단의 정신 또는 감정을 좌우하도록 꾸며진 모든 형식을 전달하는 계획적 사용이다.

전달이 계획적이 아닌 경우에는 선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 선전은 일정한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요소로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전은 다음 정의와 같이 단거 선전을 전쟁 목적에의 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전은 적대선전과 선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질 및 기타 실시 조치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볼 때 심리전은 제 2차 대전중 미·영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통합참모본부 주최하에 극히 성공리에 실시된 기적의 작전이다. 각 중요전장에서 여러 종의 「심리전 부대」를 창설하고, 또 미국 군부가 「심리전」의 이론을 흡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였다.

제 2 부 심리전을 위한 조직

커다란 일에는 커다란 조직을 필요로

한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휘하에 있던 저중해 및 구라파 전선에 무려 8십억 배란 엄청난 전단이 살포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일인당 4백씩 가진 셈이다.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단, 탄화, 팜플렛, 신문, 포스타, 서적, 잡지 등을 인쇄했다.

흑색선전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허구성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연방수사국(F.B.I.)은 친년이 걸려도 이것들을 조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종류의 영화가 전 세계에 퍼졌다. 라디오는 여러가지 파장, 언어, 신호 등으로서 방송되었다. 확장기, 특산물, 파자, 성냥 나이론 양말, 입 안에 감출 수 있는 권총, 재봉실, 소금, 레코드, 어린이용 그림책 등은 전세계적으로 흘러 나왔다.

이와같은 많은 노력은 대부분의 결과적으로 헛된 낭비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이 미친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미국군에 현지 각 사령관들은 사상전술 사용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한 편이 많았으며 이와 똑같이 각국 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를 사용함과 함께 각양각

중의 사적 단체들도 사상전술을 사용하였다.

아이젠하워 장군도 구주전쟁의 종말에 가서는 사상전술은 전쟁에 있어서 특이하고 더우기 효과적인 무기로 발전되었다고 논술했다.

사상전술을 조직과 실시(Operation)라고 하기보다는 문제(Problem)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군, 해군, 외교, 신문, 오락, 계몽, 경찰력, 간첩, 산업, 교육 및 저하운동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있었으며 어떠한 정부도 이와같은 새로운 할과 미지의 방법을 기존 정부기구에 밀착시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며 작구의 해결방법 등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가. 국가선전기구

국가적 수준에 있어서 심리전을 위한 기구는 정부기구의 일부인 것이다.

미국도 국가를 초월하는 심리전 기구는 설치할 수가 없었다.

국제기구에 가장 가까운 기구로서는 합동참모본부 휘하의 미·영 통합기구와 전쟁 후기에 있어서 소련의 점령지역에 놀랄 정도로 모스크바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한 신비적인 힘을 가진 기구 등이다.

각 정부기관과 그 정보 기능의 소재

설명을 정치학 교과서 작성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제도가 각자 어떻게 기능을 발휘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정객상 공통의 기억을 가진 정부 간에 있어서도 긴급하게 이루어진 전시기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동일 정부 내에서는 제 1차 대전 당시의 관례를 그대로 제 2차 대전 중에 계속된 예는 없었다. 여기서 미국의 심리작전을 약간 설명한다는 것은 주로 복잡하고 혼돈한 기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간단한 임무가 여하히 수행되는가를 예시하는 수단으로서 적당할 뿐이다.

나. 미국의 심리전 기구

미국 육군은 G-2산하에 심리작전반을 설치했으나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실제 정치와 사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진체로써는 상속된 루즈벨트 정권에 의해서 위대한 행정 역량을 갖고 활동하였지만 동시에 구헌법적 기관은 신생 기관에 양보, 대치되고 말았다. 만일 백악관에 행정에 관한 한 사람의 순수주의자와 진통주의자가 있었다면 심리전 기구는 논리적 귀결로써 당연히 창설되어 후에 창설된 국무성과 육·해군

성 합동위원회(S.W.N.C.E.)에 필적(匹敵)되었을 것이다.

순 이론적 견지에서는 정책결정(백악관 의회), 외교정책 결정(국무성), 전략적 선전(국무, 육·해군성)을 단일 행정기관에 통합하는 것이 긴급한 조치와 응급의 기밀보지책 및 응급에 대처하는 직원을 갖고 있는 신생 연방기관을 창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책(健全策)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무, 육·해군의 각 성은 임무는 파다한데다가 직원은 파소했다(전쟁 초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간부들은 심리전에 대하여 색안경으로 보았으며, 선전이란 부질 없는 일인데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태의연한 제 기관들은 시급한 통제수립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후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대신에 기존시설이나 기관을 가능한 한 사용하는 것이 안정, 기술, 사기 등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치기구 특히 선전과 같은 문제성 분야 기관에 공통한 기구적인 마찰을 적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전 기관」은 기구 조직상 국무, 육, 해군성 또는 긴급관리국 등의 어느 쪽 산하에 두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결한 조건은 국무성의 사

람을 외교 정책관계 임무에 육군성의 사람을 육군의 업무에, 해군성의 사람은 해군의 업무에 종사케 하여 건강을 구족한 다음 신규 모집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래의 성중 하나가 심리관계 업무를 수행했다라면 기구 개혁이나 분쟁, 음모, 권한쟁취, 내분, 전시정보국(O.W.I.)이나 그 자매기관의 특색인 연방기관과의 충돌의 도수를 낮추었을지도 모른다.

국무성과 육해군성과의 관계는 상호 빈틈이 없거만 가끔 상호 간에는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전쟁 중 최대의 실책이었던 자카라이아스 방송 등도 운영단계에 이르러서나 국무성에 연락하는 형편이었다. 전략국(O.S.S.)과 기타 기관과의 관계는 부정적이었으며 이상과 불규칙의 비밀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전시정보국(O.W.I.)은 때마침 국무, 육·해군성에 연락은 했지만 대개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대통령은 때때로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관계자료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도의 중요성을 띤 심리전을 즉흥적으로 하는 버릇이 있었다. 백악관 직원들은 때로는 보통의 순서를 밟았지만 때로는 그렇지도 않았다. 인플레이정책에 관해 자문으로 있었던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동시에

아시아 대륙에 대한 심리전에까지 손을 대는 꼴이었다.

재무장관은 공언하게 독일처리에 관한 그 자신의 희망을 나치스 방송이 당연히 그 국민에게 방송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의논했다.

O.W.I. 자체에 있어서도 전시 중 대개의 해외활동은 국내활동에서부터, 방송자는 기획자로부터, 전위기관은 기타 모든 기관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임무는 수행되었다.

O.W.I.의 정식기구(제 1, 2 표 참조)에 귀일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기구를 정비해 왔었다 모든 정부기구의 혼란을 초월할 이유가 못된다. 요는 당사자 자신들이 심중할구 양심적으로 일하고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데 귀착한다. 이들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공약수는 엄연한 대통령령의 권한도, 민주당의 기술도, 또는 때때로 변하는 권한의 존재도 아니고 실로 미국문명 그것인 것이다. 미국이 분열되어 있다면 이 혼란의 정부기구는 끝내 혼미의 계속으로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 간에는 광범한 협동정신과 협력의식이 있었으며 또한 선의와 침착성을 갖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독일이나 소련 또

는 일본의 관료 속에 있었다면 미국의 진시에 있어서의 미로와 흡사한 복잡한 연방제도 가운데서 구도의 혼미로써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중국인 같으면 아마 태연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허한 칭호나 경어를 좀 더 사용하는 정도로 끝났을런지도 모른다.

미국의 정부기관과 적국의 정부기관과의 차이는 우리들이 행정조직법이 편리하면 이를 사용하며 또한 불리하면 우회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표에는 명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써 연락의 말을 보내며 자료가 교환되고 조정이 되었다. 그것은 장점도 단점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인들만이 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인은 사후의 연구를 극히 비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정식기록이나 표로서 심리전국에서의 정부활동의 실제상을 전하는 것은 별로 없다.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연구와 기획을 위해서 제 2차 대전 중의 기구를 연구한다는 것은 각 개인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까지 파내지 않는 한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형식적인 기관정도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며, 그것은 실제적인 통제와 활동을 모르는 한 극히 오해되기 쉬운 것이다.

어떻게 메사가 외관상으로그 아니고

★ 현대 심리전 ★

현실적으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예는 열거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냉정하고 공정한 견해를 뽑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의 자서전이나 회상록의 집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같은 포괄적인 보류조건을 유의하여 O.W.I. 내부의 기구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국내 환동반」은 간단히 손낼 정도로써 끝난다. 그것은 의원들의 깊은 적이 되고 그 기능은 전쟁노력을 지원하는 일반정보의 대내용 시설에 자극을 준다든지 이를 원조한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국내환동반은 타정부제공기관(국무, 농무, 재무, 육군성, 기타)으로서 대치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연히 민간인 손에 남아 있는 통상의 뉴우스 및 정보 조직에 대한 정부의 보충활동의 형식이며 다시 전시중의 보충이라고 하는 형식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선전과 해외선전간의 주밀한 조정이 되지 않게 되고 적국에 앞서 국내선전을 전쟁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 희망은 꿈이 되고 말았다.

「해외환동반」은 두 가지 기본적 사명을 갖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자유 또는 국가가 임대하고 있는 전세계를 향한 단파방송의 실시 및 통제기관이었다. 현실의 대외적 목적에서 말한다면 심리전기관은 육·해군의 현지기구와 「O.W.I.

전위기관」의 후위였다. 이 「전위기관」은 어느 목적에서는 O.W.I. 산하에 있으며 기타 다른 목적에서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미국공관장(대사, 공사, 대리공사)의 관할 하에 있으며 또 다시 어느 목적에서는 그 지방관후권을 갖고 있는 미군사령관의 휘하에 있었다. 예를 들면 뉴델리 주재 O.W.I.는 인도 주재 미국 고등변무관 사무국 산하에, 또한 인도, 버마, 중국 방면 미군방위사령부 산하에 또한 인쇄물 위원, 신문 공급에 있어서는 뉴욕 주재 O.W.I. 무전뉴우스 공급에 있어서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O.W.I. 산하에, 일반정책, 임용, 면직,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와싱턴 주재 O.W.I.의 관할 하에 있었다.

O.W.I. 자체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방송에 대해서 말하자면 O.W.I.는 와싱턴에 있어서 기획과 통제를 준비하고 이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중계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각 도시의 설비는 해당 자료들을 해외로 향해서 발신하였다. 전쟁개시 후 3년 간은 와싱턴으로부터의 통제는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정확했는 것은 불명이며 실시에 대한 감시는 두통거리였으며 기획과 실시의 조정은 일부 미결상태 그대로였다.

1945년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는 O.W.I.는 이들 문제의 대반을 주로 제1,

제2, 제3 지역의 주 임관을 실시부에 교체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인적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주재 O.W.I. 주임 오웬·데디모어씨, 와싱턴 주재 극동주임 조지·페이러씨, 중경 주재 중국전위대 주임 F.M. 윗사씨—모두가 중국풍) 연락조정은 곤란할지 모르나 서로 화를 입는 일은 결코 없었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타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전위대 연락실에 배포하였지만 그것은 전위대로서는 정보의 시어스·로백 카탈로그의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 자료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O.W.I.는 급속도로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을 살려 전위대로부터 외국의 정취자에 전달되는 자료는 곧바로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달하였다.

기타 국가적 수준의 심리전 기관으로서 전문적으로 중남미와 카리브연안 제국에 성전을 담당한 C.I.A. (범미 조정관—후에 범미국 및 통합참모본부에 첩보와 정책관계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해외에 있어서 방면군 당국 산하에서 활동한 분전대의 본부가 된 O.S.S. (전략국)가 있었다. 미국을 근거로한 지하운동은 일반 국민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확정적인 정책실시의 구체면이나 일상활동의 모든 면을 말하자면 국가적

기관을 전술한 두 가지 기능 즉 전세계를 향한 단파방송과 자료의 공급 이치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선택은 전장 또는 전위대에 있어서 와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 특정문제에 대해서 수뇌회담 후 결정할 것을 두 번 중에 한번은 모르고 행해졌다(저자가 중국에 있을 당시 중국주재 O.W.I. 전위대는 주간의 선전훈령, 암호 전보를 번역하였지만 언제나 마치 묵은 것이었다. 그와같은 훈령은 거기에서는 첩(緘)역할 밖에 되지 않았다). 전장에서 심리작전은 좋아하는 방법과 좋아하는 시기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구주 파견군과 와싱턴 간에는 긴급한 정치적, 군사적 조정은 가능하였지만 워싱턴과 기타 지역간의 조정은 불가능하였다.

심리전의 기획과 통제에 대한 육군성의 참가는 1945년 당시의 정세를 표시한 제 7표에 명시된다. 참모기관으로서 G-2에 배속되었지만 실시기관으로서 「군사정보부」에는 배속되지 않았던 「선전반」이 육군성의 심리전 기능을 실시하였다. 선전반장은 그 해군동료와 함께 O.W.I.의 회의에 있어 통합참모본부를 대표하고 심리전 관계사항에 있어 현지에 대한 정식의 전달을 장악하여 자기반 자체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적대행위의 종식과 함께 그것이 법률

적인 전쟁 종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O.S.S.와 O.W.I.는 다같이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1945년 6월 20일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서는 해체되어 학자들을 해체하고 다시 국부성에 집결되었으며, 그곳에서 아마 새로 창설된 「중앙첩보부(C.I.G.)」를 위한 자료 분석을 도우는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시면에 관계된 사람들은 육군성으로 돌아갔다. 또한 저자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대령은 폭발하거나, 라디오 통신을 하거나, 불가결의 백목집으로 사용되는 책상 실험에 잔류 들은 판넨뿐이나, 먹을 수 있는 잉크저우개, 실체는 수류탄 및 위장 전화기, 조립 가능한 스쿠타인 타이프라이터를 갖고 자취를 감추고 있을런저 모른다. 이와같은 공상은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흑색선전시대는 끝났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된다면 모든 것이 O.S.S.마저도 열등하게 되고 말것이다.

O.W.I.는 이보다 훨씬 후에 기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임시 국제정보부」라는 이름 밑에서 하나의 실시단 위로서 국부성에 이관되어 신 국부차관보 윌리엄·벤튼씨가 그 창설을 맡았다. 그후 O.I.C.(국제정보 및 문화국)의 부국으로 조정되었다. 그것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전세계 향발의 방송을 유지하고

또한 해외의 외교, 영사관에 통합될 때도 의연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전위대와 의 연락을 행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 오저리 및 베네쥬엘라, 쿠바에 관해서는 그들 지역의 군정부의 정보계획에 대하여 봉사하였다. O.W.I.가 1945년 8월 31일 그 자체의 독립적 존재를 잃은 다음부터는 예산국이 한정된 국내 기능을 인상하였다.

※참고;일본 정보국 조직표(도표 제4표)

제 3부 심리전의 실시

가. 전투원에 대한 활동

제 2차 대전중 적 전투원에 대하여 미국이 심리전을 조직적으로 사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작전이 실시된 후에 여타 방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판시되었다. 불란서 해방 말기까지는 적 포로의 9할은 연합국의 전단을 보았거나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되었고, 가장 유명한 전단인 동행증은 독일군에 있어서 그 지폐와 같이 친근한 것이었다. 항복해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만큼 아축 생명의 희생을 줄이고 섬멸 내지 격파할 적의 그만큼 줄 것이 되므로 적군의 투항자수의 급격한 상승은 명백한 군사적 승리였다.

적 병사에 대한 심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2 개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적

병이 항복과 같은 적 측을 손상시키고 아 측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공공연한 행위로 나올 지위에 없을 때라도 적병의 사기와 능률을 일반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M. O. (Moral Operation; 사기저하 공작)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공공연한 행위(항복, 도망, 반란)로써 교묘히 시기를 포착하여 호소할 경우에 한하여 권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전부대에 대한 우수한 선전에 필요한 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적병은 자기편이 패배하든지 퇴각한 때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념(다른 모 부대는 몇 명이 항복했다. 여러분들도 또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적병에게 전면적 노력은 허사이며,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밀도록 하는 주제.

③ 적병 또는 그 부대는 곧 절망적인 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등의 관념.

④ 다음에 올 불리한 전황은 이제 절망적 사태라는 것.

⑤ 실제적 항복을 위한 구체적 저지.

a) 사기저하 대책

공공연한 사기저하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① 본국으로 휴가를 얻지 못하여 전의가 상실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일본 부대에 대하여 슬픈 노래의 전단을 보낸다(중국 방면).

② 기아선상에 있는 부대에 목구멍에서 침을 흘리게끔 하는 일본의 음식물을 그린 그림을 투하한다(버마 방면).

③ 만화로서 일본의 옹가나이조군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상관이 술이나 음식물, 모자, 명예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한 병졸은 죽은 사체마저 관 속에 들어가져 못하고 들판에 야적된 나무 위에서 자고 있는 광경을 그려 투하한다(서남태평양).

④ 독일참모본부의 유능하고 영광스러운 독일군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실로 유능한 장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독·소전선).

⑤ 인원을 소모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독일장군에게 죽음이란 별명을 부여한다(영·미·소의 방상).

⑥ 독군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잃어버린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이태리).

⑦ 전선의 독일병사에 대해서 포로의 진술 즉 그들은 전투에서 탈출하여 진실로 출거위하고 있다는 취지를 알려준다(불란서 전선).

⑧ 앓으나 기스카도의 일본군에 대해

서 마치 추풍낙엽과 같이 일본군인이 떨어져 버리는 내용(북대평양 전선).

㉔ 일본의 후방이나 군대에 대해서 일본 천황은 평화를 수락하였지만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

㉕ 중국에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 미군은 머저않아 아시아대륙 상륙작전을 가치고 일본에 정부한 제국을 양분한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일본인이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중국어로 쓴 전단을 일본군에 투하한다(중국전선).

㉖ 가상 공작원이 적의 본국에서 수행했다고 칭하는 굉장한 전광판을 라디오를 통해서 과장된 은어로 칭찬을 한다(전선).

b) 전술적 방어적 사상전술

제 2차 대전 중에는 미군은 방어적 사상전술을 사용치 않았다. 군대교육은 산발적인 것이었다. 미군의 사기는 양호하였다. 이것은 그와같은 임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미국민은 원대부터 출발이 좋았고, 정세는 지금까지 절망상태에 빠진 일이 없었으므로 항상 정기발달한 청년층이 있었다는 점에 있다.

장래에 대비하여 미·영군은 자유사회의 범위내에 있어서 병사를 작전중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직을

고안해내야 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현명한 기획에 의해서 보도관계, 군사 선전을 위한 통일 지휘계통이 설정되어 이것을 필요한 경우 소대 단위까지 확충하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국책을 설명하고, 반복하고,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어적 심리전에 의해서 선동적인 적의 저하운동, 정치적 분열의 책동, 뉴스의 날조를 반박할 수 있다.

C) 소부대 지휘관의 역할.

소부대 지휘관은 심리반을 포함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한 어떤 적극적인 심리전상의 역할은 가지지 않는다. 심리전은 전문가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소부대 지휘관이 심리전에 대한 선의 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방해에 의해서 전선에 걸친 선전노력을 위협에 직면케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소부대 지휘관은 전문적 훈련을 받고 그런 경비를 갖는 심리전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격적 심리전에 종사하는 것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에 화병전을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대할 수는 없다. 그때에는 연락을 구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 된다.

d) 야전연락

제 2차 대전 중 육군 내에서 전개된

새로운 임무의 하나는 심리전 연락장교라는 임무였다.

이들은 통상 중대장급의 장교로서 적당한 훈련을 받은 자는 O.W.I.나 O.S.S.에 파견된 군복을 입은 문관이었다. 연락장교의 임무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지휘관이 특정한 전술적 전세에서 사용할 전단을 바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전단의 표준이 어느 정도의 양이 이상적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 라디오에 대한 지원

드문 일이지만 특정부대에 라디오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미국의 장과 방송국은 「로리앙」 부근에서 이 불탄시 항을 나치스가 점령한 채로 이것을 미군이 포위했을 때 설치된 「제 2 이동 방송회사」의 역사이다.

f) 항공대의 후원

공중과 지상 실전 연락에 사용될 수 있을 것과 같은 통상적 통신계통은 소부대에 대한 가장 귀중한 원조의 하나를 구성한다. 때때로 그 부대가 전단을 작성하고 연락병이 항공대에 투하를 의뢰하거나 적당한 상급의 심리전 부대에 직접 의뢰하여 본부가 전단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이를 투하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g) 전단 살포병기

항공기는 중요한 전단 살포장치였다.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지상병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전단용으로 개조된 화병탄, 특히 인박탄
- 거의 모든 종류의 포탄
- 전단용으로 개조된 소총 수류탄
- 전단용치(소량의 폭약을 가지고 교축 실패를 붙이고 수류탄 투하와 흡사한 방법으로 던질 수 있도록 포장한 것.)

아마도 박격포는 구아전선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단 투하방법일 것이다.

h) 귀순권고 전단

귀순권고 전단은 선전전의 보병이다. 이것도 이에 앞서 수 년 전에 라디오, 방송, 후방의 사기저하책, 대군대 뉴스나 전의 자료의 살포운동과 현실적인 육해공군의 공격이 착착 진행됨으로써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귀순 전단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황 환경이 아주 좋은 포로의 성명을 말소한 편지
- 비참한 전투에서 빠져 나온 기쁨을 현실적으로 맛보고 있는 포로의 사진
- 병사의 최고 의무는 국가에 대한

★ 현대 심리전 ★

것이고, 만일 환열한 전쟁에 있어서 어떤 장군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는 그의 국가가 전후의 부흥과 진보에 필요로 하는 시민을 빼앗을 것이라는 등의 취지

- 귀순자가 얻을 수 있는 양권
- 슈베르 조약을 제확인한 수용소 상

태의 설명

- 포로에게는 본국과의 통신을 허용하는 약속

• 후방에 있는 인간 기생충이나 정상 모리베를 폭로하는 반면, 병사가 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의 귀순을 권고하는 분노의 모티브(주제)

• 나무를 그려 본의 아닌 독신자로 하여금 성욕을 그리워 하는 나머지 신경 쇠약에서 귀순시킬 수 있도록 꾸민 의전화

i) 확장기반

증폭된 인간성의 사용은 제 2차대전 중에 서서히 발전하였다.

전차의 포탑에 장치한 확장기의 발달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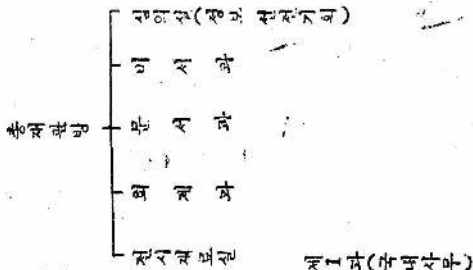
이것은 I마일의 위력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전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문언록

☆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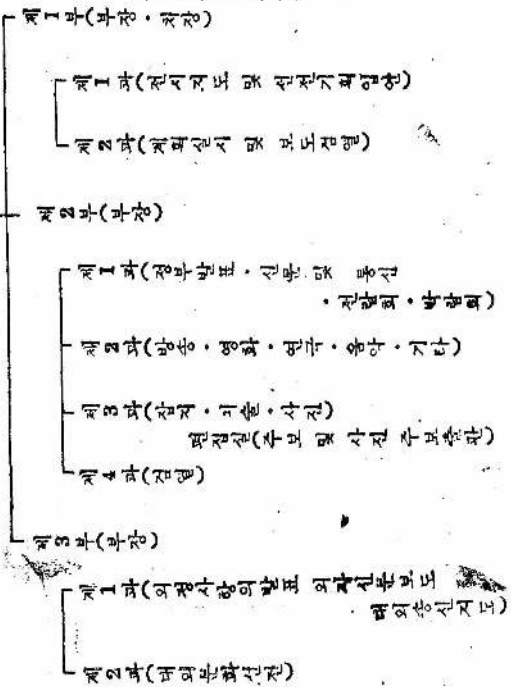
☆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민족적 양심이 바탕이 되어 개인 이익과 국민체제의 이익의 합치, 즉 균형이 발견되어야 하며, 신익있는 경제적 평등권을 근거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확보, 확장하여야 한다.

제 4 부



국
립
보
통
전
신
국

정보국
총재
부총재
서



(균)

(종)

(코)

(너)

- 우물가의 대화
- 이 마음을 품어라.....
- 삶의 모험



우 물 가 의 대 화

정 활 진 균 복

본문 요한복음 4:3-30.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물가에서 아주 많은 역사를 창조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물가에서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영원히 기록해 뒀야 할 성경 말씀이다.

구약성경 가운데 보면 광야에 있는 “십보라”의 아버지의 우물가에서는 “모세”가 “십보라”에게 구혼하는 장면이 벌어졌고 “메스보다미아”의 우물가에서는 “엘리어셀”이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고 “리브가”에게 구혼하였으며 “하란”의

우물가에서는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을 호소하였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는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계실 때 마침 그 우물에 물길터 나온 한 여인의 시들어가는 영혼을 구하실려고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을 읽어 볼 수가 있다. 한때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많은 지면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때의 일어난 일을 한포기의 그림을 보듯이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순례하시는 평면적인 예수님을 공관 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안으로 안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주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과 육의 대화”를 본다. 잔약한 유대인들의 냉대를 받고 갈릴리의 귀로에 오른 주님은 시장하고 피곤한 몸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선 사마리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야 다음에 대화가 이해가 될 것이다. 국전 724년 호세아 왕의 불충을 벌하기 위하여 살만에셀 4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3년 만에 그의 아들 "살곤"에게 함락되어 무수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앗수르"로 포로로 잡혀 가고 그 대신 여러 타지방인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왕하17장).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혼례를 하여 순수하던 이스라엘의 피가 혼혈되고 말았다. 유난히도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이 혼혈됐다는 사실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치욕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이방인과 같이(짐승취급) 취급하여 서로 일체의 거래를 끊고 말았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통행하는때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행도 하지 않는 양화된 관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의 행로를 사마리아로 잡지 않으나 주님은 찾아 들어가셨던 것이다.

그 때 마침 사마리아의 여인 하나가 물을 거르러 우물에 왔다. 피곤하고 지장하셨던 주님은 생리적으로 목이 갈래 있었음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자연스러운 말을 건네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여인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물을 건고 있는 여인이기에 무심히 한 부탁이었는데, 그 여인의 냉혹성 속에서 오랜 유대나라의 역사성을 엿볼 수가 있다. 그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도 잊으시고 말려 들어가는 고갈된 영혼을 드러다 보고 계셨다. 병든 자식의 숨 가빠하는 얼굴을 들여다 보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이 혹은 낚싯대를 응시하고 있는 낚싯꾼의 눈초리와의 같이 이제 건 잃어 헤매던 한 마리의 양의 고갈함을 보시면서 그 양의 마음에 문을 열어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마음을

풀어라

최 원 진 군부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풀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본래 하느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느님과 동등

뒤를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8절)

“당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말하리라”는 격언을 변형해서 “당신의 그리스도론이 어떠한 것인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 라고 칼 말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사상과 인격이 어떠한다는 표현은 바로 우리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데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해야 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를 살피고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모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없이 넓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지 아니하셨다면 도저히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낮고 천한 땅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한정된 시간의 세계로 들어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은 광활한 우주에 비할 때 무에 가까운 적은 존재이치만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이네라는 시인은 “바다와 하늘은 크지마는 더욱 큰 것은 나의 가슴” 이라고 읊은바 있습니다. 또한 빅톨 유고는 “레미제라블” 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 하늘이다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간 후 모진 교생을 다한 끝에 총리대신까지 되었는데 바칠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한 대우를 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흔 민적 일곱 민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하는 일편단심의 성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번치 아니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늘날까지 한결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에도 정몽주 선생님 같은 분의 위대성은 바로 일편단심에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고 읊으신대로 한번 충성을 맹세한 것을 죽기까지 고수함으로써 만세에 고귀한 빛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애국 애족의 마음을 번치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세째로 주님의 마음은 가득찬 마음입니다. T.S 엘리엇 이 현대인을 가리켜 텅빈 인간이라 표현한 것 같이 마땅히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틈없이 가득찬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 가득찬 분인가를 잠깐 살펴 보십시오. 먼저 주님은 믿음이 가득찬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의 화신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무엇에나 확신을 가지시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르치실 때, 병고치실 때, 어떤 유혹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언제나 확실한 믿음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은 소망이 가득차 있습니다. 고난중에도 인류의 구원을 소망했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밤 계세마비 동산에 가실

때도 참미하며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도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확실히 바라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병 고치실 때나 죄인을 대하실 때나 어느 누구를 대할 때나 한결같이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관서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사람이 매력있기 위해서는 존재로 가득차야 한다”고 갈파한 것처럼 참 매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차야 할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 교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가득찬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상적 사명임을 자각하십시오.



삶 의 모 험

김 상 학 군부

파스칼은 인생의 삶은 도박사와 같다
고 그의 명상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과 안전한 삶의 방법을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과 열매는 평범한 현상유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긴장과 위험한 국면을 모험적인 삶의 용기로 극복해 나가는 자는 위대한 삶의 역사의 창조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안일한 현실에서 부단히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인생의 실존적인 자기의식을 갖는자는 자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항상 엄습해오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엄한 모습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해 나가는 길보다는 절망적이며 필사적인 길에서 승리를 향해 모

협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영웅주의에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험한 바다라야 능숙한 선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타고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작은 배의 선장입니다. 이것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모래에서 출생함으로써 항해는 시작된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노를 자기가 저어서 자기 자신의 작은 카누를 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작은 카누가 타의 것에 비해서 빠르진 늦어지진 간에 자기의 책임입니다.

1) 여기서 인생의 삶에는 부단히 모험적이고도 용기 있는 삶이 요청됩니다. 밀려오는 큰 파도는 내가 탄 작은 카누를 삼킬듯한 위험을 물고 옵니다. 하나의 위험을 넘으면 또 하나의 위험이 계속 따라옵니다. 앞에 닥쳐오는 위험한 산더미 같은 파도에 겁을 먹고 주저함은 크나큰 비극을 가져 옵니다. 위험한 파도에 맞춰 적절하게 자기가 탄 배를 맞춰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들이끼기 어려운 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험에 실패한 우리 주변의 인생의 경기자들은 부자유스러운 벽 속에 갇혀 그의 생을 허송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비군한 예

로서 수많은 세균의 군세가 입과 호흡기로 쫓아 들어와 건강한 우리들의 육체를 넘어 드리려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의 적은 호시탐탐 우리의 안전을 파괴하려 합니다. 보다며 무서운 우리의 적은 나의 속사함을 부채케 하는 정신적인 게으름과 잠든 상태입니다. 잠든 밤에 기습해 온 적을 격퇴하기 어렵듯이 인간의 모든 적중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라는 "정신"이 잠들어 버린 때에 가장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삶을 모험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2) 인생은 도박사와 같다고 했읍니다. 특히 "신앙"이란 것은 거치장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은 도박사의 모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소유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며, 이 신앙으로 모험심 있게 삶을 살아 갑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도박사가 긴장 속에서 투쟁을 열어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모험심 있게 미래를 향해 큰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3) 우리의 삶의 한부분에서 당하는 공포는 죽음의 공포보다 삶의 공포가 더

진박합니다. 전자는 “상” 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실제적입니다. 진실되게 살며 앞으로 진진하여 나아가면서 닦아 오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부서워하지 아니하며, 비겁을 모르고 용감하고도 과감하게 현실의 문제에 대결할 수 있어야 할 때에 부서워하고 떨며, 물러서는, 삶에 대한 공포가 가장 우리들의 생애에 치명상을 줍니다. 리처더씨는 말하기를 비겁한 자는 위험 전에 떨고, 소심자는 위험중에 떨고 용감한 자는 위험이 지나간 뒤에 편다고 했습니다. 실러씨는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는 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대륙에 진출한 미국인들의 조상들은 기다리는 사람 없는 황야를 향해 모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미국을 낳았으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뻬아우르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할 때에 모험을 안고 시작한 삶이 곧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4)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험심 있는 바람직한 영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된 용기와 모험심 있는

삶은 자기의 인간적 요소의 용기에서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겨구가 편편하다고 온 세상이 주장해도 자기의 믿는대로 모험한 콜럼버스에게 고난의 항해 후에 겨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밝힌 인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불탄서의 구원의 소년 잔 라크와 3·1 운동의 햇불이었던 한국의 구원의 소년 유 관순 양은 신앙으로 기초를 놓은 참된 용기와 모험심 있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고 정의를 범으로 삼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적인 용기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의 저평선에 밝은 새 역사의 태양이 솟아 오릅니다. 그것은 모험심 있는 용감한 자의 생애에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Vision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같은 것은 잊어 버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진하는 자에게로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우리들의 심장에서 환상이 살아지고 모험심과 용기가 살아져 버릴 때에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자가 됩니다. 대담하게 꿈을 가져십시오. 그리고 꿈을 안고 모험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새로운 역사의 미래의 저평선 위에 다 른 밝은 태양이 당신을 위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험의 삶은 사망과 실패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 줍니다.

항공교통관제의 자동화

승
하
운
행



1.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자동화에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미군에게서 인계된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은 자기비행장에 있는 관제탑과 비행장 간을 연결하는 항로의 관제를 실시하는 ARTC Center로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기 관을 상호연결하는 통신망 및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대공 통신시설이 주체가 되어 관제사가 자기구역의 항공기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항공기에 대한 출발허가 비행중의 타항공기와의 안전을 위한 분리 설정 비행장으로서의 유도착륙지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 자척에 레이다를 설치하여 관제기관의 강력한 설비로서 유효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항로에 설치된 항법보조시설로서도 중파무선표지(Rbn) 외에도 VHF 전방향무선표지(VOR)이 있고 또 방향 거리의 정보를 항공기에게 주는 설비로서 TACAN 혹은 VORTAC이 있으며 활주로에 유도착륙하기 위한 계기착륙장치(ILS)도 있다.

이와같이 관제시설 항법보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항공기의 운항 및 관제운용면에서 볼 때 항공기간의 안전을 위한 분리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세계각국의 항공기운항

량의 증가 질적향상 및 신설비행장의 지급한 완성 등에 수반되는 항공교통의 발전, 항법 Pattern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종래의 설비확장으로서는 도저히 급후상황에 대응하여 안전 및 능률적인 운항을 지속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항공관제에 있어서 항로의 형성과 관제방식이 상호병행해서 개선되어 진 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전자는 조종사가 정확하게 항로를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그 조건을 관제업무측에서 본다면 항로운항상의 정도가 보증된다면 그만큼 안전을 위한 분리가 용이하게 되며 많은 항공기를 운항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항로의 수용량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무선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정점으로 하여 이 정점 상공을 동일고도로 동방향에 항공기가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경우 통상 각항공기는 최저 10분간마다 간격을 갖게 된다. 만약 거리측정장치(DME)를 이용한다면 20마일의 거리간격으로 비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속도 400노트의 항공기인 경우에는 약 3.3분의 시간간격이 되어 전자에 비해 3배의 수용량이 된다.

여기에서 관제방식면의 제한이 문제로 대두된다. 즉 항공기의 운항이란 것은 Random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질서 있게 소정의 안전분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관제사로서는 부단하게 항공기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항공기와 직접 혹은 타통신기관을 통해서 간접으로 통신을 유지하여 ARTC Center의 경우에는 항로를 순항중 혹은 항로의 교차점의 통과, 상승, 강하 등의 시점에 있는 항공기간의 안전분리유지를 위하여 적당한 판단을 내려 필요에 응하여 항공기에 대한 지상 또는 공중에서 대기 고도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제사의 업무부하가 항공기 취급의 능력을 한정한다. 이것을 관제방식의 수용량이라 한다. 즉 항로의 수용량과 관제사의 수용량이 서로 균형이 취해져야만이 관제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관제방식의 수용량을 정해주는 관제사의 업무부하판단은 각종의 요소가 가미되어 극히 곤란한 일이다. ARTC 관제사의 부하(負荷)에 대해서는 대략 Roatine 부하와 Air space 부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배항공기 한 대마다 취급하는

때 걸리는 부하이며 이것은 항공기대수에 비례한다. 이 내용은 자기의 담당구역에서 타의 관계구역으로 관제책임을 이양과 기저상호간 및 대공을 포함한 통신 및 운항표(Striop)의 작성 수정 등이다.

또한 Air space 부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2개의 항공기가 이상접근(異常接近)을 일으키면 관제사는 관제조치를 취하는데 발생하는 임무이다.

이것은 항공기 대수의 자승(2乘)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부하중 Routine부하의 대부분과 Air space부하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화를 실시하여 관제방식전체로서의 수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 관제시설의 자동화에 대한 목적이다. 여기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부언할 필요가 있다. 즉 항공관제업무는 극히 복잡다난하며 또 항공교통의 상황도 매년 진보하여 그 예측도 곤란하다. 특히 항공교통은 조종사의 요구가 Rnandom하게 발생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더욱 민간 정기 항공기와 같이 다이어가 일정한 것도 있으나 항공교통은 Schedule 외에 일반적으로 부정기비행이 많고 또 기상의 상황에 의하여 비행

하는 항로도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아서 Rnandom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항공교통 및 관제업무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관제시설을 어느 고정화된 방식으로 자동화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해나가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관제사가 항상 자기의 도구로서 그 시설을 구사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융통성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관제 자동화의 방법

항공관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제사에 대한 부하가 그 능력에 적절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Routine부하의 자동화

항공기 1대마다 일정한 부하는 그 공통성으로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자동화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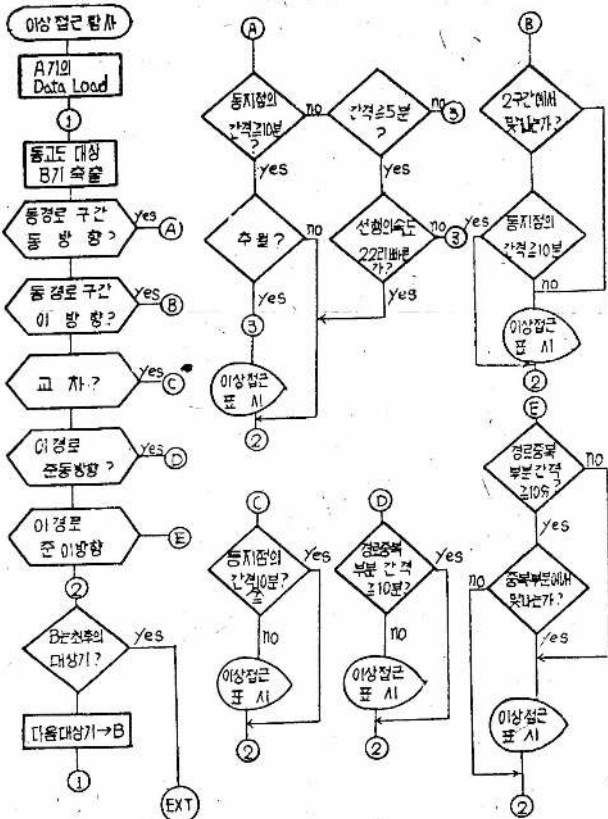
(a) 비행계획의 처리

비행계획의 정보에서 관제상 필요한 운항표의 작성을 하는 것이며 그 순서

는 다음과 같다. 각 비행장에서 조종사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예정시간 30분 전까지 비행장의 기저지회소나 운항소에 비행계획을 제출한다. 그 내용은 비행방식 (IFR 혹은 VFR) 식별부호, 항공기형, 속도, 출발공항, 비행고도, 비

행경로, 목적공항, 출발예정시간, 비행 예정시간, 연료탑재량, 대체공항(代替空港) 조종사등급 등이다.

이 계획은 통상 Teletype Interphon 전화로 ARTCC에 보내진다. ARTCC 에서는 각 비행계획에 대하여 그 항공



제1도 수평비행 이상접근 탐사개요도

기가 비행하는 지점(예로서 서울—부산 간을 비행한다면 CP→RE→FH→PN 등의 정점에 대한 4매의 운항표를 작성)의 운항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TTY 등에 의한 통보의 수신과 동시에 비행계획으로서 계산기에 넣어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운항표를 인쇄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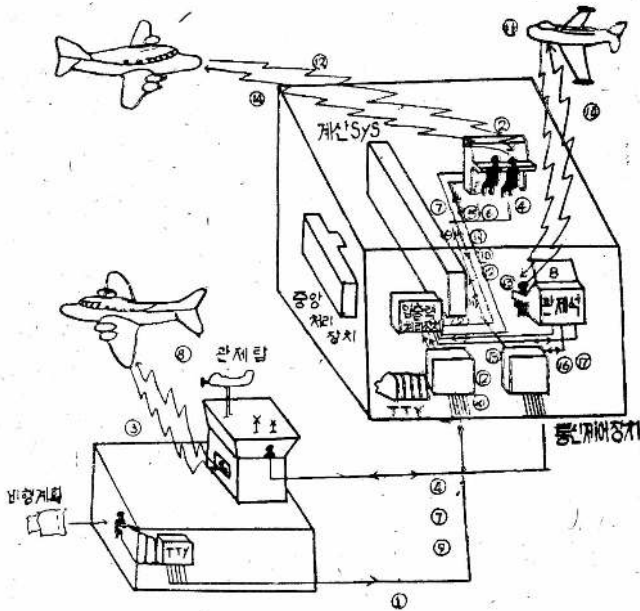
(b) 정보의 수정

입력이 있는 경우 정보를 수정하여

관제사에게 결과를 표시하는 작업이며 항공기의 출발시간, 정점통과시의 위치 통보, 고도변경 대기저지, 목적지도착 예정시간변경, 관제이양 등 어느 것이든지 관제실에서 계산기에 입력한다.

(2) Air space부하의 자동화

Air space부하는 항공기 대수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



제2도 관제 자동화기구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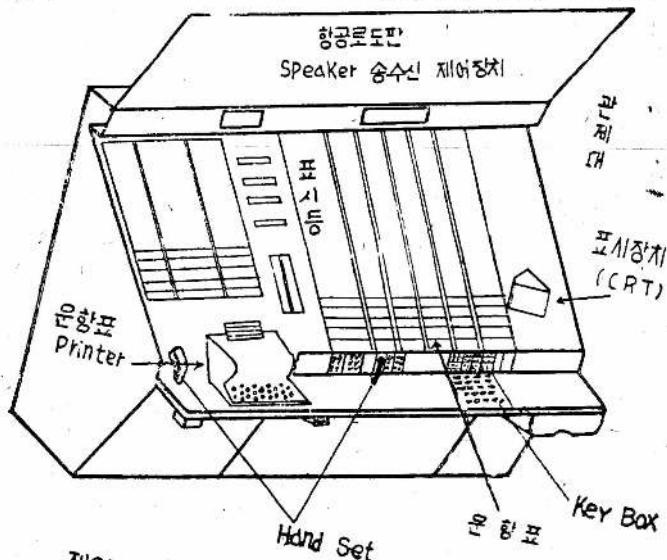
되나 작업내용이 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이 부하의 자동화는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2대의 항공기가 표준분리 (상하에 100 피트 전후에 10분간의 간격) 이하의 이상접근을 하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고도변경이 타항공기와 관련하여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것을 표시하는 작업의 자동화를 고려하고 있다.

제 1도에는 수평비행의 경우 이상접근의 조사작업에 대한 Floor chart를 예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술한 관제자동화의 체계를 도시한다면 제 2도 (2-1)-(2-2)와 같으며 동 도 중의 각 작업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Teletype 등으로 ARTCC의 계산기에 입력한다.

※② 출발예정시간 30분전이 되면 출



제2도 관제 자동화기구도 (2-2)

발비행장을 포함한 공역(空域)을 관제하는 관제석(그림중의 A석)에서 출발운항표가 인쇄된다.

③ 항공기로부터 관제허가가 요구

④ 관제탑관제사는 전화로 ARTCC 관제사에게 관제허가를 요구한다.

※⑤ ARTCC 관제사는 계산기에 관제허가를 발행할 때 타항공기와의 분리에 대해서 질문한다.

※⑥⑦에 대한 해답

⑦ 관제승인은 관제탑 관제사에 전달된다.

⑧ 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부근의 공역(Terminal)의 항공기들을 고려하여 관제허가를 항공기에 전달하여 이륙을 승인한다.

⑨ 항공기의 출발시간은 관제탑에서 ARTCC에게 전달된다.

※⑩ 출발시간이 관제사에 의하여 계산기에 입력된다.

※⑪ 항공기가 통과하는 위치통보저점의 도착예정시간을 계산하며 각 관제 관제석에 운항표가 인쇄 분배된다. 이상절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제석에 상황을 표시해서 준다.

⑫ 항공기로부터 위치통보가 온다.

※⑬ 계산기에 위치통보저점의 통과시

간을 입력한다.

※⑭ 계산기 내의 자료가 수정되어 그 결과를 관제관제사에 표시해 준다.

⑮⑯의 결과로서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관제허가를 발행한다. 이때 ⑤와 ⑥의 작업도 한다.

※⑰⑱의 결과를 계산기에 입력한다.

※⑳㉑와 같다.

(주) 참조 ※표는 계산기를 사용한 작업의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3. 관제자동화 계산기의 조건과 구성

지금까지 서술한 관제자동방식을 제 일단계로 생각하여 이단계에서 사용되는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계산기 자체는 범용계산기(汎用計算機)를 사용하여 입출력장치(入出力裝置)로서 운용상 필요한 정도로 특수한 것을 설계한다. 먼저 서술한 바와 같이 관제방식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범용계산기를 채용한다.

(2) 계산기는 동일한 것을 병행해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장치로 해야 한다. 항공관제에 있어서 계산기의 고장 동작상의 착오 등에 의한

오산된 처리결과는 안전성의 확보상 극히 증대하기 때문에 이중동시운용방식으로서 서로 같은 처리를 동시에 행하여 각각 결과를 조희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3) 각종의 입출력장치에 의하여 Key pack에서의 입력, CRT에 대한 표시 운항표 인쇄 등과 TTY 회선으로부터의 통보사항의 입력 등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부호 속도 등의 다른 많은 회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장차 다른 관제자동화 SYS (다른 ARTCC 또는 공항의 관제 SYS 등)

과 전송회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 각종 Data를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구라야 한다는 것이다.

(4) 계산기의 평균계산속도 및 기억용량(記憶容量)은 현항공교통의 최고 교통량 때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차 항공교통의 증가에 대해서도 또한 관제방식의 개선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교통관제의 자동화에 있어서 일회의 입력에 대하여 꼭 일회이상 항로 항공기기종 고도등의 Table

file에 대한 조작이 행해진다. 즉 Table file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처리한 후 File에 기억해 둔다. 따라서 보조기어 장치로서 큰 용량의 자기드럼(磁氣 Drum)을 사용하여 계산기로서는 논리적 판단이 추가되어야 하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5) 입출력제어와 주처리(主處理)장치와는 같은 종류의 별개의 계산기를 이용한다. 이 SYS이 행하는 Data처리는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① TTY회선 각 관제대의 입출력 장치 등과의 통신제어처리 및 동시 SYS의 처리결과의 조희.

② 비행계획, 항로의 기입 정점 도착 예정시간 등의 기록 정보 및 기록의 수정 또는 이상점근의 조사 등을 행하는 처리업무 즉, 이와같은 두 가지 처리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장애의 증가도 고려한다. 따라서 Program의 간이성 및 급후의 상황에 대한 신속즉각처리의 필요상 이 두 종류의 처리를 별개의 장치로서 행할 수 있는 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이다.

이상 제조건을 기초로하여 제일단계의 항공관제자동화 SYS의 계통도를 보면 제 3도와 같이 한다.

장에서 이륙하여 또 착륙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행하기 때문에 Terminal 관제라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능률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ARTCC와 Terminal 간의 정보교환.
- ② ARTCC 간의 정보교환.
- ③ 국내비행과 해외비행(해상비행)과의 이양업무의 합리화.
- ④ 항공교통의 관제취급 순서결정의 합리화.

이와 같은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 ① ARTCC와 터미널에 있는 범용 계산기의 정비 및 확장.
- ② 관제탑간의 고속도전송시설의 설치.
- ③ 레이더의 정보처리를 위한 특수 계산기의 개발.
- ④ 각종 표시장치 및 입출력장치의 개발.

이상 서술한 각항목에 대해서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ARTCC와 터미널의 관제

터미널은 항공기의 이착륙관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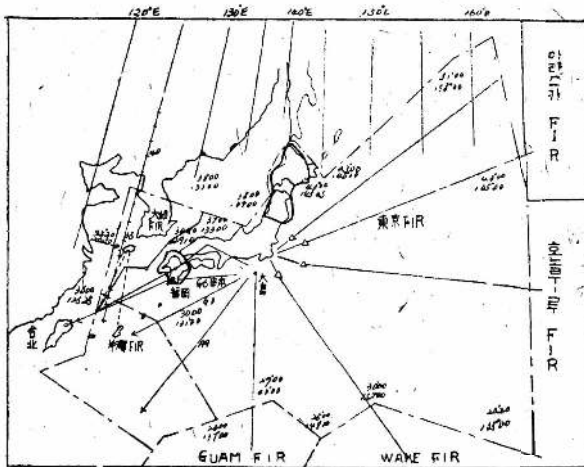
행하며 ARTCC는 터미널 간의 도중에 비행중인 항공기의 관제를 행한다. 따라서 이 양기관간의 항공기관제의 이양문제와 생긴다. 또한 제트항공기와 같이 상승강하하는때 소요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현재 상승에 대해서 11분~41분, 강하는 11분~42분으로 계산한다) 양기관의 관제이양은 이 상승강하과정에서 행해져야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제사의 Routine 부하중 관제이양의 경우 상호연락 조정을 위하는데 소요되는 부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양기관의 계산기 및 상호간의 고속전송장치로서 자동화를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ARTCC간의 통신

인접하고 있는 ARTCC간에 있어서도 관제탑간에 있어서와 같은 관제이양이 중요한 통신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ARTCC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제통보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상호협조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도 「항공교통관제 자동화 분과위원회」를 만드려 자동화에 대한 검토가

행해했던 것이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 4도와 같다.
 및 인접한 비행정보구역을 본다면 제

제4도 한국 일본 및 인접비행정보구역도



(3) 항공교통의 관제순서결정

항공기의 비행최종좌표는 비행장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지만 계기비행의 경우에는 통상 활주로의 연장선상 6~8마일 저점에서 약 25도의 강하각으로 활주로에 향해서 진입강하를 개시한다. 이 저점을 Approach gate 라한다. 그리하여 레이다로 감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Approach gate와 활주로의 진입 최종저점 부근까지의 사이에 2대의

항공기가 강하중 후속항공기가 선행기에 대하여 3마일 이내의 간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이나 항공기의 진입속도는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에 Approach gate에서 바로 뒤따라서 진입하는 항공기의 간격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내버려 두면 Approach gate에 Random 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당한 순서를 결정해서 알

려줘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터미널 관제중 하나의 중요한 작업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위해 유효반경(有效半徑) 약 60마일의 레이다가 사용되어 있다. 금후 이러한 정보를 부호화하여 계산기에 입력하고 계산기가 유효한 순서를 결정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관제사가 이것을 적당히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항공교통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터미널 뿐만 아니라 ARTCC에서도 도착기에 대하여 터미널이나 Approach Control에서 용이하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 관제를 이양할 필요도 있다. 또한 출발항공기에 있어서도 터미널은 ARTCC가 그 항공기를 용이하게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제를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터미널과 ARTCC 간에 있어서 일반정보의 교환뿐 아니라 터미널의 레이다(유효반경 60마일)와 ARTCC의 레이다(유효반경 200마일)와의 상호간에 각각 필요한 범위의 레이다 정보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5. 결 론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항공관

제의 자동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큰 것이다. 즉 Routin 부하를 자동화했을 때의 관제사의 부하는 많이 완화될 것이며 또한 Airspace 부하의 자동화 역시 관제사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자동화에 의해 관제방식의 수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ir Space 부하를 감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에는 이상점근을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 최선 해결법을 미리 조사하여 둘 것, 또한 이미 비행중의 항공기도 이제부터 출발하려는 항공기와 비교검토하여 이상점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허가를 부여하는 2개의 방법이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에서는 이상점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대의 항공기 간에 최소 안전간격의 규정이 있지만 항공기가 Random 하게 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경우로서 판단하는 프로그램의 작성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상점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개의 가능성을 계산기가 표시하면 관제사가 이것을 참고로하여 그 정보의 선택 혹은 자기의 최종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관제사의 부하감소는 물론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의 유지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 항공관제의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하고 있으나 근원과의 문제가 큰 문제인 것이다. 관계관들은 계속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타국에 있어서도 자동화 문제는 상당한 연구가 되어 일부에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에 있다. 각국에서는 각양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교통량, 지형, 항로의 형태 등 각국의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발 혹은 실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관제의 자동화는 금후도 많은 연구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서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계속 개척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도 현재와 같은

노쇠된 장비, 증가 일로에 있는 항공교통량, 유능한 관계사의 유실 등을 고려할 때 반자동화 문제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참고가 될까하여 줄역을 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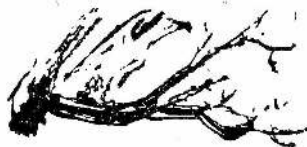
【참고자료】

1. The Control load d Sector design by Bar Atid Arad.
2. Analytical methods of Research into Terminal area at operations by R.W. Simpson MIT.
3. Report of the 4th meeting ATC automation Pannel (ATCAP) ICAO.
4. 일본 전자잡지 『에렉트로닉스』
『항공교통관제의 자동화』

— 박대통령 문언록 —

◇.....한 민족집단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원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힘』이 없는 곳에 민족의 생명은 정제될 수 밖에 없고, 정제되면 저절로 부패와 멸망이 오고마는 것은 역사의 철리요, 교훈인 것이다.



기능「올림픽」과 군기능 향상책

=국내 및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참가보고=

중령 이 동 수

- 1. 서론
- 2. 연혁 및 실적
 - (1) 국제 기능 올림픽의 유래
 - (2) 우리나라의 참가 실적
- 3. 참가자격 및 특전
 - (1)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 (2) 국내 기능 올림픽 대회
- 4. 공군의 참가 실적
 - (1)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 (2) 국내 기능 올림픽 대회
- 5. 군과 기능 올림픽의 제 문제
 - (1) 전기(戰技: SKILL LEVEL) 향상의 측면
 - (2) 병의 여가 선용의 측면
 - (3) 직업 보도의 측면
- 6. 결론

1. 서론

당 군이 1967년도 이래 국내 및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기능 선수를 출전시켜 알찬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차제, 69년 10월에 실시된 제 4회 전국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여 기술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하였는데 이와같은 기능올림픽대회의 연혁

과 그간 당 군의 참가 현황 및 군과 기능올림픽의 제 문제 등을 소개하는데 본론의 목적이 있다.

2. 연혁 및 실적

(1) 국제 기능 올림픽의 유래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당시의 서반아 사회는 전후파의 영향을

★ 기능 올림픽과 근 기능 향상책 ★

받아 청소년의 사상 동향은 갈피를 못 잡고 극도로 사회 질서가 문란하였다.

이 대책으로 근로정신을 배양하여 청소년의 사상적 악화와 사회적 불량화를 방지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통해 사회정화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한 목적으로 1947년 처음으로 서반아 「직업 청년단」이 주최가 되어 수도 「마드리드」에서 전국 기능(또는 직업훈련)경기 대회의 발족을 보았다.

이 기능 경기대회는 어디까지나 개인 실기경기이며 주어질 시간 내에 동일한 성능의 기계 시설과 동일한 소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주어질 요구와 설계도(또는 도면)에 있는 완성품 또는 그 일부를 제작하여 누가 규격에 맞게(정확하게 또는 정밀히) 시간 내에 만드느냐는 시험이다. 쉽게 말해 손재주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기이다.

이 기능경기를 통해서 서반아는 국내적으로 노동 청소년의 사회적인 인식에 병행하여 노동자의 사회적인 보장을 촉구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서반아의 기술을 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서반아의 국내 경기대회로 발족한 청소년의 기능경기 대회는 1950년에 인접국인 「포도아」와 금속·전기·목재·제도 및 건축의 5개 종목에 걸쳐

12 명씩의 청소년 기능선수들이 「마드리드」에 모여 제 1회 기능경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비록 규모는 적었으나 비정치적이며 기술교류·국제친선에의 기여도가 큼을 인식하게 되자 1952년의 제 2회 대회 때는 구주 제국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참가 희망국이 속출하게 되었다. 1953년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불란서, 서독 및 시시 등의 구주 공업 선진국의 기능공들이 참가한 제 3회 대회는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확대에 따라서 1954년에는 최고 결의기관으로 국제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능경기 대회는 매년 실시하되 가급적이면 각 회원국에서 윤비제로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매년 회원국은 증가되고 이 국제적 기능경기 대회에서의 성적의 우열은 각국의 제조기술과 직결됨과 동시에 각국의 국제적인 무역상품의 질과 신용도를 척도하는 의의를 가지게 되어 1961년의 제 10회 대회는 서독의 「뮌헨도르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11개 국에서 193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기능 올림픽대회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66년 여름 화란 「유트데히트」시에서 개최된 제 15회 대회는 11개 국에서 234명의 선수가 28개 직종에 참가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회원국 참가 선수와

경기 직종의 증가 및 기능과 기술이 우리 생활의 열쇠임을 생각할 때 범 세계적인 체육 올림픽, 미의 올림픽(Beauty Contest)보다 더욱 의의가 큰 것이다.

(2) 우리 나라의 참가 실적

1967년 처음으로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이래 줄곧 종합순위 세계 제3위의 화려한 지위를 확보해온 우리나라는 69년도 제 18회 국제 대회에서도 서독과 더불어 동을로써 3위에 머물렀다고는 하지만 여러 직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3. 참가 자격 및 특전

(1)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자격은 현장에 의해 20세 미만의 기능공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력 제한은 없다.

국제 대회의 입상 등위는 금, 은, 동메달, 대회장투상 순이며 1위~2위까지는 메달, 상장이 수여되고 대회장 특상은 상장만 수여된다.

물론 자기나라 기능수준의 국제적인 인정이 중요한 것이다. 1969년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각하께서 금메달 입상자는 석탑산업훈장과 상금, 백만원, 은메달 입상자는 산업포장과 상금 오십만

원, 동메달 입상자에게는 산업포장과 상금 삼십만원, 대회장 수상자는 상금 십만원을 수여했다.

또한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직종의 2급기능사 국가공인자격증이 수여되고 진학 희망자는 기능장학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2) 국내 기능올림픽 대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참가자격은 국제대회와는 달리 연령이 만 25세 미만으로서 학력 제한은 없다.

수상 범위는 1위~4위 순이며 기능수준의 인정으로 메달 및 상장과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으로서의 기능사 자격증은 물론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저능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는 전국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되고, 전국 기능경기 대회 1위 입상자로서 만 16세 미만자는 국제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누린다.

4. 공군의 참가 실적

(1)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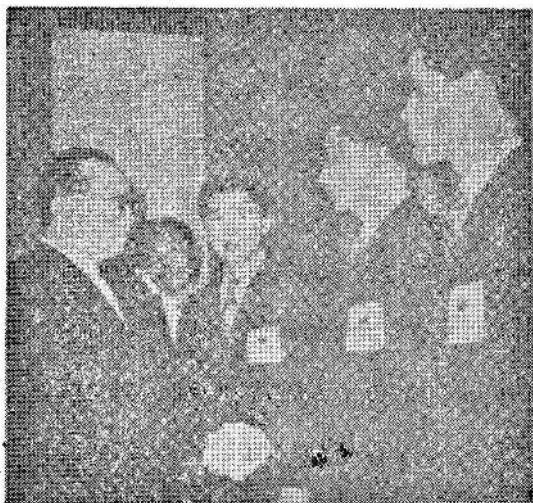
1969년 7월 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18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 17명이 참가했는데 가스용

★ 기동 올림픽과 군 기동 향상책 ★

절 부문에서 68년도 전국 대회 1위 입상자인 김경식 이병(20세, 기교단)이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했으며 공군과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힘껏 싸웠던 바 대회장 특상을 받고 지난 7월 23일 개선하였

다.

성파면에서 볼 때 비록 메달권 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지만 공군의 기동선수로써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겨루고자 치내출진이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활무할



“제 18회 국제 기동경기 대회에서 가스용접 부분의 대회장 특상을 수상하고 귀국 신고하는 공군 김 경식 이병”

67. 7. 25 국무총리실

만한 성과를 거둬서 종래까지 서구 국가에서 독자적인 가스용접 부문에 대한 국제적 기술수준에서 볼 때 기본적인 대한관(對韓觀)의 정립(定立)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69. 7. 16. 자한국일보 및 기동올림픽 참가 보고서에 서)

(2) 국내 기동올림픽 대회

공군은 1967년도 처음으로 지방 기동경기 대회에 군 기동선수로써 출전하여 동력배선 부문에서 입상하였는데 연도별 입상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입상자 현황 (기 능위 제공)

연도 구분 등위 직종	67 년도				68 년도				69 년도				계						
	지 방		전 국		지 방		전 국		지 방		전 국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동 배 령 선			1				1				1	1					4		
라 디 오 V							1				1	1	1			1	1	6	
가 용 스 점								1			1	1			1	1	5		
기 계 제도							2										2		
계			1				1	3			2	3	2			2	1	1	17



“제 4회 전국 기 능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공군의 기 능선수 4명”
 좌로부터 상병 홍 희선(20단), 병장 정 우용(기교단), 일병 박 영환(5공수), 상병 박 권수(기교단)

1969. 10. 6 서기회관 대강당

5. 군과 기능올림픽의 제 문제

(1) 전기(戰技) 향상의 측면

공군에서 오랜 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O.J.T.의 의욕적인 운영과 SKILL LEVEL 향상을 위한 자극제로써 기술요원에게 경기 참가의 기회를 권장하여 LINE이나 SHOP의 실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기능경기의 종목이 군 기술 특기종목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계, 금속(용접), 라디오 수리, 전기, 건축, 공예 등의 기술특기 분야가 경기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영중 기술교육 입과자의 실기 습득능력을 평가하고 교육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 참여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부차적으로 경기 입상자에 대한 국가 공인자격 인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기향상과 전역 후 직업보장이란 이중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기술 특기자가 경기에 입상하는 영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기술특기자가 기능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평소

자기의 기능을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이 SKILL LEVEL 유저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2) 병의 여가 선용의 측면

몇 년 전 OO전투비행단에서 사병들의 일과 후 및 휴무일에 대비한 취미 오락실(HOBBY SHOP)을 설치하여 간단한 기계공구와 재료로써 적은 작품을 만드는 여가 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회에 습득한 기능을 계속 유저토록 권장하여 기능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제도의 운영은 기술특기자에게 기능공으로서의 「생애적 직업관」을 확립시키고 일인장기(一人長技)의 기초를 닦아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일상생활을 통한 실습기회 부여 문제는 부대에서 연구한다면 특별한 시설의 증설 없이 기존 학습장이나 LINE 혹은 SHOP에 설치된 기계공구와 기타 기재, 혹은 폐품자재로써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특기분야 기능공의 저방 기능을 팀픽 또는 전국 기능올림픽에서의 점차적인 입상 실적으로 보아서 기능올림픽 사상 보급과 병의 여가선용문제는 전전한 군 부대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3) 직업보도의 측면

정부가 발표한 「장기 인력수급추계 및 정책방향」에 제시된 장기 인력수급추계의 배경과 정책 목표를 분석하면 군의 기존조직과 시설을 활용한 군 산업기술 훈련을 확충 발전시키며 군 주특기(AF-S)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따른 직업훈련과의 재고 및 제대군인의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보도 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어 기능 발전사상 고취와 국가 공인자격 취득 권장으로 전역 후 생업의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 결론

군에 복무하는 많은 인원은 심신 양면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기의 성장과정을 보내고 이 인원중 대다수가 기술특기자로서 복무한다.

공군에 복무하는 기술특기자는 「삼천만의 불침번」으로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은 물론 각 특기분야에서 누구에도 뒤져져 않는 「기능올림픽 선수」로서 자부할 수 있고 나아가 싸우면 영광의 메달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평소 기능을 연마 유지하여 전력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기에 군에서 습득한 기량을 전역 후 사회에 발휘하여 개인복지는 물론 국가건설에 총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국내외 기능올림픽 대회에 우리 공군선수의 참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국 기능올림픽 위원회 이 창정 사무총장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하며, 동시에 얼마전 대령명각하께서 어느 식전에서 치사를 통해 「같은 식전과 기능의 보급창」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되새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 승리는 미래에 사는 편이 있고, 희망과 용기로써 전진하는 편에 있는 것이며, 퇴폐적인 과거의 잔재를 저버리는 대가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이다.

1 | **글제** · 무릇 사람들이 남긴

열매를 모두 맛보려

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면서

가진 씨에 눌리어

술 막히지 않기를

어이 바랄까

〈공본·대위〉 **박 인 수**

바른 것으로

끝까지 좇아

가지런히

늘

하나

하늘마음을

그친 물 소리

숨은 맑음을

듣는

빛,

한

하늘눈을

활짝 펴

갈대 꽃

물에 삼고파

해, 달,

밝혀

크게

거듭

작으나

참

살을

<반공수기>

암
흑
을

똥
고

(4)

이
상
옥

△시사통신상부이사△

소위 그들이 말하는 5월1일 「메이데이」를 기하여 봉기하려던 길주농림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로동맹」 사진은 결국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날은 소위 「보안대」 감방에서 맞이하게 됐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이런 나이에서도 율화가 치밀어 감방 안에 앉아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홀몽한 행동과 사업은 모두 다 그 이면에 피어린 고충을 바탕으로 하고 나타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의거 끝에 고귀한 희생으로 순(殉)한 의열(義烈)의 기사들은 바로 그러했다.

그 청천백일(靑天白日) 추상열일(秋霜烈日)같은 행동은 길으로는 폭발적이거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몇 십년을 두고 길러 온 싹이 아니던가.

웅대한 포부도 바로 그것이다.

물가에 가듯이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스러운 마음, 치밀한 관찰, 명석한 판단이 언제나 그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록 그러한 선열을 닮을 수는 없어도 그와 같은 선열의 얼을 이어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나의 심정이었다.

나는 이 민족의 안녕과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릇된 노를 짓는 놈들에게 각성의 철퇴를 가하자는 것이다.

재판도 없는 판결장에
그것도 권총 든 소련군이

나는 날이 밝자 「보안서」원의 호출에 따라 복도에 불려 나갔다.

이상옥인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는가?」

「여보시오 내가 이상옥이 아니면 뭇 때문에 나를 감방에서 여기까지 불러냈오. 내가 이상옥이 아니면 당신이 저 창살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오.」

서원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눈살을 찌프리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더

말을 해 봤자 본전을 못찾을 것 같아서 인것 같았다.

『이리 오시오.』

나는 그의 뒤를 따르다가 발을 멈추고 감방 안에서 나를 쳐다보는 동료들에게 의쳤다.

『동지들이여. 동지들 비록 깊으로 끈 새끼라도 톱삼아 자른다면 끊어지는 법이요. 또한 작은 물방울이라도 여력해 물 두고 멀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돌도 끊어지는 법이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오. 배우는 입장의 우리로서는 마땅히 이 배움을 받고 한테 뭉침시다.

우리는 뭉치면 새끼나 물방울처럼 어떠한 일이라도 해 치울 수 있을 거요.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 봅시다. 우리를 해치려는 무리에게 우리도 뭉쳐서 대항해 봅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올 것입니다. 동지들. 동지들 우리 뭉쳐 싸워봅시다.』

라고 하자 감방 안의 동지들은,

『싸우자! 싸우시다. 이형 싸우시다 끝까지!』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넘치는 감격에 손을 흔들다가,

『대환…… 독립 만세!』

라고 또 의쳤다.

『만세! 만세! 만세!……』

감방 안의 진동은 38선이 아니라 지구 땅 덩어리도 꿰뚫을 듯 했다.

『이 자식 빨리 안 나와!』

서원이 고래 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는 감방 안의 학생들의 단합에 겁이 질렸던지 주머질을 못 했다.

『여보! 그 말 버릇 고치시오. 개새끼라니 그대 당신 눈에는 내 개새끼로 밖에 보이지 않소.』

나는 이렇게 대 들면서 계단에 오르고 있었다.

감방 안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홀로 밖으로 나가자니 눈물이 땀 줄었다.

나는 서원의 안내로 2층 소위 서장실에 들어섰다. 책상 앞에 다가서니 서장이라는 김××이,

『이상우이제?』

『네 그렇습니다.』

『지주 이××의 아들이군. 이번 정로 동맹사건을 조종했다면서?』

『조종? 아닙니다. 저도 그 대열에 끼어 해방된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 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 랫을 바로 잡는단 말인가!』

『보세요. 모두 다 같이 맞이한 해방인

때 몇 때문에 공산당원 만이 잘 살 수 있
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일본제국주
의 통치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형태, 아니 주민만 바뀐 독재체제는 마
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같은 민족으로
서 공산당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린다
면 공산당이 아닌 사람은 노예가 되어
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해방이 우리에게 집회, 결사, 언
론의 자유라고 하기에 자유인 줄 알았거
니 공산당 만이 자유이니 공산당이 아닌
우리에게 그것이 위법이라면 부르짖는
평등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입
니까.』

『자식. 닥쳐.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
은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진방진 자식, 이 자식 저쪽 방에 데기
시켜.』

나는 다시 서원에게 끌려 옆 빈방에
갔다. 텅 빈 방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다음 지시를 기다
리는 몸이 되었다.

약 10분 후 민정환군이 그리고 다음으
로 이명재 군이 ... 이렇게 하여 7명이
한방에 모였다.

서로 눈짓으로 오가는 대화는 없었다.
서원들의 제지 때문이었다.

《이 자식들이 우리를 탄 곳으로 끌고

가는거구나. 소련군에 넘기는 건가 아
니면 험무소에 보내는 건지.....)』

나의 혼자 생각이었다.

왜냐 하면 그 곳에 온 동지들이 모두
이번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미친 나는 옆에서 있
는 서원에게 넌 것이 말을 건너 보았다.

『동무 이게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해방? 너희들 같은 악질』 반동분자
를 해방시켜 줘! 뻔 뻔스런 자식. 잡자
코 기다려 봐!』

굵은 이리가 먹을 것이나 얻은듯 앙칼
진 소리로 쏘아 붙였다.

나는 한 마디 더 해서 비위를 건드려
주려다 그만 뒀다.

그러자 서원 넷이 오더니 우리를 밖으
로 끌고 갔다.

「보안서」 뒷뜰에는 「호루」를 써운 「드
리쿼머」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드리쿼머」에 몸을 실었다.
「드리쿼머」는 시가를 빠져 「팔프」 공
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 공장 안에 소련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다.

사령부의 어떤 건물 앞에서 우리는 하
차했다.

그리고 어떤 방에 끌려갔다.

(이제 내가 죄수인가? 아니 내가 보안서원의 노예인가? 내가 놈들에게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내진 걸음을 더욱 힘차게 싸워볼 결심이 있다. 나는 불경에서의 한귀절을 생각했다.

<이육의 마음이 타오르면 자리가 곧 불구덩이요, 탐애의 마음에 떨어지면 거기가 그대로 고해이지만 한 생각이 맑으면 불구덩이가 못 풀이되고 한 마음 진실을 깨달으면 배를 버리고 언덕에 오른다. >

라는 말이 있다.

이 커릴 사람의 복과 재앙뿐 아니라 모든 경제가 그 생각과 마음의 눈썹만한 차이로 말미암아 문득 엄청난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공산당에게는 하나의 재앙으로 여겨지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사령부에는 물론 소련군 관이었다. 그러나 군데 군데 끼어있는 양복차림의 한국 사람도 있었다.

(저 자식들의 혈관에는 나와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겠지. 저 놈들도 이 민족이라던 소련군 편에 서기 보다는 우

리편에 서서 일을 도와 주겠지……. 같은 민족인데…….)

나는 별의 별 궁리를 다 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들의 호위는 소련군이 맡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한 한국 사람의 부름에 따라 한방에 불리어 갔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마치 원수나 만났듯 노기에 찬 소련군 장교 한 사람이 원종을 든채 자리에 앉아 내가 들어오는 것을 쬐려 보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다.

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말끔히 쳐다보면서 그의 앞에 다가 섰다.

마치 눈 싸움이나 하듯…… 그러나 그는 위엄있는 소련군 장교이기에는 틀림이 없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 행동이 독재여서

방 안은 조용했다. 나에겐 할 말이 없었거니와 그도 그저 나를 쬐려볼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나를 데리고 가던 한국

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통역관이었다.

『그리 앉어』

통역관이 맞은 편에 놓은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조심 조심 조용히 앉았다. 그러자 소련군 장교는 로어로, 내 성명, 나이를 등을 묻고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싫은가? 싫다면 그 이유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싫소. 그 이유는 많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의 조국이라고 하면서 또 약소국가의 해방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해방시켜준 약소국가의 재산을 약취해 가는 거요. 그래서 싫고 또 이땅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람은 모두가 무식해서 중학교만 나와도 친일파니 민족주의자니 하고 반역자로 몰아 치우는 것이 싫소 그에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라면서 우리가 출판이나 결사를 하면 죄가 된다니 이해가 안 가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야기 해서 모든 사유재산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뺏는 데는 딱 싫어졌어.』

라고 했다.

는 권총으로 책상을 탁 치면서

『일본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반역자의 자식이구나. 이놈 살려서 공부라도 시킬가 했더니 악질인데. 이놈 총살!』

하고 외치듯 고향을 질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설마 방 안에서 권총으로 쏘아 죽이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학생, 그러지 말고 우리 과거는 깨끗이 갖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돼서 살아봅시다. 어때?』

그는 무척 유순해 지면서 나를 타아르듯 이야기 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라 단 5분도 한 마음으로 집념되기 어려운 것인줄 압니다. 원숭이처럼 까불고 말처럼 달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가하면 갖은 망념이 연달아 일어나는게 인간의 마음인줄 잘 압니다만 저는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저는 소련군이 조속한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땅에서 공산주의가 물러날 때까지 싸워 이기렵니다.』

내가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와 싸우겠단 말입니다.』

『매단하군 매단하 악질 청년이군.』

악질……』

하고 그는 절절 웃었다.

도저히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는지 모른다.

(곱혀들 필요가 없다. 그 놈에게 곱혀
들려면 내 똥 때문에……. 소련 장교,
그까짓것…… 공산주의를 상대해서 싸울
내가…….)

나는 내 자신의 용기에 채찍질하며 마
음을 글지 다졌다.

비릇 악질이니 반동이니 하는 말을 들
어도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운 소리로
만 들려왔다.

소련군 장교는 모어로 무엇인가를 열
심히 적고 있었다.

그것이 심문조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쓰는 글을 건
너다 봤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을
때의 기쁨이 어찌랴만은 낳기까지에는
그 어머니가 위태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음이 아니지만 도적이 엿보는 법
이 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후환을 모
르고 뽐내는 꼴을…….)

나는 그의 얼굴이 다시 쳐다 보였다.

『위대한 「소비에트」에 가서 공부할
용의가 없나? 모든 것을 극비로 하니너
의 희망에 마진다. 어때?』

간악한 회유공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쓴웃음을 지으
며 그를 바라 봤다.

나의 쓴 웃음이 그에게는 미소로 보였
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재차 나에
게,

『어때? 가겠지?』

『안 가요. 못가는게 아니라 그런 공부
는 안 해요.』

이 말에 그는 다시금 발탁 뛰면서

『반동! 반동! 잡아 넣어요.』

하고 소리치며 「뺨」을 날으는 것이었
다.

소련 졸병 한놈이 들어와 그 장교로부
터 뭐라고 지시받더니 나를 끌고 나가
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소련군에게 끌려 행동하는
몸이 됐다.

이것이 재판소 아닌 재판(?)이 되어
나는 나도 모르게 고역을 겪는 길에 들
어서게 됐다.

소련 군정하의 북한 땅이기에 모든
단체는 소련군을 위해서 일하는 주구
밖에 되질 않았다.

나는 그 「케이스」에서 소련군의 심문
을 받고 소련군의 지령대로 움직여야
만 했다.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일을 알 도리

가 없었다.

형무소에 끌고 갈지 「시베리아」의 강제노동장에 끌려 갈지 내 심세는 그네들에게 맡겨야 하는 심세가 됐다.

북으로 달리는 「가스토마」
밤 새워 도착하니 청진

우리가 형무소의 감방 같은 곳에 던져진저 사흘째.

우리는 그 동안 한 자리에서 소련군의 감시를 받으며 시로의 회포를 아낌없이 털어 놓았다.

나는 여기까지 와서 진정 다른 여러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었다.

『미안해 모두 다 나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도리가 없지 않아 끝까지 뭉쳐 싸움세. 이제는 이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럼요. 이형.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오. 우리학교의 동료중에 반역자가 생겼으니까. 정말 뭉쳐서 끝까지 싸워 봅시다.』

안재필 군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모두들 손을 맞췄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새로운 맹세를 굳게 다졌다.

그 동안 피로에 지쳤던 내 몸은 동료들의 그러한 용기에 더욱 힘입어 피로한 줄도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난날의 과실, 아니 실패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다시 그런 과실을 거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고 마음 속으로 굳게 다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는대로 먹고, 시키는대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 며칠간의 일이었다.

긴장했던 몸이 풀리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런저 당장 내일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며칠간의 휴식은 우리들에게 진정 참된 투쟁을 위한 힘이 화생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아직도 목숨이 붙어 내 지난날의 행동이나 또 앞날을 설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슬기로운 조상의 일을 받은 덕택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내 자손을 위해서는 조상들이 무릅쓴 그 고난을 나도 겪어 이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다.

결코 우리들의 이러한 역경을 선배나 조상들에게 돌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이 북한 땅에 태어났고 또 오늘에 살아야 할 환경이 나를 이토록 만든 것 뿐이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눌 수 있는 지혜를 짜 낸다는 것은 분명히 내 조상의 덕택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조상을 닮을 필요가 없었다.

마침 그럴 무렵이었다.

멀리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쿵덕쿵덕 들려오고 있었다.

소련군 장교가 통역관을 데리고 왔다.

『모두들 나와…….』

우리들은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그들의 연병장에 나갔다.

그곳은 「팔프」공장 광장이었다. 옛날 공화며 뒤눌던 생각이 문득 났다.

모두가 낮 익은 건물이요 내 발자국도 어딘 곳이었다.

내가 29년을 두고 입김과 몸부림치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광장에 나가 보니 「가스토마」(소련 제트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장교는 그 차를 향해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이었다.

(……저 차에 태우나 보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걸어 가는 것보다는 편하기는 한데……그렇다면 이 길주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차를 탄다면 분명히 먼 거리로 갈텐데…… 강제 노동장……총살 집행장? 아니면 형무소…… 재판도 없이 형무소에…….)

가라 앉았던 나의 심정은 또 다시 착잡하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재판이나 판결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끌려가야 하나.

그러나 이때 벌써 우리들의 손은 죄수로서 노끈으로 꽁꽁 묶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든든히 먹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나는 긴장과 주의와 조심을 잃지 않았다.

「가스토마」를 타는 것도 나에게서 처음이었다.

『자아 여기 타시오.』

라고 하며 한 사람씩 궁둥이를 떠 밀었다.

『이걸 타고 어디로 가는거요? 좀 알려 주시오.』

라고 내가 묻자 통역관은 통명스럽게,

『가 보면 알아……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반동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조선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도 이 나라 백성의 피가 흐르

고 눈물이 있었다면 네가 나 머리 반동
이라고 하지 못할 거야.

이 새끼야. 그래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은 못 구해도 소련놈의 앞잡이 노릇
을 해야 먹고 사나? 이 새끼야 두고 보
사. 개 새끼.』

라고 하자 그는,

『됐 자식!』

하면서 나를 후려 갈기려 했다. 그러
자 소련군 장교는 말리듯 나를 때 밀어
차에 올려 놓았다.

그러자 차에 올라갔던 동료들이,

『에이 개새끼야. 소련놈의 동이나 처
먹고 살아라.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는
내 손에 잡혀 죽을지 알아라.』

두고 보자. 에이 개새끼. 저런 놈 때
분에 이땅이 두 동강이로 갈라졌단 말이
야. 저런 새끼부터 잡아 치워야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소련군들은
시끄럽다는 듯이 「가스토마」는 급작히
미끄러져 달리기 시작했다.

차 위에는 집중한 소련군 두 놈이 우
리를 지키고 있었다.

벤 뒤에 앉은 그들의 신세도 우리에게
나은 점이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우리는 죄수라는 누명을 쓰고 손
이 묶여 있다는 것 뿐이었다.

나의 운 신통은 이 차가 남으로 가는

나 북으로 가느냐에 쏠리고 있었다.

「가스토마」는 큰 길에 나서더니 북쪽
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 한 숨을 내쉬었
다.

(……「시베리아」 로구나……아니면 청
진형무소……아오지 탄광……)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 없었으나 어
쨌든 북쪽으로 가는 것은 불길했다.

들어오던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가 머리에 떠 오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마음을 설레일 필요가
없었으나 우울해 짐을 느꼈다.

나는 입을 굳게 감시병을 노려 보았
다.

어린티의 그 표정은 의무(義務)에 이
기지 못해 타항에 와서도 저 꼴로 지낸
다고 생각하니 애처롭게까지도 보였다.

「가스토마」를 가속(加速)해서 달리고
있었다.

(…저 자식을 때려 눕히고 도망칠
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에게,
『야. 저거 때려 눕혀?』

『그릴까……』

서로 눈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기 상조였다. 좀 더 두고,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었다.

아직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었다.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야, 아직 참자. 아직은 빠른것 같애 그런 행동을 취할 때는 최후의 기회에…….』

『그래 그게 좋아.』

『공연히 서둘러 행동하다가 오허려 번을 당할지도 모르니 좀 두고 봅시다…….』

『그래…….』

우리는 참았다. 그리고 모두 차에 취해 반은 졸고 있다.

그날 새벽 5시경 우리를 태운 「가스토마」는 경성(鏡城), 나남(羅南)을 거쳐 청진(淸津)에 이르렀다.

그 청진도 도회지의 큰 길은 다 지나치고 고말산 밑에 있는 새나루(新津)의 소위 「청진 교화소」(형무소) 정문에 이르렀다.

나는 그 고말산 기슭에 있는 일제 때의 청진상업학교를 바라다 봤다.

그 학교는 나와 인연이 있었다. 내가 열네 살 때 입학시험차 왔던 곳이다.

있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6년 만에 청진을 소련의 「가스토마」 신세로 찾아 온 것이었다.

형무소 문이 열릴 때
한 밤을 꼬박 새고

매(鷹)는 앉아 있을 때 꼭 잠자는 것처럼 멍청스럽다가도 밤이 꼬리로 그 밤을 감으면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다 잠고 나서 밤이 머리를 들고 덤벼려고 할 때는 다른 한쪽 발로 번개같이 움직잡고 창공(蒼空)에 날아 오른다고 한다.

나는 그러한 은인자중(隱忍用重)한 힘을 가진 매의 거센 힘이 무척 부럽기만 하다.

그러나 나는 비록 군자(君子)나 총명한 늑은 못 되더라도 병든 호랑이처럼 힘없이 걸어 가다가도 비호처럼 날개게 힘을 가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어느 때이고 나는 나의 최후 순간이 온다면 한번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될 결심을 가져야만 했다.

노동하지 않고 하루 새끼 밥을 얻어 먹는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일 한것 만큼 얻어 먹어라.』라는 구호를 내 거는 그들 사회에서 창조밥당이 나마 노동하지 않고 얻어 먹는다는 사람의 교역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만약 그러한 처지가 된다면 이 땅에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그 고통을 모르
고 지낼 수 있으리라.

때문에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공산당
과 싸우기를 맹세했던 것이다.

우리는 일제 때부터 형무소로 사용해
온 소위 「청진교도소」에 수감됐다.

때문부터 육중한 철창이다.

미결수(未決囚)도 있거니와 기결수도
수감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기결수의 대부분은 강
제 노동장에 끌려 냈던 것이다.

우리는 방 마다 거의 가득차 있는 감
방에 분산 수용됐다.

진정 이제부터는 외로운 심세를 면할
길 없었다.

이제 슬픔도 외로움도 참고 견디어 가
며 싸워야 할 참이었다.

죄수 아닌 죄인으로 감방 안은 수감자
로 가득했다.

앉거나 설자리 조차 없었다.

나는 맨 뒷 구석에 놓은 나무통 위에
가서 앉았다.

저기 밖에 자리가 남은 곳이 없었다.

나는 아부 꺼리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었다.

지금 내가 앉은 곳은 분뇨(糞尿)통이
었다.

첫 형무소 감방의 밤은 좀체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의 처리를 오가는 잡다한 명상이 나
로 하여금 무척 고민케 했다.

눈을 감아도 정신이 말뚱말뚱 지난날
의 여러가지 흘러간 추억들이 되살아나
끝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들은 앉아서도 잘 자는데…….

(……역시, 나는 아직 휴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다……. 더 고생을 해 봐야
하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부쳤다고 생각 했
더니 「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깜박하고
눈을 떠 보니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기상(起床) 「벨」소리였다.

다섯 시 경이었다. 아직 밖은 캄캄했
다.

모두들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앉았
다.

6월 종대로 철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간수의 아침 점호인 모양이었다.

벌리쳐 구두발 소리가 킁킁히 들려오
고 있었다.

우리 방 앞에 이른 간수는 「플레이시」를
안으로 비치며 「하나 하나 들려보고 있
었다.

나는 반듯이 앉은 채 내 얼굴을 비쳐 줄 차레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서히 『플래시』는 내 얼굴에 그 촉광을 멈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수감자들 보다 내 얼굴에 멎는게 시간이 오래인 것만 같았다.

(…자식 처음 보는 늬이라고……. 세손님에 대한 매점인가…….)

『플래시』는 열 사람에게 옮겨졌다.

그는 새로 들어 온 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랜 촛점을 낮춘 것이 틀림없다.

아침은 점점 밝아 왔다.

방안을 살펴보니 모두들 침울한 표정들이다.

그러나 그들이야 말로 공산주의와 직접 매결하던 애국투사 임을 알았을 때 나는 스스로 머리가 숙어졌다.

그 대부분은 2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나는 처음엔 숙연했다가 용기를 얻었다.

학생도 있었고 또 사회인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잡혀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종교인(宗敎人)이었다.

『…을 등지 한 분 더 얻었군.』

50이 넘어 보이는 이가 나의 수감 경위를 듣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그는 주을(朱乙)사람으로 강모씨. 고명한 사상가로 알려졌던 본인에 공산

당이 밀려들자 민족을 저버린 공산당과는 인연을 끊는다고 반소투쟁을 하다가 잡혀 온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어버이처럼 인자하게 보였고 또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의 뜻에 호응되는 이라면 무조건 믿고 싶었다.

이때시 팔에 빠져벌 흘러가는 나무가 저도 잡게 된다는 속담이 있는 모양인가 싶었다.

얼마 후 아침 밥이 배달 되었다. 순조 밥이었다.

밥 그릇에 반은 좀 넘게 담아 주었다. 반찬은 밥 위에 편장 한 덩어리씩 얹혀 주었다.

나는 강 선생이 밥 그릇을 들자 권하면서 나도 들었다.

『이런 곳에서는 밥을 오래 오래 씹어 먹어야 한다. 양이 적으면 적은대로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 입에서 완전히 풀을 쑤어서 넘기는 일이다.』

강 선생의 말씀이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맛 없는 찬도 부족한 밥도 살이 되고 피가 되는거야.』

『네. 알아 들겠습니다.』

밥 한 숟 입에 넣고는 누가 더 오래 씹는가 하는 경쟁을 하듯 오래 오래 씹었다.

식사가 끝나고 청초가 끝나고 아침 9시 경이었다.

간수가 몇 사람을 호명했다.

이름을 불리운 사람들은 복도에 나가 열을 섰다. 감방 안의 사람들은 혹시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나하고 학(鶴) 처럼 목을 길게 빼 들고 복도를 내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나를 호명하지 않았다.

호명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척 부러운 것이었다.

불리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죄수로 감방에 갇히는 것 보다 하루 속히 무슨 결판이 나서 살림에 변화를 가져 보고 싶다는 것이 모두들의 심정이었다.

당장 석방이 되지 못할 바에는 감방 밖에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힘이 나고 용기를 얻을 것만 같았다.

세상은 변한다 하지만
감방 안은 요지경 속

나는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문득 생각이 났다.

『옛날엔 내 것이라고 하면 것도 이제 도리어 저 사람의 것이 되었으니 내것도 후에는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 없다.

과연 그것이 명언인 것 같았다. 같은

죄수끼리도 바깥 세계에선 상관이요, 부하니 또는 선배니 후배니 해도 여기에 들어 오기만 하면 인간의 지혜(知慧)나 인격의 교화를 막론하고 오직 선감자(先監者)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판이다.

때 묻은 감방 안에서는 그 순리(順理)대로 살아만 간다면 속이 시원하여 티끌만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집을 세도 자기 손해이다.

변화에 맞추어 가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서 죽은듯 하다가도 밝기만 하면 꿈틀거리고 반항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니면 형무소에서 정치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담력 그리고 저칠 줄 모르는 저력(底力)을 소유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형무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감방을 마치 자기의 안방처럼 여기고 다닌다는 말이 머리에 떠 올랐다.

출감자와 입감자는 시간마다 3·4명씩 드나들었다.

이 감방 안의 사람들은 나에게 무척 호감(好感)을 가졌다.

모름지기 그들은 젊은 나이에 반공운동자라는 데서였다.

그것도 김주, 명천, 성진의 학생운동을 내가 주동했다는 데서였다.

어디가 멧흰테가 있는 젊은이. 뚝뚝하다. 보람찬 일을 하는 젊은이군…….)

라는 칭찬이 자자했다. 그것은 강선생이 나를 무척 위해 썼고 또 나와 그와의 대화를 들던 사람들은 모두 부러운 듯한 눈치들이었다.

『……내가 자네만한 젊고 패기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기만 했다면 내 고향「보안서」는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내가 일찍 자네를 몰랐다는 것이 이 신세를 지게됐나 보군.

상욱이 적정 말아.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거야.

네가 공산당과 싸우다 죽었다면 너의 고귀한 일은 자유를 애호하는 온 세계 민주국민들이 자네를 칭송하리라.

내친 걸음 있는 힘 다해 싸워서 이겨라.』

강 선생은 수시로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모두들 해방이 되었다고 좋아서 고향에 몰려 왔지만 다시 고향을 잃고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이 민족의 슬픔을 나는 이 형무소에 와서 새삼 느

끼게 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도 뜨기 전에 자기 생명을 이어 주던 젖꼭지가 그렇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本能)이라 하겠다.

모름지기 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만 생각은 다 있고 오직 어머니 결만은 그리울 것이다.

그것이 인지사정(人之常情)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벌써 현실을 외면(外면)하고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킨 사람도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길이 막힌 쥐가 도리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잔악(奸惡)하고 요망(妖妄)스러운 무리를 좇으려면 먼저 도망 갈 길을 마련해 놓고 쫓아야 하는 법이다.

이 공산사회는 주민에게 도망칠 구멍 하나 마련하지 않고 채찍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쫓기면 주민들에게 번을 당해야 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를 제 1 위에 놓는 그들의 사회적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태어나서 길러온 정(情)을 현 신착처럼 저버린다는 것은 백동(脈動)하는 인간으로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야니 할 수 없다.

때문에 그들은 트일 길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 몰았기 때문에 마침내 반작용적인 항거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이 사회에서 볼 때 범례가 되도 좋고 역적이라 불려도 좋았다.

그러나 그에는 인류의 기본인 자유와 평화를 향유하겠다는 고귀한 이념 밑에서 움직인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그를 어압하는 사람 그 어느 쪽이 정당한가는 멀리 후세에 미루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판단이 났기 때문에 북한의 곳곳에서는 소련의 침공과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 운동이 불길처럼 솟아 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도망갈 구멍을 잃은 쥐가 함부로 기물을 물어 뜯고 깨뜨림과 똑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나는 생각할 수록 심오(深奧)한 감정에 사로 잡혔다.

감방에서 생긴 일들 형무소를 떠나 어디로

어쨌든 형무소 안의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 각색이었다.

또 그에서 생기는 일은 나에게 모두 새로운 일처럼 보였다.

아침 저녁으로 감방을 순찰하는 것은 소련군 장교와 소위 「보안서」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틀림없이 어제까지 이 감방을 순찰하던 놈이 우리의 감방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어제까지의 계급장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군복이면서도 보잘것 없는 걸레조각 같이 보였다.

그가 감방 안에 들어서자 경비원은 감방문을 요란스럽게 철컥 닫아 버렸다.

(저 놈이 죄수로 들어 왔나? 아니면 밀정으로 들어 온게 아닌가. 그대로 그 꼴이라면 어제까지의 권세도 보잘것 없구나…… 아니다 저 놈은 감방 안의 밀정으로 들어 온 거야…….)

그가 들어서자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를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었다.

그러나 모두 쥐 죽은듯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떻게 된 일지요?』

강 선생이 물었다.

『네.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개새끼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너의 죄상을 이제 내가 낱알이 폭로하고

말테야. 보지 내가 사령관에게 보고 안 하나…….』

그는 혼자 말로 두껍거렸다. 무슨 영문이 있어 수감된게 분명했으나 그래도 믿을 수 없었다.

악랄한 공산당의 가장(假裝)일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감방 안에서는 이진처럼 자유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지 못했다.

행여 그가 밀정으로서든지 아니던 풀려서 나가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란 무자비하고 인정 사정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그를 될 수록 멀리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모두들 허기를 깨우느라고 야단들인데 그 남은 밥을 먹지 않고 감자국만 좀 마셨다.

(…새끼 인민을 착취해 먹은 기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지. 새끼 사흘만 굶어봐. 네 늑도 별 수가 없지. 너도 짐승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장백해]지면서 초조해 지기 시작했다.

점심 때쯤 해서 건너방에 또 새로운 죄수가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위도 검찰부에 있던 검찰관이었다고 한다.

그도 붉으락 푸르락 하는 얼굴 빛이 보기에다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로는 매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직위를 박탈당하고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그는 간수에게 대드는 듯,

『여보 동무. 교화 소장동무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요?』

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모름지기 어제까지의 상관이었던 그가 형무소 감방 안에서 소장을 찾으니 난처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간수도 만만치 않다는듯이 독사(毒蛇)같은 눈을 휘 굴리며,

『동무 지금 동무의 입장은 다르지 않소. 명명대로 해요. 빨리 들어가요. 여기 오기 전에 소장을 만날 것이지 이제 와서 만나자는 동무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반당(反黨)적이에요. 용서 안 돼요. 빨리 들어가요. 문을 잠그겠어요.』

『뭐. 동무.』 『좋아 두고 봅시다. 내가 죄진 늑인 줄 아시오.』

『잔 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요. 나는 동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오.』

인정사정 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수감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동료끼리 피 비린내 나는 생존경쟁(生存競爭)을 솔직히 연출해 준 것이었다.

그것은 간수들의 수감자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더 이상 심해 졌고 행동의 자유에 대한 억제가 심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간수들이 끊임없는 순찰로 담배를 피울 수 없었고 사담(私談)을 나눌 수 없었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이 보이던 간수들이 소리를 질리며 신경을 곤두 세우는 판이었다.

얼마 후 우리 감방에 들어 온 그는 강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강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도 모두 공산주의를 반대해 여기 들어 오신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놈들은 나를 열성 당원이라고 무척 추기더군요. 사실 나도 좀 더 권세있는 자리에서 공산당을 말살시킬 작정이었어요.

내가 이 형무소의 검찰관이라면 검사장만 되면 내 명령 하나로 강 선생도 석방시킬 수 있었어요.

나는 그 검사장이 돼서 여러 반공투사를 살릴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

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형무소 검사장이 되려 애를 썼죠.

그러던 중 지금 이 형무소의 검사장의 비위사실을 모조리 조사해서 나는 당부에 보고했죠.

지금 4동(棟)에는 내 친형과 나의 동료 6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원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을 반대합니다.

나는 기어코 이 땅에서 공산당을 말살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엔 형과 우리 동료들을 탈출시켜 밀항선(密航船)으로 이남에 보내려고까지 했답니다. ...강 선생님이 저 어떻게 하던 좋겠읍니까. 이 원수들...』

그의 눈물을 볼 때 나도 스스로 눈물이 뜨기 시작했다.

『참 대견한 일이에요. 그런 당신을 나는 마음 속으로나마 좀 이해했거 뭐냐...』

강 선생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러할 때 순찰 간수가 덜컥 덜컥거리며 우리 감방 문 앞에 와서,

『이상우!』

하고 부르는게 아닌가.

『네.』

『이리 나와요.』

나는 마치 몽둥이에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철창가에 나갔다.



「R형에게!」

김
병
로

R형!

가을이 짙었군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무 오래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긴 모두들 무고 합니다.

어떠세요. 형계선 요사이 작품 많이 쓰세요? 입버릇처럼 말씀 하시던 산뜻하고 알찬 작품이 한껏 영근 요사이의 열배처럼 껍데기 길어차고 쏟아져 나오고 있겠죠. 늦가을의 고요한 늦밤에 멀게 뱃고동소릴 들으며 창밖에 몰두하실 형이 마냥 부럽습니다.

부산의 가을이 여기보다 늦은 줄 알지만 이제 시월 하순인데 거긴들 별 수 있겠어요? 발길 닿는 데마다 가을이 출렁이겠죠.

전 요사이 별로 작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군요. 무더운 여름철엔 땀에, 물것에 시달리면서도 아득바득 책상을 차고 앉아서 원고지와 씨름을 했는데, 요사이 이 좋은 계절에 도통 붓들 엄두가 안나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 글쓰기가 말입니다. 공기는 성그렵죠? 머리는 가별죠? 게다가 밤은 길구요. 영양도 여름에 비한다면야 얼마나 취하기 쉽습니까, 값도 헐하구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 이 글쓰기에 좋은 조건들을 글 안 쓰는 데에 십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틈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과 열려서 빈둥빈둥 놀기가 일쑤입니다. 많은 시간을 텔레비 앞에서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디로 훨훨 여행이라도 떠나면 여러모로 나에

게 이로우텐데, 그러기엔 시간도 돈도 허락질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근데 이런 따분한 나에게 얼마 전 엄청나게 기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구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전에 사는 동생한테서 숙리산 구경하러 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몸만 오면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전 즉시 내려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형 생각을 했느냐구요? 물론이죠. 형과 같이 갈 방도는 없겠는가, 여러모로 생각해봤죠.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후일 만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룡산 갈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대구요? 네 맞습니다. 번번이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어서 직접 만나 봐야 그 이유를 자상히 말씀드릴텐데 이거 난처합니다.

하여간 전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내 사정으로 해서 한주일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뵘튼 전

R형에게!

속리산을 목표로 해서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일박하고 아침에 속리산행 버스를 타러 나갔더니 그게 힘들것단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표가 모두 예매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득불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마침 광주(光州)에서 왔던 중년 부부가 같이 가자하여 우린 무난히 택시에 합승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가 무섭게 난 버리속여 절대자에게 오늘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도중에 <말티고개>란 험한 재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길 지날 때에 무사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빌었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대전시가를 벗어나 시골의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추수가 지금 한창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찌프드러워서 탈이 없었지만 시골의 들판을 달리는 내 기분은 상치였습니다. 단풍이 따로 있습니까. 산비냥과 개울가에 선 나무들에 달린 황든 잎새는

모두 단풍이지요. 늦어서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아직은 단풍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길가 마을은 풍성해 보였습니다. 거뭇드러진 곡식더미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에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에 띄는 송아지들도 살짝 보였고, 닭들도 쇠명이 나서 무리지어 풀밭을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금강가에 왔을 적에 난 가을강의 푸르름과 고요를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깃푸른 창물은 남명어리처럼 무겁게 깔려 미동조차 않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나뭇배가 가볍게 비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점차 깊은 시골로 들어오에 따라 길가는 아이들의 손 흔드는 인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그들이 흔들어대는 작은 손들은 단풍잎으로만 보였습니다.

난 흐뭇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의 인사에 답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추려한 차림새의 그들이긴 하지만, 순진스럽기만

한 그들은 차를 세우고 나가서
 녀석 안아주고 싶도록 귀여웠습
 니다. 도심지에서 탐고 흩이운
 아이들만 보던 나라서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하던 말티고개 밑에 달
 았습니다. 과연 험준하더군요. 길
 이 전보다 많이 넓혀졌다곤 합니
 다만 험끼가 아주 사라진 건 아
 니었습니다. 마치 층층으로 된 선
 반 위에 놓인 장난감 버스처럼
 점점이 벽에 붙어 모로 기는 버스
 들을 쳐다봤을 적에 난 가슴이
 썰렁해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서 못간다고 버틸 순 없었습니
 다. 잠깐 고개속여 절대자에게
 다시 한번 안녕을 빌고 그냥 자
 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는
 서서히 바람벽같은 고갯길을 기
 기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높아질
 수록 자꾸만 위기의식이 더해지
 고 마주 내려오는 버스와의 닥드릴
 때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곤 했
 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택시
 는 무난히 말티 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내리밭이가 다하는 곳에 자그마

한 국민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곳에 해정한 모습으로
 그건 서 있었습니다.

R형!

학교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나
 시는거 없으세요? 있죠? 그때
 우린 둘이서 털털이버스를 타고
 시골길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
 러다가 길가에 선 아담한 학교를
 발견했죠. 그러곤 앞으로 우리도
 학교 하나를 짓고 거기서 아이들
 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자 했죠.
 근대 이야기 하다가 우리 둘중
 누가 교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쳐서 서로 양보하는 소동이
 벌어졌했죠? 난 몸도 건강하고
 통솔력도 있는 형제서 교장이 되
 어야 한다고 우겼고, 형은 야무
 진 인격이 형성된 나라야 교장구
 실을 할거라 주장했죠. 있지도
 않는, 그리고 있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를 두고 교장자릴 열을 올리
 며 양보하던 우린 제풀에 현실로
 돌아와서 옆의 손님들도 아랑곳
 않고 크게 웃어제키지 않았어요.
 정말 웃은 장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건 한없이 아름다운 정

경이기도 했다는 것을 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면서 난 또 학교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엔 기어히 형을 교장자리에 앉히리라 결심도 했습니다. 가소롭다구요? 좋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꼭 형을 교장으로 만들 테니까요.

학교를 지나 얼마 안 가서 연총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주차장이 나타나면서 그 앞에 우리나라 관광지 입구에서 흔히 보는 혼잡스런 상가가 보였습니다.

문장대까지 올라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하산할 계획이었으므로 우린 안내도 한 장만을 사들고는 쉬지도 않고 곧장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주사 입구 가까이에 오니까 송림 사이 잔디밭에서 수락여행 온 듯한 한패의 고등학생들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마취 몸을 배배 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게 고고춤이란 거라 해서 저도 춤의 정체를 알아채리게 됐습니다. 한심스

런 일이구나, 한탄하다가 내가 멧도 모르고 너무 뒤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져서 능적 그런 생각을 놓치고 범주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 곧 제지 당했습니다. 입장권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절구경에 입장료라——. 가끔 당합니다만 저에겐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받는지, 아니면 절에서 받는지 내막을 알 길이 없지만, 입장료를 받잖 차라리 저 앞쪽 입구를 막고 받든지 할 일이지, 하필이면 절앞에서 구경값을 받느냐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단 채산에서인 것 같아 입맛이 씩시근 했습니다.

범주사 경내는 넓고, 평평하고 아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산홍(滿山紅)의 시기는 넘은 것 같았습니다만 아직 단풍으로서의 값어치를 충분히 지닌 잎새들을 지닌 각양수목과 기암괴석이 엮여 묘한 조화를 이룬 아홉개의 봉우리로 연결된 병풍처럼 아름다운 속리산을 배경하고 오목하게 자리한 경내

는 우선 사람의 가슴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좌우에 늘어선 거목들의 울창함과 사찰의 고대식 건물들도 은은한 깊이를 지닌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목조 오층으로 된 발상전(捌相殿)은 새로 단장까지 하여서 펍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런 고대 건축 미야얼마든지 음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주사를 빠져 나와서, 우린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경사가 느슨한 비교적 평탄한 길을 산정으로 걸었습니다. 왼쪽에 보기에든 시원한 넓디넓은 송림을 바라보면서 우린 유쾌한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갑자기 피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뒤편에서 마차가 내려옵니다. 단두마차였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니고 목책마차였습니다. 그러나 마차라는 자체가 저에게 엑조틱한 기분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디 중국에라도 온 기분이

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도 많은 남녀 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러 선생인 듯 싶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긴 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저희끼리 멋대로 흩어져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관에서 싸준 것인 듯 도시락 하나씩을 들고 지친 몸을 이적거리며 어거지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더럽혀졌고, 얼굴엔 수기(愁氣)가 서려 있었습니다.

R형!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형께서 한때 매스컴들이 입을 모아 교육의 타락을 부르짖었을 적에 어떤 신문 사설에서 아무리 타락한 교육자일지라도 가장 선하다는 장사꾼보다는 낫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옳다고 무릎을 치시던 형께서 속리산에서의 학생들의 이 무질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길가 상점에 앉아서 배 한알로 목을 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차가 부메기지어 내려오는 길

R형에게!

을 우린 험레벌떡이며 걸었습니다.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문장대까지의 거리를 물으며 걸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엄청나게 멀고, 길이 험하단 뜻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거길 다녀오는 저배 위신이 선다는 건지 물음에 답하는 사람마다 약속이라도 한듯이 우릴 백 풀리게 하는 대답만 했습니다.

등산입구란 곳에 다다랐습니다. 마차의 종점이 거기이더군요. 거기서부터는 진짜배기로 산이 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면 그리도 나무가 많습니까? 어찌면 그리도 나무가 굵습니까? 어찌면 그리도 단풍나무가 많습니까? 어찌면 그리도 낙엽 냄새가 짙습니까? 골짜기는 왜 그리 깊고, 가파람고, 험합니까? 물은 왜 그리 맑고, 바위는 왜 그리 큼니까? 우린 낙엽 내음에 머리가 떠릿 떠릿 하도록 취했습니다. 술에만 취하는 줄 알았더니 낙엽에도 취하더군요.

산 속에도 학생들은 널려 있습니다. 역시 인솔하는 선생의

자취는 거의 없고 멧대로 지결이며 멧대로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끄러져 위험할 적에 붙들어주며 우린 당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으막에 태권도를 좀 했더니 몸이 상상 외로 가벼웠습니다. 산에 오르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을 갖고 걸었습니다.

산 속엔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위로 오르고 있었죠. 근데 그들 중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만테라면 모르지만 산을 오르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섰단 사실은 제 눈에 놀라웠습니다. 요사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현저하니 붙고 있던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산에서까지 그런 현상을 나타낼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여자들은 숫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법석이고 바장이는 데도 남자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면 그렇게들 바장일까요? 마치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 같았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험하고 가파랐습니다. 그야말로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지닌 듯한 골짜기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홀몸으로도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바윗벽같은 벼랑이 맞닥드리곤합니다. 간신히 그걸 돌파하고 나면 또 벽이 나타납니다. 산너머 또 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험한 산 속에도 설만한 장소에는 으레 매점이 있습니다. 노점이지 합니다만, 사이다 한 병도 들고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고개 위에 그 많은 상품을 어떻게 날라다 왔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노점 옆 통나무의자에 잠깐 앉아 쉬며 주인과 이야길 나눴습니다. 물건들을 갖고 올라 온데 대하여 칭찬해주고, 밤에는 다시 그 물건을 지고 하산하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산 속에 그냥 문채 몸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산 속만은 요춘시대인가보다 생각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느낍니다만 이 장사꾼의 칠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발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장사꾼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공기가 점차 차가와 집니다. 속에선 땀이 흐르는데 밖은 차갑습니다. 그것은 산정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해발 천미터가 넘는다는 운장대(문장대라고도 함)의 꼭대기가 가깝게 치어다 뵈는 마지막 난코스에 다다랐습니다. 형과 같이 오른 관악산의 마지막 코스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로프를 매야 안전할 만큼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인데 그런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번갈아 짚어가며 전 죽을 힘을 다해서 산정을 향해 어기어기 올랐습니다. 아니, 기었습니다.

산정에 올랐을 적엔 제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밖의 공기는 더욱 찼습니다. 밤이면 얼음이 얼고, 벌써 두번이나 눈이 내렸다는 산정이고 보면 그럴만도하죠. 더구나 날씨가 흐리터분하니까 더욱 추웠습니다.

배도 무섭게 고파서 우린 우선 식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험한 산정에 여관이며 식당이 즐

비히 썼는 걸 보면 신기했습니다.

식당은 돼지우리처럼 더러웠습니다. 뒤돌아 나오고 싶도록 더러웠지만 어떻게 겁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국밥을 시키고 목로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국밥이 어떻게 더러운지, 그걸 보는 순간 산정에서 자고픈 생각이 싹 가시어졌습니다. 돼지밥처럼 시학에다 밥알을 드문드문 묻혀서 작은 뚝배기에다 아무렇게나 담아다 뺨개칩니다. 울화가 치밀도록 불친절 하였습니다. 국밥의 가격을 듣는 순간 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릇 당 이백원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시락 한 줌에 밥알 몇톨이 그렇게 비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숟갈을 댔었으니 어떻게 겁니까? 고스란히 이백원씩 물고 나왔습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에씨 오른 운장에서 전 떨떠름해진 기분을 가누느라 얼마동안 애를 썼습니다.

운장대 앞에도 사람은 바글거렸습니다. 물론 거기도 무질서하

게 혼어져서 우왕좌왕하는 남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러 교사인 듯한 사람들의 설치는 모습이 뇌진 함니마만 학생들은 여전히 무질서합니다.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을 적에 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해서 방금 두 시간이나 소비하며 오른 계곡을 부감했습니다. 과연 장관입니다. 무수한 골짜기와 기암괴석들, 끝 모르게 펼쳐진 수림, 그 수림 사이사이에 약간 철쭉은 단풍이 족, 적, 황의 엇갈린 빛으로 널리 있었습니다. 제철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나. 때 못 맞춘데 대한 후회의 한숨이 저절로 났습니다.

잠깐 분장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니 큰 바위인데 그 꼭대기까지 쇠사다리가 놓였더군요. 정말 아찔하도록 높고 가파른 바위였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는 철책하나 없이 아주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걸 되는 낭떠러지를 밑에 둔 바위 꼭대기가 그렇게 허술했습니다. 허술한 거기에도 학생들이

꾸역거렸습니다. 바탈까지 드세
인 그 꼭대기에서 학생들이 들까
불기까지 합니다. 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만류하다 잘 듣지 않기에 슷제
거기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산정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당초에 산
정에서 하룻밤 잘 생각을 했었는
데 그전 이미 포기했고 그렇다고
거기 더 머물러 있어서 불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되려 위험한
곳을 어지러히 뛰다니는 학생들
을 보기가 힘들 뿐이었습니다.
전 곧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근
데 이 하산길이 아주 멋진 것이
었습니다. 경업대(임경업장군의
이름을 딴 것임) 쪽으로 내려가
는 길이었는데, 산꼭을 내려가기
전에 얼마동안 우린 천황봉 쪽을
향해 산을 가로질러 걸어야 했음
니다. 이때에 우린 속리산의 각
계곡을 살살이 부감할 수 있었음
니다. 입석대, 비로봉, 천황봉
등의 암봉(岩峰)이 우줄거리고
동쪽으로 늘어선 그 밑으로 수없
이 많은 계곡들이 찢겨 있었습니

다. 그 계곡에 소나무랑 단풍나
무가 우거지고 그 사이 사이에
점점이 기암괴석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파시 제 이 금강다
었습니다. 경업대를 향해 계곡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어
떻게 가파르고 험한지 올라올 때
와 거의 마찬가지로 힘이 들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경업대 바위 위에 앉아서 안내
자가 지껄이는 임경업장군의 이
야길 들었습니다. 장군이 도를
담았다는 경업대의 위치는 안내
자의 말대로 좋았지만, 장군에
관한 전설엔 허황한 점이 많았음
니다. 입석대의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장군이 혼자 들어서 세웠
다 하니 말이 됩니까? 경업대
밑 돌문을 통과하여 생명수라 이
름한 약수 한 그릇을 마신 다음
다시 계곡을 내려가기 시작했음
니다. 내려가도 내려가도 계곡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낙엽
땀에 더욱 미끄러운 것 같았음
니다. 낙엽 냄새에 취하여서 더
욱 몸이 비트적 거리는 것 같았음
니다.

R형에게!

도중 비로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박 할까 망서리다가 그냥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섯시 십분이었습니다. 하산길도 두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날이 어두어 오기 땀에 여관방부터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R형!

산에서 묵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인심이 그렇게 나쁜 줄도 몰랐었습니다. 여관마다 단 둘이라 하여 방이 있는데도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음식점이랑 개인 집을 찾아다니며 사정해 봤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가득그득 차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를 헤매었습니다만 종래 잠자릴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 오리썸 떨어진 부락에 방이 있음을 알고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플래시를 비춰가며 시골길을 걸어서 부락으로 갔습니다. 전기불도 없는 퇴락한 농가의 단칸방이 저희들이 찾아온 방이었습니다. 안

내한 할머니가 방문을 여는데 안에는 호롱불이 켜있고 아랫목에는 퉁심이 넘었을 노파가 누워있었습니다. 거기 합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세가 얼마냐니깐 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때가 때인 만큼 별 수 없다고 마음을 가누면서 그대로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R형!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방을 주면서 이불값을 별도로 받는 법도 있느냐 말입니다. 안내한 할머니가 이불도 필요하냐고 묻기에 당연스레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이백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두 말 않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썩싸게 걸었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걸었습니다.

주차장엔 아직 대전으로 나가는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오백원을 달라 했습니다. 전 택시에 올랐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택시는 빠른 속도

로 달렸습니다.

어느 새 말티고개 마루턱에 올랐습니다. 정신이 되살았습니다. 운전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젊은 운전수는 최선을 다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말티고개를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내 머리엔 다시금 조금전에 있었던 이불값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R형!

제가 계룡산록 동학사에 다녀와서 보낸 편지에 그곳 여관 주인의 친절과 여관 주변의 구수한 저녁풍경을 그린 구절이 있었죠? 전 이번에 속리산에 오면서도 밤에는 그런 친절과 구수한 정경이 있을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낙엽을 때서 지은 구수한 팻밥과 무덕무덕 담은 산채나물 그릇을 놓은 밥상을 수수한 차림새의 시골아낙네가 날라다 주길 바랐었습니다. 자꾸만 더 먹으라고 밥이랑 나물을 날라다 줄줄 알았드렸습니다. 밤엔 화롯가에 모여앉아 밥을 구어 먹으며 구수한 이야기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걸로

생각했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으면 연탄가스 염려않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푹 잘 수 있을 걸로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잠자릴 얻지 못하고 일정을 줄이고 이렇게 밤길을 대전으로 달려야 하니 말입니다.

R형!

이틀 날 하루를 전 대전에서 보냈습니다. 탁구 구경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밤차로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근데 차에 올라서 동생이 사준 모주잔지를 입다가 크게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제가 속리산에서 본 정경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R형!

형께서도 그 주잔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수학(修惡)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했다니 기가 찰 노릇아닙니까. 그 신문이 알리는 바에 의하면 수학여행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도 수학(修學)이란 면에서 볼 때 추잡스럽고, 일단 목적지에 가서도 학생들은 밤새워

R형에게!

춤추고, 떠들고, 술타령하고, 선생들은 쫓다에 열을 올리고 한다니 속리산에 흩어진 학생들이 목자 잃은 양 떼가 된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밤새워 쫓다 한 선생들이 어떻게 나서서 학생들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까? 방에는 학생들을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넣고, 밥은 세숫 대야에 반찬은 김치 한 가지만 준다니 그런 대우를 받은 학생들이 반발해서 여관을 부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고, 산에서 비실거리는 것도 있을 법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서서 뜯어 먹는 소개업자도, 폭리를 도모하는 여관 주인도, 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기를 강요하고, 가서는 쫓다 밀친이 떨어졌다고 돈을 꾸라 학생들에게 호령하는 선생들도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전 제 아이들은 수학여

행 안보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하는 한 그럴 작정입니다.

R형!

편지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두세번 밖에 못하는 편지이니까 양해하시고 읽어 주세요.

전 당분간은 집필을 못하고, 형을 교장으로 하는 학교 세울 생각과 이번에 속리산에서 느낀 문제들을 정리하는 사색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아마 날씨가 맵싸지면 제 창작의 붓끝도 다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시 편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께서 내내 건강하시기 와 가족들의 안녕을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틈 있으시면 한번 상경하십시오. 속리산에 혼자 가야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편집후기 ◀

- ...작년말에 선을 보일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늦어졌다. 계획에 실천의 차질...깎박진 백주가 된 것만 같아 아쉽고 송구스럽다.
- ...특집으로 「70년대의 비전」을 내걸었다. 도약의 70년대를 맞이한 우리의 자세, 공군의 진로, 제반정세 등의 추의를 살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다 소라도 플러스가 되기 바라면서.....
- ...「공군」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보다 알찬 「공군」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하여, 원고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공과학, 군사, 경제, 문예, 전반에 걸쳐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



태국 공군 인사국장 내방

유엔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내한한 A.M. Earm 태국 공군 인사국장이 2월 13일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했다.



안전 최우수 부대에 3967부대 표창

제 3967 부대가 국방부 안전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2월 19일 국방장관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전투태세완비

전력증강
전기염마
즉각반응

인화단결

술선실행
공지일체
기강확립

